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이봉환의 문예 활동과 작품 세계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경 근

이봉환의 문예 활동과 작품 세계

지도교수 김 대 중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경 근

이경근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조현설 (인)

부위원장 이종묵 (인)

위 원 이승수 (인)

위 원 김형술 (인)

위 원 김대중 (인)

국문초록

본고는 우념재(雨念齋) 이봉환(李鳳煥, 1710~1770)의 문예 활동과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비적 고찰, 문예 활동에 대한 검토, 작품 세계에 대한 탐구,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 설정이 그 넷이다.

예비적 고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었다. 첫째로, 이봉환의 가계를 조사하고 생애와 교유 관계를 살폈고, 둘째로 그가 남긴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가 글공부하는 집안의 서얼이라는 점, 이 때문에 서얼뿐 아니라 그의 뛰어난 문장 능력을 필요로 한 벌열 사대부들과 밀접하게 교유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봉환의 대표적 문예 활동에 대해 검토하였다. 크게 국외에서의 활동과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나누었고, 국외 활동으로는 이봉환의 두 차례 사행체험을 다루었고, 국내 활동으로는 매사(梅社)에 초청되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살폈다.

1747~48년 통신사 정사의 서기(書記)로서 일본에 간 이봉환은 현지문사들과 시문을 창수하고 필담을 주고받았다. 일본인들 앞에서 주자학 중심의 정통 성리학과 재도론(載道論)을 설파하였는데, 사대부들의 학문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을 이국에서 펼친 것은 이것이 공무(公務)이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자국의 문예와 학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이봉환에게 이 같은 자리는 공적자아(公的自我)의 확충감을 갖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봉환은 1760~61년 동지사 정사의 군관(軍官)으로서 중국에 가게 된다. 통신사행 때와는 달리 문예(文藝)와 관련된 특별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현지인들과 교유하면서 명청(明淸) 시대의 작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정사 홍계희가 중국에서 발견한 책을 조선에 수입하여 출판하고자 하였을 때, 그 책의 서문을 썼다. 이봉환은 정사의 작업을 도움으로써 조선에서 중국의 학술이 축적되고 확장해 가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이봉환의 문예 활동 중 이 두 차례 사행을 강조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사행의 정사가 모두 홍계희(洪啓禧)라는 사실이다. 홍계희는 남양 홍씨의 벌열로서 이봉환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여 그와 긴밀하게 교유하였다.

이봉환은 풍양 조씨 가문 조재호(趙載浩)의 초청으로 매사(梅社)에 참여하여 시를 쓰고 동료들의 시에 평어(評語)를 달았다. 소론의 명문가와 서얼들이 구

성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불우한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개화부터 낙화까지 매화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5명의 구성원이 한 달에 7차례 만나 40수씩 모두 2백 수의 시를 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매화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많은 시를 쓰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고, 이런 다작(多作)을 하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자부하였으며, 시적 대상을 언어로 포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반문하기도 하였다. 현달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은 이 순간만큼은 늘 시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이었고, 이봉환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봉환은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이들의 시에 평어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자(評者)로서의 자신의 면모를 확인하였을 것이며, 동료들의 시공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봉환의 국내에서의 문예 활동 중 매사(梅社)에서 시를 쓴 활동을 강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사 활동 역시 조재호라는 벌열 사대부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두 차례 사행에 홍계희가 이봉환을 발탁한 것처럼, 매사모임에서 조재호는 이봉환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예 활동은 모두 벌열 사대부가 배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봉환의 작품 세계에서는 세 가지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자기 삶을 어떻게 응시하고 있는가, 둘째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셋째는 나와 남을 제외한 외물(外物)을 어떻게 응시하고 있는가이다.

이봉환의 자기 인식은 복잡한 편인데, 자신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 비탄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얻게 된 명성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하위 관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당한 수많은 행역(行役) 길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였고, 속세를 벗어난 삶을 지향하기도 하였다.

이봉환이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는 재주는 있으나 사회적 성취를 거두지 못한 인물들에 대해 연민을 품었고, 자신과 처지가 같은 중서층 문인들과 우정을 나누었으며, 자신의 재주를 인정해 주는 벌열 사대부들과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교분을 나누었다.

사물을 어떻게 관찰하였는지는 주로 매화시에서 이봉환이 무엇을 포착하려고 하였는지 살폈다. 이봉환은 매화시를 통하여 자신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자연 경물을 관찰하면서 인간적 질서 내지 인위적 질서를 벗어난 경지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를 설정하였는데, 그의 시문은 조선

후기 한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을 뚜렷이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그는 김창흡(金昌翕)에서 비롯된 조선후기 문단의 창신풍(創新風) 한시를 계승하여 후대의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에게 이 흐름을 이어준 존재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이봉환은 주로 초림체(椒林體)와 관련하여 서얼로서의 신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채 연구되어 왔다. 동시대인 이규상(李奎象)과 심노숭(沈魯崇)이 초림체의 특징을 거론한 후, 후세의 연구자들 역시 이 관점을 그대로 차용하여 연구의 전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봉환의 문집에 초림체로 된 작품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이규상, 심노숭의 초림체에 대한 견해는 서얼 문학을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일정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이봉환 문학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고안된 시고(試稿)의 성격을 띤다.

주요어 : 이봉환, 서얼, 벌열사대부, 통신사(通信使), 매화시
학 번 : 2009-30007

목 차

Ⅰ. 서론 ····· 1

Ⅱ. 예비적 고찰 ····· 7

1. 가계 ····· 7
2. 생애와 교유 관계 ····· 16
3. 자료 개관 ····· 48

Ⅲ. 이봉환의 문예 활동 ····· 59

1. 통신사행 및 대청사행에서의 활동 ····· 59
   1) 정통성리학과 재도론의 고수 ····· 60
   2) 일본문사와의 교류와 시문창화 ····· 74
   3) 중국 명청대 작가에 대한 탐문 ····· 84
2. 시인으로서의 자각과 매사(梅社) 활동 ····· 94
   1) 불우한 지식인들 간의 결속 ····· 94
   2)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립 ····· 103
   3) 동인들 시에 대한 비평적 음미 ····· 108

Ⅳ. 이봉환의 작품 세계 ····· 114

1. 자기 삶에 대한 응시 ····· 114
   1) 곤궁한 처지에 대한 비탄 ····· 114
   2) 부명(浮名)의 거부 ····· 121
   3) 길 위의 삶에 대한 긍정 ····· 124
   4) 속세를 벗어난 삶에의 지향 ····· 130
2.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 134
   1) 꽃피우지 못한 존재에 대한 연민 ····· 135
   2) 중서층 문인들과의 우정 ····· 140
   3) 신분에 얽매이지 않은 사귐 추구 ····· 159

3. 천기(天機)의 관찰 ····· 174
1) 매화에 투영한 고고한 정신세계 ····· 175
2) 인위적 질서를 넘어선 자연세계 ····· 183

Ⅴ.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 ····· 188

1. 조선후기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의 모색 ····· 188
2. 18세기 창신풍(創新風) 한시의 계승과 발전 ····· 197

Ⅵ. 결론 ····· 207

참고문헌 ····· 212

<부록 1>『우념재시문초』(권1~권6),『우념재시고』 수록시 대조 ····· 219
<부록 2>『매사오영』에 실린 평어(評語) ····· 239
Abstract ····· 250

Ⅰ. 서론

이봉환(李鳳煥, 1710~1770)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서얼 시인이다. 18세기 한국한시사(韓國漢詩史)를 정리하면서 안대회는 이봉환과 남옥을 초림팔재사(椒林八才士)의 대표적 인물로 꼽으면서, 한 세대 뒤의 서얼지식인들의 모임인 백탑시파(白塔詩派)의 선배격 문인들로 든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각각 초림체(椒林體)와 검서체(檢書體)로 정리하였다.[1]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봉환 문학 연구는 신익철, 김경숙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익철은 이봉환이 창안했다는 시체(詩體)인 초림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서얼문사이자 벗인 이인상(李麟祥)과 유력한 벌열인사인 홍봉한(洪鳳漢)가의 구성원들과 주고받은 낙화시(落花詩)를 분석하여 교유 대상이 달라졌을 때 동일한 시적 대상을 읊은 시가 어떻게 다르게 창작되는지를 밝혔다.[2] 그리고 이 논문에서 초림체가 '서얼들의 억울한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언급을 환기하고, 이봉환의 불행한 처지가 낙화시에 드러나는데, 이인상과 함께 읊은 시에서는 그 느낌이 농후하지만, 홍봉한 일가와 함께 읊은 시에서는 그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에 주목하였고, 이러게 된 이유를 젊은 시절에 가졌던 울분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데서 찾았다. 이후 신익철은 구체적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초림체의 특징을 찾는 연구로 나아갔는데,[3] 1) 신분적 질곡으로 인한 비애의 정조, 2)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수용과 첨신(尖新)한 표현미, 영심(靈心)·혜식(慧識)의 강조와 경물(景物)의 주정화(主情化)를 초림체 한시의 특징으로 꼽았다. 또 신익철은 『매사오영』(梅社五詠)에 실린 서발(序跋), 시, 시평(詩評)을 분석하여 벌열 가문과 서얼들 간의 교유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4]

김경숙은 우선 당시 별로 주목되지 못했던 통신사행의 제술관과 서기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세계를 조망하였다.[5] 김경숙은 제술관과 서기, 즉 사문사(四文士)에 해당

---

1) 안대회, 「18세기 후기 첨신풍(尖新風)의 확산」,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279~387면;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제2부 4장 「서얼 시인의 계보와 시의 사적 전개 - 18세기 참신(斬新)한 시풍의 형성과 관련하여 -」
2) 신익철, 「李鳳煥의 椒林體와 「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24, 한국한문학회, 1999.
3) 신익철,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 - 李鳳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4) 신익철,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한국문학연구』3, 한국문학연구소, 2002.
5) 김경숙, 「18세기 朝鮮通信使 製述官 및 書記의 文學世界 - 서얼의 신분과 문학관을 통해 -

하는 이들이 사대부서얼(士大夫庶孼)임을 간파하고, 이들의 신분적 위치와 인식에 대해 살핀 후, 문학관을 고구(考究)하였다.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면서 조일문화교류(朝日文化交流)의 일선에서 종사한 서얼 문사에 대한 조망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 서얼은 주로 양반사대부를 가리키며, 중인은 주로 기술직중인(技術職中人)을 일컫는바, 이들을 주로 중서(中庶)라고 통칭해온 학계의 관행을 지적하며 사대부-중서의 이원구도를 사대부-서얼-중인 삼자구도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이 입장은 그의 박사논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그는 박사논문에서 서얼 문사 이세원(李世愿, 1674~1744), 신유한(申維翰, 1681~1752), 강백(姜栢, 1690~1777), 김도수(金道洙, 1701~1733) 네 명을 대상으로 서얼문사의 위상과 의식 등을 살피고, 이들의 문학을 서얼문학이라고 하였다.[6] 중인 및 서얼을 통칭하여 중서(中庶)라고 지칭해 왔기에, 이런 주장은 사대부문학과 중인문학 사이에 서얼문학을 정위(定位)하여 삼자간의 동이(同異)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서얼의 사회적 진출과 세력화를 논하고 있는 전반부에서는 서얼금고(庶孼禁錮)와 관련된 법을 검토하고, 서얼들의 숙원인 통청(通淸)을 향한 지속적 노력의 과정을 제시하여 18세기에 서얼들이 새로운 문학담당층으로 부각하는 것이 평지돌출의 사건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도 하였고, 대표적인 서얼 문사들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이들간의 구체적 관계를 적시하고, 숙종대 이후의 서얼들의 과거급제 및 관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속연구를 하는 데 참조할 만한 자료를 많이 남겼다는 미덕이 있다.

이후 김경숙은 18세기에 시단을 주도한 창신풍(創新風)이 '이세원 집단→이봉환을 위시한 초림집단→백탑시파'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한 후, 이 중 특별히 초림집단의 창신풍에 대해 논하였다.[7] 김경숙 자신의 말처럼 앞서 신익철의 연구가 시를 대상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한 것이라면, 이 논문은 이봉환의 시와 문을 동시에 다루면서 창신풍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8]

」, 『온지논총』1, 온지학회, 1995. 이 논문은 후에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소명출판, 2005)에 「조선통신사 제술관 및 서기(書記)의 문학세계」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6) 김경숙, 「18世紀 前半 庶孼 文學 硏究」,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9. 이 논문에 후에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소명출판, 2005)에 「서얼문사 집단의 형성과 그 문학적 전개」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7) 김경숙, 「朝鮮後期 漢詩에 나타난 創新風 연구 -椒林集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이 논문은 후에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소명출판, 2005)에 「초림집단(椒林集團) 한시에 나타난 창신풍(創新風)」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한편,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소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연구자로 이현일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봉환의 손자 동번(東樊) 이만용(李晩用)이 당시 실권자인 황산(黃山) 김유근(金逌根)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였다.[9]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물고된 이봉환의 죽음과 이와 관련된 집안의 몰락 및 대를 이은 그 신원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봉환의 최만년(最晩年)과 그의 죽음 이후 후손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즉 이봉환-이명오(李明五)-이만용 3대가 비로소 연구자의 시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현일은 후속 논문에서 이봉환의 아들 이명오의 장편시 「만술」(漫述)을 분석하여 이봉환의 만년의 행적 및 물고된 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신산한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10]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명오의 시세계를 분석한 논문[11]을 발표한 후, 이봉환 3부자의 칠언율시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연구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12]

여희정의 연구는 이봉환의 문학과 관련된 유일한 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3] 이 논문은 이봉환의 시세계의 특징을 1. 현실 인식과 삶의 지향성, 2. 산수 실경(實景) 묘사와 천기(天機)의 체험, 3. 관매(觀梅)의 아취(雅趣)와 자연 인식, 4. 첨신(尖新)한 표현미의 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봉환의 두 차례 사행 시절이 분석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으나, 시사(詩史)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봉환의 시적 특징을 요령 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현일은 이봉환의 낙화시(落花詩)를 연구한 신익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시사에서 성행한 낙화시를 검토하고, 조선후기 한시사에 수용된 낙화시의 의미를 탐구하였다.[14] '낙화시'의 창작이 서울에서 성행한 것이 명대 강남 문화에 대한 애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현일의 논지는 비교문학적 시각에서 낙화시를 검토할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낙화시 및 매화시의 창작은 시사(詩社)의 산출물인 경우가 많다. 심경호는 이봉환이 참석한 매사(梅社)의 핵심구성원인 조재호(趙載浩)의 정치적 상황과 시세계를 규명하였고,[15] 이봉환이 교유한 조재호와 홍봉한(洪鳳漢) 일

---

8) 김경숙이 거론하고 있는 신익철의 논문은 신익철,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이다.
9)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 해석』20, 문헌과 해석사, 2002년 가을.
10) 이현일,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54, 문헌과 해석사, 2011년 봄.
11) 이현일, 「박옹 이명오 시 연구(1)」, 『한국한시연구』19, 한국한시학회, 2011.
12)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칠언율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58, 한국한문학회, 2015.
13) 여희정, 「李鳳煥 漢詩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4) 이현일, 「「落花詩」의 계보」, 『대동문화연구』69, 대동문화연구원, 2010.

가의 시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16]

이봉환이 1747~48년에 일본을 사행한 무진통신사행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통신사와 관련된 연구성과도 눈에 띈다. 무진통신사행을 중심에 놓고, 당시 조선 문인의 일본인식을 연구한 연구,[17] 대영박물관에서 소장중인 무진통신사 <행렬회권>(行列繪卷)을 소개한 연구,[18] 당시 사행 과정에서 의원끼리 주고받은 필담을 소개한 연구[19]를 꼽을 수 있다. 조선후기 한일 양국 사이의 서적 교류를 탐구하기 위해 사행록을 인용한 연구가 있으며,[20] 통신사의 고학(古學) 인식을 다룬 연구도 있다.[21] 또 당시 정사 서기(書記)로 수행한 이봉환의 한글 편지를 모은『우념재수서』(雨念齋手書)를 소개한 연구도 존재한다.[22]

그리고 종사관 조명채(曺命采)가 쓴 사행록『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23] 정사 홍계희(洪啓禧)의 자제군관인 홍경해(洪景海)가 쓴『수사일록』(隨槎日錄)을 중심으로 무진통신사행과 일본문사의 교유를 연구한 논문도 있고,[24] 이봉환, 이명오 부자의 연이은 통신사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하며,[25] 이봉환의 일본과 중국 사행을 비교한 연구도 제출되었다.[26]

---

15) 심경호,「黨伐의 場에 핀 梅花」,『한국한시연구』4, 한국한시학회, 1996.

16) 심경호,「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민족문화연구』31, 민족문화연구소, 1998.

17) 정장식,「英祖代 통신사와 이덕무의 일본 연구」,『일본문화학보』23,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및「1748年 通信使와 日本에 대한 認識 變化」,『인문과학논집』31,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18) James B. Lewis,「대영박물관 소장 1748년 朝鮮通信使行列 繪卷」,『한일관계사연구』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19) 김형태,「의학 관련 필담창수집의 구성 및 내용 특성 연구 - 1748(戊辰)년『兩東筆語』를 중심으로」,『조선통신사연구』9, 조선통신사학회, 2009 및「1748년 제10차 戊辰通信使 의원필담의 성격 변천 연구 -『對麗筆語』와『朝鮮筆談』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20) 김경숙,「조선후기 한일 서적 교류 고찰」,『한중인문학연구』2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후마 스스무, 하정식 外 역,「조선통신사와 일본의 서적」,『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261~281면.

21) 후마 스스무, 하정식 外 역,「조선통신사의 일본고학 인식」,『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167~214면.

22) 백두현,「한글 편지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의 노정」,『선비문화』5 남명학연구원, 2005; 한태문,「<우념재수서>소재 통신사행 관련 편지 연구」,『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23) 한태문,「18世紀 通信使의 日本見聞記<<奉使日本時聞見錄>>硏究」,『동아인문학』3, 동아인문학회, 2003.

24) 이경근,「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 - 홍경해의『수사일록』을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한편, 통신사 필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구지현은 1748년 통신사와 일본문사들이 만나서 어떻게 지식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본에서 간행된 여러 필담집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는데,[27] 이 논문에 실려 있는 1748년 사행관련 필담창수집 목록은 후속세대의 연구를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28] 또 이 필담창수집의 내용 중 이봉환의 발언을 위주로 하여, 일본 문사와 벌인 의관과 문명 논쟁에 주목한 연구도 눈에 뜨인다.[29]

지난 20여 년간 이봉환에 대한 연구성과의 주제는 상세(詳細)하고 분량은 다대(多大)한 편이다. 본고는 개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종합한 새로운 연구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봉환은 서얼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동시대인인 이규상과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은 이봉환의 특별한 시체(詩體)로 '초림체'(椒林體)를 주목한 바 있는데, 현대의 연구자들 역시 이봉환과 동시대인인 이들의 평가를 몹시 심중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봉환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분적 특별성이 지나치게 부각된 것이다.

물론 이봉환이 서얼이라는 사실은 몹시 중요하고 본고에서도 이 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서얼은 사대부이지만, 모계 신분의 영향으로 양반사대부와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관직 진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출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궁핍하였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불우함과 울분, 슬픔 따위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런 감정들은 자신과 비슷한 소외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유할 때 주로 토로되곤 하였다. 정치적 현장에서 밀려난 양반사대부나 같은 처지의 서얼, 그리고 중인들이 주변에 있었다. 이봉환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신분적 소여(所與)로서의 '서얼'이라는 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점은 그가 시인이라는 사실이다. 글을 읽는 집안의 후예로서 사대부들처럼 현달하지 못하였으나, 이봉환은 시문을 잘 하였다. 시문을 통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서얼, 중인 들과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사대부 벌

---

25) 신로사, 「이봉환·이명오 부자의 일본 사행에 관하여」, 『문헌과 해석』54, 문헌과 해석사, 2011년 봄.

26) 김경숙, 「18세기 지식인의 일본과 중국 사행 인식 비교」,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5.

27) 구지현,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 일본 학파에 따른 교류 양상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28) 구지현, 위의 논문, 101~102면.

29) 강혜규, 「18세기 통신사 필담 『來庭集』에 보이는 衣冠 논쟁」,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2017.

열들과도 활발히 교유하였다. 서얼의 관직 진출이 순조롭지 않은 이 무렵, 문재(文才)가 있는 서얼은 자신의 글 실력을 발신(發身)의 수단으로 삼거나 호구지책(糊口之策)의 마련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자신의 능력을 매개로 하여 사대부 벌열들의 주변에 서얼지식인들이 모여서 교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봉환이 많은 벌열 사대부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학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가계, 생애 및 교유 관계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를 개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논의의 전제로 삼아 이봉환의 문예 활동과 이봉환의 작품 세계를 탐구해 갈 것이다.

18세기 지식인으로서 해외체험을 한 이는 몹시 드물다. 이봉환처럼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땅을 밟아본 이는 더욱 희귀하다. 이 두 차례 해외체험은 이봉환이 평생 겪은 일 중 몹시 진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봉환은 조선을 벗어난 이 두 이역에서 현지 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교유의 흔적이 그때 쓴 시문과 필담에 담겨 있다. 이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그의 문예 활동의 첫 번째 항목으로 삼기로 한다. 한편, 이봉환은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는 매사(梅社)에 참여하여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봉환은 조재호(趙載浩)라는 소론 사대부와 그의 조카 조유진(趙維鎭), 그리고 서얼 지식인 채희범(蔡希範), 남옥(南玉)과 같이 시를 지었다. 또 이봉환은 다른 네 명이 쓴 시에 평어(評語)를 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와 평어가 『매사오영』(梅社五詠)에 전한다. 국내에서 가진 이봉환의 문예 활동 중 본고는 이 매사(梅社)에서의 활동을 주목하여 그의 문예 활동의 두 번째 항목으로 삼기로 한다.

문예 활동을 검토한 후에는 이봉환의 작품 세계를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가, 사물이나 자연을 어떤 시선으로 응시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봉환이 남긴 시문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를 탐색해 볼 것이다. 앞서 본고는 이봉환이 서얼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시인이라는 점을 연구의 전제로 삼는다고 한 바 있다. 서얼시인 이봉환이 '서얼'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시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 그의 시문이 문학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 예비적 고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 고찰로서 가계 및 생애와 교유 관계를 순서대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 같은 일은 한 인물의 연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나,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봉환의 교유 관계에서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신분상의 차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봉환의 교유 대상을 중서인(中庶人)과 사대부 벌열의 둘로 나눈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1. 가계

이봉환은 전주이씨(全州李氏) 선성군파(宣城君派)의 10세손이다.[30] 선성군 이무생(李茂生, 1392~1460)은 조선의 2대왕 정종(定宗)의 사자(四子)로, 세 명의 부인을 얻어 9남 3녀를 얻었는데, 이 중 8남 도성수(陶城守) 이천정(李千丁, 1458~?)이 이봉환의 직계 조상이다. 이후, 부흥령(復興令) 이미수(李眉壽), 의령도정(義寧都正) 이윤조(李胤祖, 1526~1571)로 대가 이어지는데, 이윤조의 아들이 체소(體素) 이춘영(李春英, 1563~1606)이다.

이춘영은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칭송되던 선조(宣祖) 시기에 활약한 문인이었고,[31] 1591년 정철(鄭澈)이 선조에게 세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삭탈관직 당하게 되자 그 여파로 삼수(三水)에 유배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는 의주로 피신한 선조를 따라가서 극력으로 모신 충신이기도 했다.

교산(蛟山) 허균(許筠)은 "이춘영은 어려서 기운이 스스로 빼어나다고 하였고, 또 재주를 자부하였다. (…) 사람됨을 묵직하게 하지 않아서 남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30) 이봉환의 가계를 작성하기 위해 주로 두 종류의 족보를 참조하였다. 주로 참고한 족보는『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編纂委員會, 回想社, 2001)이다. 다만 이 책으로는 嫡派와 庶派를 구별할 수 없는바, 이 점을 참고하기 위해『宣城君派譜』(丁卯譜)을 참조하였다. 이 책은 1807년(丁卯年)에 4책으로 편찬한 족보를 그대로 1998년에 영인복간한 책으로, 서자의 경우 이름 위에 '庶子'라고 표기되어 있다.

31) 선조 연간의 문인으로 자는 실지(實之), 호는 체소(體素)이다.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정철(鄭澈), 권필(權韠), 이안눌(李安訥), 허균(許筠), 김상헌(金尙憲) 등과 교유하였다. 이춘영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는 김남기,「李春英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8, 한국한시학회, 2003 참조.

면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목을 천하게 여겨서 이름을 당시에 날리지 못하였고 끝내 추천하여 뽑아쓰는 이가 없어서 결국 세상에 기용되지 못하고 뜻만 품은 채 죽어갔다."[32]라고 그의 뇌사(誄辭)를 지은 적이 있다. 이춘영은 훌륭한 문학적 재주에도 불구하고 고오(高傲)한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불행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신흠(申欽)이 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흠은 부친 이춘영의 문집에 서문을 써주기를 부탁하는 장자(長子) 이시재(李時材)에게 자신을 이춘영의 일생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서문을 쓰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33] 신흠이 요약한 이춘영의 조정과 문단에서의 성취는 다음과 같다.

> 지금과 옛날의 여러 백가들의 글을 포폄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취하였다.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미 천신선생(薦紳先生)들 사이에서 재주를 보여 일세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또 몇 해 후에는 처음 급제하여 조정에 올라 한림(翰林)이 되었으나 금방 날개가 잘린 채 슬픔을 읊었다. 그런데 또 1년 뒤에 서용되어 낭서(郞署) 사이를 맴돌더니 금방 또 문망(文罔)에 걸려 두 번씩이나 먼 변지로 귀양갔고 또 몇 년 뒤 다시 서용되어 겨우 4품(品)에 올랐다가 죽었다.[34]

신흠이 보기에 이춘영은 문학적 재주를 보여 등용이 되었으나 벼슬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곧 떠나는 일을 반복하는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성취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은 성격이 직설적이고 소탈하였고, 분방하였고 검속(檢束)이 적었다. 남의 잘못을 면박하였는데, [상대의]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마구 뛰어도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았다. 공이 벽에 막히고 흔들림을 당하고, 곤경에 빠져서 다시 떨치지 못하였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리라.[35]

---

32) "李實之少以氣自豪, 且負其才. (…) 唯其人不自貴重, 未免號鳴大咤於人, 故人賤其目見, 而名位不能動於時, 遂無奬詡推拔者, 終不售於世, 齎志以歿."(許筠, 「李實之誄 幷引」, 『惺所覆瓿稿』권15)

33) "吾能知公之生歿, 惡不實其跡?"(申欽, 「體素集序」, 李春英, 『體素集』)

34) "衮鉞今昔藪百家而獵取之. 未數年, 已掉鞅薦紳先生間, 爲一世重. 又數年, 釋褐登廷, 爲翰林, 俄鎩翮賦牢愁矣. 又一年而敍, 徘徊郎署, 旋復扞文罔, 再遷于裔. 又數年而敍, 纔躋四品卒矣." (申欽, 「體素集序」, 李春英, 『體素集』)

35) "公性易直疏亮, 放逸不拘檢. 面斥人過, 至顔騂心悸不饒也. 挫樞敲撼, 淪沒不振, 蓋坐是也."

한 인물의 부침(浮沈)의 이유를 오로지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으나, 신흠의 이 언급은 위에서 검토한 허균의 평가와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춘영은 문학적 재주가 뛰어났고 의견이 다른 이들과 쉽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용납되지 못했다.

그가 보인 문학적 재능과 이룩한 성취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춘영의 자손들은 선조 이춘영의 문학적 업적을 대대로 자랑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김상헌(金尙憲)은 "한 시대의 명성을 어린 시절 떨쳐서 / 한원(翰苑)에서 문장으로 임금님 보필하였지"[36]라고 하여 어릴 적부터 빼어난 이춘영의 명성과 공직에서 문학적 재주를 펼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데, 후손들에게도 이춘영은 문학적 능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되곤 하였다. 이춘영의 문집으로는『체소집』(體素集) 3권 3책이 전한다.

이춘영의 아들은 셋으로, 이시재(李時材, 1588~1661), 이시해(李時楷, 1600~1657), 이시매(李時楳, 1603~1667)인데, 이 중 3남 이시매가 이봉환의 고조(高祖)이다. 이시매는 자는 자화(子和), 호는 육은재(六隱齋)로, 병자호란 패전 후 소현세자를 모시고 청나라 심관(瀋館)에서 8년 동안 억류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시매의 아들은 이명장(李明長), 이태장(李台長), 이문장(李文長), 이세장(李世長), 이수장(李壽長) 다섯인데, 이 중 이세장과 이수장이 서얼이다. 이봉환 가문이 낙대(落代)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증조(曾祖) 이수장(李壽長, 1639~1700)은 호는 시남(詩南), 자는 시사(詩史)로 와서별제(瓦署別提)를 지냈다. 이봉환의 조부는 이익빈(李益彬, 1662~1726)으로, 호는 국사(菊史), 자는 질보(質甫)이다. 전생서직장(典牲署直長)을 지냈다.

이봉환의 부친은 이정언(李廷彦, 1691~1743)으로, 자는 미백(美白)이다. 1734년 9월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로서 입시(入侍)하여 윤대(輪對)한 바 있는데, 거기서 아뢴 바에 따르면, 1713년에 소과에 급제하였고, 1730년에 남부참봉(南部參奉)이 된 이후 현직 예빈시주부에 오르기까지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천릉도감(遷陵都監)의 분차관(分差官),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 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의 관직을 전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37]

한편, 이정언은 1732년 윤5월 17일에 건원릉직장(健元陵直長)이 되었으나, 이튿날

(申欽,「體素集序」, 李春英,『體素集』)

36) "一代聲華擅妙年, 翰垣簪筆侍經筵"(金尙憲,「哭李正郎實之」,『淸陰集』권5)

37)『承政院日記』, 1734년 9월 24일 자 기사 참조.

서얼이기 때문에 능관(陵官)을 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관사(官司)의 직장으로 상환(相換)해야 한다는 행도승지(行都承旨) 이춘제(李春躋)의 말에 따라 며칠 뒤 선공감직장으로 관직이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38]

이정언의 아내 여흥박씨(驪興朴氏, 1690-1756)는 1696년 진사가 된 박수항(朴粹恒, 1669~?, 자는 士久)의 딸이었다. 이봉환은 모친에 대한 효성이 각별하여 통신사행을 떠나면서 꿈 속에서 뵌 일을 시로 기록하고[39] 사행 도중에는 수차례 모친께 한글로 된 편지를 써서 안부를 여쭙기도 하였다.[40]

1743년에 이정언이 죽었을 때, 이봉환의 벗이자 인척인 이인상(李麟祥)은 "오늘 새벽바람과 이슬 서늘하더니 / 이노(李老) 그만 세상을 하직했고나 / 평생 단출한 미관(微官)을 지냈지만 / 빛을 숨긴 미불(米芾)이었지 / 조그만 재주조차 안 드러냈으니 / 그 누가 훌륭한 이름 전해 줄거나 / 순박한 모습 예스러웠고 / 화평한 심성 순전(純全)하였네"[41]라고 시작하는 만시(挽詩)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한 바 있다.

이 시는 "슬퍼할 백발의 그 분은 없지만 / 대를 잇는 자식은 있군."[42]이라고 하여, 이정언은 죽었지만 아들 이봉환이 남아 있음을 환기하였고,[43] "눈물 흘리며 명정(銘旌)을 씀은 / 통가(通家)의 옛 소년이어서라네."[44]라고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집과 이정언의 집이 대대로 통교(通交)를 하고 있는 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언은 이인상 종고모 할머니의 사위였기 때문에 이인상과 인척간이 되기도 한다.[45] 이인상이

---

38) 『承政院日記』 1732년 윤5월 17일 자, 1732년 윤5월 18일 자, 1732년 윤5월 21 자 기사 참조.

39) "阿兒夢長安, 阿母夢滄海, 髣髴前宵覿, 言笑藹舞綵. 南廂列圖史, 松牖湛月彩, 堂萱憂可觸, 陔蘭馨可採"로 시작하는 오언고시에서 꿈 속에서 어머니를 뵌 일을 회상하면서, 어머니 앞의 자신을 70의 나이에도 고령의 어머니를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초(楚)나라의 현인 노래자(老萊子)에 비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鳳煥, 「自述」, 『雨念齋詩文鈔』권2)

40) 이봉환의 언간자료 「우념재수서」(雨念齋手書)가 가람 이병기 선생이 편찬한 『근조내간선』(近朝內簡選)에 근대식 활자로 실려 있다. 이봉환의 언간(諺簡) 25건이 실려 있는데, 이 중 19건이 어머니께 올린 편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백두현, 「한글편지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의 노정」, 『선비문화』5(남명학연구원, 2005), 한태문, 「<우념재수서>소재 통신사행 관련 편지 연구」, 『한민족어문학』57(한민족어문학회, 2010) 403~406면 참조.

41) "今晨風露冷, 李老入重泉. 沒世伶官簡, 和光米氏顚. 曾無微伎見, 誰許盛名傳. 樸野貌仍古, 冲夷性固全. (…)"(李麟祥, 「李主簿廷彦挽」, 『凌壺集』 권1) 번역은 박희병 역, 『능호집』상, 돌베개, 2016, 163~165면의 것을 참조했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42) "無人憐白髮, 有子托靑氊."(李麟祥, 위의 글, 위의 책)

43) 이봉환의 맏아들 이명오(李明五)는 1750년생으로, 이정언이 사망한 1743년은 아직 그가 태어나기 전이다. 이정언은 아들이 이봉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읊은 '대를 잇는 자식'은 곧 이봉환이다.

44) "泣涕書丹旐, 通家舊少年."(李麟祥, 앞의 글, 앞의 책)

끝에 망자와의 인연을 굳이 밝히는 것은 망자와의 관계가 가까움을 밝히고, 만사의 내용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글에 따르면 이정언은 재주가 있었으나 변변치 못한 관직을 전전하였고, 특히 그림에 벽(癖)이 있었으며, 순박한 모습과 화평한 성격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봉환은 결혼을 세 번 하였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안동김씨(安東金氏, 1708~1732)로 현감 김창발(金昌發)의 딸이다. 김창발은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얼(孼)4촌으로,[46] 소촌찰방(召村察訪),[47] 전옥서주부(典獄署主簿), 지평현감(砥平縣監)을 지낸 바 있다.[48]

첫 부인 안동김씨가 죽었을 때 이봉환은 다음과 같이 5언절구 네 수를 썼다.

서리 내린 새벽에 짧은 잠 깨고 보니
등불 아래로 갖은 슬픔 몰려드네.
슬퍼하며 부질없이 소리없는 눈물 흘려도
잊히진 않고 자꾸만 생각나네.
霜晨回斷夢, 燈夜集羣悲.
惻惻空幽淚, 難忘復易思.

흐르는 물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시원한 소리에 슬픔이 많구나.
푸른 산은 온통 봄빛이거늘
죽은 나무만 홀로 꽃이 없다네.
流水歸何處, 泠泠悲響多.
靑山一春色, 死木獨無花.

사랑채에 뜬 달은 혼이 이른 듯한데
서재는 비어 자나 깨나 슬프네.
거문고 마음이 헛되이 끊어졌으니
규방의 종자기를 잃었서라네.

---

45) 이 점은 박희병 역, 『능호집』상, 돌베개, 2016, 165면 각주12와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1회화편, 돌베개, 2018, 243면 참조.
46) 『承政院日記』1723년 5월 13일자 기사 참조.
47) 『承政院日記』1720년 5월 19일 자, 1720년 6월 2일자 기사 참조.
48) 『承政院日記』1725년 7월 7일 자 기사 참조.

廂月精靈到, 齋虛夢寐悲.
琴心空斷絶, 閨閤失鍾期.

자네 어찌 그리 박복하였던가.
순전한 마음 나는 자네만 못하지.
연기처럼 아련한 8년의 자취
눈물 흘리면서 벽 사이에 쓰네.
薄福君何甚, 純心我不如.
烟空八年跡, 淚灑壁間書.

「느낌을 적다(書感)」(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1수에서는 부인 안동김씨의 부재로 비롯되는 슬픔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읊었고, 제2수에서는 안동김씨가 봄날 떠나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꽃 없이 죽은 나무 한 그루에 비유하여 안동김씨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음을 드러냈다. 제3수에서는 안동김씨가 곧 자신의 지음(知音)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부재를 슬퍼하고 있고, 제4수에서는 아내의 순진한 성품과 요절함을 대비시킨 후에, 8년 동안의 자취를 쓴다고 하여 자신과 안동김씨가 8년 동안 살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안동김씨는 1732년에 죽었으니 이 둘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것은 1724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부인 안동김씨와는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 만한 시가 하나 더 있다. 이 시는 부인과 사별한 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쓴 시로 보인다.

장동(壯洞)을 지날 때면 늘 서글퍼지니,
유인의 집이 여기 있어서지.
그대가 떠나고 하릴없이 세월이 흘러,
꿈에서나 주렴, 휘장 그대로구나.
모습이 멀어지면 깊이 생각해 떠올리고
마음이 슬픈 줄은 홀로 누우니 알겠네.
이제 살던 집터를 지나면서
옛날의 나무에 눈물을 뿌리네.
壯洞每惻惻, 孺人家在玆.
存亡空歲月, 魂夢舊簾帷.
貌遠深思現, 情悲獨臥知.

如今過宅址, 淚灑故林枝.

「그리움이 생겨서(感懷)」(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첫 부인 안동김씨가 죽은 뒤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다가 장동 근처를 지나다가 생긴 추모의 정을 읊고 있다. 함련에서 '그대가 떠나고 나서도 공연히 세월이 흘러갔으나'라고 한 것은 아내가 죽은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뜻일 것이고, 경련에서 '홀로 돌아누웠지'라고 읊은 것을 통해 이 시가 첫부인 안동김씨를 여의고 재취(再娶)하기 이전에 쓰여진 시임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의 두 번째 부인은 반남박씨(潘南朴氏, 1716~1742)로, 박두삼(朴斗三)의 딸이다. 첫 부인 안동김씨를 여읜 1732년 이후 얼마간 혼자 살다 재취하여 1742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남박씨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첫 부인 안동김씨와 마찬가지로 소생(所生)을 남기지 않았다.

이봉환의 세 번째 부인은 연일정씨(延日鄭氏, 1724~1793)로, 정찬효(鄭纘孝)의 딸이다.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차례대로 이명오(李明五, 1750~1836), 이숭오(李崇五, 1753~1830), 이경오(李敬五, 1757~1782), 이건오(李建五), 이상오(李尙五)이다.[49]

이명오는 호는 박옹(泊翁), 자는 사위(士緯)로, 21세 되던 1770년 부친 이봉환이 사도세자의 묘에 정조가 참배를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최익남(崔益男) 옥사에 연루되어 장살(杖殺)되자, 강진으로 유배되어 2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2년 만에 방환한 뒤에는 김포에 세거하면서, 부친의 신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신의 가문과 부친 이봉환의 일생에 대한 회한이 잘 나타나 있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50]

(…)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으나
대를 이어 청렴하게 살았다네.
3백년 동안 선비의 집안으로

49) 그런데 『승정원일기』 1770년 11월 26일 자 기사에는 이봉환이 물고(物故)되었고, 다섯 아들이 각처로 유배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다섯 아들의 이름은 족보의 이름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중 경오(敬吾)·명오(明吾)·숭오(崇吾)·상오(常吾)는 각각 경오(敬五), 명오(明五), 숭오(崇五), 상오(尙五)의 오기인 듯하고, 회심(會心)은 건오(建五)를 가리키는 듯하다.

50) 이 시 전체의 분석은 이현일,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54, 2011년 봄, 문헌과 해석사에 자세하다. 시의 해석도 이 논문의 것을 참조하였고, 일부 수정한 곳이 있다.

글 읽는 일 끊어지지 않았네.
선군께서 뜻을 굳게 세우셔서
나라 위해 의롭게 죽고자 하셨네.
문장은 여기로 여겼지만
처세에 오히려 누가 되었네.
빈궁하게 아랫것들과 거처함에
당시 재상들의 욕을 많이 들었지.
가슴에 품은 호연지기는
외롭게 기탁할 곳 없었네.
평생 살림 돌보지 않으셨고
미관말직을 우습게 여겼지.
남들 따라 원유(遠遊)를 떠나셔서
애오라지 만년의 마음을 달랬네.
푸른 바다는 땅을 치며 흐르는데
요동벌은 하늘에 붙어 보였네.
만년의 삶은 점점 쓸쓸해졌으니
이름을 날릴수록 더욱 신산해졌네.
재상들과의 교유가 끊기고
벗들은 푸른 산에 묻혔네.
사방에는 말할 사람 없고
책만 남은 집 몇 칸 남았네.
我家雖貧寒, 累世傳淸節. 衣冠三百季, 讀書綿不絶.
先君立志苦, 爲國當死義. 文章已其賸, 應世更爲累.
貧窮處下流, 多遭時宰詈. 浩然蟠胷氣, 踽凉無所寄.
平生少經營, 脫略哂微官. 因人成遠遊, 聊復慰歲闌.
滄溟撲地流, 遼野倚天看. 暮境漸廓落, 高名益辛酸.
交際失黃閣, 故人掩靑山. 環顧無可語, 圖書屋數間.

「되는 대로 읊다(漫述)」, (李明五, 『泊翁詩鈔』 권1)

이명오는 자신의 가문이 오랜 세월동안 대를 이어 청렴하였고, 글을 읽으면서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런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부친 이봉환도 국가에 의(義)를 바치고자 애를 썼음을 강조한 후, 문장은 오히려 여기(餘技)라고 겸사하고

는 이 때문에 세상살이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봉환이 문학적 능력 덕분에 벌열이나 유력 인사들과 교유할 수 있었으나, 이 일의 결과가 언제나 좋게 맺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하류에 거처하면서 당시 재상들의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는 말은 미천한 처지였지만 의로운 일에는 굴신하지 않았던 이봉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결과로 돌아온 것은 재상의 꾸지람이었다. 이봉환은 호연지기를 펼쳐 보지도 못하였고 가슴 속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평생 살림을 돌보지 않았으면서도 애써 관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음은 그의 고고한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떠난 원유(遠遊)는 늘그막의 위로가 되었다. 바다와 요동벌은 각각 일본과 중국을 가리키는데, 이봉환이 38~39세 때와 51~52세 때 수행한 통신사와 동지사 사행을 이르는 말이다. 이봉환이 통신사를 다녀온 것은 30대 후반의 일이었기 때문에 꼭 그 이후를 노경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연행 이후에도 국내에서 행역(行役)을 많이 다녔음을 생각해 보면, 원유가 꼭 두 차례 사행만을 이르는 것은 아닐 듯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둘이기 때문에 굳이 밝혀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유를 다녀온 뒤의 이봉환의 모습에 대해 이명오는 '만년의 삶은 점점 쓸쓸해졌고 / 높은 이름 탓에 더욱 신산해졌네'라고 하였다. 만년이 되었을 때 그는 비교적 명성을 가졌던 듯하지만, 그만큼의 신산한 삶 역시 그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지체가 달랐음에도 자신과 교유를 유지하던 재상들은 이제 교유를 끊게 되었고, 벗들은 죽어서 이봉환을 떠났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는 대화를 나눌 이가 없었다. "圖書屋數間"은 서책을 벗삼아 고독하게 여생을 보낸 만년의 선친에 대한 이명오의 기억이다.

이 시는 주로 선친의 억울한 면모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51] 이봉환의 일생 가운데 그간 거둔 일련의 성취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명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자식의 눈으로 본 이봉환의 일생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바가 적지 않다.

박옹 이명오는 1811년 부사서기(副使書記)의 자격으로 신미통신사(辛未通信使)를 수행함으로써[52] 선친 이봉환의 통신사행을 어느 정도 추체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

51) 이현일은 이 시가 선친 이봉환의 억울한 죽음, 그에 연루된 다섯 형제의 투옥 및 귀양살이, 유배지에서의 고초, 해배 뒤 닥친 집안의 어려움 등을 읊고 있다고 하였다. 이현일, 위의 글, 192면.

52) 신미통신사행은 1811년 2월에 출발하여 윤3월 츠시마 후츄(府中)에 도착하였고, 6월에 회정(回程)하여 7월에 복명(復命)하였다. 전례대로 에도가 아니라 츠시마에서 국서가 전달되었는

이고, 그보다 2년 전인 1809년에는 부친 이봉환이 복권되었는데, 이는 이봉환이 죽은 지 40년 만이고, 이명오가 본격적으로 신원운동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53] 문집으로는 『박옹시초』(泊翁詩抄)가 전한다.

이명오는 부친 이봉환의 벗 윤창후(尹昌垕)의 딸 남원윤씨(南原尹氏)와 결혼하여 아들 이만용(李晩用, 1792~1863)을 낳았다. 자는 여성(汝成), 호는 동번(東樊)으로 정약용(丁若鏞) 등과 교유하였다. 장남이 이지형(李之衡, 1810~1849)인데, 현전하는 『우념재시문초』를 간행할 때 글자를 대조하여 편집한 바 있다.[54] 이만용은 문집 『동번집』(東樊集)을 남겼다.[55]

2. 생애와 교유 관계

1) 생애

이봉환은 1710년에 태어나서 1770년에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활동 시기는 주로 영조 연간(1724~1776)에 걸쳐 있다. 삶의 굵직한 이력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나이	사건	비고
1	1710	1	출생	

데, 이를 역지빙례(易地聘禮)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로사, 「신미(1811) 통신사행과 문화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23, 우리한문학회, 2010, 472~480면 참조. 특히 이봉환과 이명오의 통신사행에 대해서는 신로사, 「이봉환·이명오 부자의 일본 사행에 관하여」, 『문헌과 해석』54, 2011년 봄, 문헌과 해석사 참조.

53) 이에 대해서는 이현일, 「泊翁 李明五 시 연구(1)」, 『한국한시연구』19, 한국한시학회, 2011, 86~87면 참조.

54) 『우념재시문초』의 봉면(封面)에 '壬辰秋栞'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임진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권십 끝에 '曾孫男 之衡對字'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이봉환의 증손 이지형(1810~1849)이 글자를 대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책이 간행된 것이 1832년(壬辰)임을 알 수 있다.

55) 이봉환, 이명오, 이만용 3부자의 시에 대해서는 이현일, 「李鳳煥 三代의 七言律詩 연구」, 『한국한문학연구』58, 한국한문학회, 2015 참조. 『동번집』의 이본과 관련된 사항은 김영진, 「동번 이만용의 시문집의 이본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54, 2011년 봄, 문헌과 해석사 참조.

2	1732	23	아내 안동김씨 사망	
3	1733	24	진사 급제	
4	1736	27	조재호(趙載浩) 만남	
5	1738	29	제1차 매사(梅社) 모임	
6	1741	32	조의진 사망	
7	1743	34	부친 이정언(李廷彦) 사망	1691~1743
8	1746	37	전옥서참봉(典獄署參奉)이 됨[56]	
9	1747	38	남부봉사(南部奉事)가 됨	
10	1748	39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 재직	
11	1748	39	빙고별검(氷庫別檢) 근무	
12	1747~1748	38~39	정사의 서기(書記)로 통신사행	정사 홍계희
13	1750	41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	
14	1750	41	금정찰방(金井察訪)	
15	1750	41	장자(長子) 이명오(李明五) 출생	
16	1754	45	양지현감(陽智縣監)	4월 임용, 5월 파직
17	1754	45	제2차 매사 모임	
18	1756	47	모친 여흥박씨(驪興朴氏) 별세	1690~1756
19	1760~1761	51~52	정사의 군관으로 동지사행	정사 홍계희
20	1762	53	임오화변에 연루되어 조재호, 조유진 사망	
21	1763	54	계미통신사 정사 내정자 서명응(徐命膺)에게 벗 남옥, 채희범을 사문사(四文士)로 대동할 것을 권함	남옥이 제술관으로 사행
22	1765	56	홍봉한(洪鳳漢)이 서얼 중 훌륭한 인물로 이봉환, 남옥, 성대중(成大中)을 꼽고 조용(調用)할 것을 영조에게 건의. 윤허받았으나 이봉환은 임용되지 않음	
23	1768	59	해주 부용당(芙蓉堂)에 감	
24	1768	59	개성에 감	

25	1769	60	또 개성에 감	
26	1770	61	세손으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묘사(墓祠)에 참배하게 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초(草)한 일 때문에 발생한 최익남옥사(崔益男獄事)에 연루되어 장살(杖殺)	11월

위의 이력에 나타나듯이 이봉환은 20대 후반에 소론의 벌열 조재호를 만나서 교유하였고, 그를 종장으로 모신 채 1738년, 1754년 두 차례 매사(梅社) 모임을 갖기도 하였는데, 구성원을 살펴보면 사대부, 서얼 문사, 중인들로 다양하다. 조재호, 조유진은 소론 벌열 풍양 조씨이고, 이봉환, 이명계, 남옥, 채희범은 서얼이며, 홍우필은 중인이다. 1746년부터 54년까지, 즉 그의 나이 37~45세 사이에는 그가 역임한 관직을 확인할 수 있는데, 1747년 통신사원이 되기 전까지는 참봉, 봉사, 별검의 종8품직을 전전하였고, 일본 사행 이후에는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 금정찰방(金井察訪), 양지현감(陽智縣監)을 역임하였다.

통신사 정사 서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봉환은 수많은 시를 지었다. 임무를 받고 일본을 향해 가는 길에서는 삼사신 및 동료 문사들과 시를 주고 받으면서 시적 재주

56)『승정원일기』1746년 2월 25일자 기록에 "李鳳奐爲典獄參奉"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언뜻 보기에 이 인물이 李鳳煥과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승정원일기』에서 李鳳奐을 찾아보면, 1745년 3월에 直講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전옥서 참봉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지 하루 뒤인 1746년 2월 26일자 기록에는 直講이라고 되어 있다. 직강은 정5품직, 봉사는 종8품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같은 인물이 품계 차이가 현저히 나는 두 관직을 맡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 李鳳煥은 통신사 서기로 일본에 갔을 때 만난 문사 란다이(蘭臺)에게 자신이 "계축년에 진사가 되었고, 대리승을 거쳐, 지금 태창랑입니다."(濟菴曰: 登癸丑進士, 歷官大理丞, 見任大倉郎.『牛窓錄』)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계축년은 1733년이고, 대리승(大理丞)은 전옥서(典獄署)의 참봉(參奉)을, 태창랑(太倉郎)은 광흥창(廣興倉)의 봉사(奉事)를 가리킨다. 즉, 이봉환은 광흥창 봉사를 하기 전 전옥서 참봉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승정원일기』를 찾아보면, 이봉환은 1747년 3월 27일에 南部奉事가 되었고, 1748년 1월 12일에는 廣興倉奉事였는데, 통신사를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중요한 관직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관직으로 換差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요청에 영조가 윤허를 하여, 1월 24일에 氷庫別檢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이 일본에 가기 전에 역임했다는 남부봉사, 광흥창봉사, 빙고별검은 모두 종8품이다. 또 이봉환은『우념재시문초』에 자신이 일본에 가기 전에 쓴 시「直廬」에서 "獄吏는 우리나라에서 천한 일이거늘, 仙書를 읽으니 흰 머리 자랐네"라고 하여 자신이 獄吏였음을 술회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전옥서에 근무할 때로 추정된다. 따라서 1746년 2월 25일자『승정원일기』의 기록 "李鳳奐爲典獄參奉"에 보이는 "李鳳奐"은 "李鳳煥"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를 드러내었고, 현지에서는 일본인 문사들과 시문을 수창하고 필담을 주고 받았다.

1754년 4월에 관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12월에 조재호, 조유진, 남옥, 채희범과 함께 제2차 매사모임을 통하여 총 2백 수의 매화시를 지었다. 또 이전부터 교유하던 조재호와 조유진 두 풍양조씨 가문의 벌열인사를 매개로 남옥, 채희범 두 서얼 문사를 만남으로써 이후 교제를 지속하기도 하였다. 1748년 무진사행에 통신사 서기로 일본에 다녀온 이봉환은 1763년 계미년 통신사행을 앞두고 당시 정사로 내정되어 있었던 서명응(徐命膺)에게 남옥과 채희범을 수행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편지를 썼고,[57] 결국 남옥이 제술관으로 뽑혀 일본에 다녀오게 된다. 전임 서기로서, 1754년 매사모임에서 시를 함께 읊은 두 서얼 남옥과 채희범을 새로운 통신사절의 후임 사문사로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봉환은 1760~61년 동지사행에 정사의 군관(軍官)이 되어 북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때 동지정사가 홍계희(洪啓禧)인데, 10여년 전 무진사행 때의 정사가 역시 홍계희였음을 생각해 보면, 홍계희와 이봉환의 각별한 관계 역시 눈에 띈다. 무진사행 때 맺게 된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만하다.

동지사행 이후 1762년에는 임오화변(壬午禍變)과 연루되어 조재호, 조유진이 삶을 마감함에 따라 이들과 이봉환의 교유 역시 여기서 그쳤다. 이 과정에서 조재호와 반목했던 홍봉한은, 자신의 사위였던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에 잠시 세력이 주춤하게 되었으나 그 뒤로 점차 회복되었으며, 이봉환과의 교유 역시 지속된다. 특히 홍봉한의 자식대인 홍낙인(洪樂仁), 홍낙임(洪樂任) 등과의 교유도 지속되었다.

동지사행 이후 이봉환은 행역(行役)을 여러 차례 하였다. 『우념재시문초』 권3에서 연행 관련 시가 끝이 나고, 다음에 실린 시가 「서유희필」(西遊戲筆)이라는 작품인데, "슬프네 덧없는 삶 살쩍이 희어진 채 / 또 만윤(灣尹) 따라 하늘 끝 향한다네"[58]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 이 시를 보면, 이봉환이 노경에 의주부윤(義州府尹) 이담(李潭)을 따라 의주로 행역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9] 이담의 의주 부윤 제수가 1761년 11월에 있었으니[60] 이 행역 또한 그때의 일이다. 이담은 1766년에 황해도 관찰사를 제수받았는데, 『우념재시문초』 권5에 「부용당(芙蓉堂)에서 순상(巡相) 이담(李潭)과 함께 짓다」라는 시의 제목에서는 이 무렵 이봉환이 해주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57) 李鳳煥, 「簡徐參議命膺」, 『雨念齋詩文鈔』 권8.
58) "惆悵浮生兩鬢華, 又隨灣尹向天涯"(李鳳煥, 「西遊戲筆」, 같은 책)
59) 이 행역 중 이담과 관련된 시들은 다음과 같다. 「次主尹李令公潭韻」, 「上元夜與主尹浿丞乘雪馬遊鴨江」, 「夜與主尹同賦」, 「別灣府主尹送, 至城外南厓」
60) 『영조실록』 1761년 11월 11일자 참조.

알 수 있다. 또, 1768년에는 개성에서 개성유수(開城留守) 원인손(元仁孫)과 시를 지은 적이 있다.[61] 즉 이봉환은 이 무렵 의주, 개성 등지를 방문하여 현지의 경물(景物)과 인물에 대해 읊기도 하고, 노경(老境)에 든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은 1770년 지인 최익남(崔益男, 1724~1770)이 당시 세손(世孫)이었던 정조(正祖)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廟)에 참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일에 연루되었고, 이 일로 옥중(獄中)에서 영조에게 친국(親鞫)을 당하다 기복이 심한 한 평생을 마감하였다. 이봉환의 다섯 아들 역시 극지(極地)에 유배되고 만다.

1772년에 영조에 의하여 자식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내려졌고, 1776년에는 정조가 즉위하였다. 그리고 1786년부터 장남 이명오(李明五)가 부친 이봉환의 신원을 호소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793년에는 정조가 이봉환의 문집 전부를 들이라고 명한 후, 직접 산정(刪定)하여 네 권으로 만들어 필사하여 어수당(魚水堂)에 두었다. 그리고 정조는 외숙 홍낙임(洪樂任)에게 이명오의 충절을 장차 정려(旌閭)할 것이고, 그 자손은 소통시켜서 쓰려고 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명오에게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1797년에는 정조가 홍낙좌(洪樂佐)를 보내어 영빈방(寧嬪房) 사패지를 하사하면서 생계를 꾸리라고 하였고, 이후 이명오의 문집을 들이라고 명하고, 이명오에게 주자의 글과 팔대가(八大家)의 문장을 뽑아 책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여서, 이명오가 그대로 따랐다. 정조는 1804년이 되면 이명오의 충의를 표하고, 그 아들 형제를 들여쓰기로 한 약속을 행할 것을 약조하였으나, 1800년 세상을 떠나서 이 약속의 실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백년이 흘러 1900년 6월이 되어 이봉환에게 종2품 벼슬을 추증하라는 명이 있었고, 1910년 5월에 다시 정2품 규장각 제학을 추증하였다. 그리고 1910년 6월에 충정(忠貞)이라는 시호가 내렸다.[62]

2) 교유 관계

다음으로는 이봉환이 교유했던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봉환은 서얼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얼이나 중인 등 동류라고 할 만한 무리들과 교유가 잦았고, 또 한

---

61) 「西京仲冬與留相元判書仁孫共賦」(권3) 원인손(元仁孫, 1721~1774)은 1768년 2월 7일 개성유수에 천거되었고, 1769년 8월 21일 한성부 판윤이 될 때까지 개성유수로 재직한 듯하다. 시 제목의 仲冬은 11월이므로 1768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62) 이봉환 사후의 신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 해석』20, 2002년 가을, 문헌과 해석사, 36~44면 참조.

편으로는 양반사대부들과의 교유 역시 적지 않았다.

(1) 서얼, 중인과의 교유

여기서는 우선 동류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얼 및 중인들과의 교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얼들은 대를 이어서 교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봉환의 교유 대상 가운데에는 부친 이정언의 벗이 적지 않다. 윤치(尹治, 1681~1729)도 그 중 한 명이다. 이정언과 윤치는 20년에 가까운 교유를 하였는데, 거처도 가까워서 매번 경치 좋은 곳을 함께 찾아다니면서 시를 짓고 술을 마셨다.[63] 또 "종종 죽장망혜 차림으로 심약로(沈若魯) 등을 따라 훌쩍 강산을 다니면서 흥이 생기면 문득 시를 지었으니 뱃속에는 한 점의 속기가 없는 사람이었다."[64]라고 이정언은 그를 추억하고 있는바, 그는 산수유람과 시회(詩會), 고서(古書), 거문고로 소일하였으나, 늘 가난하였고 살림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다.[65] 그의 이른 죽음 역시 경제적 빈곤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66]

이봉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들쭉날쭉 문장의 기운 / 아득하구나 산수를 향한 마음 / 오래된 거문고 소리 끝내 적막해지니 / 현포(玄圃)가 흰 구름 깊은 속에 있네."라는 시를 읊었다.[67] 현포는 원래 중국 전설 속 곤륜산 정상에 있는 신선의 거처를 말하는데, 윤치의 호이다. 평범하게 문장을 짓지 않았고, 산수를 애호하였음을 처음에 제시한 후, 윤치의 부재를 그가 사랑하던 거문고 소리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는 말로 드러내었다.

강백(姜柏) 역시 이정언의 벗이다. 강백은 호는 우곡(愚谷), 자는 자청(子靑)으로

---

63) "余與君相識, 殆二十歲. 家相去亦一牛鳴地耳. 每當花晨月夕菰烟梅雪, 與二三會心者, 陟躐沿洄, 謀詩具酒, 而君未嘗不在其中."(李鳳煥, 「祭尹玄圃 代家君作」, 『雨念齋詩文鈔』 권9) 이 글은 이봉환이 부친 이정언을 대신하여 쓴 윤치의 제문이다. 따라서 본문 속 '余'는 이정언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64) "往往以布裘芒屩, 從得甫諸人, 飄然於江之曲山之阿. 遇興則輒陶寫於詩, 其腸肚間無一點葷腥氣."(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65) "家甚貧, 家人蕭然有飢色, 而君泊如也恬如也. 手古書不輟, 題詩壁上曰: '定識當年回也樂, 未能添了此江湖.'", "又好彈琴, 嘗有詩曰: '自得琴中趣, 時時忘有琴. 忘琴輒大笑, 孰知音外音.'"(이봉환, 같은 글, 같은 책)

66) 서종화(徐宗華)가 쓴 글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子精窮而死, 朋知咸歎惜."(「挽尹玄圃子」, 『藥軒遺集』권2), "或曰: '公窮而夭, 斯可悲夫.' 余以爲公之窮, 窮於身而不窮於心, 生乎順而死乎寧, 此公之所以自樂而非所悲也."(徐宗華, 「祭尹玄圃子文」, 『藥軒遺集』 권6)

67) "錯落文章氣, 蒼茫山水心. 古琴遂寂寂, 玄圃白雲深."(李鳳煥, 「玄圃尹子精氏治輓」, 『雨念齋詩文鈔』 권1)

1719년 기해통신사 정사 북곡(北谷) 홍치중(洪致中)의 서기(書記)로 수행한 바 있는 인물이다. 1728년 성환찰방으로 재직중,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철산(鐵山)에 5년간 유배되었는데, 이때 기호와 관동의 선비들이 책상을 지고 따라 배우려는 이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 영의정 홍치중이 강백이 죄가 없고 공이 많음을 힘써 주장하였고, 영조가 이를 받아들여 정산현감에 부임하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유(解宥)되었는데, 해유된 후에는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유유자적했다고 하였고,[68] 절친하게 교유한 벗으로는 심약로(沈若魯), 윤동흥(尹東興), 이정언(李廷彦)이 있었으며, 시와 술을 서로 권하면서 명산대천을 찾아다닌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69]

그는 이정언의 벗이었고, 동시에 이봉환의 스승이기도 하였다.[70] 이봉환은 강백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번 집사께서 병신년(1716) 이래 제 부친과 왕복하는 편지를 볼 때마다 놀라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중간에 끊어서 이 일을 함께 논할 이가 없었습니다."[71]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7세 때부터 부친 이정언이 강백과 교유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72] 자기 대에 들어서서 이 교유가 끊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봉환은 이어지는 편지에서 "이희관과 이명계는 그런대로 빼어난 인물들입니다. 장래 가망이 있는 것은 이런 무리들 뿐입니다."[73]라고 말하고 있다. 강백과 이봉환이 세대가 다름을 생각해 보면, 강백은

---

68) 李炳觀, 「行狀」, 『愚谷集』 권6; 尹東興, 「壬子夏六月姜子靑蒙宥量移于定陽喜以賦呈」, 姜柏, 『愚谷集』 권2. 윤동흥 시 제목에 보이는 임자년은 1732년이다. 이때 강백은 철산에서 해배되어 정양으로 옮겼다.

69) "友善則惟尹公治 沈公若魯 尹公東興 李公廷彦也, 以詩酒相徵逐, 周遊名山大川."(李炳觀, 「行狀」, 『愚谷集』 권6)

70) 이봉환이 1748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현지 문사 키노시타 란코오(木下蘭皐, 1681~1752)를 만난 적 있었는데, 30년 전에 기해통신사가 이곳에 들렀을 때 그들을 맞이한 바 있는 란코오가 그 인연에 대해 말하자, 이봉환은 강백에 대해서 "강공이 제 스승입니다. 기해년(1719)에 귀국하신 후에 일본의 문장이 몹시 성대하다고 하시며 훌륭한 많은 문사들의 모습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만, 저는 겨우 열 살이어서 귀로는 들어도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들을 뵈니, 과연 삼십년 만에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기이하고도 기이합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姜公僕師也. 己亥歸後, 說日東文華熾甚, 多士濟濟之狀, 訓子弟, 僕也僅十歲, 耳聽意不駐, 卽今會公輩, 果得好因緣于三十年矣, 可奇可奇: 村上秀範輯, 『和韓唱和附錄』 2b)

71) "每覽執事丙申以來與家大人往復書牘, 輒犂然有感. 而少輩中絶, 無可與論此事者."(李鳳煥, 「簡姜丈」, 『雨念齋詩文鈔』 권8)

72) 강백의 「祭李美伯廷彦文」에 따르면, 이정언은 53세를 살았고, 강백과 이정언은 48년 동안 벗으로 지냈다. "噫! 美伯在世五十三年, 胡至於此? 吾之四十八年友也." (강백, 「祭李美伯廷彦文」, 『愚谷集』권4)

73) "若李喜觀 李命啓差爲翹楚, 將來可望, 僅僅此徒耳." (李鳳煥, 앞의 글, 앞의 책)

아마도 이봉환 또래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누군지를 물었던 듯하고, 이봉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희관과 이명계 두 인물을 꼽아서 아뢴 듯하다.

강백은 이봉환에게 시도(詩道)에 대해 지도한 바 있는데, 그 말이 문장의 도를 밝게 드러내어 남김없이 분석하였다고 하였으며, 강백의 이 말을 법문(法門)의 요결(要訣)로 삼아 깊이 생각하고 체화(體化)시켜야 야호선(野狐禪)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74] 야호선에 떨어졌다는 말은 수행자가 깨달았다고 착각하여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 선가(禪家)의 말이다.

한편, 이봉환은 이 뒤에 "육시(陸詩)를 본디 배우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구가 간혹 비슷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다만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다 우연히 문자를 이룬 것과 같을 뿐입니다. 더욱 마땅히 비속하고 지리한 곳을 단연코 깎아내어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75]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끝맺고 있는데, 자신의 시가 남송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와 비슷하다는 말을 강백에게 들은 듯한데, 이는 우연의 소치일 뿐이라고 하면서 겸사하였고, 비속하고 지리한 곳을 단연코 깎아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염화시중의 가르침 운운한 것을 보면, 앞서 강백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이봉환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윤치와 강백은 모두 이봉환의 부친 이정언의 벗이고, 부친의 벗이었기에 이봉환은 이들과 종유(從遊)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봉환의 동년배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위에서 우리 무리 가운데 빼어난 인물로 이봉환이 꼽았던 이희관과 이명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희관(李喜觀, 1709~?)은 함평(咸平) 이씨로 자는 사빈(士賓)이다. 함릉부원군 이해(李澥)의 후손으로, 형 이희겸(李喜謙), 동생 이희복(李喜復)과 함께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났다. 특히 이희관은 어렸을 적 과문을 잘 지어서 과장(科場)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평소에 성리학을 좋아하고 두문불출한 채 벼슬과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낸 바 있다.[76]

이봉환은 이희관의 시권(詩卷)에 "오동나무 금(琴)이 있으니 / 이름은 백아금(伯牙琴) / 금 소리 쓸쓸하지 않은 건 / 그대가 지음이기 때문이라. / 한 번 울리면 골짝

---

74) "詩道之縷縷開導, 旣勤摯於面命之時, 又此申戒於尺牘之間, 洞露玄珠, 剖破無餘蘊, 當以此紙爲法門要訣, 念念體察, 庶不落野狐禪也." (李鳳煥, 위의 글, 위의 책)

75) "陸詩本非所願學, 而語句之或有髣髴者. 此特如蟲食木偶成文字耳. 尤當痛刮俚冗, 無負拈花敎也." (李鳳煥, 위의 글, 위의 책)

76) 成海應, 「世好錄」, 『硏經齋全集』49.

의 달이 밝고 / 두 번 울리면 강변 구름이 자욱했지 / 훨훨 백학 두 마리 날아와 / 갑자기 숲 속에서 춤을 춘다네”[77]라는 시를 지어 금(琴)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반응하는 두 마리 학의 모습을 통해 이희관이 자신의 지음(知音)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봉환이 남긴 시 가운데에는 봄날 좋은 풍광을 같이 찾아다닌 모습을 묘사하거나,[78] 벗들과 함께 한 자리에 이희관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낸 시도 있다.[79]

이봉환이 이희관을 자신의 지음이라고 하고, 젊은 시절 몇 편의 시를 남겨 주기는 하였으나, 초기의 몇 편의 시를 제외하고는 이희관과 교유한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이명계(李命啓, 1714~1764)와의 교유는 이봉환이 이명계의 만사(輓詞)를 지었을 만큼 최만년까지 지속되었다.

젊은 시절 이봉환은 이명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을 만나 보니 육경에 뜻을 오로지 두고 『사기』(史記), 『한서』(漢書),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등을 제외한 책은 전혀 보지 말라고 하였다며, 자신도 봄 이후에는 경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80] 이명계에게도 이 같은 공부를 면려하면서, 이봉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사빈(士賓)은 지금 잘 지냅니다. 우리 무리들 중 이 사람은 몹시 장래성이 있으니 그 재주가 원래 절로 탁월합니다. 아우가 사람 경험이 많지는 않아도 또한 당세의 이른바 명사(名士)들과 교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과 사빈 같은 이가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빈말이 아닙니다. 이 같은 재주와 힘으로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일단 뜻을 세우는 것이 또한 절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 논해보자면, 속세의 무리들보다 훨씬 빼어나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재주를 계발하시길 천만으로 빕니다.[81]

---

77) “我有古桐絃, 云是伯牙琴. 琴聲不寂寥, 賴君能知音. 一鼓峽月白, 再鼓江雲深. 翩翩雙白鶴, 忽來舞中林.”(李鳳煥, 「題李士賓喜觀詩卷」, 『雨念齋詩文鈔』 권1)

78) 李鳳煥, 「春日尹子厚昌垈李士賓同作」, 위의 책.

79) 李鳳煥, 「春往道峯, 士賓未偕, 溪上潦草寄示」, 위의 책.

80) “在洛時, 見黃上舍景源, 亹亹語及古文, 頗可聽. 其人勸余, 以專意六經, 其他『史』『漢』『八家』之外, 切不可窺及雜文, 以分日力, 其言儘對症劑也. 區區自今春來, 必欲專意於極鈍工夫. 頃者略爲及之, 可以俯諒.”(李鳳煥, 「與子文」, 『雨念齋詩文鈔』 권8)

81) “士賓姑安. 吾黨中此人, 極有可望, 其才調固自超卓. 弟閱人雖不廣, 亦嘗斟酌於當世所謂名下人矣. 若兄及士賓者, 眼中固未易得見, 非虛言也. 以此才力, 何做不成? 且其立志, 亦自難當. 將來作輟, 雖未可知, 而以今論之, 雖謂之逈出流俗, 可也. 勉持此念, 開發其才, 千萬之望.”(이봉환, 위의 글, 위의 책)

사빈(士賓)은 이희관의 자이다. 앞서 강백에게 자기 또래 가운데 이명계, 이희관이 훌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이봉환이 이 자리에서는 이명계에게 이희관이 훌륭하고 이명계 역시 그만 못지 않으니, 뜻을 세워 공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앞서 이봉환이 황경원을 통해 고문을 공부할 것을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명계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부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같은 제목으로 묶여 있는 다른 편지에는 이명계가 『좌씨전』(左氏傳)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나는 족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고문을 배울 것을 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어찌 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눈을 크게 뜨셔야 할 것이니, 족하의 재주와 지혜라면 장차 성취가 있을 것이니, 어찌 신주백(申周伯)과 김사원(金士源)의 아래에 있겠습니까? 힘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사빈은 자주 보았습니까? 그 사람의 재주와 힘은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또 고문에 대해서도 자못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찍이 심복하여 그를 모범으로 삼았으니, 청컨대 족하께서도 자주 가서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으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 두세 친구가 기대해 왔던 바가 어찌 한 사람의 눈에만 드는 것이었겠습니까?[82]

인용문은 고문을 공부할 것을 이명계에게 권했던 이봉환이 이명계가 고문을 익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쓴 편지글이다. 이봉환은 이명계의 재주라면 장차 성공이 예상된다면서, 신주백과 김사원 아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주백은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고, 김사원은 김도수(金道洙, 1699~1733)이다. 신유한은 증광시 회시에 장원급제를 한 바 있고, 1719년 기해통신사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바 있으며, 수많은 고관과 문사들과 교유한 인물이고, 김도수는 노론 벌열인 청풍김씨(淸風金氏) 외척 출신으로, 숙종의 사촌이고, 영조의 당숙이 되는 인물이다.[83]

---

82) 我愛足下者也, 又嘗勉之以學古文者也. 聞之安得不仰喜? 必須明着眼力, 以足下才智, 將來成就, 豈在申周伯、金士源下也? 勉之勉之. 近日頻見士賓否? 其人才力固不短, 且於古文, 頗用心者也. 我嘗心服以爲師範, 請足下頻頻往叩其所存, 未必無所益也. 吾輩二三親故所嘗期待者, 豈在於取媚一夫目而已耶? (이봉환, 위의 글, 위의 책)

83) 김도수의 문학에 대해서는 김경숙, 「외척과 서얼의 이중적 자아-김도수의 시문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제2부 제1장, 소명출판, 2005, 399~432면 참조. 신유한의 삶과 문학에 대

둘 다 서얼 출신으로 시문으로 이름이 났으며, 명문가 벌열들과 활발하게 교제를 한 인물들인데, 이봉환의 말 속에는 이들을 서얼 선배 가운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강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같은 또래에서 훌륭한 인물로 이희관과 이명계를 들었다면, 여기서는 서얼 선배 가운데, 모범으로 삼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로 신유한, 김도수 둘을 거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봉환은 다시 한 번 이희관을 거론하며, 그가 고문에 조예가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물으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이 기대한 바가 한 사람의 눈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가 있는 서얼 문사들이 자신을 아껴주는 특정한 벌열 가문가의 인사들과 교유하는 세태를 지적하여 한 말로 보인다. 문맥상 이명계는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한데, 과거를 통하여 입신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특정 가문과 독점적으로 교유를 하는 폐쇄적 차원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교유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이런 얘기를 한 듯하다.

이 글은 "뿌리를 배양하고 기름을 비옥하게 하면, 가지가 잘 자라고 불빛이 환히 빛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배양하지도 않고 비옥하게 하지도 않아서 지난날 과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매사에 빠르게 가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말단을 구제하고자 하면 비록 지극히 절실하더라도 공을 얻는 게 적으니, 이 두 마디는 우리들의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84]라고 이어지고 있는바, 과거를 준비하더라도 고문을 열심히 익혀서 근본을 튼튼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였다.

이봉환이 이명계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대 후반이던 1738년에는 조재호와 함께 매사(梅社) 모임을 함께 가질 만큼 친했다. 그리고 이 둘의 교분을 확실히 다졌던 시기는 1748년 무진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에 함께 다녀온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명계는 전옥서참봉(典獄署參奉),[85] 서부봉사(西部奉事),[86] 사포서직장(司圃署直長), [87] 금교찰방(金郊察訪)을 역임하였고,[88] 신창현감(新昌縣監),[89]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를 거쳐,[90] 보령현감(保寧縣監)이 되었다.[91] 그리고 1

해서는 하지영, 『천하제일의 문장: 신유한 평전』, 글항아리, 2021 참조.

84) "培其根, 沃其膏則枝葉也光華也, 特內事耳. 不培不沃向日之敗於科目也. 凡事欲速則不達. 救其末者, 雖若切至, 而取功少. 此兩言爲吾輩對症藥也." (이봉환, 앞의 글, 앞의 책)

85) 『承政院日記』, 1749년 12월 13일 자 기사.

86) 같은 책, 1751년 2월 2일 자 기사.

87) 같은 책, 1752년 10월 10일 자 기사.

88) 같은 책, 1754년 9월 20일 자 기사.

년 만에 죽게 되는바, 이봉환은 이명계를 위한 만사를 짓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 2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이 주목된다. 이인상의 본관은 전주, 자는 원령(元靈), 호는 능호관(凌壺觀)이다. 이인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봉환의 인척이고, 두 가문끼리는 세교(世交)의 인연이 있는 관계이다. 이인상이 이봉환의 부친 이정언의 만시를 지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동갑내기였으며 젊었을 적부터 교유하던 사이이다. 시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Ⅳ장 2절로 미루겠으나,[92] 이 둘의 시적 지향의 차이를 짐작케 하는 언급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이 둘은 낙화시(落花詩)를 함께 지은 적이 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고인들이 간혹 낙화를 읊었는데 모두 그 정태를 곡진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원령(元靈)이 일찍이 『심석전집』(沈石田集)에 낙화를 읊은 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역량은 자못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과연 어떠한지는 알 수 없었다. 봄이 이미 늦어서 뜨락 가득 꽃이 피었다. 우리는 모두 실의한 사람들이라, 시름과 슬픔을 가눌 수 없었다. 우연히 수창을 하여 각각 몇 편 시를 이루었는데, 가장 실의한 형편에서 가장 득의한 시를 얻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93]

이인상은 명나라 화가 심주(沈周, 1427~1509)의 시집에서 낙화시를 보았고 그 솜씨에 압도당한 바 있다.[94] 낙화의 순간은 곧 소멸의 때이기 때문에 이 때 읊는 시들은 소멸과 관련된 서정이 대다수여서 이별이나 죽음에 따른 슬픔, 비애 등을 읊는 경우가 많다. 어느 봄날 뜨락을 가득 수놓았던 꽃들이 점점 지는 것을 보고 '실의한 사람들'

---

89) 같은 책, 1758년 10월 18일 자 기사.
90) 같은 책, 1762년 12월 21일 자 기사.
91) 같은 책, 1763년 7월 5일 자 기사.
92) 이봉환이 이인상과 관련하여 쓴 시로는 「寄李元靈麟祥」, 「元靈與李子文命啓李景祖思興金仲豪光俊過」, 「元靈直所」(이상 『우념재시문초』권1), 「古人或賦落花而皆未能曲盡情態. 元靈以爲曾見『沈石田集』, 有賦落花詩, 其力量殆不可及云, 而竟未知果何如也. 春序已晏, 滿庭皆花, 吾輩皆失意之人, 愁慨不自定. 偶然酬唱, 各成幾篇, 抑未知最失意境得最得意詩否也」, 「次元靈見寄韻」(이상 『雨念齋詩文鈔』 권2) 등이 있다.
93) 李鳳煥, 「古人或賦落花而皆未能曲盡情態. 元靈以爲曾見『沈石田集』, 有賦落花詩, 其力量殆不可及云, 而竟未知果何如也. 春序已晏, 滿庭皆花, 吾輩皆失意之人, 愁慨不自定. 偶然酬唱, 各成幾篇, 抑未知最失意境得最得意詩否也」, 『雨念齋詩文鈔』 권2.
94) 심주는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빼어난 명대의 인물로, '낙화시'에 조예가 있는 인물이다. 심주의 낙화시가 조선에서 유통되는 것을 중국 명청시대 강남 문화의 조선적 수용으로 파악한 논문으로는 이현일, 「「落花詩」의 계보」, 『대동문화연구』69, 대동문화연구원, 2010 참조.

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시를 써서 몇 편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봉환은 이인상과 자신을 함께 모두 '실의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이 서얼이었던 탓에 세상의 일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말한 듯하다. 물론, 이인상의 경우는 30대 이후부터는 이 같은 '서얼적 자아'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며, '사대부적 자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지만,[95] 이 작품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봉환과 이인상은 어느 정도 실의에 따른 비애감과 슬픔의 정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제목에서 이인상은 심주의 시가 빼어나다고 하면서 그 역량은 미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봉환은 끝내 어떠한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심주의 작품을 보지 못했기에 정말로 그 시가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심주를 극찬하는 이인상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알 수 없다고 한 말로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된다. 즉 이봉환은 불우한 자신들이 심주보다 더 뛰어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고, 제목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실의한 형편'과 '가장 득의한 시'를 대비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시가 과연 득의한 시를 썼는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제목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목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봉환은 '가장 실의한 형편'에서 '가장 득의한 시'를 짓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심주의 시를 극찬한 이인상과는 다른 태도로 파악된다. 이 같은 태도의 차이가 이후 이인상이 '사대부적 자아'의 면모를 견지하는 데 비해 '서얼적 자아'의 면모를 여전히 지속해 나간 이봉환의 모습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남옥(南玉, 1722~1770)과 박경행(朴敬行, 1710~?)도 이봉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인들이었다. 박경행은 무진통신사 제술관으로 서기 이봉환과 같은 시기 일본에 다녀왔고, 남옥은 15년 뒤 계미통신사의 제술관이 되어 이들의 뒤를 이었다.

남옥은 1746년에 박사호(朴師灝), 신억(申嶷)과 함께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팔았다는 이유로 동지사(同知事) 원경하(元景夏)의 비판을 받고 유배를 다녀왔고,[96] 1753년에는 계유정시문과(癸酉庭試文科)에 병과 4등으로 합격하였는데, 이 답안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남옥이 누구냐는 영조의 물음에 이천보(李天寶)는 원경하가 이전에 매문(賣文)을 했다는 이유로 정배한 적이 있음을 아뢰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게 생각했다고 대답하였고, 부교리(副校理) 한광조(韓光肇)는 남옥이 죄없이 유배를

95) 박희병 교수는 이인상의 이런 변화에 대해 이인상이 29세 무렵 이윤영과 만나 단호그룹을 형성해 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그 인간과 문학」, 이인상 저, 박희병 역, 『능호집』하, 돌베개, 2016, 471~475면 참조.

96) 『承政院日記』 1746년 3월 27일 자 기사 참조.

가게 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한 후, 남옥은 과문을 잘 지을 뿐 아니라, 육경을 주석까지 모두 외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이니, 그에게 진실로 다행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97] 즉 이번의 과거 합격으로 이전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조는 다음 달 급제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남옥에게 과장(科場)에서 지은 글들을 다 외워보라고 시켰고, 남옥이 명을 받들어 시를 다 외자, "비록 자신이 쓴 글이라도 이를 다 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후 너는 스스로 네 죄를 씻었다."[98]라고 하여 7년 전의 매문(賣文)과 관련된 죄를 과거 합격을 통해 사면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봉환과 남옥의 교유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754년 12월에 매사 2차 모임에 이 둘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우념재시문초』에서 확인되는 교유는 이 무렵부터이다. 1758년 2월에 남옥은 결성현감(結城縣監)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봉환이 1761년 동지사 군관으로 연행을 다녀와서 교유를 지속하였고,[99] 몇 차례 남옥의 집을 방문하는 등 상당히 가깝게 사귄 바 있다.[100]

그런데, 1762년 윤5월 임오화변(壬午禍變)이 일어나 사도세자가 사망하고, 조재호(趙載浩)가 이 일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는데, 이 과정에서 남옥의 장인 유채(柳綵)와 벗 엄홍복(嚴弘福)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남옥은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101] 몇 달 뒤 좌의정(左議政) 홍봉한(洪鳳漢)은 남옥은 부친 남도혁(南道赫)이 조재호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한 경계를 잘 들어서, 실제로 조재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고, 비록 유채의 사위이지만 스스로 잘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영조가 옳다고 받아들여서 유배에서 풀리게 되었다.[102]

1762년 10월에는 홍봉한(洪鳳漢)이 계미통신사 사문사 중 하나로 남옥을 추천하였

---

97) "上曰, 南玉誰耶? 天輔曰, 元景夏, 曾以賣文事, 筵達發配, 而人皆稱冤云矣. (…) 光肇曰, 渠之無罪被配, 臣詳知之, 非特善爲科文, 六經兼註誦之矣. 上曰, 今則可以洗之, 於渠, 誠爲多幸矣."(『承政院日記』, 1753년 2월 30일 자)

98) "上教南玉曰: '盡誦所作.' 玉誦畢. 上曰: '雖渠作而能盡誦, 難矣. 今而後, 爾自洗之矣.'"(『承政院日記』, 1753년 3월 11일 자)

99) 李鳳煥, 「柳景昌聖趾宅會時韞, 塞後初見」(『雨念齋詩文鈔』 권3),

100) 「時韞宅同柳景昌賦」(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訪時韞」(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4)

101) 『承政院日記』, 1762년 6월 22일 자, 1762년 6월 24일 자, 1762년 6월 26일 자 기사 참조.

102) 조재호와 남옥은 1754년 12월에 함께 모여 매화시를 지은 적이 있는 몹시 가까운 사이였다. 자식을 보호하고자 한 남도혁의 발언 때문인지, 남옥의 재주를 안타깝게 여긴 홍봉한의 호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옥은 더 이상 조재호와 친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조재호가 이미 사형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옥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으나, 늙은 부친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 정사(正使) 내정자였던 서명응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103] 이듬해 5월에는 제술관에 선정되었고,[104] 결국 계미통신사를 수행하고 귀국하였다. 이 사행체험을 통해서 남옥은 15년 전 1748년에 서기로서 무진통신사를 수행한 이봉환과 한층 더 관계가 가까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764년 사행을 다녀와서 복명(復命)을 하는 자리에서 정사 조엄(趙曮)에게 "남옥이 이름이 났다고 들었다. 누가 많이 지었는가?"라고 물었고, 조엄은 "네 명이 지은 바가 거의 같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네 명이란 제술관 남옥과 세 서기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날 영조는 남옥에게 "몇 편이나 지었는가?"라고 물었고, 남옥은 이에 대해 "천여 수를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날 영조는 남옥을 우직(右職)에 조용(調用)하라는 명을 내렸고,[105] 1년 뒤에는 홍봉한(洪鳳漢)이 남옥, 이봉환, 성대중은 서류(庶流)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니 특별히 조용(調用)할 것을 청하였고, 영조 역시 뜻대로 하라는 말을 내렸는데,[106] 실제로 며칠 뒤 남옥은 수안군수(遂安郡守)가 되어서 석 달 정도 근무하였다.[107]

이후로는 봉상시주부, 봉상시판관 등을 거쳤고, 이봉환과 친했다는 혐의로 최익남 옥사사건에 연루되어 물고되었다.

과장에서 매문을 하였고, 조재호, 이봉환 등과 시모임을 하고, 통신사 제술관으로 뽑혀 사행을 떠나왔고, 조재호 옥사, 최익남 옥사 등의 두 차례 옥사와도 관련이 있는 그의 삶은 이봉환의 일생만큼이나 글을 잘하는 서얼의 삶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얼인 남옥과는 달리 박경행은 중인 출신이다. 1748년 무진통신사의 제술관이었기 때문에 이봉환과 일본에 함께 다녀왔다. 무진사행 이후에 박경행은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이 되었고,[108] 이듬해에는 양덕현감(陽德縣監)이 되었으며,[109]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을 거쳐,[110]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111]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112] 봉상시첨정

---

103)『承政院日記』, 1762년 10월 27일 자
104)『承政院日記』, 1763년 5월 26일 자
105)『承政院日記』, 1764년 7월 8일 자
106)『承政院日記』, 1765년 6월 18일 자
107)『承政院日記』, 1765년 6월 22일 자, 1765년 10월 2일 자
108)『承政院日記』, 1748년 8월 16일 자
109)『承政院日記』, 1749년 3월 3일 자, 1949년 4월 1일 자
110)『承政院日記』, 1755년 8월 22일 자
111)『承政院日記』, 1756년 3월 17일 자
112)『承政院日記』, 1758년 3월 13일 자

(奉常寺僉正),[113] 전사관(典祀官)을 지낸 후,[114] 결성현감(結城縣監)에 올랐다.[115] 이후에는 승문원제술관(承文院製述官),[116]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117]등을 역임하였고, 1770년에는 흥해군수(興海郡守)가 되었다.[118]

사실 이봉환과 박경행은 1733년에 설행된 진사시 합격자 동년(同年)이다. 이봉환은 2등 합격자 25인 중 한 명이었고, 박경행은 3등 합격자 70인 중 한 명이었다.[119] 박경행은 1747~48년 무진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다녀올 때 정사 서기 이봉환과 함께 수행하였는데, 『우념재시문초』에서 찾을 수 있는 작품들도 이 시기부터이다. 이들 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역시 Ⅳ장 2절에서 하기로 한다.

이봉환이 최익남 옥사에 휩쓸려 사망하고 난 며칠 뒤, 영조는 박경행을 불러 심문하던 자리에서 영조가 박경행에게 이봉환과 친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행은 "만리 바다를 거듭 건너면서 생사를 함께 하였으니, 어찌 친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한 바 있다.[120] 이 날 영조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상당히 공격적인 취조를 통하여 박경행을 압박하였다. 특히 박경행, 이봉환 모두 중서인(中庶人)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자백을 듣기 위해, 박경행에게 "너희들이 많은 일을 바라는 때는 명환(名宦)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자, 박경행은 이에 대해, "서얼은 양반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명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중인(中人)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무와 옥관자를 다는 은혜는 분수에 너무 넘치는 것이어서 생각만 해도 족하오니, 늘상 홍문관 교리를 마치 하늘의 신선처럼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라도 제가 어찌 생각해 보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영조는 대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중인과 서얼은 본디 절로 구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121] 그리고 이 날 박경행은 함경도 단

113) 『承政院日記』, 1758년 4월 12일 자
114) 『承政院日記』, 1759년 12월 1일 자
115) 『承政院日記』, 1760년 4월 6일 자, 1760년 4월 11일 자
116) 1764년 12월부터 1767년 5월즈음까지 근무하였다. (『承政院日記』, 1764년 12월 27일 자, 1767년 5월 28일 자 기사 참조.)
117) 『承政院日記』, 1768년 12월 21일 자
118) 『承政院日記』, 1770년 1월 16일 자
119)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0) "上曰: '汝與鳳煥相親乎?' 敬行曰: '萬里重溟之行, 與同死生, 豈敢曰不親乎?'"(『承政院日記』, 1770년 12월 9일 자)
121) "上曰: '汝輩希覬多事之時, 欲爲名宦故也.' 敬行曰: '庶孼去兩班不遠, 或有希覬名宦心, 而矣身則中人也, 字牧之任, 頂玉之恩, 分已濫矣, 願亦足矣. 常時仰望弘文校理, 若天上神仙, 雖夢中, 豈敢思想?' 上顧謂大臣曰: '此語誠然矣. 中路與庶孼, 本自有別矣.'"(『承政院日記』, 1770년 12월 9일 자)

천(端川)으로 유배지가 정해진다.

박경행은 이봉환이 죽기 직전까지 교유했던 인물이고, 그와 친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봉환, 이명계 등 서얼들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온 그 역시 끝까지 자신이 속한 중인이 서얼과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말에 대해서는 영조 역시 수긍하며 대신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엄연한 차이는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통념이었던 듯하다.

(2) 벌열가와의 교유

이봉환의 『우념재시문초』(雨念齋詩文鈔)를 살펴보면, 조재호(趙載浩, 1702~1762)와의 교유를 읊고 있는 시가 적지 않다. 조재호는 풍양 조씨 벌열가 출신으로, 자는 경대(敬大), 호는 손재(損齋)이다. 부친은 영조의 탕평론을 뒷받침한 소론(少論)의 영수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이며, 조문명과 함께 영조대 탕평정국을 이끌었던 조현명(趙顯命, 1691~1752)이 그의 삼촌이다. 모친은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딸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그는 매사(梅社)를 결성하여 한사(寒士)와 서얼 등과의 교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교유는 1736년경부터 175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737년은 조재호의 유일한 아들인 조구진(趙九鎭)이 세상을 뜬 해인데, 풍양조씨 가문의 문운(文運)의 쇠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다음 글을 살펴보자.

> 조씨는 세상에서 덕업(德業)을 갖춘 망족(望族)으로 근세에는 동계자(東溪子) 귀명(龜命)이 문장으로 드러나셨고, 손재(損齋) 재호(載浩)가 이어서 일어났다. 의경(義卿-趙宜鎭)은 그 아우 지경(持卿) 유진(維鎭)과 함께 동계의 풍도(風道)를 듣고 손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고문사(古文詞) 공부하기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거늘 갑자기 신유년(辛酉年: 1741) 모월 모일에 요절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손재의 아들 구진(九鎭) 여중(汝重-조구진의 字)이 빼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향년 16세로 정사년(丁巳年: 1737)에 요사(夭死)하였고, 동계자 또한 구진에 앞서 졸세(卒世)하였으니 조씨 문장의 운(運)은 이 해에 쇠퇴하게 되었거늘, 의경이 또 5년 뒤에 죽고 말았다.[122]

122) “趙氏世有德業爲望族. 近世東溪子 龜命, 以文章著. 損齋 載浩繼起. 義卿與其弟持卿 維鎭聞

이 글에서 이봉환은 풍양조씨의 문장이 동계(東溪) 조귀명(趙龜命, 1692~1737), 손재(損齋) 조재호(1702~1762)로 이어지다가 이들을 착실히 이어 공부하던 조의진(趙宜鎭, 1719~1741), 조유진(趙維鎭, 1721~1762) 중 조의진이 1741년에 죽었음을 밝히고 이에 앞서 조재호의 아들 조구진과 동계 조귀명이 모두 한 해에 몰세하였음을 주목하여 이 해를 조씨 가문의 문장이 영락한 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봉환이 조재호 일가와 가진 모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두 차례의 매사 모임이고, 1차 매사모임이 1738년에 있었는데, 남아 있는 작품은 없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조의경애사」의 다른 부분에는 조의진과의 교유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둘은 1736년부터 1741년까지 교유를 이어갔는데, 시문(詩文)을 남긴 모임만을 제시하면 모두 10차례였다.[123]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날짜	내용	시문관련정보
1	1737년 봄	배를 타고 노량 월파정(月波亭)으로 가는 길에 바람을 만나 그만둠.	시를 씀.
2	1738년 봄	조재호가 조의진의 집에 감. 이봉환도 함께 모여 대엿새 체류.	함께 고문(古文) 네다섯 편을 씀.
3	1738년	매화 모임	시를 씀.
4	1738년	포곡(葡谷) 정씨(鄭氏) 별장에 가서 꽃지짐을 먹음.	시를 씀.
5		조의진이 도성으로 이사하기 하루 전 마포 세심정(洗心亭)에 모임.	조재호와 시를 지음. 「삼주별시기」(三洲別詩記)를 씀.

東溪之風, 而受訓於損齋, 學爲古文詞, 日不懈, 猝以辛酉月日夭. 先是, 損齋子九鎭 汝重有雋才, 年十六, 丁巳夭. 東溪子亦先九鎭卒. 趙氏文章之運震剝於是年, 而義卿又死於五歲之後."(李鳳煥, 「趙義卿哀辭」, 『雨念齋詩文鈔』 권9)

123) "丁巳春, 汎于湖上, 將向月波之亭, 遇風而止, 有詩. 戊午春, 損齋就義卿居, 余往會之, 留五六日, 同賦古文四五篇. 且爲梅花會有詩, 是歲又往遊于葡谷 鄭氏之庄, 煮花有詩. 義卿移家向京師. 先一日, 會于洗心之亭, 與損齋賦詩, 仍作「三洲別詩記」. 己未秋, 余往訪臨谷, 夜會于松壇有詩. 庚申春, 義卿讀書燕喜之亭, 余乘夕訪之, 義卿相候于廢寺之東有詩. 是歲夏, 義卿與損齋來, 汎于栗嶼. 義卿有「怪石歌」, 要余和之, 又會于持卿竹里之舍. 余滯雨留三日有詩. 辛酉春, 余又訪于臨谷, 持卿以病不至, 悵然各有詩. 自此遂不復爲詩文之會." (이봉환, 같은 글, 같은 책)

6	1739년 가을	내가 임곡(臨谷)을 방문함. 밤에 송단(松壇)에서 만남.	시를 씀.
7	1740년 봄	조의진이 연희정(燕喜亭)에서 독서하였는데, 내가 밤에 방문함. 조의진이 폐사(廢寺)의 동쪽에서 나를 기다림.	시를 씀.
8	1740년 여름	조의진이 조재호와 함께 와 밤섬에 배를 띄움.	조의진이 「괴석가」(怪石歌)를 짓고 창화(唱和)를 구함.
9		조유진의 서강 죽리(竹里) 집에서 만남. 나는 비에 매여 사흘 체류함.	시를 씀.
10	1741년 봄	내가 또 임곡(臨谷)을 방문함. 조의진이 병으로 못 옴.	조의진의 부재를 슬퍼하며 시를 씀.

물론, 이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이 모두 현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봉환이 조재호 및 조의진 형제들과 빈번히 교유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봉환은 또 조의진과의 이런 수많은 만남에 대해서 "이때부터 사귐은 더욱 즐거워져서, 날로 왕래하였다. 시문을 지으면 평가하고 질의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기서(奇書)와 법화(法畵)를 얻으면, 감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강산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또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124]라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 모임에서 지은 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전하고,[125] 「삼주별시기」 역시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의진이 생존하던 1741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목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은 『우념재시문초』에 두 편이 더 있고,[126] 비슷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시들 역시 몇 수 남아있다.[127] 이봉환이 조재호 등 풍양조씨와

124) "自是交甚驩, 日相往來, 有詩文, 未嘗不評質. 遇奇書法畵, 未嘗不鑑定. 而湖山遊賞之樂, 亦未嘗不同焉." (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25) 李鳳煥, 「三月十九日, 與損齋及義卿 子文 舜擧諸人, 游三湖亭子, 仍送義卿移家之行」, 『雨念齋詩文鈔』 권2.

126) 李鳳煥, 「訪趙義卿-宜鎭-夜宿」, 『雨念齋詩文鈔』 권1 및 李鳳煥, 「寄趙義卿兄弟」, 같은 책.

127) 「贈演師」, 「大普洞」, 「曹溪瀑」, 「會趙持卿維鎭宅」 등의 시가 있다. 「贈演師」(『雨念齋詩文鈔』 권1)의 演師는 승려로 조재호의 『손재집』에 실린 「滯雨次演上人白雲臺韻」, 「又次演師韻」, 「演上人送至龍巖寺同上雲臺仍次其詩而贈之」 같은 시에서도 그 이름이 보인다. 특히 「又次演師韻」은 이봉환의 이 시와 운자가 같다. 「大普洞」은 조재호의 『손재집』에 실린 「尋大普洞持卿書寓」와 운자가 같다. 조재호의 이 시의 제목을 통해 대보동에 조유진의 서재가 있었음을

교유한 시를 분석하는 것은 Ⅳ장 2절로 미루기로 한다.

한편, 이봉환은 조재호가 우거하던 농곡(農谷)에서 삼연 김창흡의 시를 차운하기도 하였고,[128] 충청감사가 된 조재호에게 증별시를 써주기도 하였다.[129] 조재호가 충청감사에 임명된 것이 1745년이므로,[130] 이 시 역시 그 무렵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필운대에서 조재호와 꽃을 같이 감상하면서 쓴 시도 있는데,[131] 다소 예외는 있으나 『우념재시문초』의 편차가 시문이 지어진 순서대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는 일본사행이 있던 1748년과 제2차 매사모임을 가진 1754년 사이의 어느 한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54년 12월에는 제2차 매사 모임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 2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이봉환은 조재호, 조의진, 조유진 등과 1736년부터 1754년까지 18년 정도 교유하였다. 이봉환이 27세부터 45세까지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었는지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추측컨대 제2차 매사모임의 이듬해인 1755년 나주벽서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소론 세력의 위축이 1762년의 임오화변과 연루되어 조재호, 조유진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줄곧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안동김씨(安東金氏)와의 교유를 살펴보자. 이봉환은 안동김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문정공(文正公) 이후 백오십여 년 동안 김씨는 쇠락하였다. 신임년 이후 김씨의 여러 종파들은 모두 몰락하여 재기하지 못하였으니 식자들은 이를 슬퍼하였다. 나는 김씨의 유문(遺文)을 읽고 문득 문장과 명절(名節)이 밝게 빛나 가장 극히 성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성대함이 극에 달한 이후에 쇠하는 것은 이치상 마땅한 바가 있다. 그런데 김씨가 곤궁하게 되었다. 군자가 곤궁해지면 진실로 그 곤궁함에 대처하는 바가 있다. 김씨의 여러 선배들은 도가 궁해지게 될 무렵에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당세에 이름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시서(詩書)의 은택

알 수 있다. 조재호의 시 중에 「別大普洞」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끝에 "聖章子文歸路由城西, 故落句及之"라는 雙行細註가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이봉환, 이명계, 조재호가 여정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曹溪瀑」은 조재호의 『損齋集』에 실린 「觀曹溪瀑」과 운자가 같다. 「會趙持卿維鎭宅」의 趙持卿宅은 조재호의 『損齋集』에 실린 「尋大普洞持卿書寓」라는 시 제목으로 보았을 때 대보동에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128) 李鳳煥, 「農谷夜會次三淵韻」, 『雨念齋詩文鈔』 권1.

129) 李鳳煥, 「酬贈別韻呈錦伯趙損齋」, 같은 책.

130) 『英祖實錄』 1745년 5월 15일 자 기사 참조.

131) 李鳳煥, 「弼雲陪趙損齋看花」, 『雨念齋詩文鈔』 권2.

이 지금까지 다하지 않았다. 김씨가 비록 몰락하여 출세하는 이가 없지만, 아마도 선인의 훌륭한 업을 이어서 그것을 밝히고 크게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132]

이봉환은 안동 김씨가 문정공(文正公) 청음(淸陰) 김상헌(1570~1652) 이후 150년간 쇠락했다고 말하였다. 성대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안동 김씨가 병자호란을 계기로 불후의 명성을 얻은 사실을 가리킨다. 이때 김상헌은 척화를 주장하였고, 김상헌의 형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은 강화도에서 청군과 대치하다 폭사하였다. 나라에서는 김상용의 죽음을 순절(殉節)로 인정하였고, 이 둘의 행적 때문에 안동 김씨는 척화의리를 상징하는 집안이 되었다.[133]

김상헌의 손자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진도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김수항의 아들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은 노론 4대신의 한 명으로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사사(賜死)되었다. 문정공 이후 150년간 김씨가 쇠락하였고, 신임년, 즉 1721~22년 이후 종파들이 몰락하여 재기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군자가 곤궁해지면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안동김씨의 경우는 그것이 시서를 공부하여 학문과 문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창집의 두 아우로서, 엄혹한 시절을 감내한 채 학문과 문학의 업적을 쌓아간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753~1722) 등이 이 언급에 부합하는 행적을 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봉환은 안동김씨 후배들 중에도 어려운 시절을 문학을 통하여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 내용을 계속 살펴보자.

김이흥(金履興) 사호(士豪)를 나는 그 외종 공보(功甫) 이양천(李亮天)의 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순결하고 기심(機心)이 없었으니, 그 가풍을 지니고 있었고, 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안 있어 사호는 그 종숙(從叔) 자정(子靜) 김양행(金亮行)과 여러 차례 내 집에 찾아왔다. 나는 마음 속으로 사호의 자질이 아름답고 나이 또한 젊으며 또 학문에 뜻을 두었고, 또 공보씨 자정씨가 좌우에서 스승이 되어 도와주니 틀림없이 성취할 바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앞에서 이른바 김씨를 밝히고 크게 할 것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사호 또한 그 하나였다.

---

132) "自文正公百五十餘年, 而金氏衰. 辛壬之後, 金氏諸宗皆淪落不復出, 識者悲之. 余讀金氏遺文, 輒以爲文章名節照耀極盛. 盛極而衰, 理亦有焉. 然金氏窮矣. 君子窮則固有以處其窮. 金氏諸先未嘗不自力於道窮之際, 以立名當世. 詩書之澤, 至于今不竭. 彼雖淪落而不出, 庶幾追先人之業, 思所以光大之乎?" (李鳳煥, 「金士豪履興哀辭」, 『雨念齋詩文鈔』 권9)

133) 이경구, 『조선, 철학의 왕국』, 푸른역사, 2018, 54~55면 참조.

134)

이봉환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김이흥(金履興)은 김양행(金亮行, 1715~1779)의 종질(從姪)인데 이 둘은 봉환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서 교유하였다. 김양행은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손자이다. 이봉환은 김이흥을 그의 외종(外從)인 이양천(李亮天, 1716~1755)의 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양천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에게 『사기』(史記)를 지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며, 박지원의 장인 이보천(李輔天)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봉환은 김이흥이 안동 김씨의 가풍과 학문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아보고, 이양천과 김양행이 돌보아 주고 있으니 쇠락하고 있는 안동 김씨 가문을 일으킬 인물로 판단하고 있었다. 계속 글을 살펴보자.

> 그런데 영락하게 되어 출세하지 못한 이양천과 같은 무리를 나는 사호를 통하여 또 보게 되었다. 지금 사호가 불행하게도 죽으니, 자식이 없어서 그 학업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 슬프도다. 나라의 명문가가 쇠퇴하게 되어 스스로 떨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또한 이 세상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안동 김씨가 힘을 잃고 몰락하여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많이 보는 경우가 아니거늘, 사호처럼 바탕과 뜻을 지녔으면서도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135]

안동 김씨의 부흥에 대한 이봉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김이흥은 애석하게도 일찍 죽고 만다. 영락하여 출세하지 못한 것이 외종 이양천과 닮았다고 하였다. 이양천은 문학에 뛰어나서 연암 박지원을 가르친 바 있으나, 홍문관 교리로 재직하던 1752년 10월 소론의 영수 이종성(李宗城)을 영의정으로 임명한 조치에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에 위리안치된 바 있고,[136] 1년 만에 유배가 풀렸지만 1755년에 세상을 떠났다. 김이흥처럼 자질과 뜻이 있는 이가 일찍 죽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안

---

134) “金子履興 士豪, 余始識之于其外從李氏功甫之所. 淳潔不機, 有其家風. 且聞其有志於學, 已而士豪與其從叔子靜氏屢過余之舍. 余心念士豪質美, 年又少, 又有志於學, 又有功甫氏子靜氏, 以左右師資之, 必有所成. 向所謂思所以光大之者, 士豪亦其一也.”(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35) “至於淪落而不出如子靜氏之流, 余亦將因士豪而見之. 今士豪不幸死矣. 無一子, 以傳其業. 嗚呼, 悲哉! 國之名族凌夷不自振, 亦足以觀其世, 況金氏之衰, 淪落而不復出者, 旣不可, 以多見, 而如士豪之有質有志, 而年乃不之有焉, 豈不惜哉!”(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36) 이양천에 대해서는 朴趾源, 「不移堂記」 및 「祭榮木堂李公文」 참조. 둘 다 모두 『燕巖集』 3권에 실려 있다.

타깝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안동 김씨 같은 세족이 부활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자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봉환은 자신의 가문과 안동 김씨의 세교(世交)를 환기하면서, 선조들이 안동 김씨와 교유가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는,[137] 자신의 가문이 영락하고 나서는 세교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138]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안의 영락은 이봉환의 가문이 증조 이수장(李壽長)에 이르러 서얼 가문으로 낙대(落代)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139] 영락한 가문의 입장에서 안동 김씨 같은 명망가와 이전의 세교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겸연쩍고 안동 김씨에 실례가 된다고 생각해서인 듯하다.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어릴 적 글을 배웠을 때, 문강공(文簡公) 형제 도를 사숙하였기 때문에, 안동 김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사호가 죽자, 이양천이 사호의 부친의 명(命)을 따라 사호의 행록(行錄) 한 부를 썼고, 애사(哀辭)를 지어달라는 청을 하기에 내가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짧은 애사를 쓴다.[140]

문간공 형제는 문간공 농암 김창협과 아우 문강공(文康公) 삼연 김창흡을 이르는 말이다. 어렸을 적부터 이들을 사숙했기 때문에 안동 김씨에 대해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은 "동방의 시가는 거칠었거늘 / 연옹(淵翁)께서 비로소 매화시 쓰셨네 / 외로운 소리의 뒤를 좇고자 / 애써 참에 가까운 시를 지으려네"라고 읊은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삼연 김창흡의 시를 추종하고 있음을 표출하였다.[141] 이봉환은 김이흥을 통하여 안동 김씨의 부활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였고, 그 마음은 이 글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뒤에는 애사가 이어진다.

> 그대의 부친을 조문하거늘 말이 몹시 슬프네. 아들의 나이가 스물하나이니 마음이 편할 수 있겠나. 그대가 젖먹이 적에 내가 소문을 듣고 기뻐하였거늘, 이런 세

---

137) "余家宗正公與文正公兄弟有文章氣節之契. 侍郎公與文忠公兄弟同朝甚善也."(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38) "自余家零替, 不復講世好."(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39) 이수장의 아들은 이익빈(李益彬, 1662~1726)으로 이봉환의 조부이며, 그 아들이 이봉환의 부친 이정언(李廷彦, 1691~1743)이다.

140) "余少學文, 私淑於文簡公兄弟之道. 蓋於金氏實惓惓焉. 士豪之死, 子靜致士豪之尊人之命, 記士豪行錄一通, 請作其送死之辭, 余不敢辭, 作短辭."(李鳳煥, 같은 글, 같은 책)

141) "膚率東方什, 淵翁始賦梅, 試從孤響後, 强欲逼眞來."(李鳳煥, 「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중 제4수, 『우념재시문초』 권3)

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오래 살지 못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 아아, 사호의 뜻과 학업이 안타깝구나. 누군들 그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으랴? 자정(子靜)과 공보(功甫)가 글을 남겼지. 아아, 내가 무슨 말을 또 할 수 있을까, 김씨 가문의 쇠퇴가 그저 슬플 뿐이네.[142]

김이흥의 부친은 김여용(金汝勇)이다.[143] 이 글은 스물 한 살이라는 나이에 요절한 안동 김씨 김이흥의 죽음을 애도한 애사이다. 이봉환 자신의 집안과 안동 김씨라는 거족과의 세교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봉환이 어렸을 적 김창협, 김창흡 형제를 사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봉환의 첫 번째 부인이 안동 김씨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들 가문의 부진에 대해 이봉환이 드러낸 안타까움은 형식적 언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풍산홍씨(豐山洪氏)와의 인연으로는 홍봉한(洪鳳漢, 1713~1778)과 그 자제들 및 그 집의 숙사 노명흠(盧命欽, 1713~1775) 및 그 아들 노긍(盧兢, 1737~1790)과의 교유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홍봉한이 공홍감사(公洪監司)에 나가게 되었을 때[144] 써준 시가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는데,[145] 이것이 두 사람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홍봉한은 1743년에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146] 이때 그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마(洗馬)였는데, 한 해 뒤에 홍봉한이 세자빈의 부친으로 아직 9품직에 있다는 것이 법의(法意)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승륙(陞六)하게 되었고,[147] 곧 문과 정시(庭試)에 급제하게 되었다.[148]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문학(文學),[149] 광주부윤(廣州府尹),[150]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를 거쳐서[151] 공홍감

142) "余吊子之尊人兮, 其語可悲. 兒年二十一兮, 心不易乎? 飮乳之時, 余聞而嘻兮! 斯世斯心之無年也亦宜. 嗚呼! 士豪志業之可惜兮. 孰使之不泯乎斯兮? 抑有子靜 功甫之文辭. 嗟乎, 余復何言哉, 秖以悲金氏之衰."(李鳳煥, 「金士豪履興哀辭」, 『雨念齋詩文鈔』 권9)

143)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祏, 1686~1761)의 「김이흥애사」(金履興哀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安東金汝勇, 喪其長子, 名履興字士豪, 年纔二十一."(趙榮祏, 「金履興哀辭」, 『觀我齋稿』 권4)

144) 『영조실록』에 따르면 洪鳳漢(1713~1778)은 영조 22년(1746) 3월 25일에 公洪監司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11일에 승지가 되었다. 이봉환의 이 시는 1746년에 쓴 시로 보인다.

145) 李鳳煥, 「贐洪參議鳳漢出按湖西」 7수, 『雨念齋詩文鈔』 권1.

146) 『승정원일기』 1743년 11월 13일 자 기사 참조.

147) 『승정원일기』 1744년 8월 19일 자 기사 참조.

148) 『영조실록』 1744년 10월 19일 자 기사 참조.

149) 『영조실록』 1744년 11월 20일 자 기사 참조.

150) 『영조실록』 1745년 4월 6일 자 기사 참조.

사에 임명된 것이다. 이처럼 홍봉한은 당시 환로(宦路)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이 유력한 정치인과 이봉환이 교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봉환은 "여전히 나는 궁핍한 선비이거늘 / 비방이 이르는 건 내가 이름 높아져서가 아니지"[152]라고 하여 자신이 유력정치인과 교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비방이 따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으나, 같이 연구(聯句)를 지어 친분을 확인하기도 하였고,[153] "구름과 진흙이 서로 허여하며 형적(形跡)을 잊었거늘 / 단약으로도 용모의 쇠함을 말릴 수는 없지"[154]라고 하여 지체가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친교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이봉환은 홍봉한과 화개동(花開洞)을 함께 거닐며, "동산에 눕겠다는 말씀 마시길 / 백성들의 촉망이 높은 이때에"[155]라고 읊음으로써 홍봉한의 선정(善政)을 당부하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이봉환과 홍봉한의 우호적 관계는 만년까지 줄곧 이어진 듯하다. 1763년 계미통신사행 때 동행할 제술관과 서기를 거론하고 있는 자리에서 당시 좌의정 홍봉한은 영조에게 "이봉환의 말을 들어보면 잘 지을 것까지는 없으며, 빨리 짓기만 하면 일본인들이 혀를 내두른다고 하였습니다."[156]라고 하여 무진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에 다녀온 이봉환의 경험을 임금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3년 뒤에는 이봉환, 남옥, 성대중을 서류(庶流) 중의 인재라고 하여 특별히 조용(調用)할 것을 영조에게 진달하기도 하였다.[157]

홍봉한이 공홍감사에 나아갈 때 이봉환이 시를 써준 것이 1746년의 일이고, 영조에게 홍봉한이 이봉환을 능력있는 서얼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조용할 것을 청한 것이 1765년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관계는 근 20년 동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봉환은 홍봉한의 자식들과도 긴밀히 교유하였다. 이봉환은 홍낙인(洪樂仁, 1729~1777)과 교유하며 쓴 시에서 "땅에 묻힌 완암 노인 돌아오기 어려우니 / 몇 해 전에 유문(遺文)은 산정(刪定)하라고 하였지"[158]라고 하였는데,

---

151)『영조실록』1745년 9월 10일 자 기사 참조.

152) "依舊西汀窮上舍, 謗隨非是坐名高." (李鳳煥, 「陪翼齋洪判書拈韻」, 『雨念齋詩文鈔』 권3)

153) 李鳳煥, 「陪翼齋聯句」, 『雨念齋詩文鈔』 권4.

154) "雲泥尙許忘形跡, 丹藥無由駐鬢顔"(李鳳煥, 「用前韻」, 같은 책)

155) "休說東山臥, 蒼生屬望時"(李鳳煥, 「陪翼齋相公遊花開洞」, 같은 책)

156) "鳳漢曰, '聞李鳳煥之言, 不必善作, 而但速作則彼人吐舌矣.'"(『承政院日記』 1762년 10월 27일 자)

157) "鳳漢又薦李鳳煥、南玉、成大中爲庶流中人才, 請次第調用, 上允之."(『英祖實錄』 1765년 6월 18일 자); "鳳漢曰, 南玉·成大中·李鳳煥, 俱是自中人才, 今日上下酬酢, 適及於此, 臣意則如此之人, 亦爲調用激勵, 恐不可已矣. 上曰, 依爲之."(『承政院日記』 1765년 6월 18일 자) 그러나 실제로 이봉환은 등용되지 못했다.

158) "九原浣老今難作, 前歲遺文已告刪"(李鳳煥, 「夏日過洪大囿」, 『雨念齋詩文鈔』 권3)

완암 노인은 완암(浣巖) 정래교(鄭來僑, 1681~1759)를 이른다. 정래교는 홍씨 집안의 숙사(塾師)였는데,[159] 그가 죽었다는 언급을 통해 이 시는 그의 몰년인 1759년 이후에 쓰인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문집 『완암집』(浣巖集)이 1765년경에 출간되었는데,[160] 이 발문을 홍봉한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61]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시에서 이봉환은 "헛된 명성은 예로부터 끝내 비방으로 귀결되니 / 가난한 선비는 부침(浮沈) 속에서 그저 한가하다네"라고 읊고 있는데,[162] 자신의 성취와 이와 관련된 비방을 홍봉한가 인물과의 교유 속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제의 친밀도가 몹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3]

또 홍낙신(洪樂信, 1739~1798)의 집에서 황해도 서흥현감(瑞興縣監)이 되어 부임하는 원계손(元繼孫)을 전별하기도 하였는데,[164] 원계손이 서흥현감에 제수된 것이 1768년 12월이기 때문에[165] 이 시 역시 이 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홍낙임(洪樂任, 1741~1801)은 낙화시(落花詩) 8수를 쓰고, 이 시에 다른 사람들이 차운하여 모두 385수를 썼는데, 이봉환은 이 시축(詩軸)에 서문을 써주었으며,[166] 이 시축 속에 실렸을 것으로 보이는 시 여덟 수를 남기기도 하였다.[167] 홍낙인 역시 이들 시에 차운한 시 16수를 남기고 있고,[168] 노긍도 이 모임에 참여하여 지은 낙화시 8수를 자신의 『한원유고』에 남기고 있다.[169]

또 홍씨가의 숙사인 노명흠과 그 아들 노긍도 함께 교유하였는데, 「又拈-屬拙翁盧

---

159) 정래교는 홍봉한의 종형(從兄) 홍상한(洪象漢, 1701~1769) 집안의 숙사로서, 홍상한과 그 아들 홍낙명(洪樂命, 1722~1784)을 가르친 바 있다. 정우봉, 「신재(新齋) 홍낙명(洪樂命)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 『문헌과 해석』53, 문헌과해석사, 2010년 가을, 205면 참조.

160) "歲乙酉冬, 完營開刊, 南高寺藏." (「浣巖集刊記」)

161) "歲乙酉之仲秋, 豐山洪鳳漢 翼汝跋." (「浣巖集跋」)

162) "浮名今古終歸謗, 窮士乘除只是閒" (李鳳煥, 「國衕小集」, 『雨念齋詩文鈔』 권3)

163) 같은 시의 "편지 열어 글씨 보면 흐뭇하게 웃게 되니 / 그대 집 갈 때면 이틀씩 머물렀지요"(披箋灑墨欣然笑, 每到君家信宿還)라는 구절에서도 이들 간의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4) 李鳳煥, 「洪仲循宅餞元子承之任瑞興」,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는 盧兢의 문집 『漢源遺稿』에 실린 「臘念五夜赴飮送元瑞興-繼孫-出宰」와 운자가 같다. 노긍도 한자리에서 원계손을 전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5)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서흥현감에 제수된 것은 1768년 12월 21일이고, 하직(下直)한 것은 이틀 뒤인 1768년 12월 23일이다.

166) 李鳳煥, 「落花詩序」, 『雨念齋詩文鈔』 권7.

167) 李鳳煥, 「暮春與洪叔道諸人賦落花」,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축은 남아 있지 않다.

168) 洪樂仁, 「次詩社諸君賦落花韻」, 『安窩遺稿』 권3.

169) 盧兢, 「與聖章諸人賦落花」, 『漢源遺稿』.

天若」(권3), 「疊前韻, 酬盧天若」(권4), 「安窩與拙翁賦」(권5)는 노명흠과 교유하면서 쓴 시이고, 「與洪仲循樂信-叔道樂任-盧如臨兢諸人會賦」(권5), 「叔道宅如臨洪士敍-疇漢-共賦」(권5), 「燒酒陶甁聯句」(권5)는 노긍과 교유하면서 쓴 시이다.

이봉환과 남옥, 그리고 홍봉환 자제 중 몇 명이 함께 교유하면서 쓴 시들도 눈에 띄는데, 「雪中穎草齋與時韞仲循叔道作」(권6)에서는 홍낙신, 홍낙임, 「穎墅聯句」(권6)에서는 홍낙신, 홍낙임, 홍낙륜(洪樂倫, 1750~1813), 그리고 「池上聯句」(권6)에서는 홍낙임과 홍낙륜이 이봉환 및 남옥과 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봉환은 홍봉한과는 대략 1746년부터 1765년경까지 상호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고, 1760년경부터 이봉환의 최만년까지는 그들의 자식 및 숙사와 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남양홍씨(南陽洪氏) 가문의 인사는 홍계희(洪啓禧, 1703~1771)와 아들 홍경해(洪景海, 1725~1759)이다.

전술한 것처럼 홍계희는 1747~48년 무진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때 이봉환을 자신의 서기로 동행한 바 있고, 1760~61년 동지사(冬至使)의 정사로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때에도 이봉환을 자신의 군관(軍官)으로 동행시켰다. 그런데, 『우념재시문초』에는 홍계희의 글로 알려진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제목	관련도서 발행사항 및 소장처	출처
1	1751	三韻聲彙跋	『三韻聲彙』(가람古495.16-H757s-v.1-3),[17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8
2	1758	經世指掌序	『經世指掌』(한古朝51-가6),[171] 국립중앙도서관	권7
3	1752/1759	文山詳傳序	『文山先生詳傳』(奎783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7
4	1761(4월)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	『顧高遺書』(韓8-69),[172]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권7
5	1761(5월)	新印文章正宗跋	『文章正宗』(M古1-2000-92),[173] 국립중앙도서관	권8

6	1768	磻溪柳先生-馨遠-墓誌	『增補 磻溪隨錄』,[174] 景仁文化社	권9

홍계희가 쓴 글로 알려진 것들이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책의 편찬자가 이 글들을 이봉환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봉환이 쓴 글이 홍계희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아마도 이봉환이 홍계희를 위해 위의 글들을 대필(代筆)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홍계희의 글이 우연히 『우념재시문초』에 섞이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Ⅱ장의 2절에서 이봉환이 옥사(獄死)한 이후, 의 후손들의 조상 이봉환에 대한 신원(伸冤)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1793년에 정조가 이봉환의 문집을 들일 것을 아들 이명오(李明五)에게 명한 후, 직접 산정(刪定)하여 네 권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바, 현전하는 『우념재시문초』가 정조가 산정하였다는 이 책을 저본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있다.[175] 본고도 이 의견에 동의하

170) 모두 3책인데 제2책의 끝에 실려 있다. 또 규장각소장본에 실린 이 글은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三韻聲彙跋」과 다른 글자가 없다. 다만,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글은 '三韻聲彙跋'이라는 제목이 있는 데 비해 이 글은 없으며, 「三韻聲彙跋」이 "上之二十七年辛未六月朔日"이라는 날짜로 끝이 나는 데 비해, 이 글은 이 뒤에 "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洪啓禧跋"이라고 하여 홍계희가 썼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다르다.

171) 2권 1책으로, 이 책의 발문이 2권의 마지막에 실려 있고,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經世指掌序」와 내용이 같다. 다만, 마지막 부분이 「경세지장서」는 "戊寅四月"로 끝나는 데 비해, 이 글은 "崇禎三戊寅四月上澣南陽洪啓禧"로 끝을 내고 있다.

172) 4권 4책으로 『顧高遺書』의 서문 제목이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이다. 『우념재시문초』의 서문은 "辛巳四月上澣"으로 끝나는 데 비해, 나카노시마도서관본 『顧高遺書』의 서문은 "辛巳四月上澣南陽洪啓禧謹序"로 끝난다. 이 서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분석과 책의 제목이 도서관에 등록된 『涇陽遺書』가 아니라, 『顧高遺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고 Ⅲ장 1절 3항 중국 명청대 작가에 대한 탐문 참조.

173) 목록 1권 1책, 본권 24권, 18책, 총 25권 19책이다. 홍계희의 글은 제목이 '書新印文章正宗後'이다.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新印文章正宗跋」은 "眞先生編書後五百三十年辛巳五月上澣"으로 끝나는데, 국립중앙도서관본 「書新印文章正宗後」는 이 뒤에 "後學南陽洪啓禧謹識"가 덧붙어 있다.

174) 『增補 磻溪隨錄』(景仁文化社 影印本, 1974)에 실린 「磻溪柳先生墓碑」가 『우념재시문초』의 「磻溪柳先生馨遠墓誌」와 같다. 「磻溪柳先生馨遠墓誌」는 "崇禎三戊子夏"로 끝나는데, 「磻溪柳先生墓碑」에는 이 아래 "行判中樞府事致仕奉朝賀洪啓禧謹識"라는 글자가 더 있다.

175)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 해석』20, 2002년 가을, 문헌과 해석사, 39~40면; 김형술, 「悔軒 趙觀彬의 한시와 椒林體」, 『우리문학연구』55, 우리문학회, 2017, 78~79면 참조. 이현일은 『우념재시문초』에 서발문(序跋文)이 없고, 누가 작품을 선(選)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으며, 이만용(李晩用)의 「박옹시초발」(泊翁詩鈔跋)에서 부친 이명오(李明五)가 조부 이봉환의 문집을 네 권으로 만들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여기의 네 권은 네 책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현전 『우념재시문초』가 정조 산정본을 바탕으로 인간(印刊)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고, 김형술도 이 견해에 동의한 바 있다.

는 입장이다. 그런데 홍계희의 손자(孫子) 홍상간(洪相簡)이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즉위를 방해한 역적으로 몰려 곤장을 맞아 죽었고, 홍계희의 아들 홍지해(洪趾海), 홍술해(洪述海)도 일가가 처형되었으며, 홍계희는 관작이 추탈되고 역안(逆案)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176]을 생각해 보면, 이는 모두 정조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정조가 후손에게 문집을 들이라고 한 것은 1793년은 정조 17년으로, 홍계희가 역안에 오른 지 10여년이 훌쩍 지난 때였다. 따라서 역적 홍계희의 글을 이봉환의 후손이 이봉환의 문집에 남겨두었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글들을 자신의 선조 이봉환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정조에게 바쳤을 것이며, 이를 검토한 정조 역시 이 글들을 홍계희의 글이라고 파악했다면 문집에 그대로 놓아두었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되었으나 홍계희의 글로 알려져 있는 글은 이봉환이 쓴 글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표에서 여섯 편의 글이 쓰인 연도를 확인해 보면 1751년부터 1768년까지 17년에 달한다. 일본에 다녀온 후 여생의 전기간에 걸쳐 홍계희를 대신하여 서발문과 묘지명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홍계희와 이봉환이 몹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무진통신사 때에 가졌던 정사와 정사 서기라는 관계가 사행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홍계희는 "우리나라 실용서는 한미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다. (…) 『화동정음』(華東正音)은 박성원(朴性源)이 만들었고, 『삼운성휘』(三韻聲彙)는 정충언(鄭忠彦)이 완성했는데, 홍계희가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다. 이 두 사람 모두 위항인(委巷人)이다."[177]라는 성대중의 말에서 보듯 당대에 이미 아랫사람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이봉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듯 홍계희는 중서층(中庶層)을 후원하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성과를 가져가는 이중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봉환 역시 홍계희의 출판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인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또 홍계희는 1762년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중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하게 하여 임오화변(壬午禍變)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왕세손과 후손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정조 즉위 이후에는 가문 전체가 역적으로 몰락하였다.[178] 『우념재시문초』에 홍계희와 관련 있는 시는 「세 사신」(三使臣)[179] 및 「사상의 시에에 차운

176)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4~105면.

177) "我國需世之書, 多出於卑微. (…) 『華東正音』成於朴性源, 『三韻聲彙』成於鄭忠彦, 而洪啓禧攘爲其物, 二者幷委巷也." (成大中, 「醒言」, 『靑城雜記』 卷4)

178)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1면.

하다」(次使相韻)가 있다.[180]

홍경해는 홍계희의 셋째 아들이다.[181] 무진통신사행에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을 『수사일록』(隨槎日錄)에 담아 놓았다.[182] 귀국 후 1758년에는 금성(金成)의 현령이 되었는데,[183] 이듬해 익사하였다. 금성현령 홍경해가 과거시험과 관련된 일로 옆 마을에 다녀오는 길에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은계찰방(銀溪察訪) 박필진(朴必振)과 함께 익사하였고, 홍경해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영조는 "쓸 만한 사람였는데, 실로 안타깝다"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진다.[184] 홍경해와 관련된 시로는 연작시 7수가 전하는데,[185] 이 시에 대해서는 Ⅳ장 2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원주원씨(原州元氏) 중에서 이봉환과 교유한 인물로는 원인손(元仁孫, 1721~1774), 원의손(元義孫, 1726~1793), 원계손(元繼孫, 1733~1772) 삼형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원경하(元景夏, 1698~1761)의 아들들이다. 원경하는 원몽린(元夢鱗, 1648~1674)의 손자인데, 원몽린은 효종의 딸 숙경공주(淑敬公主)와 혼인하여 흥평위(興平尉)가 되었다. 또 원경하의 누이는 조재호(趙載浩)와 결혼함으로써, 원경하와 조재호는 처남-매부 관계가 되었다.

원경하는 원래 강경파 중심 탕평을 주장한 이천보(李天輔)와 친우였고, 영조의 탕평을 비판한 이재(李縡)와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탕평파를 간신이라고 비난하고 다녔었으나, 173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영조의 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뜻을 바꾸어서, 1739년부터 조문명(趙文命), 조현명(趙顯命) 등의 완소(緩少) 계열과 함께 탕평책을 진언하면서, 노론 완론(緩論) 계열의 지도자 역할을 자임한 바 있다.[186] 그리하여 4색당파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자는 이른바 '대탕평'(大蕩平)을 주장하였다.[187]

이봉환은 원경하의 세 아들 원인손, 원의손, 원계손과 교유하였다. 주로 원계손과

---

179) 무진통신사의 삼사(三使)로,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 부사 남태기(南泰耆, 1699~1763), 서장관 조명채(曺命采, 1700~1764)를 이른다.

180) 이 두 시 모두 『雨念齋詩文鈔』 권2에 수록되어 있다.

181) 홍계희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지해(趾海), 술해(述海), 경해, 염해(念海), 찬해(纘海)가 그들이다. 홍계희의 가계(家系)와 관련해서는 김승대, 「洪啓禧 經世論의 在地的 基盤」, 『한국실학연구』33, 한국실학학회, 2017년 6월, 93면 <도1> 南陽洪氏 洪啓禧 家系圖 참조.

182) 이 책에 나타난 한일 문화 교류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경근, 「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참조.

183) 『英祖實錄』 1758년 10월 2일 자 기사 참조.

184) 『承政院日記』 1759년 6월 27일자 기사 참조.

185) 李鳳煥, 「洪應敎景海遷葬輓」, 『雨念齋詩文鈔』 권5.

186)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56면.

187) 박광용, 위의 책, 59면.

교유를 하였는데,[188] 동지사 군관으로 연행하면서 요동벌을 지나던 1760년 12월에도 원계손을 생각하였고,[189] 1767년 원의손이 안변부사로 나가기 전 지은 시도 있으며,[190] 원인손이 개성유수를 지내고 있을 적 개성에 찾아가서 묵으면서 시를 같이 짓기도 하였고,[191] 1768년에 원계손이 서흥현감에 부임하는 것을 전별할 때 쓴 시도 있다.[192]

이봉환이 원경하의 세 아들 중 원계손과 교유가 제일 많은 이유는 원계손이 셋 중 기질이 제일 이봉환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1772년 원계손이 마흔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의 묘지명을 쓴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원경하가 자신의 아들을 두고, "내 두 아들은 틀림없이 나를 이어 조정에 설 텐데, 오직 이 아이만은 문학을 하게 될 걸세"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였다.[193] 여기서 두 아들은 그의 장자, 차자인 원인손, 원의손을 가리키고, 이 아이는 원계손을 이른다. 그의 말대로 장자와 차자는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고, 원계손은 관직에 뜻이 없었고, 문학으로 성취를 거두고 있었다.[194]

『우념재시문초』가 대략 시기별로 편집되어 있음을 고려해 보면, 원경하의 세 아들과 이봉환이 교유한 것은 1760년에 있었던 동지사행 이전부터 1768년경 서흥현감에 원계손이 부임할 때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봉환이 1770년에 세상을 떴음을 생각해 보면, 만년에 주로 이봉환이 교유하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의 만년의 술회 역시 이들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일정씨(延日鄭氏) 가운데 이봉환과 관련이 깊은 인물은 정우량(鄭羽良, 1692~1754), 정휘량(鄭翬良, 1706~1762), 정습량(鄭習良, 1709~1751)이다. 이들은 판서 정수기(鄭壽期, 1664~1752)의 자식들로, 당색은 소론이다. 정우량은 우의정, 정휘량은 대제학을 지낼 만큼 벼슬이 높았다.

1754년 정우량의 죽음에 대해서 실록의 사관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

---

188) 李鳳煥, 「桐湖與元子承繼孫共賦」(『雨念齋詩文鈔』 권1), 「沈伯修元子承同過」, 「桐江亭子與子承作」(이상은『雨念齋詩文鈔』권3), 「四月九日居今堂小集」, 「過子承新居」, 「子承宅雨夜」(이상은『雨念齋詩文鈔』권4), 「閏春夜」, 「子承宅與仁則拈韻」, 「晩春子承宅」, 「子承宅拈韻」, 「重陽後夜過子承與仁則洪徽之愼猷作」, 「換凡齋復會」(이상은『雨念齋詩文鈔』권5).

189) 李鳳煥, 「遼野寄子承」, 『雨念齋詩文鈔』권3.

190) 李鳳煥, 「換凡齋」, 『雨念齋詩文鈔』권5.

191) 李鳳煥, 「西京仲冬與留相元判書仁孫共賦」, 같은 책. 이 시 외에 원인손과 함께 지은 시는 李鳳煥, 「江樓與元判書同賦」, 『雨念齋詩文鈔』권6이 있다.

192) 李鳳煥, 「洪仲循宅餞元子承之任瑞興」, 『雨念齋詩文鈔』권5.

193) "吾二子必能繼吾而立於朝, 獨此兒可以爲文也."(黃景源, 「通訓大夫行瑞興縣監黃州鎭管兵馬節制都尉元公墓誌銘 幷序」, 『江漢集』권17)

194) "子承亦無榮進意. 閑居力學, 喜爲文, 知名當世."(黃景源, 위의 글, 위의 책)

> 전 판부사 정우량(鄭羽良, 1692~1754)이 졸(卒)하였는데, 임금이 죽음을 애석히 여기는 전교를 내리고 사제(賜祭)하고 증시(贈諡)하였다. 정우량은 글재주는 있으나 지망(地望)이 없어서 오로지 임금의 뜻을 맞추는 것으로 떳떳하지 않은 길을 뚫어 임금의 사랑을 두텁게 받아서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지내고 정승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 아들 정치달(鄭致達)은 화완옹주(和緩翁主)에게 장가들었는데, 화완옹주가 임금의 딸들 가운데에서 임금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고 성질도 요사하게 혜민(慧敏)하므로, 염치없이 승진을 다투는 조사(朝士)는 모두 정우량과 그 아우 정휘량(鄭翬良)에게 성기(聲氣)를 통하였다. 그때 또 최익남(崔益男)·이봉환(李鳳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모두 미천하고 요사한 무리로서 그 집에 출입하며 중개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식자는 세도(世道)를 위하여 매우 근심하였다.[195]

정우량의 아들 정치달(鄭致達)은 화완옹주(和緩翁主, 1738~1808)와 결혼하여 일성위(日城尉)가 되었는데, 1757년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떴다. 이후 정후겸(鄭後謙, 1749~1777)이 그의 양자가 되어서 홍봉한의 이복동생 홍인한(洪麟漢, 1722~1776)과 결탁하여 세손, 즉 영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였는데, 대리청정이 시작된 지 석달 뒤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자 홍인한과 함께 제거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정우량, 정휘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농후한 것 역시 이 같은 연유에서이고, 최익남, 이봉환을 "미천하고 요사한 무리"로서 그 집에 출입하며 중개하는 이로 소개하며, 식자들의 근심거리로 파악하는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우량, 정휘량 같은 고관에게 최익남, 이봉환이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당시 식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762년에 서거한 정휘량에 대한 졸기(卒記)도 『영조실록』에 실려 있다.

> 영부사 정휘량(鄭翬良)이 졸(卒)하였다. (…) 정휘량은 정수기(鄭壽期)의 아들이며 정우량(鄭羽良)의 동생이었다. 정수기는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혈당(血黨)으로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지만 정우량 형제는 조현명(趙顯命)에게 붙어서 탕평(蕩平)으로서 인진(引進)되었고, 다시 척신(戚臣)에 의탁하여 모두 대관(大官)의 지위에 이르렀다. 또 대제학을 거쳐 자못 문명(文名)이 있었는데, 그의 형만은 못하였

195) "前判府事鄭羽良卒. 上下隱卒之敎, 賜祭贈諡. 羽良有文華無地望, 專以希合上旨, 鑽刺幽逕, 厚被眷渥, 而歷敭淸顯, 致位台鼎. 其子致達, 尙和緩翁主, 主於諸王姬中, 最爲上鍾愛, 性且妖慧, 朝士之無恥躁競者, 莫不暗通聲氣于羽良及其弟翬良. 時又有崔益男、李鳳煥者, 皆以卑微妖邪之類, 出入其家作爲紹介, 識者爲世道深憂."(『英祖實錄』 1754년 1월 7일 자)

다.[196]

김일경은 소론 강경론자로서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주도하여 노론을 탄핵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소론이 잡도록 기여하였으나, 곧 영조가 즉위하면서 처형된 인물이다. 정수기 역시 소론으로 신임사화의 주동인물로 탄핵된 바 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우량이 정휘량보다 문명이 더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우념재시문초』에는 개성에서 정우량 묘를 보고 쓴 시,[197] 1760년에 정휘량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임지로 떠날 때 관서유람을 제안받고 쓴 시[198] 등 정우량, 정휘량과 관련된 작품이 있다. 그런데 세 형제 중 제일 많은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정습량으로,[199] 그의 시집에 대한 발문(跋文)[200]과 제문(祭文)[201]을 이봉환이 썼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 2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3. 자료 개관

이봉환의 문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는 그의 활자본 시문집『우념재시문초』(雨念齋詩文鈔, 10권 4책, 1832)와 필사본 시집『우념재시고』(雨念齋詩藁, 1책 불분권, 필사년 미상)이다.

『우념재시문초』의 권1~권6에는 시(詩)가, 권7~권9에는 문(文)이, 권10에는 차기(箚記)가 실려 있다.[202] 장남 이명오(李明五)가 교정하였고, 손자 이만용(李晩用)이 재교

---

196) “領府事鄭翬良卒. (…) 翬良, 壽期之子, 羽良之弟。 壽期以鏡賊之血黨, 爲世所棄, 而羽良兄弟, 附於趙顯命, 以蕩平引進, 更托禁臠, 幷致位大官. 又經大提學, 頗有文名, 而不如其兄矣.” (『英祖實錄』1762년 10월 22일 자)

197) 李鳳煥, 「金川望鶴南鄭相公墓有感」, 『雨念齋詩文鈔』 권3.

198) 李鳳煥,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翬良按節關西, 俯索贐, 語曰: “篇數宜多.” 且謂: “西土佳麗可觀, 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雨念齋詩文鈔』 권3.

199) 「簡鄭士說-習良」(『雨念齋詩文鈔』 권1), 「題扇送士說」(『雨念齋詩文鈔』 권1), 「春日直廬, 喜鄭尹兩生至」(『雨念齋詩文鈔』 권1), 「贈鄭生」(『雨念齋詩文鈔』 권1), 「士說過」(『雨念齋詩文鈔』 권1), 「訪士說夜宿」(『雨念齋詩文鈔』 권2).

200) 「鄭士說詩稿跋」(『雨念齋詩文鈔』 권8)

201) 「祭士說文」(『雨念齋詩文鈔』 권9)

202) 시(詩) 939수, 문(文) 53편, 차기(箚記) 54조(條)가 수록되어 있다. “第一編 詩一百五十七首, 第二編 詩一百二十九首, 第三編 詩二百九十八首, 第四編 詩一百二十五首, 第五編 詩一百

(再校)를 보았으며[203] 증손자 이지형(李之衡, 1810~1849)이 글자를 대조하여[204] 1832년에 간행되었다.[205] 금릉취진자(金陵聚珍字)로 찍었다.[206] 1793년에 정조가 이봉환의 문집을 들이라고 명하여 직접 수정을 가한 적이 있는데,[207] 앞서 말했듯 현전『우념재시문초』가 바로 이 정조의 수정을 거친 판본이라는 추정이 있다.

『우념재시고』(雨念齋詩藁)는 불분권(不分卷) 1책 필사본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만 소장되어 있다. 필사연대는 미상이고, 총 108제(題) 360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우념재시문초』에 실리지 않은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남자가 늙도록 이리도 궁하니 / 글 배우자 허비한 좋은 세월이 후회되네"(男兒老大窮如此, 悔學文章費歲華),[208] "십년 글공부 살림이 팍팍하니 / 시서가 사람 여럿 망쳤음을 이제야 알겠네."(十載文章生理薄, 詩書始覺誤人多)[209], "뭐라 부르든 나의 虛名 남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니 / 글이나 쓰는 자잘한 일에 仙人의 마음 허비하네"(呼馬虛名饒俗舌, 彫虫閑業費仙心),[210] "친구 죽고 아내 잃은 지 헛되이 다섯 해 / 거미줄 어지럽고 거문고 망가졌네"(友死妻亡空五載, 虫絲荒亂廢殘琴)[211] 같은 구절은 이봉환의 궁벽한 처지와 안타까운 심정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되는바, 이것들은 활자본『우념재시문초』에는 없고 이『우념재시고』에만 실려 있다.

또『우념재시문초』와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농곡 조재호의 시에 차운하다. 이때 농곡이 아이를 잃어 이사하셨다」(次趙農谷載浩韻, 時農谷喪兒移居)라는 3수의 연작시가『우념재시문초』에 실

二十五首, 第六編 詩一百五首(句附), 第七編 文一十二篇, 第八編 文三十篇, 第九編 文一十一篇, 第十編 箚記五十四條"(「『雨念齋詩文鈔』總目」)

203) '雨念齋詩鈔'라는 권수제(卷首題) 아래 "完山李鳳煥 聖章著, 男明五謹校, 孫男晩用復校"라고 표기되어 있다.

204) 책의 맨 마지막에 "曾孫男之衡對字"라고 표기되어 있다.

205) 책의 봉면(封面)에 "壬辰秋栞"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栞"은 "刊"과 동자(同字)이다.

206) 금릉취진자에 대해서는 천혜봉,『한국서지학』(개정증보 2판), 민음사, 2006, 514~517면 참조.

207) "계축년(1793) 봄에 이르러 상(上: 정조)께서 선조(先祖)의 문집의 전부를 들이라고 하셨고, 친히 산정(刪正)하여 네 권으로 만드신 후, 베껴서 어수당(魚水堂)에 보관하였다."(及癸丑春, 上命入先祖文集全部, 親賜刪正, 爲四卷, 謄置于魚水堂. 李晩用,「與黃山金公逈根書」,『東樊集』권4)

208)「隋城」

209) 위 작품.

210)「雨夜有感」

211) 위 작품.

려 있는데, 이 세 수는 『우념재시고』에는 「농촌의 시에 차운하다. 이때 농촌께서 참척(慘慽)을 보아 이사하셨다. 시를 지어 위로한다」라는 제목의 6수 연작시 중 처음 세 수에 해당한다. 즉 『우념재시고』에는 약간 다른 제목으로 3수가 더 실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래 최소한 여섯 수의 시가 이 상황에서 작성되었고, 그 중 3수가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념재시문초』의 시는 『우념재시고』의 시를 원텍스트로 하여 선별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또 존재한다. 즉 같은 상황을 두고 쓴 시이지만 『우념재시문초』의 시가 『우념재시고』의 시보다 작품수가 많은 경우가 있다. 가령, 『우념재시고』에 실린 「인칙과 함께 짓다」(與仁則同賦)라는 시는 총4수인데, 이 네 수는 『우념재시문초』에는 「인칙에게 들러 밤에 마시다」(過仁則夜飮)라는 아홉 수 연작시 속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우념재시고』의 작품의 일부가 그대로 『우념재시문초』로 편집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념재시고』는 『우념재시문초』가 성책(成冊)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이본 가운데 하나이거나, 또는 그 같은 이본의 후사본(後寫本)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념재시문초』와 『우념재시고』의 작품을 대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념재시고』 수록 작품 108제(題)와 그 편수, 그리고 『우념재시문초』의 수록여부를 확인하여, 수록된 작품은 그 권수를 밝혔으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비고란에 밝혀 놓았다. 한편,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된 시 작품를 기준으로 하여 『우념재시고』의 시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권말에 수록된 <부록 1> 『우념재시문초』(권1~권6), 『우념재시고』 수록시 대조를 참조하길 바란다.

	제목	편수	『우념재시문초』 수록관련 정보	비고
1	寄尹學士-心衡-寶城任所	7	권1	
2	懷趙綏之	1	미수록	
3	與子文訪義卿	1	미수록	
4	楓溪	1	권1	游楓溪
5	元靈自杏洲見過	5	미수록	
6	別士賓	1	미수록	
7	寄趙氏兄弟	1	권1	寄趙義卿兄弟
8	白雲臺	1	권1	동일 제목으로 2수 실림, 이 중 제

				2수
9	淸節祠	1	권1	
10	江樓	2	권1	동일 제목으로 1수 실림, 제2수는『시고』에만 수록
11	錦平尉賜几杖宴韻	2	권1	次錦平都尉賜几杖宴韻이라는 제목으로 1수 실림. 제1수는『시고』에만 수록
12	贐洪錦伯	7	권1	贐洪參議-鳳漢-出按湖西
13	太倉直廬	4	미수록	
14	差祭獻陵	1	권1	
15	直廬與客同賦	3	권1	直廬라는 제목으로 2수 실림, 제3수는『시고』에만 수록
16	農谷	2	권1	農谷夜會次三淵韻이라는 제목으로 1수 실림. 제2수는『시고』에만 수록
17	口號屬潤卿	1	미수록	
18	酬贈別韻上趙錦伯	4	권1	酬贈別呈錦伯趙損齋
19	與諸人往遊紅葡萄谷鄭氏園林	1	미수록	
20	義卿又過	1	미수록	
21	訪元靈江居	1	미수록	
22	次農村韻　時農村遭慽移居, 故以詩慰之	6	권1	次趙農谷-載浩-韻-時農谷喪兒移居라는 제목으로 3수 실림, 제4,5,6수는『시고』에만 수록
23	隋城	2	미수록	
24	鍾巖	6	미수록	
25	雨夜有感	1	미수록	
26	損齋雪夜, 與持卿及南時韞蔡景洪共賦梅花各四十首	40	권3	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 위치가 조금 이상함. 이 시 이전까지는『우념재시문초』 권1에 수록된 초기시를 실었음. 그런데 이 시는『우념재시문초』권3에 실림. 1754년 12월에 쓴 것.
27	三月十九日與損齋及義卿子文舜擧諸人游三湖亭子	6	권2	三月十九日, 與損齋及義卿 子文 舜擧諸人, 游三湖亭子, 仍送義卿移家之行이라는 제목으로 2수 실림.

				제1,2,3,4수는『시고』에만 수록
28	損齋泛舟相邀	2	미수록	
29	與金子履坤兄弟及諸人泛舟	2	권1	與晉卿兄弟及諸人泛舟三湖
30	與金子會竹里	4	권1	與晉卿會竹里라는 제목으로 1수 수록, 제2,3,4수는『시고』에만 수록
31	蕉研齋春雨	2	권2	蕉研齋酬沈伯修-念祖
32	弼雲與損齋看花	4	권2	弼雲陪趙損齋看花라는 제목으로 2수 수록, 제1,4수는『시고』에만 수록
33	與蔡李步雪水橋	1	미수록	
34	宿蕉研齋	2	권3	같은 제목으로 1수 수록, 제2는『시고』에만 수록
35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 按節關西, 俯索贐, 語曰篇數宜多, 且謂西土佳麗, 可觀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騷,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15	권3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翬良-按節關西, 俯索贐, 語曰篇數宜多, 且謂西土佳麗, 可觀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36	與翼齋洪尙書拈韻	1	권3	陪翼齋洪判書拈韻
37	夏日過洪洗馬拈韻	2	권3	夏日過洪大囿
38	出門	2	권3	
39	弘濟院	1	권3	
40	高陽	1	미수록	같은 제목의 다른 시 1수 수록,『시고』의 시는 연행 때 쓴 시,『시문초』의 시는 연행 이후 또 다른 西行 때 쓴 시

41	坡州	1	미수록	“中州堪一見, 上价幸重攀” --> 상사 홍계희와의 인연
42	臨津	1	권3	
43	松都	1	권3	
44	靑石洞	1	권3	
45	猪灘	1	권3	
46	葱秀	1	권3	
47	練光亭	1	권3	
48	驢島觀獵	2	권3	
49	發龍灣宿九連	2	권3	
50	入柵	1	권3	
51	八渡河	1	권3	
52	發通遠堡宿連山	1	권3	
53	連山關曉發	1	미수록	
54	會寧嶺	1	권3	
55	靑石嶺	1	권3	
56	遼野	1	권3	
57	遼野寄子承	2	권3	
58	白塔	1	권3	
59	曉發大霧中	1	권3	
60	瀋陽	1	권3	
61	周流河	1	권3	
62	白旗堡大風	1	권3	
63	小凌河	1	권3	
64	松山堡	1	권3	
65	杏山堡	1	권3	
66	山海關	1	권3	
67	山海關關帝廟見孫高陽筆蹟	1	권3	
68	祖大壽牌樓	1	권3	
69	榛子店	1	권3	
70	太和殿元日	1	권3	
71	定日回程志喜	1	권3	
72	離北京	1	미수록	
73	盤山	1	권3	
74	高麗堡館	1	권3	高麗堡
75	右北平	1	권3	
76	灤河夷齊廟	1	미수록	
77	望海亭	1	권3	
78	望松江墓	1	권3	

79	見京書戲占	1	권3	
80	金川望鶴南鄭相墓有感	1	권3	金川望鶴南鄭相公墓有感
81	夕過滿月臺	1	권3	
82	臨齋尹副學墓有感	2	권3	
83	社谷月夜	4	권3	
84	與沈伯修看梅	3	권4	蕉齋梅
85	送人赴燕	5	권4	
86	送洪志哉從往燕中	5	권4	送洪志哉-希泳-從往燕中
87	齋谷夜遇申寢郎-光洙-不見已十數年	3	권4	齋谷夜遇申寢郎-光洙-不見已數十年
88	三月望日與柳李南洪諸人遊疊翠臺夕到掌苑署	5	권4	三月望日與柳崔李南洪諸人遊疊翠臺夕到掌苑署라는 제목으로 4수 수록, 제5수는『시고』에만 수록
89	首夏太常會諸人沈伯修適至	3	미수록	
90	送通信上使徐淡翁-命膺	19	권4	
91	與翼齋共賦	2	권4	用前韻 / 翼齋共賦라는 제목으로 나란히 수록되어 있음
92	芙蓉堂與巡相同賦	12	권5	芙蓉堂與李巡相潭同賦
93	西京仲冬與留相同賦	15	권5	
94	華藏寺	3	권5	같은 제목으로 2수 수록, 제1수는『시고』에만 수록
95	聖壽庵	2	권5	같은 제목으로 1수 수록, 제1수는『시고』에만 수록
96	與子承及仁則共賦	4	권5	換凡齋復會라는 제목으로 11수 수록, 제1,2수는 『시고』에만 수록. 제3,4수는「換凡齋復會」 11수 중 제8,9수에 해당
97	暮春與洪穎草及諸人共賦落花	8	권5	暮春與洪叔道諸人賦落花
98	與時韞同閱『簡易集』次卷中韻	4	권6	與時韞同閱『簡易集』次卷中韻이라는 제목으로 8수 수록 --> 이 중 1~4수
99	翌日時韞疊前韻走次却寄	4	권6	與時韞同閱『簡易集』次卷中韻이라는 제목으로 8수 수록 --> 이 중 5~8수

100	時韞復以前韻賦望月相寄遂次之	6	권6	
101	時韞以旣望不能效赤壁蠶頭古事爲恨, 疊前韻又次之	2	권6	
102	時韞又以强韻相困, 强滿五疊而止, 夸多鬬靡, 非老病者事也	4	권6	
103	江樓與元尙書同賦	10	권6	江樓與元判書同賦
104	東郊與時韞同賦	10	권6	
105	穎草齋與如臨時韞共賦	16	권6	洪侍講叔道因南時韞送韻要和追述曩游翻和却寄
106	與仁則同賦	4	권4	過仁則夜飮으로 9수 수록 --> 이 중 제3,4,6,8수
107	重陽後夜與子承朴仁則洪徽之同賦	8	권5	重陽後夜過子承與仁則洪徽之 -愼猷-作이라는 제목으로 6수 수록, 제4,8수는『시고』에만 수록
108	與仁則又賦	5	권5	與仁則同賦

『우념재시문초』와『우념재시고』가 이봉환의 삶과 문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라고 한다면, 그가 수행한 특별한 활동과 관련지어 살펴볼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통신사행 때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는 조명채(曺命采)의『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홍경해(洪景海)의 『수사일록』(隨槎日錄)을 들 수 있다. 1747~48년에 수행한 무진사행단에서 조명채는 종사관(從事官)이었고, 홍경해는 정사(正使)인 부친 홍계희(洪啓禧)를 수행한 자제군관이었다. 통신사행에서 종사관은 으레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생각해 보면, 무진사행의 공식적 기록물은『봉사일본시문견록』이라고 할 만하다. 이에 대해 정사의 자제군관 홍경해가 쓴『수사일록』은 공식적 기록물로서의 성격은 다소 약하더라도 홍경해 자신이 부친인 홍계희와 부친의 서기로 수행한 이봉환을 누구보다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자제군관인 낮은 직책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일본문사들과 직접 교유한 중인, 서얼로 이루어진 제술관 및 삼 서기와 허물없이 교유함으로써 이들이 겪은 여러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212] 이런 점에서『수사일록』역시 이봉환의 통신사행원

으로서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조선에서 편찬한 사행록(使行錄) 이외에 일본에서 출간된 필담창화집이 여러 편 존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내정집』(來庭集), 『화한문회』(和韓文會), 『화한창화록』(和韓唱和錄), 『사여』(槎餘), 『홍려경개집』(鴻臚傾蓋集), 『선린풍아』(善隣風雅), 『선린풍아후편』(善隣風雅後編)을 참조하였다.

『내정집』은 에도시대 중기의 유학자인 마츠자키 칸카이(松崎觀海, 1725~1776)가 쓴 책으로, 에도의 객관(客館)에서 조선의 문사들과 나눈 필담과 수창한 시문, 주고받은 편지를 수록해 놓았다. 이 책을 쓴 칸카이는 오규우 소라이(荻生徂徠)의 제자인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의 제자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 내각문고(內閣文庫) 소장본이다.[213]

『화한문회』는 오오사카의 문사 루스 카츠노오(留守括囊, 1705~1765)가 조선의 문사들과 오오사카에서 주고받은 필담을 모은 책이다. 카츠노오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제자 미야케 쇼오사이(三宅尙齋)의 제자이다. 야마자키 안사이와 그 제자들은 기몬학파(崎門學派)라고 하여 성리학자로 분류된다. 이 책은 카츠노오의 제자 오카다 야스타카(岡田安敬)가 1748년 10월에 쓴 서문이 권두에 실린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상(上)·하(下)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아사쿠사 문고(淺草文庫) 소장본이다.[214]

『화한창화록』은 『이방연벽』(二邦連璧)이라고도 한다. 오오사카에서 일본 문사 13명[215]이 조선 문사의 객관을 방문하여 나눈 필담과 시문을 수록한 책인데, 상(上)·하(下)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상은 위에서 살핀 『화한문회』 권상에도 실려 있고, 권하에는 이봉환의 유명한 글 「오오사카의 선재(膳宰) 노구치 씨(野口氏)에게 주는

---

212) 이와 관련해서 이경근, 「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고전문학과 교육』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59면 참조.

213) 이 책과 관련한 연구로 이효원, 「通信使와 徂徠學派의 교류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 7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및 강혜규, 「18세기 통신사 필담 『來庭集』에 보이는 衣冠 논쟁」,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2017이 있다.

214) 아사쿠사 문고 소장 필담창화집과 관련해서는 구지현, 「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학 교류의 전개 양상 -『淺草文庫書目解題』 소재 필담창화집을 자료로 하여 -」, 『한국한문학연구』41, 한국한문학회, 2008, 121~122 도표 참조.

215) "菅榮, 河劦人; 豊徵, 氏豊川, 號蒲城; 惠迪, 氏木村, 字丈右衛門; 必東, 氏泉, 浪花人; 臺, 氏賀美, 名臺, 藝劦人; 丹山, 姓桐, 名澄, 字玄淑; 碧山, 姓桐, 名熊充, 字玄闊; 九皐, 姓崔, 名純, 字仙柳; 鶴洲, 氏上月, 名信敬, 字丹藏; 振岡, 姓佐野, 名安貞, 字原泉; 銀臺, 姓向井, 名璣, 字子玉; 東嶽, 姓管, 名斐卿, 字伯錦; 括囊, 姓留守, 名友信, 字退藏."(「唱和姓氏」, 『和韓唱和錄』 卷上)

글」(與坂城膳宰野口氏文)이 실려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사여』는 미야세 류우몬(宮瀨龍門, 1720~1771), 토오도오 하료오(藤堂巴陵, 1722~1797) 등 다섯 명의 에도 문사가 조선의 문사와 주고받은 시문, 필담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이 만난 시간과 장소는 6월 10일 조선인의 숙소인 아사쿠사 객관(淺草客官)이라고 특정되어 있다.[216] 이들은 오규우 소라이학파에 속하는 인물들로, 이 중 미야세 류우몬은 1763~64년 통신사 역관(譯官) 이언진(李彦瑱, 1740~1766)과 수창한 바 있다.[217] 『사여』는 불분권 1책으로 후치 코가이(淵好凱)가 편집했으며, 일본 동경도립도서관(東京都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홍려경개집』(鴻臚傾蓋集)은 『사여』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임과 같은 모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책은 미야세 류우몬의 제자 모리 나오카타(森尙賢)가 자신의 스승이 조선인들과 주고받은 시문과 필담을 위주로 편집한 것이라, 다른 네 명이 조선인과 수창한 시와 필담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여』와 차이점이 있다. 불분권 1책으로, 일본 동경도립도서관(東京都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선린풍아』와 『선린풍아후편』은 일본의 승려 쇼오켄(承堅)과 그의 제자들이 조선인 문사들과 수창한 시와 필담을 모은 책이다. 쇼오켄은 대마도에서부터 무진사행단을 수행한 접반승(接伴僧)이다.[218] 접반승으로서 시문에 능하였기 때문에 쇼오켄은 조선문사들과 다수의 시문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 두 책에는 『우념재시문초』에 수록된 이봉환의 시와 그 원운시, 또는 차운시가 되는 쇼오켄의 시가 같이 실려 있어서 이봉환 시의 창작 맥락을 보다 소연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선린풍아』는 권1, 권2 총2권이고, 『선린풍아후편』은 권상, 권하 총2권인데, 권상은 본문, 습유(拾遺), 한

---

216) "延享五年戊辰, 三韓修聘, 五月卄一日入東都, 越六月十日, 宮文翼、滕目夷、安子帛、滕堂君鼐、不佞世翼同會學士朴矩軒、奉事李濟菴、進士李海皐于淺草客館."(井世翼, 「附記」, 『槎餘』 21a~21b)

217) 이언진과 미야세 류우몬의 필담과 관련해서는 정민,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32, 한국한문학회, 2003, 91~102면;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 이언진 평전』, 돌베개, 2010, 53~73면 참조.

218)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대마도, 즉 츠시마 번(對馬藩)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쿄오토(京都)의 승려를 뽑아 대마도의 이테이안(以酊庵)이라는 절에 머물게 하면서 일본이 조선 국왕과 주고받는 외교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업무를 맡은 승려들을 이테이안 윤번승(輪番僧)이라고 한다. 무진통신사행에서는 쇼오켄(承堅)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대마도에서부터 전명식(傳命式)을 거행하는 에도까지 통신사를 동행하기 때문에 접반승(接伴僧)이라고 한다. 이들은 조선과 관련된 외교 사무를 맡아 보았기 때문에 한문에 조예가 있었고, 시에도 조예가 있었다.

인척독(韓人尺牘)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하는 부록(附錄)이다. 『선린풍아』, 『선린풍아 후편』 모두 쇼오켄의 제자 슈우세이(周省)가 편집하였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봉환이 1754년에 가진 매사(梅社) 모임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매사오영』(梅社五詠, 불분권 1책)이 있다. 이봉환이 조재호(趙載浩), 조유진(趙維鎭), 남옥(南玉), 채희범(蔡希範)과 매화를 관찰하면서 각각 시를 40수씩 쓴 바 있는데, 이렇게 쓴 2백 수의 시가 실려 있고, 조재호와 이봉환이 남긴 평어(評語)가 존재한다.

이봉환이 수행한 동지사행(冬至使行)과 관련해서는 이상봉(李商鳳)의 『북원록』(北轅錄)과 이 책의 한글번역본 『셔원녹』을 참고할 수 있다. 둘 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북원록』은 필사본 5권 5책, 『셔원녹』은 필사본 11책이다.[219] 이상봉은 당시 부친 서장관(書狀官) 이휘중(李徽中)을 수행하는 자제군관이었다. 당시 이봉환은 문한(文翰) 관련 직무를 맡지 않고, 정사 홍계희의 군관(軍官)으로 수행하였으나 현지의 문사들과 교유하였는데, 이 장면들이 『북원록』과 『셔원녹』에 담겨 있다.

219) 이 두 책은 모두 『燕行錄選集補遺』(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에 영인수록되어 있다. 이 책들에 대한 해제는 김영진, 「북원록 해제」(『燕行錄選集補遺』上)와 「셔원녹 해제」(『燕行錄選集補遺』下) 참조.

Ⅲ. 이봉환의 문예 활동

본 장에서는 이봉환의 생애 중 문예와 관련된 활동 두 가지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해외 체험이 몹시 희귀한 시절, 일본과 중국을 모두 다녀온 인물은 극소수이다. 이봉환의 두 차례 해외 체험, 즉 1747~48년간에 있었던 무진통신사행(戊辰通信使行)에 정사서기(正使書記)로 일본에 다녀온 일과 1760~61년간에 있었던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에 정사의 군관(軍官)으로 뽑혀 중국 땅을 밟은 일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그가 일본과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해외에서의 문예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 중에서는 매사(梅社) 모임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를 쓰고 그들의 시에 평어(評語)를 내린 일이 주목된다.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통신사행 및 대청사행에서의 활동

이봉환은 정사 서기로서 무진통신사행을 수행하였다.[1] 1747년 11월 28일에 조정을 하직하여 12월 18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1748년 6월 1일에 에도(江戶)에서 전명식(傳命式)을 거행한 후, 회정(回程)하여 윤7월 30일에 복명(復命)하였다.[2] 일행 중 사문사

---

1) 무진통신사행은 1747년 2월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의 파송 요청에 따라 파견한 것으로, 에도시대 8대 쇼군(將軍) 토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재위 1716~1745)가 쇼군 직을 아들 토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재위 1745~1760)에게 선양(禪讓)한 것을 축하하는 일이 주된 목적이다. 정사 홍계희(洪啓禧), 부사 남태기(南泰耆), 종사관 조명채(曺命采)로 삼사(三使)를 삼았다.

2) 11월 28일에 여정(旅程)을 시작하여, 12월 16일에 동래(東萊)에 이르렀고, 18일에는 부산(釜山)에 도착했다. 두 달 정도 부산에 머물렀고, 도해에 성공하여 대마도의 와니우라(鰐浦)에 이른 것이 2월 16일이었다. 2월 24일에는 대마도 부중(府中)에 도착하였다. 3월 7일에는 이키노시마(壹岐島)의 카츠모토(風本)에 도착하였고, 4월 2일에는 아이노시마(藍島), 4월 5일에는 아카마가세키(赤間關: 지금의 시모노세키下關), 4월 8일에는 카미노세키(上關)에 도착했다. 4월 21일에는 하구(河口)에 이르러 일본인들이 마련한 금루선(金樓船)으로 갈아탄 후 오오사카성(大坂城)에 이르렀고, 5월 2일에는 쿄오토(京都), 5월 5일에는 히코네 성(彦根城)을 거쳤다. 5월 11일에는 금절하(金絶河)를 지났고, 5월 18일에는 하코네 령(箱根嶺)을 지났고, 하코네호(箱根湖)를 보았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드디어 에도(江戶)에 입성하였다. 에도에서 전명식(傳命式)을 거행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회정(回程)을 시작한 것은 6월 13일이었다. 윤7월 12일에 부산관(釜山館)에 들어갔고, 하루 뒤인 윤7월 13일에 도해장계(渡海狀啓)를 발송하였다. 14일에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였고, 30일에 복명(復命)하였다. 조정을 하직하여 복명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이다. 이상의 내용은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과 홍

(四文士), 즉 제술관(製述官)과 세 서기(書記)는 사행단에서 문한(文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바, 이 직책은 주로 서얼이나 중인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3] 이봉환은 일본인 지식인과의 필담창수 현장에서 학문, 문예를 논하기도 하였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다. 통신사라는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례적 측면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봉환이 이 활동을 통하여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주목할 만하다. 또 이봉환은 정사의 군관으로 경진동지사행을 수행하였다. 1760년 11월에 출발하여 1761년 4월에 귀국하였다. 군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앞선 통신사행에서처럼 문예와 관련된 임무가 없었으나 이봉환은 현지의 문사들과 필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유하였다. 이 같은 이봉환의 해외에서의 활동들을 본 절에서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통성리학과 재도론의 고수

『내정집』(來庭集)은 한학자(漢學者) 마츠자키 칸카이(松崎觀海, 1725~1776)가 에도에서 만난 무진통신사행원들과의 필담 및 창수시를 수록하고 있는 필담창화집이다. 칸카이가 이봉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 장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 어렸을 적 부친께 구두(句讀)를 떼는 법을 배우고, 8세에 글을 지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13세에 토오토(東都: 에도)에 들어왔고, 15세가 되어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 1680~1747) 선생을 따라 배웠습니다. 부친께서는 평소에 경술(經術)을 좋아하셔서 저에게 성현의 사업을 맡겼습니다. 저는 스스로 역량도 헤아리지 못하고 강개(慷慨)하여 사문(斯文)을 자임(自任)하고는 분발하여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용왕매진(勇往邁進)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성이 어리석고 인사(人事)에 통하지 못하는 바가 많아서 실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自信)할 수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또 대대로 무사(武士)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병법(兵法)을 전수 받고 기격술(技擊術)을 배우고 검(劍)에 대한 논의를 전하였습니다. 과군(寡君)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늘 몸이 게으르고 둔하여 배운 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부릴 사람이 부족하여 나 같은 사람이 쉬지도 못하고 공무를 행하느라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 버렸으니, 초심(初心)을 많이 저버렸

경해(洪景海), 『수사일록』(隨槎日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제술관 박경행은 중인이고, 정사 서기 이봉환, 부사 서기 유후, 종사관 서기 이명계는 모두 서얼이다.

습니다.[4)]

무사 집안 출신인 마츠자키 칸카이는 경학(經學)을 좋아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그에게 글을 배웠고, 유학자를 자임하였다. 칸카이의 말대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밥을 먹는 것도 거를 만큼 애를 썼다. 그런데 무사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는 것이 칸카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무사 집안 출신의 일본인이 자신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을 유학 공부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은 조선에서 온 이봉환에게 상당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칸카이가 13세 때 에도에 들어왔고, 15세부터 배웠다는 스승 다자이 슌다이(太宰春臺, 1680~1747)다. 슌다이는 유학자로서, 오규우 소라이(荻生徂徠)의 제자이다. 즉 이봉환이 대면하고 있는 마츠자키 칸카이 역시 오규우 소라이 학파 계열의 학자였던 것이다. 이제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이봉환의 필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세간에는 유교, 도교, 불교 삼교(三敎)가 있습니다. 이 아래는 공리(功利), 기송(記誦), 사장(詞章)이 있을 뿐입니다. 칼을 뽑고 말을 달리는 것이 어찌 호쾌(豪快)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들은 혈기(血氣)의 용맹함에 불과합니다. 삼교(三敎)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는 오직 입문(入門)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교와 불교는 끝내 이단(異端)에 귀결되니, 족하(足下)께서는 어찌 신중하게 기운을 가라앉혀서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의 문정(門庭)에 돌아와 머무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바람이나 꽃, 눈과 달 등은 한만(閑漫)한 소재들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글이나 쓰는 잔단 기술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족하를 대하니 얼굴에 땀이 더 많아집니다.[5)]

---

4) “幼從家君受句讀. 八歲能屬文, 十三入東都, 成童從春臺 太宰先生純受業. 家君雅好經術, 屬惟時, 以聖賢事業. 惟時竊不自揣. 慨然以斯文自任, 發憤忘食. 黽俛勇往, 然受性愚陋, 人事多所不通, 實未有一節足以自信者. 又以累世武弁, 列於行間, 嘗受兵法, 旁學技擊傳劍論, 欲以答寡君之恩, 獨奈筋駑肉緩, 所學不成, 加以小國乏使, 休沐無暇, 駒隙空過, 甚負夙心.”(「初見筆語」, 『來庭集』, 1b~2a)

5) “世間有儒道佛三敎. 下此則功利而已記誦而已詞章而已. 擊劍馳馬, 豈不豪快? 此不過血氣之勇, 三敎之取舍, 惟在入門之如何. 道佛終歸異端. 足下何不斂眉下氣, 歸宿於六經四書濂洛諸儒之門庭? 風花雪月亦是閑漫品題, 如僕輩不過彫蟲篆刻之流, 對足下尤增汗顔.”(「初見筆語」, 『來庭集』, 2a~2b)

먼저 이봉환은 유교, 도교, 불교를 삼교(三敎)라고 하고, 공리(功利), 기송(記誦), 사장(詞章)을 그 아래에 있다고 하여 등급을 분리하였다. 그 다음에 앞선 대화에서 칸카이가 무사 출신임을 밝히면서 병법(兵法), 기격술(技擊術), 검론(劍論)에 대해 말한 것을 받아 칼을 뽑고 말을 달리는 것이 호쾌하지만 혈기의 용맹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칸카이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소개를 위해 무인 출신이었음을 밝힌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봉환의 이 같은 평가는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문업(文業)과 무업(武業)에 대하여, 문업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감지되는데, 아마도 이는 조선의 문사로서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계속되는 대화에서 이봉환은 삼교 가운데 도교와 불교는 이단이니 가까이해서는 안되고, 육경과 사서를 중시하는 성리학에 귀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의 원문은 '歸宿於六經四書濂洛諸儒之門庭'인데, '濂'은 주돈이(周敦頤)의 고향 염계(濂溪), '洛'은 형제 철학자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고향 낙양(洛陽)을 가리킨다. 이 셋이 북송 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봉환은 칸카이에게 유학, 그 중 성리학에 귀의할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카이는 이미 위에서 자신이 유학에 뜻을 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봉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정통성리학을 고수하는 이유는 칸카이가 공부한다고 밝힌 유학이 이봉환이 생각하는 성리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화에서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칸카이가 공부하는 유학은 조선에서 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당연시되는 성리학이 아니라 소라이 학(徂徠學)이라는 것을 이봉환이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 예문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 대국(大國)의 이름난 선비 정포은(鄭圃隱), 이퇴계(李退溪) 두 분은 학문과 행적이 탁월하여 우러러볼 만합니다. 두 분의 저술은 제가 자못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율곡(李栗谷), 이회재(李晦齋), 정일두(鄭一蠹), 김한훤(金寒暄) 조정재(趙靜齋) 등은 모두 문집이나 저술이 있을 터인데, 어떤 책들입니까?[6]

칸카이가 거론하고 있는 정몽주(鄭夢周), 이황(李滉), 이이(李珥),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다. 칸카이는 이 중 정몽주와 이황의 저서는 보았다고 하였고, 다른 선비들의 저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봉환은 "거론하신 우리나라의 선생들은 다 저술이

6) "大國名儒鄭圃隱 李退溪二公, 學行卓爾可仰. 二公著述, 僕頗得窺之. 他李栗谷 李晦齋 鄭一蠹 金寒暄 趙靜齋諸公皆當有集或著述, 爲何等書耶?"(「初見筆語」, 『來庭集』, 3b~4a)

있어 후학들을 위한 표준이 되셨습니다."[7]라고만 대답해 주었다.

이후 학문과 관련된 대화에서 칸카이는 일본의 유학자 가운데 이름이 조선에 전해진 이가 있는지 물었고,[8] 이봉환은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와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絅齋)의 문집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토오 진사이(伊藤仁齋)는 책이 있기는 하나 오척동자(五尺童子)도 배척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9] 이봉환이 거론하고 있는 야마자키 안사이와 아사미 케이사이는 모두 성리학자로,[10]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이토오 진사이에 대해서는, 그 책이 조선에 들어와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배척의 대상임을 어린 아이를 빌려와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 칸카이는 말하기를, "진사이가 돌아가신 후, 소라이 부츠 모케이 선생이 실로 천하의 한 분이십니다. 제 스승 슌다이 선생께서 그 고족제자(高足弟子)이십니다. 소라이의 문인(門人)이 몹시 많은데, 덕행(德行), 정사(政事), 경술(經術), 문사(文辭)에 이르도록 모든 장점을 겸비하신 것은 오직 슌다이 선생뿐이십니다. 이 두 분(즉, 소라이와 슌다이-인용자)을 야마자키 안사이와 아사미 케이사이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11]라고 하였고, 이 두 사람의 책을 이봉환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책을 읽어 보았는지 물었는데, 이봉환은 "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12]

칸카이는 이토오 진사이를 배척하는 이봉환의 말에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오규우 소라이와 자신의 스승 다자이 슌다이의 학문에 대해 상찬하는 말들을 늘어 놓았다. 칸카이가 소라이 학파로서 이봉환이 비판한 이토오 진사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진사이가 칸카이에게도 비판의 대상였기 때문에 일부러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은 야마자키 안사이와 아사미 케이사이 같은 성리학자를 선호하였는데, 칸카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스승에게 전수받은 소라이 학은 이들 성리학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것이었고, 칸카이는 이 점을 이봉환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

---

7) "所示我朝諸先生皆有著述, 爲後學標準."(「初見筆語」, 『來庭集』, 4a)
8) "我邦儒先, 亦有名傳於大國者歟?"(「初見筆語」, 『來庭集』, 4a)
9) "山崎 淺見文集, 傳于鄙邦. 仁齋則雖有其書, 五尺童子亦知斥絶耳."(「初見筆語」, 『來庭集』, 4a)
10)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는 일본의 유학자로 특히 경(敬)의 가르침을 중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학파를 일본에서는 특히 기몬(崎門) 학파라고 칭한다.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絅齋, 1652~1711)는 그의 제자이다.
11) "仁齋沒後, 有徂來 物茂卿, 實海內一人. 僕先師春臺乃其高足. 徂來門人極多. 至德行政事經術文辭, 衆美兼備, 則推春臺. 二家比諸山崎 淺見, 皆萬萬倍.(「初見筆語」, 『來庭集』, 4a~4b)
12) "盡得見之."(「初見筆語」, 『來庭集』, 4b)

으로 보인다.

이 날 칸카이와 이봉환이 나눈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다. 다음 날 지속된 대화를 아래에 보이도록 한다.

> 칸카이: 제가 오규우 소라이 선생과 다자이 슌다이 선생의 학술에 대해 물었을 때, 공께서는 이미 다 그 책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바쁘신 와중에 야마자키 안사이와 아사미 케이사이의 일과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슌다이 같은 분들은 모두 최근의 대가이시고, 귀국과 거리가 멀어서, 아직 귀국에서 성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츠시마(對馬島)에서 보신 겁니까? 공들께서는 옛일에 밝고 지금의 것에도 두루 통하셨으니 이 책이 귀국에서 읽히지 않았다고는 감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봉환: 슌다이의 글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 칸카이: 소라이는 어떻습니까?
> 이봉환: 자못 순수하지만 적확함이 결여되어 있는 듯합니다.
> 칸카이: 공께서는 『변도』(辨道), 『변명』(辨名)을 읽으셨습니까?
> 이봉환: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13)]

칸카이는 지난번 대화에서 이봉환이 오규우 소라이와 다자이 슌다이의 책이 조선에 들어왔고, 이봉환도 다 읽어보았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그 내용에 대해 재차 질문을 했고, 이봉환은 자신이 한 대답에 대해 사실 슌다이의 책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여 이전 자신의 대답을 수정했다. 그리고 오규우 소라이에 대해서는 "순수하지만 적확함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칸카이는 소라이의 대표적 저술인 『변도』와 『변명』을 읽었는지 물었고, 이봉환은 아직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봉환은 아직 소라이 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처음 만난 날, 이토오 진사이의 학문에 대해 오척동자도 배척한다고 할 만큼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소라이의 학문에 대해서는 "순수하지만 적확함이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다소 형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위의 대화에 따르면 이봉환은 아직 소라이의 『변도』와 『변명』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칸카이는 소라이의 책을 사람을 통해 이봉환에게 보여준다고 하였고, 만약 이봉환이 그 책을 읽게 되면 소라이가 천 년에 한 번 나올 만

---

13) "僕言<u>徂來</u>物茂卿 <u>春臺</u> <u>太宰純</u>學術. 公答以已盡見其書, 此恐忙中與<u>山崎</u> <u>淺見</u>事混耳. <u>春臺</u>輩皆近時大家. 地隔東西, 恐未盛行於大國. 或亦自對州得之耶? 公輩博古通今, 則不敢必此書之未行於大國. 統祈垂示."(觀海); "<u>春臺</u>作未得見之"(濟菴); "<u>徂來</u>何如?"(觀海); "頗醇而似欠的確."(濟菴); "公讀『辨道』『辨名』耶否?"(觀海); "否."(濟菴) (「再見筆語」, 『來庭集』, 16b~17a)

한 호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14] 이어지는 둘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 칸카이: 송나라의 여러 원로 선생들의 가르침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고인의 말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의 뜻을 얻지 못하게 됨은 마땅합니다. '명경'(明鏡)이란 말은 불서(佛書)에서 나왔고, '지수'(止水)란 말은 『장자』(莊子)에서 나왔습니다. '허령불매'(虛靈不昧)라는 말은 모두 불서를 비판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어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가르침을 세우고 몸가짐을 잘 갖는 것은 볼 만하지만 치국과 평천하의 방법은 몹시 간소하니, 어찌 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는 데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봉환: 귀국의 학문은 풍부하고 넓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정주학(程朱學)의 성과에서 굳이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토오 진사이 씨 이래 한 번 바뀌고 두 번 변하여 그 폐단이 장차 육구연(陸九淵), 왕수인(王守仁)의 학문과 같은 데로 귀결하고 말았습니다. 대개 논한 바는 다릅니다만 비판받는 것은 같을 뿐입니다. 한나라 당나라의 훈고(訓詁)는 그저 들은 것을 기록하는 데 불과하니, 정주학이 없다면 어찌 밝힐 수 있겠는가? 후학들은 마땅히 정해진 길을 준수해야지, 티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명경', '지수'가 장자와 부처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비유를 하기에 좋으니 어찌 사람이 싫다고 하여 그 말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15]

칸카이는 소라이 학파에 속한다. 소라이의 학문을 고문사학(古文辭學)이라고 일컫는데, 고어(古語)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서 '명경지수'(明鏡止水)와 '허령불매'(虛靈不昧) 같이 송대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의 원래의 의미를 분석하여, 사실은 그 용어들의 출처가 유학자들이 배척해 마지 않은 불교와 장자의 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 뒤에 성인의 가르침에 어찌 이런 것들이 있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

14) "他日若賜領收電覽, 則公亦恐許<u>徂來</u>千載一豪傑."(「再見筆語」, 『來庭集』, 17a)

15) "宋諸老先生立教, 豈不美耶? 然不知古言, 以己意解古人之言. 宜乎不得聖人之旨. 明鏡出佛書, 止水出莊子. 虛靈不昧皆剖折佛書之字. 聖人之教, 豈有此耶? 且其立教持行可觀, 而治平之術甚踈. 何以供家國天下之用? 所以不免致疑."(觀海); "貴國之學, 非不贍博. 而率皆吹毛覓疵於<u>程</u> <u>朱</u>之緖業. 自<u>伊藤</u>氏以來, 一轉再轉, 其弊將與<u>陸</u> <u>王</u>同歸. 盖以所論雖異, 而所譏者同耳. 漢唐箋註, 只是記問而已. 不有<u>程</u> <u>朱</u>, 何以啓明? 後學當遵守規轍, 不當譏訕瑕纇. 明鏡止水, 雖出於莊磨, 其言善於譬喩, 則豈可以人廢言耶?"(濟菴) (「再見筆語」, 『來庭集』, 17b~18a)

데, 이는 송대 성리학자들이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들이 남긴 말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성리학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갖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치국, 평천하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은 송대 성리학이 수신(修身)을 하는 정도에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치인(治人)을 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원래 유학(儒學)의 이상이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송대 성리학자의 학문이 수신에나 적합하다는 말은 이들이 성현들의 사상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비판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학문이 송대 유학자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이상을 달성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칸카이의 이 같은 비판에 이봉환은 소라이의 학문이 성리학의 약점을 일부러 찾아내 들춰내는 것 같다고 하였고, 이토오 진사이의 학문이 몇 차례 변하여 육구연, 왕수인의 학문으로 변했다고까지 하였다. 정주학자들에게 육왕학(陸王學)은 심학(心學)으로의 경사(傾斜)가 심하다는 이유로 배척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소라이 학이 이단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봉환에 따르면 소라이 학은 이토오 진사이의 학문, 육구연, 왕수인의 학문과 궤를 같이 한다.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들은 모두 이단이라고 배척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칸카이가 '명경지수', '허령불매'에서 찾아낸 비유학적(非儒學的) 요소들에 대한 비판을 사람이 싫다고 하여 그의 말까지 버릴 수 없다는 말로 무화(無化)하고 있다. 정주학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이봉환으로서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봉환은 오오사카에서 만난 카츠노오(括囊) 루스 키사이(留守希齋, 1705~1765)에게 일본의 학문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다. 키사이는 미야케 쇼오사이(三宅尙齋)의 제자이고, 쇼오사이는 성리학자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제자이니, 이 인물은 기몬학파에 속한 인물이다. 이봉환은 키사이를 왕로(往路)에서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에도(江戶)에서 전명식을 거행한 후 귀국하는 복로(復路)에서도 만났다. 다음 글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오사카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 귀국은 오로지 무력을 가르침으로 삼으니 문명(文明)의 운은 아직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군자 한 두 명이 있어서 크게 경학(經學)을 밝히고 바른 궤도를 따라간다면, 삼강오륜의 이치와 천인성명(天人性命)의 학문이 완성되지 않을 근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5천리를 왕복하면서 수백 명 문사들을 두

루 만났으나 그들이 문장을 짓고 시문을 외는 재주는 전혀 사람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간혹 경술(經術)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모두 염락관민(濂洛關閩)의 바른 길을 늙은 이가 늘 하는 말로 여기고 흘겨보고는 다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왕개미가 나무를 흔드는 격입니다. 에도(江戶)의 후지와라 아키토오(藤原明遠)가 자못 재주와 식견이 있으나 또한 주자학(朱子學)에 대하여 겉으로는 존중하면서 속으로는 배척하였으니 그 지향을 따져보면 이토오 진사이(伊藤仁齋)의 후예에 불과합니다. 초야(草野)나 산림(山林)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강학하면서 정주(程朱)의 뜻을 어기지 않는 이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16]

이봉환은 키사이에게 일본은 조선과는 달리 무력(武力)을 중시하기 때문에 문명이 열리기 힘들다고 한 후, 일본에 건너와서 에도에서 국서(國書)를 전달하고 귀로(歸路)에 올라 오오사카에 이른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간혹 그들이 재주가 있어서 문학 실력을 뽐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사람의 모습'(爲人樣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송대 성리학(性理學)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하여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평범한 사람들도 외부 세계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상적 인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7] 즉 인간의 완성 내지 훌륭한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해 본 일본 문사들 중 이 같은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일본에서는 성리학을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리고 염락관민(濂洛關閩)의 학문, 즉 성리학을 일본인들은 오래된 학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봉환에게는 이것이 개미가 나무를 흔드는 정도의 사소한 일이었던 듯하다. 이봉환에게는 일본의 수많은 문사들이 거부감을 표하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주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에도에서 만났다는 후지와라 아키토오(藤原明遠)는 시강직학사(侍講直學士)로 재직하고 있는 인물로, 홍경해의 『수사일록』(隨槎日錄)과 조명채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에도 등장하는데, 이 둘 모두 이 인물을 이토오 진사이 같은 무리라고 비판하고 있다.[18] 그러고 나

16) "(…) 貴國專以武力爲敎, 文明之運, 姑未盡開. 苟有一二君子, 昌明經術, 循蹈軌轍, 則三綱五常之理, 天人性命之學, 何患乎不造其極? 而僕於五千里往返之役, 閱歷數百文士, 而詞章記誦之藝, 都不關繫於爲人樣子. 間有以經術爲問, 而皆以濂洛關閩之正路爲老生常談, 睨而不顧, 眞所謂蚍蜉撼樹者也. 江戶藤原明遠頗有才識, 而亦於朱學陽尊而陰擠. 究其所就, 亦不過伊藤維楨之餘派也. 未知草野山林之間窮經而講學, 不悖程 朱之旨者有幾人哉."(『和韓文會』卷下, 11b~12a)

17) 정이(程頤)가 말한 "성인은 배워서 이를 수 있다."(聖人可學而至)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서 일본의 재야(在野)에서 정주학을 착실히 공부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다시 묻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이봉환은 정주학, 즉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일본 문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이 정통 성리학의 사상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사상과 문예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이봉환이 재도론(載道論) 중심의 문예관을 견지했음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문으로써 도를 전달한다는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은 송대 도학자들의 문예관이었고, 일본에서 문인들을 만났을 때 조선통신사의 사문사(四文士)가 줄곧 견지해 온 공식적 문예관이기도 하였다. 무진사행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일본에서 표출되는 이봉환의 문예관은 사문사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문예관이 아니라 구성원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공식적 문예관일 가능성이 크다.[19]

『화한창화록』(和韓唱和錄)에는 「오오사카의 선재(膳宰) 노구치 씨(野口氏)에게 주는 글」(與坂城膳宰野口氏文)이라는 이봉환의 글이 실려 있다. 『화한창화록』은 오오사카의 문인들과 이봉환이 교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봉환은 일본의 산천과 인물의 빼어남에 대해 감탄하였으나, 오직 일본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조선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것을 홀로 안타깝게 여겼고, 간혹 시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은 글을 바치면서 빈관을 방문하게 되면, 문장들이 화려하게 조탁하는 것을 본뜨려는 글들이 많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화려한 것을 다투고자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20] 그런데, 오오사카에서 선재(膳宰)의 직책을 세습하고 있는 노구치(野口)가 조선 학사의 필적(筆跡)을 누대에 걸쳐서 마치 보물인 것처럼 소

---

18) 홍경해는 이토오 진사이처럼 정주학을 비판했다고 적고 있고, 조명채는 『중용』이 자사(子思)의 글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인물을 이토오 진사이 같은 괴탄한 무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경해, 『수사일록』, 5월 24일 자 및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5월 29일 자 참조.

19) 조선 내에서 서얼이 사대부와는 다른 문예적, 사상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이들이 도문론적 문예관에 대해 설파하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통성리학과 재도론은 모두 사대부가 선호하는 학문문예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일본에서 일종의 공무(公務)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를 모순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조선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할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 이역에서나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성취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봉환이 일본에서 사대부의 학문문예관이라고 할 만한 성리학과 재도론을 견지하는 이유도 이 같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0) "自余隨信行渡馬島以來, 見其山川之明媚, 人物之殷盛. 所在皆然, 而獨恨其所講者異耳. 間有詩文之士, 挾所業爲贄, 來見於賓館, 而率倣綺麗彫篆之習, 欲爲誇多鬪靡而止, 則未嘗不厭然而倦."(『和韓唱和錄』卷下 16a)

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선인이 노구치에게 그 글을 써준 것은 노구치가 품고 있는 동문(同文)을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21] 조선과 일본에 대한 논설을 전개한다.

> 선왕 문물의 융성함은 모두 문헌에 있으니 우리 조선에서는 이를 읽고 행합니다. 높이는 것은 요순(堯舜), 문무(文武), 공맹(孔孟), 정주(程朱)이며, 읽는 것은『시』(詩),『서』(書)와 사서(四書),『소학』(小學),『근사록』(近思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은 관혼상제(冠婚喪祭)이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충신독경(忠信篤敬)입니다. 글을 짓는 것은 이 도를 보호하는 데 있고, 시를 짓는 것은『시경』을 밝게 드러내는 데 힘을 씁니다. 군자는 도의를 즐기고 염치를 중시하고, 소인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기교를 싫어합니다. 만약 좌도(左道)를 고집하거나 말기(末技)에 힘쓰는 이가 있거든 모두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
> 풍속이 열리는 것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시작되니, 훌륭하신 왕과 큰 선비들이 밝게 일어나셔서 이씨 왕조를 세우시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예악(禮樂)이 위의 있게 드러나 찬란하고 분명한 것은 혼자만 갖거나 감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의 이웃 나라에 전할 만합니다.
>
> 일본은 산천이 아름다운 곳으로 반드시 풍속이 한 번 열리게 되는 운(運)이 있을 것이고, 인물이 많고 융성하니 어찌 물질적 기반이 갖춰진 후에 가르칠 만한 계기가 없겠습니까? 종명(鬷明)은 당하(堂下)에 있던 미천한 선비였거늘 숙향(叔向)이 칭찬하며 이끌어주었고, 문창(文暢)은 중으로 외도(外道)였거늘 한유(韓愈)가 기꺼이 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풍속이 트이는 것은 그 단서가 몹시 은미(隱微)한 법입니다. 진실로 이로써 미루어 가면 선부(膳夫) 한 명이 죽은 말의 뼈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
> 나는 노구치 씨에게 바라노니, 그 예(藝)를 흠모하지 말고 도(道)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와 시간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노구치 씨 한 사람이 힘쓸 바이겠습니까?[22]

---

21) "其所書贈只貴其同文慕艶之誠而已"(『和韓唱和錄』卷下 16b)

22) "先王文物之盛, 具在方冊, 我朝鮮講而行之. 所尊者堯舜文武孔孟程朱; 所講者『詩』『書』『四子』『小學』『近思』. 所致謹者冠婚喪祭; 所服膺者忠信篤敬. 爲文在羽翼斯道; 爲詩務昌明風雅. 君子樂道義而重廉恥; 小人恥貪冒而厭機巧. 苟有執左道而務末技者, 皆斥而遠之. 風氣之闢, 肇自父師, 而明王碩儒彰明興起, 積有李代以至于今. 凡其禮樂儀文燦然明白者, 旣非自私自諱之物, 足以使於天下隣國也. 夫以日本山川之明媚, 必有風氣一闢之運, 人物之殷盛, 豈無富庶可敎之機耶? 鬷明堂下賤士也, 叔向奬而延之. 文暢浮屠外道也, 韓愈樂而告之. 風氣之發, 其端甚微. 苟有以推之, 一膳夫亦何間於死馬之骨哉?"(『和韓唱和錄』卷下 16b~17b)

첫 부분은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글을 쓰는 것은 사도(斯道)를 보호하는 데 있고, 시를 지을 때는 『시경』을 밝게 드러내는 데 힘을 쓴다."라는 발언은 바로 도문론적 문예관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봉환의 입장에서 일련의 이런 일들은 선왕께서 남긴 융성한 문물을 이어받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도와 말기 따위를 배척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풍속은 아버지와 스승이 열어주는 것이고, 조선은 훌륭한 왕과 신하들 덕분에 찬란한 문화를 드러낼 수 있었으며, 이 같은 문화를 이웃나라에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부분은 통신사절로서 이봉환이 견지하고 있는 문화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자부심은 조선은 풍속이 열렸으나 일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사정이 이처럼 안 좋은 때에 오오사카의 선부(膳夫) 노구치가 문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선인이 써준 글씨를 누대에 걸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은미한 단서를 확장해 간다면, 일본은 곧 풍속의 개변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봉환의 생각이다.

숙향은 진(晉)나라 대부(大夫) 양설힐(羊舌肸)의 자(字)이다. 종명(鬷明)은 종멸(鬷蔑)이라고도 하는데, 춘추시대 정(鄭)나라 사람으로 간공(簡公) 때 대부(大夫)를 지냈다. 모습이 추하였으나 현명했다. 양설힐이 정나라에 왔을 때, 종명은 양설힐을 만나기 위해 당 아래에서 기물(器物)을 들고 서 있었는데, 양설힐이 그의 말을 듣고는 이 인물이 종명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당 아래로 내려가 손을 잡고 당상으로 올라와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23] 문창(文暢)은 평소 유가(儒家)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던 승려로 한유(韓愈)는 그가 부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고, 글을 써서 유가의 가르침을 일러준 바 있다.[24] 숙향이 미천한 종명을 인재로 맞이하고, 승려 문창을 한유가 내치지 않고 가르쳐 준 것처럼 조선의 예악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의 풍속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지인 것이다. 일종의 조선 중심의 문명전파론이라고 할 만한데,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리학 위주의 사상과 재도론 중심의 문예론이 개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마지막에 보이는 "죽은 말의 뼈"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인재를 구하는 데 몹시 도움이 된 수단을 가리킨다.[25]

---

23) 『春秋左傳』, 昭公二十八年.

24) 韓愈, 「送浮屠文暢師序」, 『古文眞寶後集』 권2.

25) 천금(千金)을 들여 3년 동안 천리마(千里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한 어떤 왕에게 한 사람이 자신이 천리마를 사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백금(五百金)의 거금을 들여 죽은 말의 뼈를 구해왔다. 왕이 놀라 연유를 물으니 죽은 말을 거금을

그런데 이 글이 일본인에게 곱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노구치로부터 이 편지를 입수한 스가누마 토오카쿠(菅沼東郭, 1690~1764)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내가 그것을 읽어보니, 대개 논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문사들이 그저 사장(詞章)을 일삼고 실학(實學)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전날 관소를 방문했을 때, 시를 들고 창화를 구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선왕의 도에 대해서 말할 겨를이 없었다. 또 저 나라의 학자들은 자사(子思), 맹자(孟子), 정자(程子), 주자(朱子)가 공자(孔子)보다 낫다고 깊이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사와 맹자도 폐단이 있고, 정자와 주자도 단점이 많음을 알고 있으니 어찌 조선인들과 함께 째려보면서 맞선 상태에서 주륙(朱陸)의 아호논쟁(鵝湖論爭)을 따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자는 다투지 않는 법이니, 다투게 되면 자사, 맹자, 정자, 주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 도를 논하지 않는 것이다.[26]

일본인의 눈에는 조선인이 주자학을 신봉하는 것이 공자보다 사맹정주(思孟程朱)를 더 낫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스가누마 토오카쿠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인은 이들 사맹정주의 단점과 결점도 잘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조선인과는 유학에 관한 학문적 토론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측의 입장에서는 사상 내지 사상가의 완결성, 무오류성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 문사들이 견지하고 있는 도문론적 문예관은 일본 문인에 의해 비판이 되기도 하였다. 에도에서 만난 미야세 류우몬(宮瀨龍門, 1720~1771)이 이명계에게 써준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27]

류우몬에 따르면 일본은 초창기에는 견당사(遣唐使)를 매년 보내어 예악형정(禮樂刑政)은 한당(漢唐)의 제도를 모방하였고, 조형(晁衡)을 유학생으로 당에 파견하여 이백

들여 사간 사람에게 살아 있는 천리마를 팔려는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말대로 천리마를 팔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 왕은 1년 동안 세 필의 천리마를 구할 수 있었다. 전국시대 연(燕)나라 곽외(郭隗)가 소왕(昭王)에게 한 말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 실려 있다.

26) "不佞讀之, 率其所論, 蓋譏我邦操觚之士徒事詞章而無實學也. 不佞前日得謁于館中, 允多贄詩來乞和者矣. 而未嘗遑談先王之道也. 且彼邦之學者, 深信思 孟 程 朱勝於孔子也. 我邦學者知思孟之有弊, 程 朱之多□, 則何與彼邦人怒目抗衡, 以追朱 陸鵝湖之爭乎? 夫君子無所爭, 爭則何以異於思 孟 程 朱哉! 故無與論道者也."(『和韓唱和錄』卷下 17b~18a)

27) 미야세 류우몬은 핫토리 난카쿠(服部南郭, 1683~1759)의 제자인데, 핫토리 난카쿠의 스승이 오규우 소라이(荻生徂徠)이기 때문에 소라이 학파로 분류된다.

(李白), 왕유(王維) 등과 교유하기도 하였다.[28] 그런데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시작되어 무사들이 정권을 잡자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끊어졌고, 이때 해선(海船)이 중국에서 송나라 이후의 책들만을 일본에 수입하여 당시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 주희(朱熹)의 학문과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 구양수(歐陽脩), 소식(蘇軾)의 문장, 송나라와 원나라의 시 등이 일본에 유행하게 되었다.[29] 이후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7~1751)가 등장하여 당시(唐詩)를 힘껏 주창하였고, 고시(古詩)는 방치한 채 논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신묘년(辛卯年: 1711년)에 조선의 삼사 및 이현(李礥) 등 문사들과도 교유하였는데 학술과 문장은 크게 나아진 게 없었다.[30] 그 뒤 오규우 소라이와 핫토리 난가쿠가 등장하여 고문사(古文辭)를 공부하고, 모의풍(模擬風)이 일본을 크게 휩쓸었으며, 자신 역시 소라이 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혹시 조선에서 송유(宋儒)의 고루함을 버리고 복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물었다.[31]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인들이 선호하는 성리학, 한유, 유종원, 구양수, 소식 등의 당송파들, 송원의 시들이 일본에서는 한 때의 유행에 불과하였고, 이후 아라이 하쿠세키, 기온 난카이 등이 등장하여 당시풍을 중시하였으며, 1711년에는 이현을 비롯한 조선통신사와 교유하였음에도 학술과 문장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 오규우 소라이, 핫토리 난가쿠 등이 등장하여 고문사학이 유행하고 일본의 문풍이 크게 진작

---

28) 일본인 조형(晁衡, 698~770)은 조경(晁卿)이라고도 하는데, 716년에 19세의 나이로 견당유학생(遣唐留學生)에 뽑혀서 이듬해인 717년에 견당사를 따라 입당(入唐)했다. 당(唐) 태학(太學)에 입학하고, 과거에 합격하여 좌춘방(左春坊)의 사경국교서(司經局敎書)를 지냈고 좌습유(左拾遺), 좌보궐(左補闕) 등을 역임했다. 일본 이름은 아베노나카마로(阿倍仲麻呂)이다. 이백(李白), 왕유(王維)와 교유하였는데, 왕유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를 송별하면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비서감 조경을 보내며」(送秘書晁監還日本國)라는 시를 썼다. 조형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조난을 당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이백은 그를 위해 「조경을 곡하다」(哭晁卿衡)라는 시를 남겨 애통해 하였다. 조형은 결국 구조가 되었고, 당으로 다시 돌아온 후 거기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다.

29) 先王建遣唐使, 年年不絶, 而制度禮樂, 一倣漢唐之制, 故吾邦上世之詩, 抗衡於開元天寶, 乃若晁衡從遣唐使丹治縣守者, 爲留學生, 遂爲秘書監, 與李白 王維周旋相親. 略見『唐書』及『文苑英華』等, 豈後世之詩所能及哉! 其後兵革之餘, 禮樂廢弛, 武夫執柄, 文士竄伏, 絶無中華修聘, 而海舶所齎來者, 宋以來之書耳. 一時所學, 乃周 程 張 朱, 文則韓 柳 歐 蘇, 詩乃宋元遺, 非此則無投時好焉. 及國初, 斯弊猶存.(「問海皐」, 『槎餘』18b)

30) "當文廟時, 文士鬱勃, 如源君美 祇伯玉, 盛倡開天之詩, 而至古詩, 不置而論也. 此二子者與辛卯貴國三信使及學士李東郭等所周旋者也. 雖然學術文章, 猶尙自若."(「問海皐」, 『槎餘』18b~19a)

31) "徒以貴國人才之盛, 宿儒故老亦何限? 其中有舍宋學之故, 別開復古之門者乎否?"(「問海皐」, 『槎餘』19b)

되었다는 것을 일본의 학술, 문예사를 망라하면서 거론한 후 조선의 사정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명계의 답을 살펴보기로 한다.

> 논하신 바가 몹시 크고 넓습니다. 귀국의 문장과 경술(經學)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학술은 정주(程朱)의 문로를 좇는 이가 겨우 한 둘이고, 문장은 구양수와 소식의 형식을 얻은 이가 몹시 드뭅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절로 모순이 있으니, 어찌 한위(漢魏)를 배우면서 왕세정, 이반룡을 모범으로 삼으십니까? 난가쿠의 시문도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성률에 병폐가 있어서 진실로 일본에서 얻기 어려운 분입니다만 끝내 이반룡의 추종자로 귀착이 되니, 그대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소라이의 학문은 쇠 속의 금가루라고 할 만합니다. 이토오 진사이 같은 이가 많으니, 가라지풀이 많은 곳에 좋은 싹은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워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 대략 이 만큼만 대답하겠습니다.[32]

이명계의 이 같은 답은 성리학과 당송파를 기준으로 하여 일본의 문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우몬의 질문을 잘 파악하여 대답을 했다기보다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학술 문예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 그러면서 오규우 소라이의 학문에 대해서는 금가루라고 할 만큼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의 이유는 잘 파악할 수 없다. 대화의 상대자인 류우몬이 소라이 학파라는 사실을 알고 덕담을 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명계의 이 답 아래 『사여』(槎餘)의 편집자인 후치 코가이(淵好凱)의 논평이 실려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해고(海皐)는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마부(馬夫)이고, 구양수, 소식의 노예이다. 어찌 소라이 선생님의 학문을 알겠는가? 손가락 하나로 눈을 가려 태산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33]

논평에서 알 수 있듯 코가이는 소라이 학을 신봉하는 인물이다. 코가이는 이명계를

---

32) "所論可謂宏博. 然貴邦文章經術, 畧已觀之. 學趨程 朱門路者, 僅一二. 文得歐 蘇體裁者如景星. 雖以所論中見之, 自相矛盾, 安有學漢魏而以元美 于鱗爲準者耶? 南郭詩文亦已熟見. 聲病音律, 誠日東之未易得, 而終歸雪樓孱裔. 如君之言無乃過乎? 徂徠之學, 可謂鐵中零金, 而如伊藤仁齋者, 亦不爲不多, 得無莠多而苗少乎? 卒爾之間, 不可以多辭, 略此仰答."(「答」, 『槎餘』 20a)

33) "如海皐則程 朱牧圉,歐 蘇奴隸. 安知物氏之學哉! 可謂一指在前泰山不見也."(『槎餘』20a)

정자, 주자의 마부이자 구양수, 소식의 노예라고 평가하였다. 이명계를 포함한 조선의 문사들이 일본에서 송대의 학문과 시문만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한 것이다. 한편, 류우몬과 이명계의 이 필담은 『홍려경개집』(鴻臚傾蓋集)에도 실려 있는데, 이명계의 대답 아래 이 책의 편집자 모리 나오카타(森尙賢)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내 생각엔, 조선인이 배우는 것은 본디 다르다. 저들은 정주에게 제사 올리는 것이 공자보다 심하다. 틀림없이 내 말을 가지고 기송(記誦)이나 하는 속된 유자(儒者)라고 여길 것이니, 성인의 도와는 너무나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원으로 된 구멍에 모난 못을 박아 넣는 격이니, 감히 함께 논의할 수 없다."[34] 모리 나오카타는 소라이 학파에 속하는 미야세 류우몬(宮瀨龍門)의 제자이다. 그가 보기에 이봉환, 이명계 등이 정주학 및 재도론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너무나 강고해 보였기 때문에 양자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원으로 된 구멍에 모난 못을 박아 넣는 격"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소라이 학파들과 조선의 정주학, 재도론을 견지하는 문사들 간의 입장의 차이가 몹시 컸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합의의 도출은 지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일본문사와의 교류와 시문창화

이봉환은 서기(書記)로 통신사를 수행하였다. 제술관(製述官)과 세 서기, 즉 사문사(四文士)는 사행길에서 일어나는 문한(文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졌다. 귀국 후, 조정에서 임금에게 복명(復命)할 때는 언제나 이들의 활약상이 보고되었다.

> 상이 말씀하시길, "제술관이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길, "제술관은 박경행이고, 삼사는 또 각자 서기 한 명씩을 두었습니다. 신이 대동한 사람은 빙고별검(氷庫別檢) 이봉환이고, 부사와 종사관이 대동한 사람은 전참봉(前參奉) 유후, 진사(進士) 이명계입니다. 일행 가운데 고역(苦役)은 이들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매번 역참(驛站)에 들 때마다 현지의 유생배(儒生輩)들이 많으면 삼사십 명, 적으면 십여 명이 미리 와서 기다리다 각자 명함을 제출하고, 또 각자 지은 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술관과 서기가 모두 차운을 하여 화답하여 주는데, 한 사람이 수십명의 요구에 응하여, 역참마다 지은 작품이 수십편 이상입니다. 저들은 시를 받고는 마치 천금(千金) 같은 보배를 얻은 듯하였습니다. 만약 민첩한 재주가 아니면, 이런 임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

34) "按, 韓人之所習本殊. 彼尸祝程朱, 過於孔子. 必以吾言, 爲記誦俗儒. 於聖人之道, 河漢也. 圓鑿方枘, 不敢與校之."(『鴻臚傾蓋集』 9b)

였다. 조명채가 말하길, “네 사람이 수창 자리에 나아가 수십 명의 각자의 운(韻)에 맞추어 차운(次韻)을 하는 것은 이미 몹시 어려운 일이거늘, 또 그 운을 다시 밟아서 그들로 하여금 창화(唱和)를 하라고 하면 간혹 한 두명은 겨우 차운을 하는 이가 있으나, 대부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핑계를 대면서 물러나 달아나는 이들이 많았으니 몹시 우스꽝스러웠습니다.”라고 하였다.[35]

위의 인용문은 1748년 무진통신사가 복명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영조가 사문사에 대해 묻자, 정사 홍계희가 그들의 활약에 대해 보고하는 장면이다. 정사에 따르면 사문사는 일행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가는 곳마다 현지의 선비들이 방문하여 시를 요구하였고, 시를 써주면 몹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신사 사문사의 민첩한 재주에 대한 칭찬을 하였고, 종사관 조명채는 시를 지을 때 수십 명을 상대로 차운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고, 이 시에 다시 차운을 한 일본인들의 시를 보면 말이 되지 않아서 한심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사문사의 시를 짓는 속도와 차운을 하는 솜씨를 동시에 상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기로 한다.

① 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구름처럼 몰려왔다. 사문사가 이들과 수창하였는데, 너무 수준이 낮아서 말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36]

② 비젠(肥前: 지금의 오카야마현岡山縣 동남부) 문사 네다섯 명이 제술관과 서기를 찾아와서 필담창수를 하고 시문수창을 한 것이 많았는데, 미리 지어서 온 것은 현장에서 지은 것보다 크게 나아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처럼 판이하였다.[37]

③ 강물이 줄어들지 않아 떠날 수가 없었다. 제술관과 서기의 관소로 가서, 기해

---

35) “上曰:‘製述官見稱云然耶?’啓禧曰:‘製述官則朴敏行, 三使又各有書記一人. 臣之所帶, 則氷庫別檢李鳳煥, 副使·從事所帶, 則前參奉柳逅, 進士李命啓. 一行中苦役, 無過於此. 每入站所, 本處儒生輩, 多則三四十人, 少則十餘人, 預爲來待, 各呈名刺, 又各呈所作詩. 製述·書記, 皆以次和贈, 一人應數十人之求, 每站所作, 不下數十篇. 彼人得之, 如得千金之寶. 若非敏才, 不能當是任矣.’命采曰:‘四人之卽於坐席, 次其數十人各韻者, 已極難矣, 而又乃疊步其韻, 使渠輩和之, 則或有一二僅次者, 而都不成說, 餘多托辭而退遁者, 甚可笑矣.’”(『승정원일기』 1748년 8월 5일)

36) “求詩者, 自此雲集. 四詞客與之酬唱, 而卑卑無足道云.”(洪景海, 『隨槎日錄』, 4월 8일자)

37) “備前文士四五人來見製述、書記. 多有筆談酬唱, 而其預搆而來者, 則大勝於臨場所作, 判若異手.”(洪景海, 『隨槎日錄』, 4월 17일자)

년(己亥年: 1719)의 문사들이 이테이안(以酊菴)의 장로 세이탄(性湛)과 수창한 『성사답향』(星槎答響), 『성사여향』(星槎餘響) 두 책을 보았다. 작품들이 모두 초솔(草率)함을 면치 못하였다. 성장(聖章: 이봉환의 자)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매번 우리와 저쪽 사람들이 수창한 작품들을 초솔하다고 웃었는데, 지금 이 문집을 보니 과연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나는 "진실로 '오늘일이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라는 것이군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서로 크게 웃었다.[38]

④ 하야시 학두(林學頭)의 문인으로 학사(學士)라고 칭하는 이들이 매일 십여 명씩 번갈아 와서 문사들과 수창하였는데, 그 시는 하나도 볼 것이 없었다. 성장(聖章)의 무리들이 지은 것은 어떤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사십여 편에 달하였으니 윤색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하루는 소동(小童)을 시켜 종이와 붓을 주고는 베껴오라고 하였는데, 지은 시가 특별히 초솔(草率)한 뜻이 없었으니 거벽(巨擘)이라고 할 만하다. 이 밖의 문사들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찾아왔다.[39]

위의 인용문은 모두 홍경해의 『수사일록』에 나온다. 홍경해는 1748년 무진통신사의 정사였던 홍계희를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수행한 바 있다. ①은 카미노세키(上關)에서 일어난 일로, 현지의 문사들이 사문사에게 몰려와서 시문을 바쳤으나 그들의 시문은 형편없었다는 것이고, ②는 우시마도(牛窓)에서 수창한 비젠의 문사 네다섯 명의 시문이 미리 지어온 작품과 현장에서 지어온 작품 사이의 수준차가 현저하다는 것인데, 일본 문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은 시가 형편없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③은 카케가와(掛川)에서 머물렀을 때 있던 일인데, 홍경해가 사문사와 함께 기해통신사가 일본 현지인과 창수한 필담집을 얻어보는 장면이다. 『성사답향』, 『성사여향』에는 한일 양국인들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들은 일본인들의 시뿐 아니라 조선인들의 시까지도 초솔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아무리 빨리 시를 잘 짓는 조선문사들에게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지은 시들에 대해서는 흡족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듯하다. ④는 에도(江戶)에서 겪은 일인데, 당시 에도 막부의 관학(官學)을 담당하던 하야시 가문의 문인들과 수창한 경험을 적고 있다. 홍경해의 관

38) "川水不減, 不得發行. 往製述書記所. 見己亥文客,與以酊菴長老性湛酬唱者『星槎答響』、『星槎餘響』二冊, 諸作皆不免草率. 聖章笑曰: 君每以吾輩與彼人酬唱諸作笑其草率. 今見此集, 則果如何? 余曰: 眞所謂非今斯今者也. 相與大笑."(洪景海, 『隨槎日錄』, 5월 14일자)

39) "林學頭門人稱以學士者, 日日十餘人替來, 與文士酬唱, 而其詩無一可觀. 聖章輩所作或於數時之內, 至於四十餘篇, 其不能潤色固矣. 而一日使小童給紙筆謄來, 其所作詩別無草率之意, 可謂巨擘也. 此外文士絡屬不絶."(洪景海, 『隨槎日錄』, 6월 11일자)

찰에 따르면 일본 문인들의 작품은 볼품없었던 데에 비해, 이봉환 등 조선문사들의 작품은 즉석에서 지은 시라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문사들은 일본 현지의 문사들과 시문수창과 필담창화를 열심히 하면서, 조선의 문사의 우월함을 과시하고는 하였는데, 주로 이들의 장점은 글을 빠르게 짓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창수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념재시문초』에서 통신사행의 과정에서 지은 시는 56제 105수로, 모두 권2에 실려 있다. 이 시 가운데에는 통신사행을 떠나는 길에 국내 여정에서 쓴 시도 있고, 국내에서 썼는지 일본에서 썼는지 다소 불명확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다소 보수적으로 집계해 보면, 일본에서 쓴 시는 대략 25제 57수로 파악된다.[40]

통신사행에 참여한 문사들의 시가 개인 문집 이외에 일본에서 간행된 필담창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필담창화집은 최근 수년간 통신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으나, 시문과 관련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행 과정에서 이국의 문사와 주고 받는 시가 양국 문사의 교유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지만, 의례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는 평가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외면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봉환의 문집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일본사행시를 필담창화집에 실린 시와 함께 읽어 보기로 한다.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하코네 산, 스이간에게 차운하다」(箱根嶺次翠巖), 「시린(芝林)에게 차운하다」(次芝林),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次翠巖長老)와 같은 시들은 모두 통신사 접반승(接伴僧) 쇼오켄(承堅)에게 보낸 시에 이봉환이 차운한 시이다. 이봉환의 시에 보이는 스이간과 시린은 모두 쇼오켄이 사용한 호(號)이다. 우선 「시린에게 차운하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단 휘장 속 금빛 가사 입고서
갈대 꺾어든 채 은산을 건너지.
동원에서 향 사르던 남은 제자들이
흰 구름 깊은 곳서 절집문을 닫아 거네.
黃錦袈裟綵帳間, 折蘆行色度銀山.
東院燒香留弟子, 白雲深處掩禪關.

---

40) 『우념재시문초』권2의 38번째 작품 「千本松」시부터 64번째 작품 「過子文寓次」의 작품 수를 집계하되, 이 중 53번째 시 「釜山別金克讓歸洛」 1제 2수와 54번째 시 「上元泛前泮」 1제 2수는 국내에서 쓴 시로 파악하여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안개 자욱한 파도를 북을 치며 건너가니
하늘 끝에 산이 걸린 곳 갈 길은 얼마인고.
복사꽃 언덕 위 종려나무 두른 집에서
또 이 봄밤을 등불 아래서 며칠이나 보낼까?
煙波打鼓畵船行, 天際山橫不計程.
靑棕粉屋桃花岸, 又作春燈幾夜情.

「시린에게 차운하다(次芝林)」(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첫째 수는 전반부는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처음 중국에 들어와 양무제(梁武帝)를 만난 후, 갈댓잎을 엮어 배를 만들어 양자강(揚子江)을 건너가 숭산(嵩山) 소림사에서 면벽정진했다는 고사를 빌려서, 이테이안의 주지 스이간이 접반승이 되어 통신사와 동행하는 모습을 읊고 있고, 후반부는 이테이안에 남게 된 다른 승려들 역시 스승의 출장과 상관없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는 망망대해를 떠나가며 끝없는 여정에 아득함을 느끼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국적 경물을 감상하며 여정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낯선 곳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는 『선린풍아』에 실려 있다. 「시린 장로께서 내려주신 시에 삼가 화답하다」(奉和芝林長老俯贈韻)라는 7수의 시 가운데 제1수와 제2수가 바로 이 시이고,[41] 나머지 다섯 수는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선린풍아』에는 이 시의 원운시도 실려 있다. 스이간의 「이키노시마의 배 위에서 다섯 수를 써서 학사와 삼서기에게 바친다」(壹岐舟中五首, 贈呈學士三記室僉榻下)라는 시의 제4수와 제5수가 바로 이봉환이 쓴 「시린에게 차운하다」의 원운시이다. 이를 차례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바다를 떠도니
마음은 아득히 고향 산천을 달리겠지.
알지 못괘라 어느 날 바람이 돛을 밀어
물결 가르며 아카마가세키를 지나갈는지.
萍跡飄然碧海間, 神馳迢遞舊家山.

41) 『善隣風雅』 권1, 12b~13a.

不知何日風帆力, 破浪行過赤馬關.

대한의 사객이 여기에 머물거늘,
서쪽 고향 바라보면 아마득하겠지.
봄날도 무르익어 꽃비가 내리니
관유(官遊)하는 마음을 가누기 어려우시겠지.
大韓槎客此留行, 西顧鄕關隔杳程.
春事闌珊落花雨, 想應不耐官遊情.

「이키노시마를 지나는 배 위에서 다섯 수를 쓰고 학사와 세 서기의 책상에 바친다(壹岐舟中五首, 贈呈學士三記室僉榻下)」(『善隣風雅』 권1)

제목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 '이키노시마의 배 위에서'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봉사일본시문견록』에 따르면, 무진통신사가 이키노시마에 도착한 것은 3월 17일이었고, 이 섬을 떠나 아이노시마(藍島)에 들어간 것은 4월 2일이었다. 이곳에서 이렇게 지체한 것은 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 나쁜 날씨 탓에 배를 띄우기가 어려워서였다.[42]

첫째 수에서 스이간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접반하는 자신의 신세를 바다를 떠도는 부평초에 비유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고향 산천을 그리워한다고 하였고, 후반부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읊었다.

앞서 살핀바 이 시에 차운한 이봉환의 시에서 스이간을 달마대사에 비유한 것은 원운시에서 자신을 바다에 떠 있게 된 부평초와 같은 신세에 비유한 스이간을 격려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보리달마가 중국에 처음 건너와 양무제를 만나고, 숭산의 소림사에 들어가 수년의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사를 통하여, 스이간의 접반장로로서의 동행 역시 중요한 것이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정처없이 떠돌아 다녀야 함을 슬퍼하지 말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둘째 수에서 스이간은 통신사원들이 머물게 된 이키노시마와 고향인 조선과의 거리감을 새삼 부각하여 시를 시작하고, 꽃비가 내리는 봄날의 상황을 강조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춘(傷春)의 정서를 환기하면서, 이 같은 마음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선 문사들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다.

42) 이 점은 『봉사일본시문견록』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속 지적되고 있다.

공간적 격절감에 따른 객수(客愁)와 계절 때문에 겪어야 하는 소멸감 내지 무상감과 같은 감정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조선의 문사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고, 이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도 얼마간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봉환은 이 시를 차운한 시에서 앞에 놓인 여정이 많이 남았다고 말하고, 복사꽃 언덕의 종려나무를 언급하면서, 봄밤을 보낼 일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온 길이 멀었음을 객수와 연결시킨 스이간과 달리, 이봉환은 여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통신사를 수행한 서기로서, 관유(官遊)에 나선 공인(公人)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또 미지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봉환은 복사꽃 언덕의 종려나무라는 이국적 소재를 빌려온 후, 봄밤을 어찌 보낼지에 대한 나그네로서의 고민을 약간의 기대감을 담아서 토로하고 있다. 이 시상은 원운시에서 관유정(官遊情)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스이간의 발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이봉환 역시 관유에 나선 공인으로서의 면모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복사꽃, 종려, 봄밤의 등불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정취 앞에서 쉽게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봉환의 이 작품이 스이간의 원운시와 같은 상황, 즉 이키노시마에서 제대로 된 바람이 불지 않아 예정대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시에서도 행정(行程)이 순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한 갑갑함, 또는 빨리 항로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조바심 등의 정서 역시 읽어낼 수 있다.[43]

한편,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次翠巖長老)는 총10수로,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스이간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10수의 시 중 9수의 시가 『선린풍아』에 실려 있고, 『선린풍아』에는 스이간이 쓴 원운시 역시 수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3) 한편, 스이간의 시가 원운시이고, 이봉환의 시가 차운시라고 한다면, 이 둘 간의 시의 주도권은 원운시를 쓴 스이간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일본인 문사가 시를 보내어 화답시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 문사들은 이 같은 현지인의 요청에 따라 화답시를 쓴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일본 문사가 시적 상황, 시적 대상, 시어 등을 선점하게 되고, 조선인은 일단 그 같은 조선에 맞추어 자신의 시를 창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는 양쪽 문인들의 시가 각각 원운시-차운시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문사와 일본문사의 시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이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서로 시를 써주었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次翠巖長老 (총10수, 『우념재시문초』 권2)			
우념재 시문초	형식	『선린풍아』권1	翠巖의 원운시
제1수	7언율시	「奉和芝林長老惠韻」(20b)	「贈呈矩軒學士三記室各榻下」(20a)
제2수	7언절구	없음	없음
제3수	7언고시	「奉和芝林長老惠贈韻」(19a)	「古體一首, 贈呈矩軒學士三記室僉榻下」(18b)
제4수	7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1수 (15b~16a)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14b)의 제1수
제5수	7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2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2수
제6수	7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3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6수
제7수	5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6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3수
제8수	5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7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4수
제9수	5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5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5수
제10수	5언절구	「奉和芝林長老再疊韻」의 제4수	「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의 제7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념재시문초』의 「스이간 장로에게 차운하다」 총10수 중 9수가 『선린풍아』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 9수는 서로 다른 3제(題)의 시에서 시를 가려 뽑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제4수부터 10수까지 총7수의 시는 『선린풍아』에는 동일한 제목 아래 묶여 있는 시(「再用原韻酬矩軒學士及三記室僉床下」)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2수는 『선린풍아』에 실려 있지 않다.

이밖에도 「하코네 산, 스이간에게 차운하다」(箱根嶺次翠巖), 「후지산」(富士山)이 『선린풍아후편』에 원운시와 함께 실려 있다. 이 중 「후지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념재시문초』에는 '후지산'(富士山)이라는 제목으로 총5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44] 이 중 제2수, 3수, 5수가 『선린풍아후편』에 수록되어 있다.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후지산」 제3수는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 바닷물 밀치고 뿌리가 쌓였으니

44) 李鳳煥, 「富士山」, 『우념재시문초』, 권2.

제좌성(帝座星) 통하여 홀로 장대하도다.
산꼭대기의 용이 입김을 불어 은하수를 넘어뜨리고,
온몸에 서리 가득 덮어 연꽃이 피었난 듯
무지개는 기운을 모아 중턱에서 흘러내리고,
해와 달은 빛을 뿌리며 하늘 기둥 흘겨보네.
어찌하면 높은 하늘로 날개 달고 올라가,
가슴 씻고 눈 크게 뜬 채 흥얼거리며 돌아올꼬.
東排滄海積根來, 帝座相通獨壯哉.
絶頂龍吹銀漢倒, 渾身霜滿白蓮開.
雲霓蓄氣憑臍泄, 日月跳光睨柱嵬.
安得層霄飛揷翅, 盪胷決眦朗吟回.

「후지산(富士山)」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이봉환의 이 시는 후지산의 거대한 모습을 관찰하고, 산에서 느낄 수 있는 방대한 기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심정이 드러난 시라고 생각된다.

우선 이봉환은 수련에서 후지산의 크기와 높이의 웅장함에 대해 읊고 있다. 제좌성(帝座星)은 천체의 중심에 있는 임금의 별을 말한다. 본디 중국의 태산(泰山)을 두고 "그대로 제좌성에 통한다"(直通帝座)라는 말을 써서 아득한 높이를 칭송하는데, 후지산의 거대한 스케일을 칭송하기 위해 이 표현을 빌려 왔다. 함련에서는 눈 속에 쌓여 있는 후지산의 모습에 대해, 용이 은하수를 불어서 떨어뜨렸다거나 온몸에 서리를 쌓아서 흰 연꽃이 피었다고 하여 신비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련에서는 엄청나게 큰 후지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미련에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온몸을 다하여 후지산의 기상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작가의 바람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태산을 바라보며 "층층구름 일어나니 가슴 요동 치고 / 돌아가는 새는 트인 시야 속으로 들어오네"(盪胸生曾雲, 決眥入歸鳥)라고 읊은 두보(杜甫)의 「망악」(望嶽) 시에서 "盪胸", "決眥"를 가져오고, 주희(朱熹)가 형산(衡山)을 유람하면서, 형산 72봉 중 가장 높은 봉우리인 축융봉(祝融峰)을 내려가면서 "탁주 석잔에 호기가 일어 / 낭랑히 시 읊조리며 축융봉을 나는 듯 내려왔지"(濁酒三杯豪氣發, 朗吟飛下祝融峰)라고 쓴 「취하축융봉」(醉下祝融峯) 시에서 "朗吟"을 취하였다. 즉 이 시 속에서 이봉환은 스이간의 후지산 시에 차운하기 위하여 두보가 태산을 읊고, 주희가 형산을 노래할 때 사용한 시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어의 이 같

은 점화는 이봉환이 읊고 있는 '후지산' 시의 의미를 의미를 심화하고 자신의 시에 두보와 주희의 사기 가진 권위를 얹어 그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시는 『선린풍아후편』에도 수록되어 있다. 「시린 화상의 후지산 시에 삼가 차운하다」(奉次芝林和尙富嶽韻)가 그것이다. 즉 「후지산」 제3수는 스이간이 쓴 시에 대한 차운시임을 알 수 있다. 『선린풍아후편』에 함께 실려 있는 스이간의 원운시는 다음과 같다.

금오(金鼇)가 지고 나왔으리라.
해동의 명산이 저리도 웅장하네.
천년의 눈빛이 아침햇살에 빛나고
여덟 잎 연꽃은 노을 속에 피었네.
무슨 산을 가리키며 빼어남을 따질 수 있으랴
무엇이 저 은하수 끝의 높은 꼭대기를 능가하리오.
서불이 신령한 풀을 찾는다고 했거늘
여기서 한참 머물다 끝내 못 돌아갔지.
莫是金鼇擎出來, 海東名嶽勢雄哉.
千秋雪色朝陽耀, 八葉蓮華晴靄開.
更指何山論秀絶, 誰凌彼漢極層嵬.
曾言徐福求靈草, 到此長年終不回.

「후지산 시 학사 박경행과 세 서기께 바친다(富士山詩贈矩軒學士及三記室詞榻)」(『善隣風雅後編』卷之上)

이 시는 스이간이 후지산에 대해 품고 있는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된다. 수련에서 금오(金鼇)가 지고 나온 '해동명악'(海東名嶽)이라고 후지산을 칭한 후, 경련에서는 후지산이 다른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나다고 하였으며, 미련에서는 진시황 때 동쪽에 와서 선약(仙藥)을 구하려 한 서불이 미처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후지산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서라고 말함으로써 후지산의 빼어난 절경을 역사적 상상력을 결부시켜 칭송하고 있다.

한편, 이봉환의 차운시는 후지산의 빼어남을 읊고 있는 원운시의 시상을 계승하지만, 설화적이고 역사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후지산을 칭송하고 있는 스이간의 원운시와는 달리, 후지산의 웅장함과 설경이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움, 기상 현상의 기이함을 차

례대로 읊은 후, 날개를 달고 후지산이 있는 하늘에 올라가 기운을 한 번 떨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즉 빼어난 기운을 가진 산 앞에서 자신도 산과 같은 기운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스이간처럼 후지산의 경물의 탁월함을 칭송하는 단계를 벗어나, 빼어난 기상의 체득이라는 문제를 시에서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명청대 작가에 대한 탐문

이봉환(李鳳煥)은 1760년 11월부터 1761년 4월까지 동지사(冬至使) 정사(正使)의 군관(軍官) 자격으로 북경에 다녀왔다.[45] 그의 나이 51~52세 무렵이었다. 당시 동지사 정사는 홍계희(洪啓禧, 1703~1771), 부사는 조영진(趙榮進, 1703~1775), 서장관은 이휘중(李徽中, 1715~1786)이었다. 이 세 사신은 모두 자신들의 자제를 이 사행에 대동하였는데, 홍찬해(洪纘海, 1737~1777), 조광규(趙光逵), 이상봉(李商鳳, 1733~1801)[46]이 이들이다.[47] 이상봉은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북원록』(北轅錄)을 남겼다. 이 책은 한글번역본인 『셔원녹』과 함께 1760~61년의 동지사행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기 때문에 『우념재시문초』와 함께 검토해 보면, 이봉환을 포함한 당시 동지사행단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48]

이봉환은 정사의 군관으로 수행하였는데, 정사 홍계희가 1747~48년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 정사가 되었을 때 이봉환을 자신의 서기로 삼아 일본에 다녀온 바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이봉환이 동지사행에 참여한 것 역시 홍계희와의 인연 때문으로 보

---

45) 이 사행을 경진동지연행(庚辰冬至燕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은주, 「1760年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 25, 명청사학회, 2006, 97면.

46) 이상봉(李商鳳, 1733~1801)은 후에 이의봉(李義鳳)으로 개명하였다. 본고에서는 『북원록』에 기록된 대로 이상봉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겠다.

47) 삼사가 모두 자식을 대동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고, 당시 사행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구설(口舌)에 오른 바 있다. "상사 홍계희, 부사 조영진이 지난 달 도정(都政)에서 제배(除拜)하였는데, 모두 자제군관(子弟軍官)을 대동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섯 사신이 행차한다는 비방이 서울에 성행하여서 친구들 중에는 혹 만류하는 이가 많았다."(上使洪啓禧副使趙榮進去月都政除拜, 而皆帶子弟軍官, 故六使臣之謗, 盛行於洛下, 知舊或多挽止.) 『北轅錄』 권1, 1760년 7월 12일 자.

48) 감준희는 『북원록』의 내용적 특징으로 1. 지리 정보에 대한 관심, 2. 천주당 방문과 서학과의 만남, 3. 동아시아 인사들과의 교유, 4. 중국의 학술 동향에 대한 관심을 든 바 있다. 감준희, 「李義鳳의 『北轅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7~92면.

인다. 파주를 지나면서 쓴 시에서 이봉환은 “중국은 한 번 볼 만하니, 상사께서 다행히 거듭 데려가 주시네”(中州堪一見, 上价幸重攀)라고 읊은 바 있다.[49] 정사 홍계희가 무진사행에 이어 거듭 자신을 발탁하여 동지사행을 수행하게 된 일을 고마워하면서 읊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또 이봉환은 처음 동지사행을 나설 때, “이 산천 삼천리 끝까지 눈길을 보내고 / 한 번 웃고 문을 나서며 칼을 바라보노라”(山川極目三千里, 一笑出門看寶刀)[50]라고 읊으면서 조선의 경계를 넘어 이국의 땅을 밟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맡은 군관 업무를 감당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이 동지사행에서 서기의 직임을 맡은 무진통신사행 때와 달리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군관의 신분이지만, 그는 글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지의 선비들과 필담을 주고받고 있고, 삼사의 자제인 홍찬해, 조광규, 이상봉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봉환이 현지의 문사들과 교유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오산원과의 문답

동지사행이 동관역(東關驛) 역승(驛丞) 장풍서(張豊緖)의 거처에 이르렀을 때, 장풍서는 소주(蘇州) 사람 오산원(吳山源) 및 섭가참(葉家站) 주민 섭빈(葉彬)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서장관 이휘중은 오산원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벼슬은 진사(進士)이고, 거처는 소주의 장주현(長洲縣)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소주의 글 잘하는 선비로 심덕잠(沈德潛, 1673~1769)을 꼽으면서 황제(皇帝)가 불시에 소주로 시문을 보내어 그에게 수정할 것을 청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명성을 알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51] 그 뒤에 소주의 명승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봉환이 와서 오산원에게 문학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다.

> 성장(聖章)이 마침 와서 삼위(三魏)의 문적(文蹟)에 대해 물었다. 오산원이 대답하지 못하고 바쁘게 일어나 떠나는데, 만류하여도 머무르게 할 수 없었다. 이봉환이 역승 장풍서에게 묻기를, “오생이 진사라고 칭하는데 솔직한 말입니까?”라고 하니 장풍서가 대답하길 “그 사람은 강남 선비인데 진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

49) 李鳳煥, 「坡州」, 『雨念齋詩藁』.

50) 李鳳煥, 「出門」 제1수,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에 대한 분석은 Ⅳ장 1절에서 하기로 한다.

51) “家君謂吳山源曰: ‘何官?’ 答曰: ‘進士出身.’ 曰: ‘居何地?’ 曰: ‘蘇州 長洲縣.’ 問: ‘仙鄉有文士麽?’ 曰: ‘太宗伯沈德潛其人也. 皇帝不時寄詩律到蘇州, 常諭改正, 算渠有名望也.’”(李商鳳, 『北轅錄』, 12월 18일 자)

요.”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으니 그가 진사를 모칭(冒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2]

위의 인용문은 소주 출신 진사로 행세하던 오산원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진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대목으로 다소 해학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봉환이 등장하여 삼위의 문집에 대한 정보를 중국인에게 묻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봉환이 궁금해한 삼위는 위희(魏禧, 1624~1681, 자는 叔子)와 그 형 위상(魏祥, 1620~1677, 자는 伯子, 魏際瑞라고도 함), 아우 위례(魏禮, 1628~1693, 자는 季子)를 가리킨다. 이들은 강서성(江西省) 영도(寧都) 출신으로 명나라가 망하자 청나라에 출사하지 않은 채 절개를 지켰으며, 영도삼위(寧都三魏)라고 칭한다. 삼위의 문집이 『영도삼위전집』(寧都三魏全集)인데, 이봉환이 탐문하고 있는 삼위의 문적(文蹟) 역시 이 책이라고 생각된다. 『영도삼위전집』은 조선에서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전체를 읽었다고 확인되는바,[53] 이봉환은 이들보다 한 세대 위의 선배로서 이 문집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탐문하고 있는 것이다.[54] 이봉환이 조선에서 축적한 중국문학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현지의 문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2) 반상과의 문답

한편, 동지사절은 1월 8일 북경에서 태학(太學), 즉 국자감(國子監)을 둘러보던 중 그곳에 유학온 유구국(流球國) 공생(貢生) 채세창(蔡世昌)과 유구 공생들을 가르치는 교습(教習) 반상(潘相)과 그의 아들인 14세 소년 반여주(潘如燾)를 만나게 되었다. 반상의 호는 경봉(經峰)이고 호남(湖南) 안향(安鄉) 사람으로, 북경에 들어온 지 7년이 되었으며 황제의 명을 받아 유구국 관생을 가르치고 있었다.[55] 반상은 이날 이별할

52) “聖章適來, 問三魏文蹟. 吳不能對, 忙忙起去, 挽之不可止. 問諸張丞曰: ‘吳生之稱進士, 是朴實的話麽?’ 曰: ‘彼乃江南之士, 其眞贗不可卞.’ 仍微笑. 可知其冒稱也.” (李商鳳, 위의 책, 같은 곳.)

53) 김대중, 「위희와 조선후기 한문학」, 『민족문화연구』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341면 참조.

54) 삼위와 그들의 문집이 조선에서 어떻게 독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의 논문, 340~346면 참조. 위희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그가 쓴 『일록논문』(日錄論文)에 대해서는 안대회, 김종민 외, 「위숙자의 『일록논문』 역주」 <해제>, 『한문학보』31, 우리한문학회, 2014, 201~206면 참조.

55) “又有潘相者, 號徑峰, 湖南 安鄉人, 方爲琉球官學教習請見. (…) 問曰: ‘入都今幾年?’ 曰: ‘七

때 후일에 찾아오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1월 16일에 동지사절의 숙소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시문을 바치면서 교유할 것을 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장관 이휘중은 서건학(徐乾學, 1631~1694)의 문집이 있는지 물었는데, 반생은 그에게 서건학은 최근에 별로 글을 짓지 않아서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최근은 방포(方苞, 1668~1749)의 글이 좋다고 대답하였다.[56]

서건학은 청대의 학자 겸 관료, 장서가로, 『명사』(明史), 『독례통고』(讀禮通考),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를 편찬한 인물이다. 이휘중이 반상에게 서건학의 문집에 대해 물은 것은 자신이 조선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학자의 글을 현지인에게 탐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반상은 서건학은 최근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방포의 글이 좋다는 말을 하였다.

방포는 청나라 안휘(安徽) 동성(桐城) 사람으로, 정주학(程朱學)을 위주로 한 학문적 바탕 위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옛글을 존중하고, 명나라 귀유광(歸有光) 등의 주장을 계승하여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였으며, 후대에는 요내(姚鼐), 유대괴(劉大櫆)와 함께 동성삼조(桐城三祖)로 불린 인물이다.[57]

반상이 이휘중에게 서건학 대신 방포의 글을 좋다고 언급하고 있는 이 자리는 동지사절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최신 학술적 내지 문학적 정보를 입수하는 현장이라고 할 만하다. 현지인에게 받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조선은 중국의 학술, 사상, 문학에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확장해 갔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장면 바로 뒤에 이봉환이 등장하여 반상과 필담을 나누게 되는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봉환: 거인(擧人)과 수재(秀才) 중 시문(詩文)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반상: 시문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

(…)

이봉환: 말세(末世)에 인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반상: 지금이야말로 전성기(全盛期)이니 감히 말세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58]

年, 欽命敎琉球官生.'" (李商鳳, 『北轅錄』, 1월 8일 자)

56) "問: '徐健庵有文集否?', 曰: '徐文近日不甚作, 故亦不顯也. 近日方望溪諱苞之文甚好.'"(李商鳳, 위의 책, , 1월 16일 자)

57) 동성파와 방포, 요내, 유대괴에 대해서는 우멍푸(吳孟復) 저, 심경호·김봉희 역, 『桐城文派述論』, 태학사, 1998, 97~180면 참조.

②

이봉환: 심귀우(沈歸愚: 沈德潛을 이름-인용자)는 나이가 지금 89세라고 하는데, 노년(老年)의 시율(詩律) 또한 목재(牧齋: 錢謙益을 이름-인용자) 같은 이들과 같을까요?

반상: (대답하지 않음)

이봉환: 목재(牧齋)의 문장은 요즘 높이지 않습니까?

반상: 그다지 높일 만한 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59]

③

이봉환: 후조종(侯朝宗: 侯方域을 이름-인용자), 위숙자(魏叔子: 魏禧를 이름-인용자), 왕완(汪琬)의 글은 우열이 어떻습니까?

반상: 마땅히 후조종을 첫째로 치고, 위숙자가 다음이고, 왕완이 또 그다음입니다.[60]

④

이봉환: 초중(楚中)에서 최근 시문을 하는 선비 중 가장 이름이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반상: 근일 시문을 하는 선비는 몹시 많습니다. 다만 웅(熊)과 류(劉) 이후에 또한 탁월하여 대가가 된 사람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현재 사람은 논단할 수 없으니 아뢸 수 없습니다.

이봉환: 웅과 류의 이름과 호를 알려주십시오.

반상: 류자장(劉子壯)인데 호는 극유(克猷)입니다. 웅백룡(熊伯龍)인데 호는 차후(次侯)입니다.[61]

①에서 이봉환이 거인과 수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반상이 태학에서 근무하

---

58) 問曰: "擧人秀才中能文能詩者一一明告我." 曰: "能詩文者車載斗量, 不可勝數." (…) 聖章曰: "未信季世人才如此之多." 曰: "當今乃極盛之會, 不敢言叔季."(李商鳳, 앞의 책, 같은 곳)

59) "聖章曰: '沈歸愚年今八十九云. 老境詩律亦能如牧齋諸人否?' 潘君無所答. (…) 聖章曰: '牧齋之文, 近日不之尊尙麽?' 曰: '亦不甚見的尊尙.'"(李商鳳, 위의 책, 같은 곳)

60) "曰: '侯朝宗 魏叔子 汪琬之文, 優劣何居? 願聞賞鑑.' 曰: '當以侯爲第一. 魏次之. 汪又次之.'"(李商鳳, 위의 책, 같은 곳)

61) "曰: '楚中近日詩文之士煞有名称者, 誰也?' 曰: '近日詩文士頗多, 但自熊 劉後, 亦少見其卓然成大家者. 且現在之人未嘗論定, 不敢以聞.' 曰: '熊 劉名號可聞歟?' 曰: '劉子壯, 號克猷. 熊伯龍, 號次侯.'"(李商鳳, 위의 책, 같은 곳.)

는 사람이기 때문이다.[62] 이봉환은 시문에 뛰어난 인물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는데, 반상은 '수레에 싣고 말로 헤아릴 정도'(車載斗量)로 수가 많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봉환은 말세에 인물이 많이 날 리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상은 지금은 전성기이지 말세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봉환과 반상이 현시대를 각각 말세와 전성기라고 하여 정반대로 파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봉환이 이때를 한족(漢族) 선비 앞에서 말세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조선의 선비로서 견지하고 있던 일종의 화이관(華夷觀)의 반영이라고 짐작할 만하다. 이에 비해 한족 선비 반상은 지금이 전성기(원문은 極盛之會)라고 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아마도 유구국 교습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는 태학생들이 시문을 지으려는 사람도 많고, 여전히 중국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북경까지 유학하는 유구국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며칠 전 국자감에서 만나게 된 조선 동지사행의 존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요컨대, 이봉환은 조선선비로서 화이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면, 반상은 한족의 중국선비임에도 오히려 이 영향으로부터는 다소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②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덕잠(沈德潛, 1673~1769)은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사람으로 청대의 시인이자 저명한 학자이다. 그는 67세의 고령으로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가 되었는데, 이후 시독(侍讀), 내각학사(內閣學士) 등을 역임하고 1749년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에, 1757년에는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대표적 저작으로 『당시별재』(唐詩別裁), 『명시별재』(明詩別裁), 『청시별재』(淸詩別裁) 등의 시 선본(選本)이 있는데, 동지사행은 북경의 융복사(隆福寺)에서 『당시별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63]

위에서 살핀 바대로, 서장관 이휘중이 소주 장주현(長洲縣) 출신 선비 오산원을 만났을 때, 오산원은 자신의 고향 문사 중 심덕잠을 명망 있는 인물이라고 꼽은 바 있다.[64] 이봉환은 이 심덕잠을 당시 조선문사에게 비교적 익숙한 전겸익과 비교하여 물어보았는데, 반상에게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조금 뒤에 다시 전겸익을 숭상

---

62) 명청 때에는 동시(童試)에 합격한 이를 수재(秀才)라고 하였다. 이들은 국자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향시(鄕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향시에 합격하면 거인(擧人)이 되어 회시(會試)에 응시하여 공사(貢士)가 될 수 있었다. 또 공사는 전시(殿試)를 치러 진사(進士)가 될 수 있었다.

63) 李商鳳, 『北轅錄』, 1월 29일 자 참조.

64) 曰: "太宗伯沈德潛, 其人也. 皇帝不時寄詩律, 到蘇州, 常諭改正, 算渠有名望也."(李商鳳, 『北轅錄』, 12월 18일 자)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에게는 높일 바가 별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원래 전겸익은 명말청초 문단의 영수로 평가를 받지만, 명나라와 청나라 두 왕조에서 벼슬을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65] 그런데 이봉환은 전겸익에 대해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상은 심덕잠을 전겸익과 함께 거론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전겸익은 별로 높일 만한 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중국 현지에서도 소주 장주현 출신의 오산원과 호남 안향 출신의 반상 사이에서 심덕잠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달랐으며, 이봉환과 반상은 전겸익에 대해서도 평가의 정도나 호감의 정서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명의 문인은 명말청초의 산문삼대가(散文三大家)로 꼽히는 인물이다. 위숙자는 앞서 언급한 위희(魏禧)이고, 후조종(侯朝宗)은 후방역(侯方域, 1618~1655)으로, 하남(河南) 상구(商邱) 출신으로, 망명정부 남명(南明)의 복사(復社)의 일원이었으나, 청나라의 조정에 출사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그 뒤에 장년의 행적을 뉘우친다는 뜻으로 호를 장회당(壯悔堂)으로 지었다. 문집으로 『장회당문집』(壯悔堂文集)이 있다. 한편, 왕완(汪琬, 1624~1691)은 강소성(江蘇省) 장주(長洲) 출신으로 자(字)는 초문(苕文), 호는 둔암(鈍庵), 요봉(堯峰)이다.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가 되어 『명사』(明史)를 편찬하기도 하였고, 고증학적 학풍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봉환은 이 셋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우열평가를 반상을 통해 듣고 싶었던 만큼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서 어째서 반상이 후방역, 위희, 왕완의 순서로 이들을 높이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현지인에게 직접 들어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화의 긍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66]

---

65) 김하라, 「유만주의 전겸익 수용」, 『한국문화』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3~4면 참조.

66) 한편, 이덕무(李德懋)가 1778년에 연행한 체험을 기록한 『입연기』(入燕記)에 이 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어 참조된다. “또 문장을 논하였다. 향조(香祖)가 말하길, ‘후방역의 문장은 기력은 있어도 독서를 하지 않았고, 위숙자의 문장은 정심(精深)하며, 왕요봉의 문장은 웅혼(雄渾)하다.’”(又論文章. 香祖曰: “侯方域之文, 有氣力而不讀書. 魏叔子之文精, 汪堯峯之文雄.”: 李德懋, 『入燕記』(下) 「六月十一日」) 향조는 전당(錢塘) 출신 선비 반정균(潘庭筠)의 자(字)이다. 반정균은 1766년 홍대용이 북경에 왔을 때 교유를 맺은 바 있어서, 12년이 지난 뒤 조선에서 온 선비 박제가(朴齊家), 이덕무를 만나서는 몹시 환대하였다. 반정균은 삼대가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후방역, 위희, 왕안을 각각 有氣力, 精, 雄이라는 평어(評語)를 사용하여 이들을 평가하였고, 후방역에 대해서는 不讀書라는 부정적 평가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반상과 반정균 이 두 문사들의 명청대 문사들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현지인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인다.

④는 이봉환과 대화하고 있는 반상의 견해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봉환이 초중(楚中)이라고 표현한 것은 반상이 호남(湖南) 안향(安鄕) 출신이기 때문이다. 출신 지역의 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반상도 훨씬 대답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류자장(劉子壯, 1609~1652)은 자(字)가 극유(克猷), 호가 치천으로 호북(湖北) 황주(黃州) 출신인데, 국사관수찬(國史館修撰)을 지낸 인물이다. 웅백룡(熊伯龍, 1616~1669)은 자(字)가 한후(漢侯), 호가 색재(塞齋)로 호북(湖北) 한양(漢陽) 사람이다. 국사원편수(國史院編修) 및 시독(侍讀), 국자감 좨주(國子監祭酒) 등을 역임하였고, 『무하집』(無何集), 『웅학사시문집』(熊學士詩文集) 등의 저서가 있다. 당시 조선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청대의 문인관료들이다.

반상의 말대로 이 두 인물 이후에 대가가 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문학을 통하여 영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가 보기에는 시문을 통하여 이름을 날린다는 것이 곧 문인관료로서 영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자신이 태학의 교습(敎習)이라는 점이 이 같은 판단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이봉환은 동지사행단의 일원으로서 현지의 문사들과 교유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중국문학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애를 썼다. 서기(書記)로 수행한 10여 년 전의 무진통신사행 때와는 달리 이때는 군관(軍官)의 자격으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한(文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의무는 조금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봉환은 현지인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교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문학사적 지식을 넓히고자 애쓴 것으로 보인다.

(3) 「『고고이선생유서합편』서」(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 서술

연행사절이 중국에서 으레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조선에 없는 책을 발견하여 국내로 수입해 오는 것이다. 정사 홍계희는 이 동지사행 이후 조선에서 『고고이선생유서합편』(顧高二先生遺書合編)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는데, 이 책의 서문을 이봉환이 썼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양계(梁溪: 高攀龍의 호)의 책은 조선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인데, 경양(涇陽: 顧憲成의 호)의 문집은 아무리 찾아도 절대 얻을 수 없었다. 경진년에 내가 중국

에 갔을 때 나를 종행(從行)한 이가 책방의 해진 책갑 속에서 우연히『단문강설』(端文講說) 두 권을 우연히 얻었는데,[67] 뼈를 찌르고 척수를 훤하게 하여 곧장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한 번 서늘하게 펴게 하였다. 그 절기(絶奇)한 문장은 설선(薛瑄), 나흠순(羅欽順)과 비교해도 그 빛과 예리함이 크게 차이가 나니, 이것은 곧 세상의 등급과 관련된 바이니 뒤에 나온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침내『고자유편』(高子遺編)과 함께 간인(刊印)하였으니 또한 사우(師友)를 함께 전한다는 뜻이다. 신사년(辛巳年: 1761) 사월 상순.[68]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는 글로, 「『고고이선생유서합편』서」(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의 마지막 부분이다. 고고이선생(顧高二先生)은 명나라 유학자 고헌성(顧憲成, 1550~1612)과 그 제자 고반룡(高攀龍, 1562~1626)을 이른다. 이 둘은 상주부(常州府) 무석(無錫) 출신으로, 고헌성은 송나라 때 양시(楊時)가 강학한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수리하여 제자 고반룡과 함께 강학하였다. 세간의 선비들은 둘을 기려 고고(顧高)라고 병칭하였고, 이 둘은 동림학파(東林學派)를 일으켰으나 환관 위충현(魏忠賢)에게 동림당(東林黨)으로 지목되어 탄압을 받았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송학(宋學)을 고수하였으며, 명말(明末) 환관의 탄압 속에서도 지조를 지킨 인물로 조선에서 높이 평가되었다.[69]

그런데 인용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당시 고반룡의 책은 조선에 있었으나 고헌성의 책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경진년 동지사행 때 수행원 중 한 명이 이를 찾았고, 이렇게 얻은『단문강설』(端文講說)과 조선에 원래부터 있던『고자유편』(高子遺編)을 한 데 묶어서『고고이선생유서합편』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 인용문의 줄거리이다. 이 글은『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으나 홍계희의 이름으로 간행된 책에 실려 있다.[70] 따라서 "경진년에 내가 중국에 갔을 때"라는 말은 홍계희가 동지사 정사

---

67) 단문(端文)은 고헌성의 시호(諡號)이다.

68) "梁溪書東來已久, 涇陽藁求之絶不得. 庚辰余赴燕, 從行者, 於書肆敗帙中, 偶獲『端文講說』二弓. 其刺骨洞髓, 直令人一展灑然. 蓋絶奇文字也, 比之敬軒、整庵, 精芒機鋒, 大有倍蓰. 此則世級所關, 後出者不得不然歟! 遂併『高子遺編』印之, 亦師友同傳之意也. 辛巳四月上澣."(李鳳煥,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雨念齋詩文鈔』권7)

69) 일례로,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시직(侍直)의 자격으로 서연(書筵)에 참석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학술을 강론하던 중 고헌성, 고반룡이 동림에서 도학을 제창한 사실을 칭찬하고, 동림당(東林黨)으로 몰려 뜻을 떨치지 못하였으나, 명나라가 망할 때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선비가 많은 것은 이들 덕분이었다고 극찬한 바 있다. (任聖周,『書筵講義』1752년 10월 10일 자,『雜著』,『鹿門集』권18)

70) 그렇다면 이 책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라는 글이 실린 책을

로 연행한 일을 가리키고, 고헌성의 문집을 중국에서 찾아낸 “나를 종행한 이”는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동지사 수행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봉환은 일단 정사 홍계희의 군관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쉽게 구하지 못한 책을 중국에서 찾아내었다는 사실을 홍계희의 지근거리에서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혹시 당시에는 이 일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글을 홍계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할 때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훌륭한 학자이자 지조 있는 선비로 조선에 알려져 있던 고헌성, 고반룡 두 인사의 글은 홍계희의 출판 사업을 통하여 조선의 식자층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출판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 경진동지사 수행원이 고헌성의 책을 중국의 책방에서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봉환 역시 동지사의 수행원으로 이 대열 속에 있었고, 이 일을 직접 기록하여 서문으로 남겼다. 즉 이봉환은 조선에서 중국의 동림학파(東林學派)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확장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살핀 대로 이봉환은 중국 문사들에게 명청대 작가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현지인이 직접 전달하는 지식에 대해 경청한 바 있다. 이봉환은 경진동지사행에서 수행원 중 누군가가 발견한 고헌성의 책을 조선으로 수입하고, 이 책을 제자 고반룡의 책과 함께 묶어 책을 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진지한 학문적 자세 및 위충현 같은 환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지조로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았던 고헌성, 고반룡의 글은 함께 묶여서 출판되어 조선에 남겨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일

찾아보면, 『경양유서』(涇陽遺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中2165-v.1-2),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한古朝16-19)이 모두 그러하다. 이 책들은 모두 2책으로 되어 있고, 서두에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가 실려 있고, 고헌성의 글만 실려 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에 소장된 『경양유서』는 이와 다르다.(韓8-69) 서두에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가 실려 있는 것은 위의 두 본과 동일하나, 이 책은 표제(表題)가 ‘顧高遺書’이고, 춘(春)·하(夏)·추(秋)·동(冬)의 4책으로 되어 있다. 1책, 2책은 표제 옆에 ‘涇陽’이라고 써 있고, 3책, 4책은 표제 옆에 ‘梁溪’라고 써 있다. 또 1책 ,2책은 권수제가 ‘涇陽遺書’이고, 3책, 4책은 권수제가 ‘梁溪遺書’이다. 양계(梁溪)는 고반룡의 호이기 때문에, 이 책은 고헌성, 고반룡의 두 책을 합편한 것으로 이봉환이 쓴 「顧高二先生遺書合編序」 내용과 부합한다. 책의 제목을 ‘경양유서’(涇陽遺書)라고 한 것은 이 책의 권1의 권수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올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책의 제목은 표제에 써 있는 대로 ‘고고유서’(顧高遺書)라고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웹상으로 전문의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고, 필자도 이를 이용하였다. 한편,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에도 원(元)·형(亨)·이(利)·정(貞) 4책의 『경양유서』(涇陽遺書)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152.5 홍01 v.1-4) 도서관 홈페이지에 저자 이름으로 홍계희, 고헌성, 고반룡이 거론되고 있어 이 책 역시 『고고유서』(顧高遺書)일 것이라고 추정되나, 미처 실견하지 못하였다.

을 수행한 인물은 명목상으로는 당시의 정사 홍계희이겠으나, 이봉환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한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 역시 동지사행 및 그 이후의 작업과 관련하여 이봉환의 업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시인으로서의 자각과 매사(梅社) 활동

이봉환은 대대로 글공부의 내력이 있는 집안 출신이다. 서얼이었기 때문에 관직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누구보다 많은 글을 읽으려고 애썼고, 좋은 시를 썼다고 생각한다. 두 차례의 사행에서 현지인들과 활발히 교유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성취라고 한다면, 그가 누린 두 번째 성취는 1754년에 조재호의 초빙으로 매사(梅社) 모임에 참여하여 시를 쓰고 평(評)을 내리게 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임을 통하여 그는 더욱 굳건하게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갔으리라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이봉환의 매사 활동을 세 개의 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불우한 지식인들 간의 결속

1754년 12월 이봉환이 참석한 매사(梅社)는 풍양 조씨 벌열인 조재호(趙載浩)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재호는 1738년에도 이봉환을 매사에 참여시킨 적이 있는데, 16년 뒤에도 이들은 다시 매사를 결성하여 매화에 대한 시를 썼다. 특히 매사는 불우한 지식인들 간의 결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관련자료들을 읽어나가면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봉환이 쓴 「매사오영발」(梅社五詠跋)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내가 농곡 상공을 종유한 지 지금 19년이 되었는데, 산수가 좋은 곳에 나아가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일은 곧 함께 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오직 매화모임은 앞뒤로 모두 두 번뿐이다. 무오년(戊午年: 1738)에 마포에서 모였을 때는 공께서 포의로 계셨는데 각자 시를 스무 편을 썼고, 갑술년(甲戌年: 1754)에 청교(靑橋)에서 만났을 때는 공께서는 이미 재상이 되셨으니 각자 시를 마흔 편씩 썼다. 마포시는 잃어버려서 고작 서와 발만 남아 있고, 청교시는 공께서 다섯 권으로 만드시고 각자 베껴서 나누어 가졌으니 곧 이것이다.[71]

이봉환은 “나는 의경(義卿)을 몰랐었다. 병진(丙辰: 1736)년에 손재(損齋)는 현포(玄浦)에 사셔서, 내가 가서 뵈었는데, 하루는 같은 자리에서 의경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손재가 나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길, ‘이들이 내 조카인데 집이 삼주에 있으니 자네와 거처가 가깝고 일도 서로 같으니 교유할 만할 걸세’라고 하셨다”라고 하여 조재호의 조카인 조의진, 조유진 형제를 1736년에 처음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72] 「매사 오영발」을 쓴 것이 1755년이니, 그의 말대로, 교유한 지 19년이 흘렀다. 다른 모임은 여러 차례 가졌으나 매화 모임은 단 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말한 후, 1738년 마포에서의 모임과 1754년 청교에서의 모임을 구별하고 있다. 전술한바, 1738년의 모임을 제1차 매사 모임, 1754년의 모임을 제2차 매사 모임이라고 한다. 조재호는 1739년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천거로 계방(桂坊)의 관원에 임명됨으로써 관직에 처음 진출했으니, 마포에서 매화 모임을 가진 1738년에 조재호는 포의(布衣)의 신세였다. 이때 결성된 제1차 매사의 동인은 조재호, 조의진, 조유진, 이봉환, 이명계, 홍우필로, 각자 20편씩 시를 썼다고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1754년의 제2차 매사(梅社) 모임은 조재호가 이미 우의정에 제수되었을 때의 일이다. 16년 만에 재개된 매사 모임에 두 차례 다 참석한 사람은 주인격인 조재호, 조유진을 제외하고는 이봉환이 유일하다.

원래 조유진이 채희범, 남옥을 집으로 불러 매화시 모임을 가졌고, 그때 쓴 시를 조재호에게 보여서 2차 매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조재호는 조카 조유진과 함께 매화시 모임을 갖고 있던 채희범, 남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둘은 이전에도 조재호와 시회를 가진 적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의기가 통하기도 했기 때문에, 형편을 이유로 제안을 마다하지 않았다.[73] 조재호가 먼저 남옥, 채희범에게 편지를 써서 분매 감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과 이들이 또 조재호와 의기가 통하여, 자신의 형편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재호는 명문가 출신의 정승이고, 남옥, 채희범은 서얼로서 지위가 한미하다는 점이 이들의 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점보다는 오히려 의기가 통하는 점[聲氣所感]이 이들

71) “戊午在麻湖, 公方布衣, 各有詩二十篇. 甲戌在靑橋, 公已相矣. 各有詩四十篇. 麻湖詩見軼, 只有序與跋. 靑橋詩, 公作五卷, 各寫以分, 卽此也.” (李鳳煥, 「梅社五詠跋」, 『梅社五詠』)

72) “余不識義卿, 丙辰損齋住玄浦. 余往見之. 一日遇義卿兄弟於座. 損齋指示余曰, 此宗姪也. 家于三洲, 與子居相近而業相同, 可與交也.” (李鳳煥, 「趙義卿哀辭」, 『雨念齋詩文鈔』 권9)

73) “且曾與余爲詩酒會, 契好頗篤. 於是書邀甚勤. 二人者聲氣所感, 不以蹤跡辭.”(趙載浩, 「梅社五詠記」, 『梅社五詠』)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했다. 이들은 1754년 12월에 총7회의 만남을 가졌다.[74] 이 모임에선 조재호와 조유진이 각각 남북매사주인(南北梅社主人)이 되어서 모두 참석하였고,[75] 이봉환, 남옥, 채희범까지 모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으나, 불참한 사람은 반드시 참여한 사람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야만 했다.

채희범의 「매사오영서」(梅社五詠序)에 따르면, 분매(盆梅) 감상은 한양의 호사가(好事家)들 사이에서 유행한 활동이었다. 분매는 10월에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해, 12월이 되면 모든 꽃이 핀다.[76] 그런데 채희범은 이 같은 유행에 상당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매화는 식물 중 가장 고결한 것으로, 옛적부터 청사(淸士)와 일민(逸民), 은둔자(隱遯者) 등에 비유되면서 도시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들이 애호하게 되어 자연을 떠나 소란스러운 속세에 살며, 참모습을 가리고 화합을 억지로 내세우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라 하였다.[77] 이에 대해 채희범은 "사람들은 꽃을 기르는 것을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꽃이 어찌 스스로 사람들에 의해 길러지는 것을 원했겠는가?"[78]라고 하여 유행하던 양화(養花)의 풍속을 꽃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양화 풍속의 유행을 이처럼 비판한 후 채희범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매사(梅社)에서의 매화 감상이 과연 이 같은 풍속과 얼마나 다른지 밝히려고 한다.

공께서는 끝내 세 사람(조유진, 채희범, 남옥을 의미함-인용자)과 이성장(李聖

---

74) 조재호의 「매사오영기」의 내용에 따라, 다섯 구성원의 출결표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12월	조재호	조유진	이봉환	남옥	채희범
1일	○	○	×	○	○
8일	○	○	○	○	×(尙房숙직)
14일	○	○	×	○	×
17일	○	○	○	○	○
21일	○	○	○	×(辭以病)	○
24일	○	○	×	×	×
27일	○	○	○	○	×(在直)

75) "余與持卿爲南北梅社主人, 故至其期, 未嘗不相對." 조유진이 북매사주인(北梅社主人), 조재호가 남매사주인(南梅社主人)이다. 조재호는 조유진을 가리켜 북린(北鄰)이라고 한 바 있다. "花老詩成自北鄰"(趙載浩, 「次持卿花老詩韻」)

76) "十月或已發, 及臘無一不開. 風雪滿戶, 秉燭相對, 踈寂可念."(蔡希範, 「梅社五詠序」, 『梅社五詠』)

77) "梅爲植物之最高潔者. 自古以比淸士逸民隱遯之流, 若不可置諸城市. 今反受人愛養, 離違江湖, 塵埃之所埋翳, 棼囂之所侵惱, 汨其眞而滑其和, 以效夫頃刻之榮."(蔡希範, 위의 글, 위의 책)

78) "人雖養花以爲功, 花豈自願爲人養哉!"(蔡希範, 위의 글, 위의 책)

> 章: 성장은 이봉환의 자-인용자)을 불러 공의 자택으로 모임을 옮기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는데, 꽃이 피려는 때부터 이미 진 때까지 일곱 번을 만났다. 여러 사람들이 혹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시를 화답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한 시를 채워넣도록 하였으니, 공과 네 사람의 시를 합치면 2백수가 되었다. 풍부하도다. 이는 예전에도 드문 일이었다. 공의 시는 이미 선인들의 솜씨를 훌쩍 뛰어넘었고, 제군들의 시 또한 공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였다. 그러나 시는 다만 여사(餘事)일 뿐이다. 보아하니 공께서는 우아한 뜻으로 강호를 사랑하고 한미한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셔서, 만물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거두시고, 꽃술을 새기는 일[刻鏤花蘂]로 나아갔으며, 또 반드시 산택(山澤)의 오랜 벗들과 그 취향을 함께 하셨다. 이 같은 지향을 두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조정의 높은 벼슬살이와 비교하여 어떠하겠는가?[79]

채희범은『매사오영』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꽃이 필 때부터 꽃이 지고 난 다음까지의 모습을 두고 2백 수의 시를 쓴 것은 예전에도 드문 일이었으며, 시사의 종장(宗匠)격인 조재호의 작품은 전인들의 솜씨를 뛰어 넘었고, 조재호 이외 네 명 구성원의 솜씨 역시 조재호의 안목에 들 만큼 충분히 훌륭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채희범은 시를 여사(餘事)라고 하여 대단하지 않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매사의 구성원 중 명문고관인 조재호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문고관이야말로 만물을 교화하는 지위에 임한 자라고 할 수 있는바, 채희범은 조재호를 한미한 처지의 사람을 좋아하고, 만물을 교화하는 마음을 거두어 산택의 오랜 벗들과 함께 '여사'를 즐긴 인물로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채희범은 조재호의 인물됨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평소에도 강호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벼슬을 달가워하지 않고 은거를 택하고자 하는 그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미한 사람들을 좋아하였다는 것[愛好寒素]은 정승인 그가 다른 사람과 교유할 때 지체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한미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또 만물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거두어 꽃술을 새기는 일로 나아갔다는 것은 경세가의 포부를 단념하고 분매 완상이라는 취미를 누리고자 하는 그의 선택에 대한 언급이며, 산택의 오랜 벗들과 취향을 함께 했다는 말 역시 교유의

79) "公遂邀三人及李聖章, 移集公第, 酌酒賦詩, 自花欲開, 至已落, 會七遍. 諸人或不與會, 詩有未及和者, 亦令追補. 合公與四人詩爲二百首. 富乎哉! 古所罕有也. 公詩旣高出前人, 諸君亦有足當公知者, 然詩特餘事爾. 觀公雅意, 丘壑愛好, 寒素卷懷, 其陶甄萬物者, 移之於刻鏤花蕊. 又必與山澤交舊同其趣尙. 推此志也, 視五鼎千鍾何如也?"(蔡希範, 위의 글, 위의 책)

기준이 취향의 동질성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는 끝에 조재호의 이 같은 지향은 그가 정승으로서 받게 되는 봉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벼슬을 떠나 뜻이 맞는 벗들과 신분에 구애없이 분매를 완상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사는 삶은 앞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서울의 호사가들의 유행인 양화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재호의 분매 완상은 비록 그것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나, 호사가들의 유행과는 격이 다른 것이다. 계속하여 채희범은 매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처지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돌아보면, 우리 네 사람 중 오직 지경만이 포의(布衣)의 고상함이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초망(草莽)에서 일어나서 이름이 관첩(官牒)에 올라가 있으나, 직책은 한미하고 지위는 낮아서, 국가의 영화(榮華)가 될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천하의 복사꽃과 오얏꽃이 모두 공의 문하에서 나왔다고 칭찬하였는데, 지금 공의 객들은 복사꽃, 오얏꽃이 되기에도 부족하다. 매화에 비기면 혹시 그 향은 같을지 모르나, 적은 녹봉에 구애되어 움츠린 채 기를 펴지 못하고 잔약해졌다가 시들어 꺾이니, 저 꽃에 비하여 더욱 가련하다. 스스로 천명을 살펴보건대, 공과 객에게나 어찌 모두 원하는 바이겠는가![80]

정승 조재호와 그 조카 조유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한미한 처지로 관직에 속해 있기는 하나, “직책은 한미하고 지위는 낮아서, 국가의 榮華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채희범은 당나라 적인걸(狄人傑)이 요원숭(姚元崇) 등 수십 명을 천거하자 사람들이 문하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며 칭찬하면서 말한 “천하의 복숭아꽃 오얏꽃이 모두 공의 문하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인용한 후, 조재호의 시사에 출입하는 자신들이 한미한 존재임을 부끄러워한다. 매화와 향이 같다는 생각은 자신들의 지조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는 말이나, “적은 녹봉에 구애되어”, “기를 펴지 못하고 잔약해졌다가 시들어 꺾인다”라고 하면서 처지를 가련해 하기도 한다. 채희범이 견지하고 있는 이 ‘연민’의 시선은 시사의 모임을 주관한 정승 조재호에게까지 확장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채희범은 조재호가 명소패(命召佩)를 어루만지며, “내가 언제 이것을 풀고서

---

80) “顧吾四人中, 獨持卿有布衣高, 餘三人皆起自草莽, 名注官牒, 職微位卑, 無以爲國家華. 昔人稱天下桃李悉在公門. 今公之客不足爲桃李. 於梅尙或同臭, 乃爲薄祿所拘持, 卷跼不能決, 摧殘衰颯, 比彼花益可憐. 自顧其天, 公與客, 豈皆其所欲哉!” (蔡希範, 위의 글, 위의 책)

그대들과 청평산 속에 들어가 초가집 짓고 나란히 살면서, 소를 타고 왕래하며 이 모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 물음에, 적극 동의하면서 자신도 조재호를 따라가겠다고 한 대화를 배치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81]

모임의 주인격인 조재호, 조유진과 세 손님 채희범, 남옥, 이봉환은 비록 지체가 다르지만 강호 속에서 은거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바로 이 공통점이 매사의 결집을 가능하게 한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편 매사(梅社)의 두 주인 중 하나인 조유진(趙維鎭)은 조재호의 조카로,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서얼이 아니다. 조재호의 1754년 12월 매사가 결성되기 이전인 11월에 채희범, 남옥과 셋이서 매화를 보며 시회를 가진 적도 있으니, 조재호와 다른 세 구성원들의 중간에 위치한 교량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의 「매사오영발」에도 조재호와 자기 자신, 그리고 세 서얼들의 신분과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 농곡공의 지위는 대궐에 들어갔으나 바야흐로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해직을 구하였으니, 세상에 나아가 행세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다. 나는 궁한 사람이고 객 세 사람은 지위가 낮고 자취가 기이하다. 요컨대, 모두 세상에 쓰이지 못한 사람들이다.[82]

조유진은 정승 자리에 있으나 해직을 청하면서, 출세에 뜻이 없는 조재호, 처지가 궁한 자기 자신, 그리고 지위가 낮고 자취가 기이한 남옥, 채희범, 이봉환을 "모두 세상에 쓰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파악했다. 고위직 관료와 한사(寒士), 그리고 궁핍한 서얼문사라는 상이한 지위에 처해있어도, 조유진의 눈에 중요한 것은 이들간의 상이한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신분상의 차이보다 더 강한 공통점을 찾아냈고, 이 같은 공통점은 이들에게 강한 결속력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며, 이 결속력은 다시 이 모임을 가능케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세상에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쓴 시는 세상에 대한 비분한 불평심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83] 이들은 한데 모여 매화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심정을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조유진은 "납매(臘梅)는 겨

---

81) "公嘗撫所佩命, 太息曰, 吾安得觧此, 與君輩入清平山中, 茅茨相望, 騎牛往來, 共續此會乎? 余曰 善哉, 然則余亦將從公而東."(蔡希範, 위의 글, 위의 책)

82) "農谷公位入台閣, 而方謝病求觧, 不欲出而行於世. 余窮者也. 客三人者, 位卑跡踦. 要之, 皆不能用於世者也."(趙維鎭, 「梅社五詠跋」, 위의 책)

83) "旣其不施於世, 則宜其所感憤無聊不平之施於詩."(趙維鎭, 위의 글, 위의 책)

울을 이기고 홀로 피며 추위를 피하여 깊은 곳에 숨으니, 그 그윽한 향기와 기이한 운치는 각자 자신에게 비길 만한 것이 있다."[84]라고 하였다. 앞서 채희범이 자신들을 매화에 비기면, 혹시 향은 같을 수 있으나, 작은 녹봉 탓에 기를 펴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니 매화만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데 비하면, 조유진은 향기의 그윽함과 운치의 기이함 두 가지를 매화와 자신들의 공통점으로 꼽고 있다. 채희범의 글에서 느껴지는 자비자소(自卑自小)의 태도와 자기연민의 감정을 조유진의 이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상이한 인식은 아마도 채희범과 조유진 두 작가가 처한 서얼문사와 명문가의 한사(寒士)라는 상이한 신분 조건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모임의 종장(宗匠)이라 할 수 있는 조재호는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조재호가 남긴 다음 글을 살펴본다.

> 내가 병을 앓은 지 1년이 넘었다. 손님을 사양하고 한가히 지내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분매(盆梅) 하나를 합(閤)에 넣어두고 비단으로 보호하였다. 합 안에는 금물감으로 달을 그렸고, 아침마다 동자를 시켜 물을 주어 꽃을 기르게 하였다. 꽃이 피려할 때 나의 처지를 돌아보니 편하지 않았으니, 시를 짓는 일은 끝내 끊어졌고 마음은 홀연히 더욱 기쁘지 않았다.[85]

병 때문에 정양하고 있는 가운데, 분매(盆梅)를 기른 일을 회상하고 있다. 분매를 합에 둔 채,[86] 합 안은 달을 그려 장식하였고, 동자를 시켜 물을 주는 등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끝내 개화(開花)를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불편해졌고 시 쓰는 일도 그만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처지가 불편해진 것은 한 해 동안 앓은 병 탓이겠으나 당시 조재호의 형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754년 1월에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나,[87] 지속적으로 사직소를 올리며,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이 무렵 조재호가 영조에게 올린 편지를 살펴보자.

---

84) "而臘梅之凌冬獨開, 避寒深藏, 其幽香奇韻, 各有可以自況者." (趙維鎭, 위의 글, 위의 책)

85) "余病廢已逾年, 謝客燕居, 無以自適. 置盆梅一本, 藏于閤而護以紗. 以泥金畫月于閤之內. 每朝使僮澆水養花, 花且發, 而顧地處不便, 韻事遂絶. 意忽忽愈益不樂." (趙載浩, 「梅社五詠記」 위의 책)

86) 매화 화분을 보호하는 감실을 매합(梅閤)이라고 한다. 이는 매감(梅龕), 매각(梅閣), 매옥(梅屋)이라고도 한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에서 유행하였는데, 이 같은 용어는 17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 문헌에는 빈번히 등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 169면 참조.

87) 『英祖實錄』 1754년(영조 30) 1월 21일 자 기사와 『承政院日記』 같은 날 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신(臣)의 지금의 병세를 돌아보면, 인사(人事)로 책망할 수 없습니다. 절름발이와 비교해도 훨씬 더 심한 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삐끗하여 왼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만, 치료할 때를 놓쳐 점점 고질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나며,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으니 완연히 잔질인(殘疾人)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를 막론하고, 정의상 그리고 예의상 빠뜨릴 수 없는 일들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의 직분은 모두 어그러졌고, 사람의 도리도 끝내 끊어졌습니다.[88]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조재호는 다리에 병을 앓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고질이 되어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다가 오한과 신열을 앓다가 독감으로 발전하였고[89] 곽란과 설사가 더치기도 하는 등 몸상태는 계속하여 나빠졌다.[90] 조재호의 계속되는 사직에 영조는 어의(御醫)를 보내어 구완하게 하며,[91] 좀처럼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의정에 제수된 지 7개월 만인 8월에 조재호가 숙배하였으나,[92] 그 뒤에도 조재호는 인용문과 거의 같은 이유로 사직청원을 계속했다. 불편한 몸으로 공무를 볼 수 없고, 공무를 보지 않아 계속 죄가 쌓인다는 것이 사직의 주된 이유이다.[93] 당시 조재호는 도성 밖의 전농(典農)에서 우거하고 있었다.[94] 「매사오영기」의 끝에 "농곡병부"(農谷病夫)라고 자호

---

88) "顧臣目下病勢, 不可責以人事, 比諸跛躄, 殆有甚焉. 始則偶然蹉跌, 左足受傷, 因治療失時, 轉輾沈痼, 恃杖而起, 須人而動, 居然爲殘疾之人. 以是毋論公私, 凡諸情禮之不可廢者, 一例闕焉, 臣分盡虧, 人理都絶." (『承政院日記』, 1754년 2월 13일 자)

89) 『承政院日記』, 1754년 5월 9일 자.

90) 위의 책, 1754년 6월 5일 자.

91) 위의 책, 1754년 7월 23일 자.

92) 『英祖實錄』 1754년 8월 22일 자」 기사 및 『承政院日記』 같은 날 기사. 조재호는 어전에 다리를 절며 나아갔고, 내시의 부축을 받았다.

93) 결국 그는 1756년 3월 17일에 해직을 허락받는다. 『英祖實錄』, 1756년 3월 17일 자 기사 및 『承政院日記』, 같은 날 기사 참조. 『承政院日記』, 3월 16일 자 기사에 우의정 조재호가 사직 청원 105번째를 올렸다("右議政趙載浩一百五度呈辭.")라는 기사가 보인다.

94) 『承政院日記』 1753년 9월 2일 기사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이 말했다. '조재호는 어디에 있는가?' 엄우(嚴瑀: 당시 우승지-인용자)가 말했다. '전농에 있습니다.' 상이 말했다. '서울에서 거리가 몇 리인가?' 엄우가 말했다. '십여리도 채 안 됩니다만, 다리 병이 심중하여, 거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上曰, 趙載浩在於何處? 瑀曰, 在典農矣. 上曰, 距京幾里? 瑀曰, 不過十餘里. 而趙載浩 足病甚重, 不能起動云矣.) 또 조재호의 문집 『損齋集』에 실린 「金城館舍, 次三淵韻」이라는 시에, "淹處隨緣是我廬, 東城館舍典農如."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의 끝에 "東城卽金城一號, 而典農卽東郊亭舍也."라는 주석이 있다. 金城은 강원도 김화를 가

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95]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분매가 개화할 때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시도 쓰지 않았으며, 기쁘지 않았다는 말 역시 모두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옥은 「매사오영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그러나, 이 시집은 농곡공(農谷公)이 평소에 강호(江湖)에 뜻을 많이 두었으며, 외물(外物)을 이유로 좋아하는 것을 바꾸지 않음을 보여준다. 네 사람은 또 모두 당시로서는 기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 각자 매화가 필 때에 쓴 시에 대해 어찌 소홀하였겠는가? 바야흐로 매화가 활짝 피었을 때에 그 음은 느슨하고 늘어지며, 그 곡조는 펼쳐져서 풍부하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쓸쓸하고 촉급하여 슬픈 느낌이 들게 하여, 마치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와 같으니, 이것은 어째서인가? 이듬해에 이 매화가 꼭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과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쉽게 기약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훗날 각자 책 상자에서 꺼내어 보면,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 것이다.[96]

남옥에 따르면, 『매사오영』에서는 높은 벼슬과 같은 외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재호의 강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재호 이외의 나머지 네 사람은 '당시로서는 기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채희범, 조유진 등과 같은 견해를 드러내면서, 이들이 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매사오영』에 시를 쓴 이들은 매화의 진실함과 전일함을 언어로 재현하는 데에는 철저히 성공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책 속에 자신들의 강호지향성과 문학에 대한 성실함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계속하여 매화의 개화 및 낙화라는 상황과 그 상황들과 조응하는 시 속에 담긴 미적 특질을 설명하면서, 이를 사람의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꽃이 활짝 피었다 지는 것은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다. 내년에도 매화는 피게 마련이겠으나, 그때 피게 될 꽃은 올해 진 꽃과는 다른 꽃이기 때문이다. 이런

리키며, 주석의 내용대로 典農은 조재호의 '東郊亭舍'를 가리킨다.

95) "歲乙亥元朝, 農谷病夫, 豐壤趙載浩 敬大記." (趙載浩, 「梅社五詠記」, 『梅社五詠』) 乙亥는 1755년이고, 경대는 조재호의 자(字)이다.

96) "雖然是卷也, 見農谷公雅意濠濮, 不以外物易所好. 四人者又皆不見施於時, 各於梅發之詩, 曷可少哉? 方梅之盛也, 其音迤以縵. 其調舒以腴. 至其落也, 凄促感慨, 若往而不反者然, 何哉? 來歲未必無是梅也, 而人之離合, 事之成壞, 有未易期者焉. 異時各出篋視之, 知其可貴也."(南玉, 「梅社五詠跋」, 『梅社五詠』)

점에서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는 것과 일에 성공과 실패를 거두는 것은 꽃의 피고 짐과 닮아 있다. 남옥은 이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개체의 비순환성 내지 인사(人事)의 비순환성을 새삼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면, 특정한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행한 행동에 대해 각별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기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1754년 12월 조재호의 거처에서 7차례에 걸쳐 함께 모여 지은 시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봉환은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봉환은 1733년(24세)에 진사가 되었고, 1746년(37세)에 전옥서참봉(典獄署參奉), 1747년(38세)에 남부봉사(南部奉事)와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 등 하급관직을 전전하다 이 해에 통신사 정사 서기로 발탁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에게 통신사 서기 발탁은 발신(發身)의 기회였음에 틀림없고, 정사서기로서의 임무 수행은 그에게 상당한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97] 일본 사행 이후 그는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98] 금정찰방(金井察訪),[99] 양지현감(陽智縣監)[100]에 차례로 제수되었기 때문에 살림은 사행 이전보다 다소 나아졌으리라 추측된다. 그런데 양지현감이 된 지 얼마 뒤 광주(廣州)에 살옥(殺獄)이 발생하여 사체(死體)를 검토하는 복검관(覆檢官)이 되었으나, 조사를 미루다가 사체가 상하게 되는 사건으로 파직되고 만다.[101] 이런 와중에 6개월쯤 시간이 흐른 뒤 조재호의 청으로 이봉환은 매사에 합류하여 시를 쓰게 된 것이다.

2)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립

---

97) 이봉환은 무진통신사 정사 서기로서 일본 문사들과의 필담교환과 시문창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일본에서 간행된 필담창화집에는 그가 쓴 시와 필담이 많이 수록되어 일본 내에서 유통되었다. 무진통신사행이 일본인과 나눈 지식인 교류와 그 흔적이 담겨 있는 필담창화집에 대해서는 구지현,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열상고전연구』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참조. 한편, 무진통신사가 귀국한 후, 삼사(三使)가 입시(入侍)하여 사행의 성과에 대해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이봉환을 포함한 4문사(제술관과 세 서기)의 빼어난 활약이 영조에게 보고되었다. (『승정원일기』 1748년 8월 5일 자) 이처럼 이봉환의 서기로서의 통신사 수행은 일본에서만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임금에게 바로 보고될 만큼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8) 『承政院日記』, 1750년 1월 26일 자 기사 참조. 광흥창주부는 종6품 벼슬이다.

99) 위의 책, 1750년 10월 10일 자 기사 참조. 금정찰방은 종6품 벼슬이다.

100) 위의 책, 1754년 4월 5일 자 기사 참조. 양지현감은 종6품 벼슬이다.

101) 위의 책, 1754년 5월 22일 자, 1754년 5월 25일 자, 1754년 5월 30일 자, 1754년 6월 2일 자 기사 참조.

앞서 말했지만, 『매사오영』(梅社五詠)이 쓰여진 1754년의 매사(梅社) 모임 이전에도 이 같은 모임은 한 차례 더 있었다. 조재호의 다음 글을 살펴보자.

> 옛날 무오년(戊午年: 1738년) 초봄의 일을 기억해보면, 내가 서호(西湖)를 출발해 마포에서 조유진과 그 형 조의진(趙宜鎭) 의경(義卿), 이봉환, 이명계(李命啓) 자문(子文), 홍우필(洪禹弼) 순거(舜擧)를 만나 함께 매화시를 지으며 즐긴 적이 있으니, 지금 18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의경과 순거는 이미 고인이 되어 버렸고, 자문은 지금 해서(海西)의 승(丞)이 되었으며, 나도 티끌 세상의 재상이 되어 성시(城市)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지경(持卿: 조유진)과 성장(聖章: 이봉환)을 마주하여 함께 강호의 옛일을 이야기하니, 문득 슬퍼지며 한숨이 나왔다. 지금 다행히 다시 매회를 이루었고, 경홍(景洪: 채희범)과 시온(時韞: 남옥) 두 사람이 또 함께 하게 되었다.[102]

이것이 이른바 제1차 매사(梅社)에 관한 전언이다. 당시 조재호는 서호(西湖)부근에 살았는데, 매사 모임은 마포에서 열렸다. 모임의 구성원은 조재호, 조유진, 이봉환 이외에 조의진과 홍우필이 있었다. 조의진은 조재호의 조카이며 조유진의 친형이고, 홍우필은 중인 여항시인으로서 조재호의 숙부 조현명(趙顯命)과도 교유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103] 조재호는 이 두 인물이 고인(故人)이 되었다는 것과 이명계가 해서 지역의 찰방으로 근무하여[104] 지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열한 후, 자신을 티끌 세상의 재상이 되어 도성에서 머뭇거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비관하였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1차 매사가 몇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얼마나 성대했는지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105] 16년이 지난 후 1차 매사의 구성원이었던 조유진, 이봉환과 만난 자리에서

---

102) "記昔戊午元春, 余自西湖往, 會于麻湖, 與持卿及其兄宜鎭 義卿、李聖章、李命啓 子文、洪禹弼 舜擧, 賦梅以爲樂. 今十八年矣. 而義卿、舜擧已作古人. 子文方爲丞于海西, 余亦爲塵埃宰相, 遲回城市, 對持卿、聖章, 共道江湖往事, 輒慨然太息. 今幸復成梅會, 而景洪、時韞二人, 又與焉." (趙載浩, 「梅社五詠記」, 『梅社五詠』)

103) 趙顯命의 『歸鹿集』 권3에 실린 「八月望日, 將觀漁杏湖. 鄭來僑, 洪禹弼兩君至. 共次壁上韵」, 「與洪禹弼, 拈陽明集韻」, 「盆菊正盛. 與洪弟士賓_應寅, 洪禹弼, 同賦」와 같은 시에서 두 인물 간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다.

104)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이명계가 금교찰방(金郊察訪)을 제수받은 것이 1754년 9월 20일이다. 1757년에 전적(典籍)을 제수받기 전까지 이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말한 해서(海西)의 승(丞)은 바로 이 금교찰방을 가리킨다.

105) 이봉환의 회고에 따르면, 제1차 매사의 구성원은 다섯이었고 시를 각자 20수씩 지었다고 하니, 이때 쓴 시는 모두 1백수였을 것이다. 이때의 작품들은 모두 잃어버렸고, 서와 발만이

는 세 벗의 부재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부분에는 새로이 매사에 합류한 채희범과 남옥의 입회(入會)를 반기는 말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면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슬픔 역시 드러내고 있다.

매사는 매화의 전생애주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를 쓰고자 했던 모임이다. 한 명이 40수씩, 다섯 명이 2백수를 썼다는 것은 시로 담아낼 수 있는 매화라는 대상의 거의 전부를 포착하여 언어화하려고 애썼다는 말일 것이다. 조유진은 납매시(臘梅詩)를 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매화는 모든 꽃 가운데 격조가 가장 높다. 그런데 납매(臘梅)는 뭇나무들이 다 떨어지는 때에 피기 때문에 더욱 그 격조가 높다. 격조가 높기 때문에 시를 쓰기가 몹시 어려운데, 납매는 방 온돌 깊은 곳의 합(閤) 속에 두기 때문에 안개나 구름 같은 풍경의 변화나 산수금조(山水禽鳥)와 같은 볼거리 등이 함께 도와 시의 재료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납매시는 더욱 어렵다. 한 수 짓기도 어렵거늘, 하물며 여러 수를 지는 일임에랴. 지금 납매시를 모두 2백 수나 지었으니 어찌 이리도 많은가![106]

조유진에 따르면, 모든 꽃 가운데 매화가 가장 격조가 높고, 매화는 모든 매화 가운데 격조가 가장 높다. 이 높은 격조 때문에 시를 쓰는 일은 제일 어려운데, 자연 속의 매화는 안개, 구름, 산, 물, 새 등과 같은 소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적 형상화를 하기가 용이한 데 비하여 납매는 합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사 구성원들은 2백수의 시를 쓴 것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고는 "꽃이 처음 피기 시작할 때의 시의 경지는 깊고 멀며, 만발하였을 때에는 시가 간드러지고 짙다. 시들어 갈 때에는 시가 맑으면서 은근히 재촉하는 듯하며, 떨어질 때에는 시가 처연하며 큰 환영 같다."[107]라고 하여, 개화부터 낙화까지 꽃의 생사의 전 과정을 시로 쓸 때, 그 과정마다 다른 시적 특징과 느낌을 정리하면서, 『매사오영』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 서와 발도 남아 있지 않다. "戊午在麻湖, 公方布衣, 各有詩二十篇. 甲戌在靑橋, 公已相矣. 各有詩四十篇. 麻湖詩見軼, 只有序與跋." (李鳳煥, 「梅社五詠跋」, 『梅社五詠』)

106) "梅於百花中格最高, 而臘梅開於衆木陽剝之時, 尤其格之高也. 夫其格高, 故爲詩甚難, 而臘梅藏諸房堈深閤, 無煙雲風景之變, 山水禽鳥之觀, 助爲詩料者. 故臘梅詩尤難. 作一篇猶難, 況累篇乎? 今臘梅詩合二百篇, 一何多哉!" (趙維鎭, 「梅社五詠跋」, 위의 책)

107) "當花之始開也, 其詩窅而夐. 方盛也, 其詩衴而濃, 將衰也, 其詩泠然而微促, 至落也, 其詩悽然而大幻." (趙維鎭, 위의 글, 위의 책)

에서 읊은 시에는 무궁한 상황과 느낌이 담겨져 있으니 시로 읊은 2백수는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108] 그러고는 매화에 대한 이 같은 다작(多作)은 대상인 매화에 대한 조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세속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들이라고 부각하기도 하였다.[109]

남옥에 따르면, 매화는 식물 가운데 가장 청고(淸高)한 것으로 시인들이 전부터 시를 지었으나, 똑같이 그려내기가 어려워서 작품을 많이 짓지 못하였다.[110] 남옥의 논의를 따라가 보도록 한다.

> (매화시 짓기는) 송나라 장택민(張澤民)에 이르러 융성하였는데, 지금『영규율수』(瀛奎律髓)에 보이는 것은 36편이다. 그러나 거기서 읊은 것은 지매(地梅)이어서, 바람과 눈, 물과 달의 변화와 원림(園林)과 울타리의 도움이 있다. 의경이 좁지 않고, 상을 취하는 것이 외롭지 않으니 풍부한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읊은 것은 분매(盆梅)이다. 마른 밑둥과 짧은 가지가 보잘 것 없으며, 사방 한자의 합(閤)에 보호된 채, 그 밖의 것은 꽃이 필 것이 없으니, 시를 짓기가 몹시 어렵지 않겠는가?[111]

이 글에서 남옥은『영규율수』에 실린 장택민의 매화시와『매사오영』의 매화시를 비교한다.『영규율수』는 원나라의 시인 방회(方回)가 편집한 시선집으로 당송의 오칠언율시를 가려모은 책이다. 총4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매화시는 권20인 매화류(梅花類)에 수록되어 있다. 장택민(張澤民)은 송나라 때의 시인 실재(實齋) 장도흡(張道洽)이다. 택민은 그의 자(字)인데, 남송(南宋)의 경학자(經學者) 서산(西山) 진덕수(陳德秀)의 제자로,「梅花」라는 제목의 5언율시 16수와「梅花二十首」라는 제목의 7언율시 20수가『영규율수』권20 梅花類에 수록되어 있다.[112] 남옥에 따르면, 장도흡도『

---

108) “意有所寓, 而詩亦無窮, 然則二百篇之詩亦尙有餘興不盡者. 豈可曰多也!”(趙維鎭, 위의 글, 위의 책)

109) “對彼槁淡之色艱深之境, 而搜抉尋索刻鏤陶鎔若是, 而不知勞者, 苟無我農谷公及吾四人者之深於梅, 則不能爲也. 是豈可與世俗人論哉!”(趙維鎭, 위의 글, 위의 책)

110) “梅於植物最淸高, 自古詩人皆賦之. 以其肖寫之不易, 多者鮮焉.”(南玉,「梅社五詠跋」, 위의 책)

111) “至宋張氏澤民爲盛, 今見於『律髓』者三十六, 然彼所賦者地梅也. 有風雪水月之變, 林園籬落之助, 其爲境也不隘, 其取象也不孤, 宜其富矣. 今所賦盆梅耳. 槁槎短枝冗然, 護之方尺之閤, 餘無可以映發之者, 詩不旣難乎?”(南玉, 위의 글, 위의 책)

112) 方回 選評, 李慶甲 集評校點,『瀛奎律髓彙評』, 上海古籍出版社, 1986, 774~779면, 846~851면 참조.

영규율수』에 매화시 36편을 실을 만큼 비교적 작품수가 많지만, 그가 읊은 것은 지매(地梅)이기 때문에 분매(盆梅)를 읊은 『매사오영』의 시보다 시적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많다. 지매를 둘러싼 바람, 눈, 물, 달, 원림, 울타리 등의 배경은 풍부한 시적 정황을 만들어 내고, 이 같은 시적 정황은 대상을 포착하는 것을 쉽게 하고, 시 창작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한다.[113] 그러나 이에 비해 분매를 읊는 일은 말라붙은 나무 줄기와 짧은 가지가 보잘 것 없고, 한 자밖에 되지 않는 감실 속 분매 이외에는 읊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는 앞서 조유진이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남옥에 따르면, 시인들이 한 가지 대상을 두고서 많은 수의 작품을 쓰는 것은 금기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과 종유(從遊)하는 것이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 모든 금기를 다 어겼다고 하였다.[114] 그러고 나서, "시어가 매화를 핍진하게 드러내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115] 이것은 재현해야 할 대상이 많지 않고, 조재호를 종유하며 분매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많은 작품을 쓰는 것이 기존의 시적 금기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적인 성취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 물음은 시어가 매화라는 대상에 핍진하게 육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한 "말이 매화를 핍진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물음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즉, 매화의 핍진한 언어적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남옥의 생각이다.

남옥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의 조금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매사 모임에서 거둔 시적 성취를 "다섯 사람이 나무 하나에 대해 시를 쓰면서 사의(辭意)가 서로의 것을 침범하지 않았다. 꽃 피는 시기가 대략 몇십일을 넘지 않았거늘 시권이 이루어졌다."[116]라고 정리한 바 있다.

남옥은 매사 모임의 시적 성과가 대상을 언어로 핍진하게 드러낸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남옥은 조유진과의 대화를 소개한다. 남옥이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면서 "우

---

113) 『영규율수』에 실린 장도흡의 시에서 이 같은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園林千樹禿, 籬落一枝橫"(「梅花」 제1수)에서는 울타리와 원림, "霜月娟娟夜, 吾今見所思"(「梅花」 제2수)에서는 달, "南雪若相避, 東風殊不知"(「梅花」 제4수)에서는 눈과 바람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方回 選評, 李慶甲 集評校點, 위의 책 774~775면.

114) "詩家以一物累篇爲忌. 在城市中, 從貴大人游, 亦非其境也. 今皆犯之." (南玉, 앞의 글, 앞의 책)

115) "求其言之逼於梅, 得乎?" (南玉, 위의 글, 위의 책)

116) "五人之賦一樹也, 辭意又不相奪. 花之期率不踰數旬, 而卷乃成."(南玉, 위의 글, 위의 책)

리들이 쓴 수십편의 시가 매화 한송이의 진실함과 전일함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조유진이 남옥의 이 말이 상황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하며 그 견해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다.[117] 즉 꽃의 진실함과 전일함을 시로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은 언어는 대상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대상과 언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애쓰는 사람이 곧 시인이다. 조재호, 조유진, 채희범, 남옥은 '당대에 기용되지 못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타고난 지처와 상관없이 불우하였다. 이들이 7회에 걸쳐 매화라는 단일한 소재를 두고서 2백 수의 시를 남긴 일은 시작(詩作)에 몰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순간에 이들은 온전한 시인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매화라는 한 대상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 40수씩 시를 쓰는 일에 대해 이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다작을 하는 자신들의 시적 조예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시어가 대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기도 하였다. 이 물음들 속에서 이봉환 역시 자신을 시인으로서 정립해 갔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이봉환은 양지현감에서 파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 이때 조재호의 부름을 통하여 이 대열에 합류하여 창작에 임하였다. 이봉환에게 이 시간은 자신 내부의 시적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는 특히 매화라는 대상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표현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Ⅳ장 3절에서 상론하도록 한다.

3) 동인들 시에 대한 비평적 음미

보통 매사 모임을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는 1738년 마포에서 조재호, 조의진, 조유진, 이봉환, 이명계, 홍우필이 함께 모여 매화를 읊었고, 2차는 1754년 청교(靑橋)에서 조재호, 조유진, 이봉환, 남옥, 채희범이 모여 매화를 읊었다. 16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 두 차례 모임에 공히 참여한 이는 조재호, 조유진, 이봉환이다. 그래서 이 두 차례의 모임을 조재호가 주도하였고, 조카 조의진, 조유진, 서얼 이봉환, 이명계, 남옥, 채희범 및 중인 홍우필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두고, 두 세대의 풍양조씨 벌열이 서얼 및 중인 들과 지처에 구애받지 않고 교유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 이 같은 설명은 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실제 모

117) "玉嘗指一瓣花曰 吾輩累數十篇, 不如一花之眞而專. 持卿以爲知言."(南玉, 위의 글, 위의 책)

임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매사 모임에 대한 관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754년 2차 매사모임은 원래 조유진의 매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재호의 「매사오영기」에도 적시되어 있듯, 원래 조재호보다 먼저 조유진이 남옥, 채희범을 불러서 매사모임을 가졌고, 그때 쓴 시를 조유진이 조재호에게 보여주면서, 조재호는 이 매화 모임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118] 그래서 12월부터는 자신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두 번째 모임에는 이봉환을 청하여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재호와 이봉환은 11월 조유진, 남옥, 채희범이 쓴 시에도 추화(追和)를 하였고,[119] 총7회의 모임 끝에 모두 2백수의 매화시를 남겼다. 조재호는 자신과 조유진을 남북매사(南北梅社)의 주인이라고 하였는데,[120] 이는 조재호가 남쪽에 살아 남매사주인(南梅社主人), 조유진이 북쪽에 살아 북매사주인(北梅社主人)이라고 칭한 것이다. 즉 2차 매사는 원래 조유진을 종장으로 하여 남옥, 채희범이 초청되어 시사 활동을 한 북매사(北梅社)를 모체로, 조재호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시회를 지속하였고, 이렇게 가진 7회의 모임 중 2회 모임부터는 이봉환을 초청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쓴 시에 평어를 달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봉환의 시에 대해서는 조재호가 평어를 달았다.[121] 조재호는 이때 정승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구성원과 현격하게 달랐고, 이봉환은 문학적 역량이 있었던 까닭에 이들 시에 평어를 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매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임은 풍양조씨라는 벌열 가문 출신의 재상 조재호가 한사(寒士)인 조카 조유진 및 서얼 세 명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로 모인 시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벌열 조재호가 문학적으로 유능한 이봉환을 초빙하여 문사 5인이 시로써 교유하고, 자신의 시에 대한 평을 전문가에게 청하여 받기도 한 모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봉환의 시에 조재호가 평어를 단 것은 조재호의 이 모임에서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조재호 역시 훌륭한 문학적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법으로 2차 매사모임을 바라볼 경우, 지처를 불문한 평등한 교유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바, 이렇게 될 경우 이봉환과 다른 두 서얼 사이의 문학적 역량의

---

118) “一日從侄持卿來, 示梅花唱酬詩十數篇. 盖持卿亦有梅一盆, 已自臘前賞花. 日引蔡景洪,南時韞輩結社賦詩, 其樂甚專. 或各自傳筒迭和, 篇軸錯落, 藻思日新, 俱可觀也. 余既見其詩, 又嘉其事, 思欲爲之一赴, 而病未能焉.”(趙載浩, 「梅社五詠記」, 위의 책)

119) “余與聖章, 則追次持卿輩初吉以前諸詩.”(趙載浩, 위의 글, 위의 책)

120) “余與持卿爲南北梅社主人.”(趙載浩, 위의 글, 위의 책)

121) 『매사오영』의 제일 첫 번째 실린 조유진의 작품 제목 「梅邊初集拈杜韻罷後各賦」아래 “네 사람의 시는 성장(聖章)이 평을 하고, 성장의 시는 농곡(農谷)이 평을 한다.”(四人詩聖章評, 聖章詩農谷評.)라고 써있다. 성장은 이봉환의 자이고, 농곡은 조재호의 호이다.

차이점 같은 점은 놓칠 우려가 있다.

총7회에 걸쳐 한 명이 40수씩 시를 썼으니 모두 200수인데, 이봉환은 자신이 평어를 내릴 수 있는 160개 작품 중 138개 작품에 평어를 썼다. 개별적으로 세어 보면, 조재호의 38개 작품, 조유진의 37개 작품, 채희범의 30개 작품, 남옥의 33개 작품에 평을 달아서, 서얼들보다는 풍양 조씨가 구성원들의 작품의 평에 좀 더 신경을 쓴 듯 보인다. 조재호도 이봉환의 35개 작품에 평어를 내렸으니, 이봉환과 조재호 모두 평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만하다.

이봉환은 조재호의 시에 대해서 "전편(全篇)이 두보와 비슷하다"(全篇似杜), "기운이 활달하고 뼈대가 굳으니 순전히 두보의 격을 쓰셨네."(氣活骨勁, 純用杜格), "근육과 뼈대가 노련하니 두보의 정신을 얻었네."(筋老骨蒼, 得杜之神), "두보의 진실되고 소박한 곳"(杜之眞朴處) 같이 두보(杜甫)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평어를 쓴 곳이 다섯 군데나 되고, "삼연 노인의 신운(神韻)이다"(淵翁神韻), "삼연 노인과 몹시 흡사하다"(絶似淵翁)처럼 삼연 김창흡을 가리키는 "淵翁"을 평어로 사용한 곳이 두 군데 있다. 이봉환은 자신의 시 속에서 삼연을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122] 조재호의 시를 삼연에 비기는 것은 이봉환에게는 극찬(極讚)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조재호도 이봉환이 쓴 시 두 편에 대해 "조어(造語)가 두보와 똑같네"(造語逼杜), "두보의 전형이다."(工部典刑)라고 두보를 동원하여 평어를 내린 바 있다. 이봉환과 조재호는 상대방의 시를 읽으며 서로 두보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상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봉환은 조유진의 시에 대해서는 "지극히 두보의 낙구와 흡사하다"(極似杜落), "침울하고 창정(蒼整)하다"(沈鬱蒼整-두보의 시를 평하는 말), "순수한 두보"(純杜)라는 평어에서 두보를 끌어 왔다.

그런데 이봉환이 서얼 동료를 평가할 때 두보에 비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채희범에게 평어를 내린 경우 "일상적인 말로 노련하게 말하였지"(平常語說得老鍊), "몽당붓으로 자세히 그린 그림이니, 노련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禿筆細畫, 非老手不能), "질박하지만 속되지는 않았네"(質而不俚), "안배가 적당함을 얻었으니 노련하고 원숙하네"(安排得地, 圓暢老成), "착실하여 잘 정돈되었네"(老實平整), "질박하지만 속되지 않고, 느리지만 늘어지지 않으니 원숙한 신채(神彩)를 지극히 깨달았네"(質而不俚, 緩而不慢, 極覺老神), "원숙하게 운용을 잘 하였네"(老健善運用), "삼로(三老)

---

122) "膚率東方什, 淵翁始賦梅, 試從孤響後, 强欲逼眞來 (…)"(李鳳煥, 「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중 제4수, 『雨念齋詩文鈔』 권3)

의 좨주 갑자기 맑고 담박한 말하였네."(三老祭酒, 忽作淸談-삼로의 좨주는 문단의 영수 증공(曾鞏)을 칭송하는 말[123]), "나이 많은 장인(匠人)"(老匠), "노련하고 흠 없거늘 운치까지 겸비하였네"(老鍊無罅, 兼有風韻), "노련한 고수의 완벽한 솜씨"(老手完緻) 같이 원숙함, 노련함, 착실함 같은 미덕을 칭찬해 주는 평어가 대부분이다. 채희범이 서얼 셋 중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 같은 장점들을 드러내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남옥에게는 "공교로운 단련이 유후촌(劉後村) 같다"(工鍊似劉後村)라는 평어를 내렸는데, 유후촌은 남송말의 시인 유극장(劉克莊, 1187~1269)인데, 이 시인은 만당(晩唐風)의 시인들을 배워 영활(靈活)하고 유동(流動)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다.[124] 또 "서곤체(西崑體)의 날카로운 필봉이니 화려한 묘사에 마음을 다 쏟았네"(西崑刻鏤, 工麗盡意) 같은 평어에서는 남옥의 시를 송초(宋初)의 서곤체에 비겼는데, 이들은 시풍이 난삽하여, 이상은(李商隱) 같은 만당(晩唐)의 감상적 시를 주로 모방하던 부류였다. "맹교와 가도가 본색을 잃었네"(郊島奪色) 같은 평어는 남옥의 시가 맹교, 가도의 시를 뛰어 넘는다는 말일 듯한데, '맹교는 차고 가도는 야위었다'(郊寒島瘦)는 말을 빌어서 남옥의 시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교로운 단련', '유극장', '서곤체', '맹교', '가도' 등이 이봉환이 남옥에게 내린 핵심적인 평어로 보이는데, 이 같은 평어를 놓고 보면 이봉환은 남옥을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시를 썼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봉환은 1754년 12월에 있던 제2차 매사모임에서 동료들의 시에 평(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심미안(審美眼)을 단련해 나감과 동시에 동료들의 시 공부에도 일정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평자(評者)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아래에서는 이봉환이 남긴 평어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① 중국과 조선의 선배 시인이나 특정한 유파 및 작품을 거론한 경우, ② 시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③ 시의 기법과 분위기를 언급한 경우의 평어를 아래에 보인다. 이는 대략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봉환과 조재호가 내린 평어 전부는 권말의 <부록 2>『매사오영』에 실린 평어(評語)에 표로 정리해 놓았다. 평어 옆의 글자는 시인 성명의 약어(略語)로, 남옥과 채희범은 '남'과 '채'로 조재호와 조유진은 '호'와 '진'으로 표기하였다.

---

123) 모곤(茅坤)이 증공(曾鞏)을 일컬어 "그러나 문원(文苑)에서는 마땅히 한나라에서 칭송을 받은 옛날의 삼로(三老)와 좨주(祭酒)가 이 같은 인물일 뿐이니 배우는 이들은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然於文苑中, 當如漢所稱古之三老祭酒是已, 學者不可不知."(茅坤, 「曾文定公文抄引」) 즉 삼로좨주는 증공이 문단의 영수가 되었다고 칭송하는 말이다.

124) 錢鍾書 저, 이홍진 역,『宋詩選註』, 형설출판사, 1989, 314면.

① 중국과 조선의 선배 시인이나 특정한 유파 및 작품을 거론한 경우

- 極似杜落(진), 全篇似杜(호), 工鍊似劉後村(남), 淵翁神韻(호), 氣活骨勁, 純用杜格(호), 起得勁邁, 簡齋[125]多用此法(진), 沈鬱蒼整, 得杜形質(진), 絶似淵翁(호), 置白老蒼, 較陸遒潔(진), 西崑刻鏤, 工麗盡意(남), 三老祭酒,[126] 忽作淸談(채), 筋老骨蒼, 得杜之神(호), 純杜(진), 郊島奪色(남), 杜之眞朴處(호), 優歌解頤發源簡兮[127](채)

② 시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 花政(채), 花醫(남), 善爲晩梅回護(진), 句句用力, 人工深到(진), 善觀花(남), 一幅閨怨圖(진), 着眼於人所放過(진), 幽眇之思(남), 亦可謂人力勝天(진), 又作悟解, 無所不能(채), 巧慧通神, 承應如意(남), 深情遠韵, 寫出警秀(호), 佳(채), 有品(채), 如臨鏡中(호), 劈解極專(남), 妙思洞玄(진), 宜花之枯(진), 寫出難寫如笑如顰(호), 樂意相關, 生香不斷(호), 磊落人作細碎語(채), 精神透射, 悟解專一(남), 俯仰瀏灑, 有一唱三嘆之旨(호), 闢開蜃樓, 亂墜曇花(호), 理致盎厚(남), 警思(남), 絃中之舌(남), 古來詠梅者, 何曾道得(호), 結得空灑(호), 水落石出(진), 悟頭(채), 一何深造(진), 思致工妙, 危而不墮. 藝至於此, 可謂手探足躡(진), 刱語(호), 窮搜力探, 從何打入(남), 人所不知, 獨自尋覈(진),

③ 시의 기법, 분위기를 언급한 경우

- 平常語說得老鍊(채), 貞思竗解, 發得韞藉(남), 情緖繞筆, 如游絲近人(진), 運用難及(채), 眞切(채), 磊落動人(진), 刊去粉澤, 地步恢遠(호), 高遠(호), 竗思抽繭(진), 尋常材料收拾淸靚(남), 心細筆妙(진), 寫得淸深, 不野不峭(진), 圓活而入細(채), 遒曠沉健(호), 淸峻生動(호), 筆力莊重(호), 妙思(남), 巧妙寫照(진), 絶唱妙思(진), 禿筆細畵, 非老手不能(채), 遒峻渾成(호), 運用襯帖(채), 圓轉不泥理勝於詞(채), 澤縝淵沉, 略有彷彿(남), 質而不俚(채), 狀物極工, 妙思逼神(진), 洗發神情, 警策響亮(호), 一氣呵成, 沉健頓挫(호), 起得翛然(호), 結又徘徊不盡(호), 根深格秀, 不煩斧鑿(호), 運思深透, 托致高遠(호), 安排得地, 圓暢老成(채), 脫去彫飾, 圓轉有致(채), 眼前境, 筆頭妙(남), 烱而峭(남), 淸警(남), 苦思無凡矚(진), 縋深據險, 摘妙入細(진), 追琢刻厲, 一何耿介(진), 色相怳惚, 聲韻動盪(호), 寫入微妙(호), 逼骨(남), 苦心鍊語(진), 爽朗豪上(호), 高視絶唱, 無

125) 진여의(陳與義)의 호(號)이다.
126) 증공(曾鞏)을 이른다.
127) 『시경』(詩經), '패풍'(邶風), 「간혜」(簡兮).

物挂念(호), 良工苦心(남), 非諦觀, 難獲創語(진), 圓贍(채), 平泛中自難及(채), 老實平整(채), 神韻決起, 如折枝生花(호), 氣格稜透, 多少警策(호), 筆細(남), 造微闡妙(진), 高情遠韵, 惆悵歔欷(호), 秀語森然整暇(호), 灑灑欲動(호), 實際語寫得有光景(호), 幽鮮蒼肅, 神思竦峙(호), 窮山絶峽, 幻出奇觀(진), 神怡心醉, 優入天機(남), 稍冶而發得妙(채), 秀峻有遠勢(채), 妙而遠(채), 平說妙觧, 不尖不薄(채), 質而不俚, 緩而不慢, 極覺老神(채), 奧思秀筆, 不掩勁蒼(호), 細心峭筆, 鉤來幻境(진), 刻鏤到骨(진), 極新極細, 妥坐竿頭(진), 妙絶透神(진), 隱隱梵響, 陣陣異香(진), 淸眞寫影脉脉透悟(호), 玲瓏滿眼, 流轉脫手(호), 白描移神, 玲瓏映發(호), 神動天隨(호), 掃空無蘊, 波折有神(호), 有致(채), 郛郭不窄(채), 老健善運用(채), 藻思溢發, 刱語山出(남), 筆舌游戲, 蜿蜿欲動(호), 一氣淸空, 筆下無塵(호), 晃朗景色, 幽峭精神(호), 風致脫灑(호), 端蘊(호), 輝映心腑, 掃空根塵(호), 執謙宜俗, 造語不套(진), 用盡氣力, 竟拿造化(진), 三老祭酒, 忽作淸談(채), 意匠深奧, 景色輝映(채), 僊凡之際, 筆舌分開(남), 格力蒼健, 思致幽婉(남), 韻折流動(호), 悚然驚人(진), 細(진), 微婉(진), 鎔鍊神采(호), 氣力如捍門鬪水(호), 懸軍棧道, 士無人色(진), 極悟處, 作極拙語(진), 所不可當者, 筆勢平遠(채), 辭氣鄭重(남), 據險(남), 頓挫(진), 超越自運, 神情軒擧(호), 筆力愈放愈厚(호), 工緻不套(호), 老匠(채), 焂顯焂晦, 言下灑落(호), 惆悵蕭颯, 無限情致(호), 如舞如瑟, 緩迥相感(호), 風調不得不平運(호), 收拾是游龍手(호), 單刀赴會, 沉勇在神(진), 天然邂逅無限幽怨(진), 刻露淸秀(진), 宛轉篤厚(채), 老鍊無罅, 兼有風韻(채), 精到(남), 弄淂自然淸遠(호), 語緩意苦(호), 眼花撩亂, 耳根靈通(호), 渾成苦調(진), 神境(진), 窈而巧(진), 沉鬱(진), 天成, 不見斧鑿(채), 婉曲旖旎(남), 宛至(남), 苦楚幽獨(남), 情思滿肚, 無可奈何(진), 傳神活動, 極奇極化(호), 凄奇動魄(남), 妙絶苕穎(남), 老手完緻(채), 起得古雅整厚(호), 金聲玉振, 煞用一番精神(호), 淵永靈秀, 質采咸備(호), 眉宇吐奇, 舌端含竗(진), 沈着幽遠(진), 巧(남), 化腐爲神(남), 一副肝腸滿貯靈通(남), 多少老神(채), 沉厚可諷(채).

Ⅳ. 이봉환의 작품 세계

이상에서 문예 활동을 검토하였고, 이 장에서는 이봉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봉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외물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차례대로 논하기로 한다.

1. 자기 삶에 대한 응시

1) 곤궁한 처지에 대한 비탄

이봉환이 자신의 삶을 읊은 시들 중에는 특히 그의 처한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우선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낡은 벼루나 있을 뿐
경작할 밭이 없네.
가을 옷도 못 받았는데
귀뚜라미는 뭐 저리 우는지.
부잣집은 바쁘게들
아침부터 일이 계속 일어나거늘
숲 속의 병든 학 한마리!
솔개가 소리 지르니 날개를 접거라
祇有破硯兮, 無田可耕.
寒衣未授兮, 促織何爲鳴.
富室擾擾兮, 日出事還作.
林有病鶴兮, 鳶嚇爾戢翼翼.

경사자집(經史子集)이
네 책상에 가득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네 얼음처럼 맑고 옥같이 고운 마음은 어디에 쓰고
네 금수간장(錦繡肝腸)을 어디에 쓸꼬?
도성 남쪽에 밭 두 마지기만 있어도
그곳이 곧 네 극락이겠지.

經史子集兮, 何用滿爾床?
何用爾冰淸玉潔, 何用爾錦心繡腸?
使有洛陽田二頃兮, 是爾極樂鄕.

「신아량이 쓴 네 수에 수창하다(醻申亞亮四章)」 제1,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목의 신아량은 신완(申琬)으로,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의 6대손이다.[1]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붙어 있다: 도(道)가 있다고 가난을 편안히 여길 수 없고, 글로 가난을 쫓을 수 없다. 가난은 선비들이 늘 겪는 것이니 가난을 꺼린들 무엇하며 가난을 꺼리지 않은들 무엇하겠는가. 신자(申子)가 쓴 「가난을 읊다 네 수」(詠貧四章)를 읽으니 마치 환자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앓는 소리를 들으면 더욱 고통을 느낀다는 말과 같다. 진실로 이른바 "남이 슬프다고 말하니 나도 비로소 슬퍼진다"라는 것이다.[2]

서문에서 알 수 있듯 이봉환은 신완의 가난한 현실에 동병상련하고 있다. 도가 가난을 편안히 여길 수 없다는 말은 자신들이 처한 궁핍한 상황이 안빈낙도(安貧樂道)라고 하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대응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말로 보이고, 글로 가난을 쫓을 수 없다는 말은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가난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말로 파악된다. 원문에 '逐貧'이라는 말을 써서 양웅(揚雄)이 쓴 「축빈부」(逐貧賦) 및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을 연상하게 하는데, 혹시 양웅이나 한유 같은 빼어난 글솜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난을 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시를 보면, 첫 번째 수의 1,2구에서 깨진 벼루와 경작할 밭의 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마련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고, 3,4구에서는 가을옷을 미처 마련하지도 못하였는데, 귀뚜라미가 '促織'하라고 운다고 하여, 날이 추워졌을 때 입을 옷이 변변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1~4구는 자신의 가난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난함의 원인을 '破硯'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은 글공부에 종사하였고, 그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요로(要路)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

1) 申欽-申翊聖-申最-申儀華-申輔-申致謹-申琬
2) "道不能安貧, 文不能逐貧. 貧是士常, 何用諱貧? 亦何用不諱貧? 見申子「詠貧四章」, 如方痛人聞同病者痛聲尤自覺其痛, 眞所謂'人言愁, 我始欲愁'也."(이봉환, 같은 글, 같은 곳)

후반부에서는 5,6구의 내용과 7,8구의 내용이 서로 대비되어 있다. 5,6구에는 부호(富豪)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이에 비해 7,8구에는 '富室'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병든 학'과 '솔개'로 이들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병든 학'이 바로 이봉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솔개의 우짖음으로 표현된 누군가의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병든 학'이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이 첫 번째 수가 비유에 의해서 자신의 곤궁함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 수는 한층 직설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다.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온갖 독서 이력, 맑고 깨끗한 성품, 문장을 짓는 재주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질문한 뒤, 도성 남쪽에 두 마지기의 밭만 있다면 그곳이 곧 자신에게는 천국과 같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이봉환에게는 당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몹시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시의 세 번째 수에서 "근심을 묻을 땅이 없으니 / 근심이 오는 대로 산처럼 쌓이지 / 자잘하고 자잘한 / 이 떠돌이 신세여 / 처자식도 없다네"(無地埋憂兮, 憂來與山積. 瑣兮尾兮, 流離之跡, 無妻無子兮)라고 하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앞의 두 수에서 '밭'이라는 경제적 토대가 없음을 밝히는 장면과 세 번째 수에서 유리표박(流離漂迫)하는 신세를 읊는 것은 의미상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3]

또 "굶주림 참고 고서를 읽느라 / 생계의 해결이 늦어서 괴롭다네"[4]라든지 "여전히

---

3) 이 시가 이봉환의 가난을 읊고 있다고 하여 네 수 모두 우울하고 부정적인 정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수에서 이봉환은 추운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우뚝 서 있는 국화와 풍상(風霜)을 감내하고 있는 곧은 대나무의 모습을 제시한 후, 노래를 하면 그 소리가 마치 금속과 돌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것처럼 좋다고 하여 증자(曾子)를 등장시키고 있다. 증자 관련 고사는 『장자』(莊子) 「양왕」(讓王)에 실려 있는데, 그는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있으나, 일단 상송(商頌)을 부르면 소리가 천지에 가득하여 마치 금속과 돌로 된 악기에서 나오는 듯하며, 천자도 함부로 신하를 삼지 못하며, 제후도 마음대로 벗으로 사귀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봉환은 "나는 고인을 생각하거늘 운명을 어찌할꼬"라고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운명론적 체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의 초반부터 등장하는 국화와 대나무, 증자의 모습 등은 가난에 따른 고단함을 버텨내려고 하는 이봉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는 자신의 곤궁함을 비탄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가난을 비관하는 시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시의 제4수는 다음과 같다: "寒花自苦兮, 誰敎爾獨立. 苦竹自貞兮, 莫敎風霜折. 若出金石兮, 曾氏之歌. 我思古人兮, 奈命何?"(李鳳煥, 「醻申亞亮四章」 제4수, 『雨念齋詩文鈔』권1)

4) "忍饑讀古書, 自治苦不早"(李鳳煥, 「秋懷信筆」제2수, 같은 곳)

볼품없는 녹봉 좇는 게 / 평소의 바람 아니란 걸 누가 이해할지”[5], “미관말직으로 굶주림을 면할쏜가 / 평소의 마음만 어그러질 뿐”[6] 같은 구절 속에서도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벗 이인상과 낙화시(落花詩)를 주고받은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긴 시의 제목을 통해서도 그의 곤궁한 처지를 알 수 있는데, “고인들이 간혹 낙화를 읊었는데 모두 그 정태를 곡진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원령(元靈-이인상의 자)이 일찍이 『심석전집』(沈石田集)에 낙화를 읊은 시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역량은 자못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과연 어떠한지는 알 수 없었다. 봄이 이미 늦어서 뜨락 가득 꽃이 피었다. 우리는 모두 실의한 사람들이라, 시름과 슬픔을 가눌 수 없었다. 우연히 수창을 하여 각각 몇 편 시를 이루었는데, 가장 실의한 상태에서 가장 득의한 시를 얻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7]라는 제목을 통해 시름과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실의한 사람으로 자신과 이인상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20대 후반였던 이봉환이 자신과 동갑내기 벗 이인상의 처지를 ‘시름’, ‘슬픔’, ‘실의’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곤궁한 상태는 젊었을 적뿐 아니라 이후에도 줄곧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60년 이봉환은 평안감사 정휘량(鄭翬良, 1706~1762)에게 긴 제목의 송시(送詩)를 써주는데, 그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궁하게 지내는 게 무료하고, 시를 쓰는 도(道)는 삭막해졌다. 예조판서 정공(鄭公) 휘량(翬良)께서 관서에 관찰사로 나가게 되어, 글을 요청하셨다. 말씀하길, “편수가 응당 많아야지”라고 하셨고, 또 “관서 지역이 아름다워서 볼 만하니 한 번 유람할 뜻이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아! 덧없는 삶이 나무에 매달린 박의 신세 같고, 진흙땅에서 궁핍하게 지내며 울울한 채 뜻에 맞는 일이 없었다. 공의 은혜를 입어 가을에 서하(西下)에 이르러 강산과 정자의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고 깊은 시름을 흩어버릴 수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근체시 15수를 지어 공께 바친다. 더불어 낙랑의 승경지를 언급한 것은 소식(蘇軾)이 ‘여산(廬山)을 처음 찾은 나그네’가 되기를 면하고자 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8]

---

5) “尙此徇微祿, 誰諒非素心”(李鳳煥, 「秋懷信筆」제3수, 같은 곳)

6) “微官寧救餓, 只使素心違”(李鳳煥, 「直廬」, 같은 곳)

7) 「古人或賦落花而皆未能曲盡情態. 元靈以爲曾見『沈石田集』, 有賦落花詩, 其力量殆不可及云, 而竟未知果何如也. 春序已晏, 滿庭皆花, 吾輩皆失意之人, 愁慨不自定. 偶然酬唱, 各成幾篇, 抑未知最失意境得最得意詩否也」(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8)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翬良按節關西, 俯索贐, 語曰: “篇數宜多.” 且謂: “西土佳麗可觀, 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정휘량은 예조판서를 지내다가 1760년 5월에 평양감사를 제수받았고, 1761년 8월에 우참찬(右參贊)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까지는 평양감사로 복무했던 듯하다.[9] 이봉환이 이 시를 쓴 것 역시 정휘량이 평양감사를 제수받은 1760년 5월 이후의 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때의 자신의 처지를 "궁하게 지내는 게 무료하고, 시를 쓰는 도가 삭막해졌다"라든가, "덧없는 삶이 나무에 매달린 박의 신세 같고, 진흙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울울한 채 뜻에 맞는 일이 없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궁핍한 신세를 힘겨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정휘량의 제안으로 관서지방을 유람할 기회를 얻어 "깊은 시름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시는 총15수인데, 그 중 14, 15수 두 수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해 나란히 살아 부르지 않아도 만났으니
재주 아끼는 일념으로 곤궁함을 보살펴 주셨지.
정은 제비와 달라서 추위와 더위에 날개 바뀜이 없었고
은혜는 인어처럼 진주를 수북히 만들어 주셨네.
변새(邊塞)에서 헤어지니 가을이 오려는데
서울에서 내 행적은 달과 함께 외롭구나.
필묵으로 그저 마음을 펼치리니
서쪽 구름 따라 바라봄에 기러기 있는지.
比舍多年不待呼, 憐才一念荷窮途.
情無燕子炎凉羽, 恩結鮫人錯落珠.
關塞暌違秋欲到, 京華蹤跡月同孤.
秖應觚墨憑心緖, 極目西雲鴈有無.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제목 마지막의 "소식(蘇軾)이 '여산(廬山)을 처음 찾은 나그네'가 되기를 면하고자 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말은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는 여산의 풍경이 잘 묘사된 글을 여러 번 읽고 익숙해져서, 여산에 실제로 가더라도 그곳이 낯설지 않아 자신이 여산을 처음 찾은 손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한 소식을 닮는다는 뜻이다. 소식은 소철(蘇轍)이 쓴 「서현당기」(棲賢堂記)를 읽고 여산(廬山)의 풍경이 너무도 좋아서 이 기문을 당(堂)에 새겨놓고 여산과 인연을 맺을 것을 작정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산을 직접 가더라도 처음 갔을 때 느끼는 생경함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봉환의 이 제목에서는 실제로 관서 유람을 떠났을 때 생경함이 들지 않게 할 의도로 낙랑의 승경지를 시에서 읊었다는 말이다.

9) 『英祖實錄』, 1760년 4월 20일 자, 1760년 5월 18일 자 및 『承政院日記』, 1760년 5월 18일 자, 1761년 8월 9일 자 기사 참조.

궁인(窮人)의 복잡한 시름 달래고자,
가을에 도성 떠나 노닐기로 약조했다네.
동방의 천 필 말은 청사로 장식하고,
관서 외로운 구름은 관아 위에 떠있네.
올라보기만 하여도 강개한 마음이 생기니
담소를 나누며 조금 머무신들 별 일이 있을쏜가.
어쩔 수 없는 건 두보(杜甫)와 육유(陸游) 같은 솜씨 없어서
파촉(巴蜀)의 백척루(百尺樓)를 저버리는 것이지.
要慰窮人碨磊愁, 淸秋有約出關遊.
東方千騎靑絲擁, 西極孤雲畵棟浮.
秪是登臨生感慨, 何妨笑語作淹留.
奈無杜陸淋漓筆, 應負三巴百尺樓.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翬良按節關西, 俯索贐, 語曰: "篇數宜多." 且謂: "西土佳麗可觀, 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제14,15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제14수에서 정휘량이 자신에게 관서 유람을 제안한 것을 두고 막다른 길에서 자신의 재주를 한 번 아껴주셨다고 한 것과 제15수에서 가을에 유람을 떠나기로 약속한 것을 '궁인의 복잡한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말한 데에서 모두 이봉환의 궁핍한 처지가 드러나고, 그 처지를 일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서 유람이 제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4수의 수련에서 확인되는바, 이봉환은 정휘량의 이 제안에 몹시 감사해 하고 있으며,[10] 이를 함련에서는 다시 '추위와 더위에도 바뀌지 않는 정'과 '인어의 눈물'이라는 말로 받고 있다. 제비는 덥고 추움에 따라 날개짓을 달리한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휘량의 정은 염량세태와 상관없이

10) 이상봉(李商鳳, 1733~1801)의 『북원록』(北轅錄)에 따르면 동지사가 연행을 떠난 1760년 11월 10일에 감사 정휘량(鄭翬良)은 서윤(庶尹) 정극순(鄭克淳)과 함께 서장관 이휘중(李徽中, 1715~1786)을 만나 뵈었다. 이봉환은 이때 정사 홍계희의 군관이었으므로, 정휘량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동지사 일행은 1760년 11월 10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12일에 떠났고, 귀국할 때에는 1761년 3월 30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이튿날인 4월 1일에 평양을 떠났다.

한결같다. 인어의 눈물은 진주(珍珠)인데, 여기서는 정휘량에 대한 고마움에 감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는 인어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수 미련의 "파촉의 백척루를 저버린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두보와 육유가 파촉에서 지은 누정 제영(樓亭題詠)에 자신의 시가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말인데, 이 시에서는 혹시 관서 유람을 떠나도 빼어난 풍경에 걸맞은 좋은 시를 쓰지 못할까 걱정하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정휘량의 이 고마운 제안 및 이봉환의 이 시와는 별도로, 이봉환의 관서 유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이 해 가을의 관서 유람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봉환은 같은 해인 176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진동지사(庚辰冬至使)의 군관으로 연행(燕行) 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쓴 시를 한 수 살펴보기로 한다.

살펴보니 초심(初心)은 절로 높았더니
중년에 기구한 자취는 점점 어려웠네.
문(文)으로는 서기 되어 얕은 글재주 바쳤고,
무(武)로는 군관이 되어 말달리는 수고를 해야지.
성취는 남에게 달려 있어 볼품없거늘,
세월은 나를 속여 훌쩍 흘러가 버렸네
이 산천 삼천리 끝까지 눈길을 보내고
한 번 웃고 문을 나서며 칼을 바라보노라
點檢初心亦自高, 中年畸跡轉牢騷.
文爲書記雕虫技, 武作軍官躍馬勞.
成事因人元碌碌, 流光欺我劇滔滔.
山川極目三千里, 一笑出門看寶刀.

「문을 나서며(出門)」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는 동지사행 기간 때 쓰여진 시 중 『우념재시문초』에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사행단이 서울을 떠난 것은 1760년 11월 2일인데, 이 시 역시 이 무렵 쓴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이 51세였을 때이다. 수련에서 초심(初心)은 여전히 높지만, 중년의 기이한 자취가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함련에서는 이를 받아 문관으로서는 서기가 되어 글재주를 바쳤고, 무관으로서는 군관이 되어 동지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구절은 동지사행을 떠나면서 통신사행 때 자

신이 수행한 서기의 임무와 이제 곧 연행길을 나서면 수행해야 할 군관의 임무를 동시에 불러온 것으로, 중년 이후의 기구한 자취가 자신이 통신사행단의 서기와 동지사행단의 군관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환이 참여한 무진사행은 1747~48년에 있었고, 그가 이제 막 참여하려고 하는 경진연행은 1760~61년에 있었으니 이봉환이 38~39세, 51~52세였을 때로, 10여년 사이를 두고 일어난 두 차례 사행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이 꼭 자랑스럽다거나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련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련의 후구(後句)는 세월이 빨리 흘러가서 연로하게 되었다는 관습적 표현이지만, 전구(前句)의 내용은 이봉환이라는 인물이 사행에서 맡은 직책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봉환은 자신의 두 차례 사행에서의 직책이 서기와 군관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자신의 임무라고 할지라도 사행의 성패 여부는 사행단의 삼사(三使)가 국왕을 대리하여 국서(國書)를 일본의 쇼오군(將軍)에게 전달하거나, 청(淸)의 황제를 알현하는 일을 정해진 예법에 따라 무리 없이 행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서기와 군관은 보기에 따라서는 사행의 성패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도 있다. 이 시의 경련의 전구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미미하고, 실제로 일의 성패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자각은 이봉환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일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행단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의 한계일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서얼의 존재 조건이라고 할 만하다. 미련에서는 웃으면서 삼천리 조선의 밖을 나서는 군관 이봉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함련, 경련에서 다루어온 무거운 주제가 희석된 채 조선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연행길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 시상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강조되어야 할 바는 앞서 설명한 바, 이미 경험이 있는 통신사행과 이제 막 시작하는 동지사행에서 자신의 직책을 떠올린 후, 그 일이 사행의 성패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일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부명(浮名)의 거부

앞에서 살펴본 바 이봉환은 많은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굳혀 갔다. 서기(書記)가 되어 통신사절에 속하기도 하고, 시회(詩會)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문명(文名)도 얻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 같은 명성은 역설적으로 그가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탓에 얻은 성취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봉환은

자신이 얻게 된 명성이나 헛된 영예 등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다음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초목은 모두 가을에 깨끗이 쓸려가
누대에는 달빛이 반나마 들어 밝도다.
책 속 벌레 보니 벽(癖)이 같아서 가엽고
서리 맞은 꽃을 보니 늘그막이 슬프도다.
늙음이 절로 이르는 것이라 괴이하지 않은데
이 몸도 잊히거늘 하물며 헛된 이름이랴.
험악한 말이 순정한 도가 아니기에
그대 시를 음미할 때마다 속된 마음을 씻겠네.
草木都爲秋掃淸, 樓臺半入月通明.
書中遇蠹憐同癖, 霜後看花悵晩生.
老當自至非怪事, 形猶可忘況浮名.
劇知險語非純道,[11] 每嚼君詩洗俗情.

「중양절 이후 밤에 자승의 집에 들러 인칙, 홍휘지신유와 함께 짓다(重陽後夜過子承與仁則洪徽之愼猷作)」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는 중양절(重陽節)이 지난 후에 원계손(元繼孫)의 집에 들러서 박경행(朴敬行), 홍신유(洪愼猷)와 함께 지은 시이다. 60세가 다 되어서 쓴 시이고,[12] 절친한 벗들과 함께 교유하면서 쓴 시인 만큼 만년의 이봉환의 솔직한 심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라고 판단된다.

수련에서는 가을의 두 가지 대비적 속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 두 가지란 시들어가는 초목에서 느낄 수 있는 상실감 내지 소멸감, 그리고 달밤이 주는 안정감 내지 편안함인데, 누대에 비친 달밤이 함련에서는 누대 위에 있는 이봉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함련에서는 누대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꽃을 감상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봉환은 책벌레와 서리 맞은 꽃을 만년(晩年)이 되도록 책벌레처럼 살아온 자신과 동일시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노경(老境)

11) 한유(韓愈)의 「취증장비서」(醉贈張祕書)에 남의 문장을 두고 "험한 말은 귀신의 간담을 떨어뜨리고, 높은 글은 황분에 비기겠네."(險語破鬼膽, 高詞媲皇墳)라고 칭찬한 바 있다.
12) "重陽以後歸家罕, 六十平頭一味顚."(李鳳煥, 「重陽後夜過子承與仁則洪徽之愼猷作」 제1수, 같은 곳.)

에 이른 자신의 모습이 이상할 것 없다고 확인하면서 자신이 누려온 헛된 명성을 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함련의 책벌레로 늙어 왔다는 언급을 떠올려보면, 자신의 헛된 명성 역시 이 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생 글을 읽고 써온 그 자신의 이력과 관련된 명성을 덧없다고 하면서 이를 잊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문학적 성취와 관련된 세간의 칭찬들을 의식해서 한 말로 보인다. 미련에서는 중양절을 맞이하여 함께 어울린 벗들과 시를 수창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봉환은 자신이 교유하고 있는 벗들이 속된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양절이 지난 가을날의 달밤이라는 배경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같은 속기(俗氣)를 씻게 하는 벗들과의 교유는 경련에서 밝힌 바 있는 부명(浮名)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음이 다 타버린 촛불처럼 싸늘해지니
벗들 중에 그 누가 흐르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랴.
속 마음이 통하는지 알고 싶은가,
미간이 매번 펴지는 것을 보시라.
고해(苦海)에 헛된 명성 업장(業障)이 부끄러우니
내생에는 중국에 태어나길 여래(如來)께 비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라도 모여야 하는 것이라
하물며 꽃 아래서 달빛이 술잔에 떨어지는데.
情緖將成蠟燭灰, 舊游誰挽迅流回.
欲知心影相通照, 試見眉頭每展開.
苦海浮名懺業障, 他生中國祝如來.
甚風雨日猶能至, 況復花前月入盃.

「환범재에서 다시 모이다(換凡齋復會)」 제1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는 이봉환이 원계손의 서재 환범재(換凡齋)에 들러 박경행과 함께 쓴 시이다.[13] 수련에서는 모임이 한밤중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후,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함련에서는 시모임을 갖는 벗들 간에 마음이 통하는지

13) 시의 제목이 「환범재에서 다시 모이다」(換凡齋復會)이고 총 11수이다. 그런데, 『우념재시고』(雨念齋詩稿)에 「자승 및 인칙과 함께 쓰다」(與子承及仁則共賦)라는 총 4수의 시가 있고, 이 4수 중 2수가 「換凡齋復會」의 제3수와 제4수의 시와 같다. 따라서 이 시는 이봉환이 환범재에서 원계손과 박경행과 함께 썼음을 알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 벗들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된다고 읊고 있다. 경련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명성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때문에 업장을 쌓게 되었다고 반성한 후, 내생에서는 중국에 태어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고해', '업장', '내생', '여래' 등과 같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하여 윤회(輪回)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苦海浮名'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봉환에게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조선 땅이 고해(苦海)에 비길 만했고, 이곳에서 힘들여 쌓아 온 문명(文名)은 결국 업장(業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봉환은 윤회의 장소로서 중국을 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비좁은 조선 땅에서 살면서 얻게 된 문명(文名)이 사실은 업장을 쌓는 일임을 앞에서 고백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로 시달리지 않을 만한 장소로 중국이라는 공간을 떠올린 것이라고 추측된다.[14] 벗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짓다 보니, 자신의 헛된 명성과 그 때문에 생긴 업장(業障)을 반성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아무리 궂은 날이어도 벗들과의 모임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꽃, 달, 술을 배경으로 하여 시모임을 가지기에 최적의 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 시에서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부명(浮名), 즉 허명(虛名)을 거부하고 마음 맞는 벗들과 달빛을 배경으로 시 모임을 갖고 있는 이봉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길 위의 삶에 대한 긍정

이봉환 시에는 행역(行役) 중에 쓰였거나 행역을 소재로 한 시들이 적지 않다. 행역은 관무(官務)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행이나 유람과 구별된다. 행역은 그 자체가 직무 수행인 경우가 많기는 해도, 행역 현장은 이봉환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길 위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봉환이 삶의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환난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실답(實踏)하고 있는 길 자체가 인생에 비유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행역 자체가 여행과 구별되는 활동이기는 해도, 이 안에 여행의 요소 또한 개입되

---

14) 이 시의 경련을 두고 신익철은 "우리나라와 유교를 동시에 부정하고 있는 것 등이 보인다. 적서의 차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순 제도이기에 국가와 지배이념을 동시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익철,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필자는 이 같은 해석이 시의 원의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 있다. 이봉환은 길 위에서 낯선 사람이나 색다른 경물을 접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많이 만났다.

이봉환이 치른 가장 대표적인 행역으로는 1747~48년의 일본통신사행과 1760~61년의 동지사행의 두 차례 사행 체험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차례 의주, 평양, 개성을 다녀오는 등 장거리 행역을 지속하였다. 이봉환의 시에는 자신의 길 위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작품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슬프네 덧없는 삶 살쩍은 희어지거늘
또 만윤(灣尹) 따라 하늘 끝 향한다네.
헌 갖옷은 여전히 유주(幽州)의 눈 띠고 있고
비단 붓으론 일본에서 꽃을 읊었었지.
신세는 마름풀 같아 어디 정처 있으랴
글을 쓰면 눈물이나 흘리니 무얼 자랑하리오.
영심(靈心)과 혜식(慧識)이 나를 따라 다니니
동서남북 닿는 곳이 곧 내 집이라네.
惆悵浮生兩鬢華, 又隨灣尹向天涯.
弊裘猶帶幽州雪, 綵筆曾題日域花.
身計萍蓬寧有定, 文章涕唾不須誇.
靈心慧識隨吾在, 南北東西着處家.

「관서를 떠돌며 장난삼아 쓰다(西遊戲筆)」(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제목에서 희필(戲筆)을 표방하고 있듯이 미련(尾聯)에 다소의 과장과 희작풍(戲作風)이 감지되나, 정처없이 행역(行役)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전편에 걸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수련(首聯)의 내용으로 보아 의주(義州)로 행역(行役)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주부윤(義州府尹)은 이담(李潭)인데, 1761년 11월에 의주부윤에 임명되었고,[15] 이 시 역시 그 무렵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이 동지사행을 군관으로 수행하며 서울과 북경을 왕복한 것이 1760년 11월 초2일부터 1761년 4월 6일까지의 일이었고, 사행 도중 의주에 들어가서 며칠씩 묵었던 적이 이미 있었는데,[16] 사행을 다

15) 『승정원일기』 1761년 11월 11일 자 및 『영조실록』 1761년 11월 11일 자.
16) 이상봉의 『북원록』에 따르면 1760년 11월 초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9일에 의주에 도착하

녀와서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의주를 향해 길을 떠나야 할 만큼 촉박한 일정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이 된 처지에 '하늘 끝' 의주로 행역을 떠나야 함을 밝힌 게 수련이라면, 함련에서는 이 '하늘 끝'을 벗어났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바로 1747~48년의 통신사, 1760~61년의 연행사 두 차례의 사행단을 수행했던 경험이다. 통신사는 서기로, 연행사는 군관으로 수행한 바 있으니 시에서 해진 갖옷과 비단 붓을 동원한 것은 몹시 자연스럽다. 여기서 이봉환은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것을 자신의 행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그리고 이 같은 두 차례 사행의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은 경련의 자신의 신세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 시인은 마름풀과 같이 정처가 없는 것이 자신의 신세이고, 눈물, 침과 같이 슬픔과 탄식이 서려 있는 것이 곧 자신의 문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보는 「이의를 이별하며」(別李義)에서 "술 마시는 일 줄어들었다고 괴이치 마시길 / 노쇠하여 눈물 흘리느라 번거로우니"[18]라고 하여 눈물과 침(涕唾)을 자신의 노화(老化)와 연관시켜 사용한 바 있는데, 이봉환의 이 시에서도 얼마간 이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문장 속에 슬픔이 담겨 있다는 말일 텐데, 그 슬픔은 이봉환 개인의 노화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봉환이 보기에 자신의 문학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봉환은 신세를 비관하거나 암울한 전망을 하는 대신, 자신이 비록 여러 곳을 전전하는 처지지만 영심(靈心)과 혜식(慧識)을 보존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닿는 곳이 내 집이라네'의 원문은 '着處家'인데, 이 말은 두보의 「멀리 떠나와서」(遠遊) 시의 "미천한 나를 누가 기억할는지 / 갈 곳 잃었으니 가는 곳마다 내 집이

여 7일을 머물렀고, 복로(復路)에서는 3월 20일에 의주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것은 4월 초6일이었다. (李商鳳, 「往來總錄」, 『北轅錄』 권1: 이상봉 저, 박동욱 역, 국역 『북원록』1 104면 참조)

17) 이 같은 언급은 서명응(徐命膺)에게 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봉환은 서명응에게 "아, 선비가 삼한(三韓)에 태어나서, 배와 수레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더라도 북으로는 유연(幽燕)을, 동으로는 일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공께서는 먼저 중국에 다녀오신 후 일본에 가려 하시고, 저는 먼저 일본에 다녀온 후에 중국에 갔습니다. 천하의 관람은 이 두 곳에서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噫, 士生三韓, 極其舟車之所至, 不過北之幽燕東之日本已矣. 今公先於北而後乎東. 某則先乎東而後於北. 天下之觀, 蓋亦併盡之矣." (李鳳煥, 「送徐參議命膺之日本序」, 『雨念齋詩文鈔』 권7)

18) "莫怪執杯遲, 我衰涕唾煩"(杜甫, 「別李義」, 『杜詩詳註』 권21)

지”[19]에서 가져온 말이다. 원래 이 시는 두보가 초당(草堂)을 짓고 살던 성도(成都)를 떠나 재주(梓州)에 살고 있던 763년에 지어졌다.[20] 성도를 떠나 재주로 오니 아는 사람은 없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이라고 선언적으로 진술한 것이기는 해도, 선언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두보가 장기간에 걸쳐 유랑 생활을 하면서 신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21]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집이었다는 두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봉환의 이 시는 두보의 시와는 달리 제목에서 희작을 표방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 영심과 혜식이 따라온다고 함으로써, 두보시에서 느끼게 되는 ‘정처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움’ 같은 정서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시에서 ‘닿는 곳이 내 집이라네’라는 시구는 다소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봉환이 행역을 전전하는 정처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고, 노년이 되어 슬픔이 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있어 자랑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각과 식견에 따라 마주한 현실을 직면해 가겠다는 다짐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22]

이번에는 이봉환의 초기시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천에 구름 끼고 눈 내리는데,
초라한 내 누런 말.
삐걱이는 다리는 조심해야지,
눈길 끝까지 들판은 아득하네
추운 나그네는 사람 꼴이 아닌데,

---

19) “賤子何人記, 迷方著處家”(「遠遊」, 『杜詩詳註』권11)

20) “此詩乃廣德元年春作.”(「遠遊」, 『杜詩詳註』권11, 中華書局, 969면) 廣德은 唐 代宗의 연호로 元年은 763년이다. 두보가 성도에 이른 것은 759년 12월이고, 이듬해부터 완화계(浣花溪) 근처에 초당을 경영하면서 살았다. 762년에 재주(梓州)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성도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재주에 왔다.

21) 두보의 「遠遊」에서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말이 “竹風連野色, 江沫擁春沙”인데, 『두시상주』에서는 이 부분을 표류를 하며 떠도는 두보의 신세를 비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風竹江沙, 自況飄搖流蕩)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처럼 표류하는 두보의 신세를 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는 곳마다 집이라는 두보의 말은 더욱 글자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遠遊」, 『杜詩詳註』권11, 中華書局, 969면)

22) 1761년 11월경에 떠난 이 행역이 무슨 일 때문에 떠난 길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위의 시의 내용에 따라 의주부사 이담을 종유(從遊)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념재시문초』에는 이 시를 포함하여 같은 시기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의주행(義州行) 관련 시가 42제(題) 63수(首) 실려 있다.

머나먼 봉우리에 햇빛이 숨었네.
갈 길 많이 남으신 두보 선생님,
길을 가면서도 좋은 문장 지으셨지.
雲雪南充縣, 蕭蕭我馬黃.
戒心橋窸窣, 極目野蒼茫.
寒旅無人色, 遙峯隱日光.
悠悠杜老子, 行役好文章.

「과천(果州)」(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1)

제목과 수련을 통해서 이 시는 어느 겨울날 과천을 지나면서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련(首聯)의 '초라한 말', 함련(頷聯)의 '삐걱이는 다리', 경련(頸聯)의 꼴 사나운 자신의 모습 등은 모두 이봉환의 힘겨운 처지를 드러낸다. 미련(尾聯)의 '길을 가면서도'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은 '行役'인데, 이를 통해 당시 이봉환이 여행이나 유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때문에 길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처지가 길 위에서 수많은 시를 쓴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와 겹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역 속에서 두보를 그리워 하고 있는 이봉환의 모습은 몹시 자연스럽다. 이봉환은 행역의 고된 과정이나 지루한 시간 속에서 두보를 생각하며 그처럼 좋은 시를 짓기를 희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시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구름 낀 골짜기는 동남쪽이 험준하고,
삼나무는 바람 맞아 밤낮으로 차도다.
천 리의 바닷길을 가려는데
만 겹의 산은 두렵지 않지.
조화옹이 굳이 기이하고 장하게 만들어
요충지는 우거진 수풀이 서려있는 듯.
갈 길 멀었던 두보 선생님께서도
안장 얹고 진촉(秦蜀) 사이를 다니셨는걸.
雲峽東南峻, 風杉日夜寒.
將乘千里海, 不怕萬重山.
造化煩奇壯, 關防仗鬱蟠.
悠悠杜老子, 鞍馬蜀秦間.

「새재(鳥嶺)」제2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2)

이 시는 이봉환이 무진통신사행을 서기로서 수행할 때 쓴 시로, 조령(鳥嶺)을 지나갈 때 쓴 시이다. 험준한 조령의 모습과 그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화자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천 리의 바다를 가야 하는 통신사절 앞에서 만 겹의 산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진촉간(秦蜀間)을 행역(行役)하던 두보(杜甫)의 모습에 비기고 있다. 두보는 만년에 화주(華州)에서 벼슬을 버리고 진주(秦州)와 동곡(同谷)을 거쳐 서촉(西蜀)의 성도(成都)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 '鞍馬蜀秦間'은 이때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살핀 「果州」시에서처럼 이봉환에게 두보는 행역을 먼저 한 선배이자 문장의 대스승이라고 할 만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을빛이 말의 머리를 멀리부터 따라오니,
짙으면 처량커늘 옅어도 기이하네.
늙은 나무라 소리가 커서 막 서걱거리는 소리 내고
국화는 얼굴이 단정하여 시들지 않네.
노을 홀연히 무단히 그림이 되고
외기러기 못 다 쓴 시 완성하게 하네
두보(杜甫)가 송옥(宋玉)을 스승 삼지 않았다면
낙엽 질 때 슬픈 마음을 깊이 알아줄 이 누구였을꼬.
秋光馬首遠相隨, 濃或凄神澹亦奇.
老木聲酣初淅瀝, 寒花色正不葳蕤.
殘霞忽作無端畵, 孤鴈添成未了詩.
不有杜陵師宋玉, 悲懷搖落孰深知.

「남쪽을 유람하며 되는 대로 쓰다(南遊雜述)」제2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1)

어느 가을날 행역을 떠난 길에서 쓴 시로 보이는데, 수련에서 타고 가는 말에 비친 빛의 농담에 따라 처량함과 기이함 사이를 왕복하는 이봉환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의 미련에서 "不有杜陵師宋玉, 悲懷搖落孰深知"라고 하여 송옥(宋玉)과 두보(杜甫)를 소환하고 있다. 송옥은 「구변」(九辯) 5수 중 제1수를 "슬프도다, 가을의 기운이여. 쓸쓸하구나 초목은 떨어지고 변하여 쇠하는구나"(悲哉秋之爲氣也, 蕭瑟兮草木搖落

而變衰)라고 시작함으로써 가을에 나뭇잎의 조락에 따른 슬픔을 읊조린 바 있고, 두보는 「영회고적」(詠懷古跡) 5수 중 제2수에서 "초목이 떨어지니 송옥의 슬픔을 깊이 알겠네, 풍류와 우아함을 나는 스승으로 삼지"(搖落深知宋玉悲, 風流儒雅亦吾師)라고 하였다. 두보는 낙엽이 질 때 송옥이 느낀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를 스승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 시를 받아 이봉환은 두보가 송옥을 스승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초목이 질 때의 슬픈 심회를 누가 깊이 알아주겠냐고 한 것이다. 이처럼 송옥-두보-이봉환의 슬픔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23] 송옥과 두보가 이 시에서 거론된 것은 가을에 느끼게 되는 슬픔 때문인데, 특히 두보는 가을의 슬픔을 매우 빼어난 언어로 잘 형상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추흥」(秋興) 8수 같은 시가 대표적이다. 두보는 행역 때의 사정을 잘 읊은 시인이면서 동시에 가을의 정취와 그에 따른 자신의 심회를 잘 읊은 시인이기도 하다. 이봉환의 시에서 두보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행역 중에 노상에서 느낀 특정한 계절적 정감을 표현하는 데 두보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보가 늘상 떠돌아다닌 것처럼 이봉환의 행역 또한 잦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두보를 적절하게 소환함으로써 이봉환은 또한 자신이 행역길에 마주할 수 있느 슬픔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4) 속세를 벗어난 삶에의 지향

이봉환의 시에는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난 삶을 희구하는 시들이 적지 않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원은 대단치 않거늘
한가히 지내며 자식들 보는 거지.
한 구역엔 나무 심고
백 섬 벼를 창고에 들일 걸세.
문사(文史)는 가업(家業)을 잇고

---

23) 신익철은 이 시의 미련을 "두보가 못되면 송옥이라도 배워야지 / 흔들리며 떨어지는 이 비회를 뉘라서 알아주리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고는 이어서 "두보의 경우 「秋興」 8수가 가을날의 쓸쓸한 정취를 노래한 것으로 유명하고, 송옥의 「九辯」은 가을날에 느끼는 감회를 애상적 정조로 노래한 것으로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신익철,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47~8면) 본고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데, 송옥의 「九辯」 제1수와 두보의 「詠懷古跡」 제2수의 의미 연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닭과 돼지 잡아 이웃 대접해야지.
유장한 백년 인생
태평시대 백성이 되고프다.
所望不豐侈, 閒居養子孫.
一區園種樹, 百斛稻收困.
文史傳先業, 雞豚會比鄰.
悠悠百年內, 願作太平民.

「소망(所望)」(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젊은 시절 이봉환이 바랐던 삶은 이와 같았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으며, 가업으로 전하는 문학, 역사를 공부하면서 종종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평범하고도 소박한 삶이었다. 이 같은 장면을 앞 여섯 구에 배치하면서, 미련(尾聯)에서는 백년의 삶을 태평성대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수련에서 소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시작한 시는 미련에서 태평성대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상이 마무리 된다. 제2구부터 제6구까지 읊은 일견 소박해 보이는 삶이 그에게는 곧 태평성대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을 것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이익에 연연하여
조정과 시장에 목을 매네.
유인(幽人)은 언덕에 있으니
오직 나무꾼만 눈에 보이네.
길게 자지곡(紫芝曲) 부르며
고관(高官)을 따르지 않았네.
안개와 놀 아래서 성정(性情)을 단련하고
깊은 산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네.
차가운 샘은 맑아도 마시지 않아
흰 구름이 무심히 일어난다네.
이미 족한 줄 알고 있으니
남의 알아줌 꼭 구할 건 없지.
옥을 품고 있는 사람 보지 못했나
스스로 자랑타가 월형(刖刑) 당했지.
서책(書冊)은 가까이 할 만하니

성인의 말씀 속 온갖 이치 빼곡하다네.
황정(黃精)으로 내 배를 채우니
숲 속에 누워 태고(太古)를 본다네.
衆人營小利, 生死惟朝市.
幽人在中邱, 見者惟樵子.
長歌紫芝曲, 不附靑雲士.
煙霞結性靈, 絶跡千嶂裏.
寒泉淸不食, 白雲無心起.
自知已云足, 何必求知己.
不見抱玉人, 自衒遭刖趾.
簡冊自可親, 聖言粲萬理.
黃精充我餌, 林臥觀無始.

「감회가 있어서(有懷)」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1~4구까지는 세속적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인(幽人)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유인은 은자(隱者)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봉환이 자신의 이상을 가탁하여 만들어낸 존재인 듯하다. 즉 허구적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봉환의 정신적 지향이 많이 투영된 인물로 보인다. 5~8구에서는 은둔을 선택하면서 벼슬에 뜻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5구에 등장하는 '자지곡'은 한고조(漢高祖)의 초빙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거부한 채 은둔을 고수한 상산사호(商山四皓)의 노래이다. 9~10구에서 보이는 '흰 구름이 무심히 일어나네'라는 구절은 도잠(陶潛)이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읊은 "구름은 무심히 봉우리에서 나오고 / 새는 날기에 지쳐서 돌아올 줄 아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11~12구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치 않는다는 말로, 천기(天機)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세계는 남의 인정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족적이라는 구절[24]과 발상이 유사하다. 13~14구에서는 옥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옥을 과시하다 월형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비자』(韓非子) 「화씨」(和氏)편의 고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25] 이 시 속에서는 화씨가 월

24) "天機各盡分, 非是要人知"(李鳳煥, 「雜絶」 제1수, 『雨念齋詩文鈔』 권1)
25) 초(楚)나라 사람 화씨(和氏)가 초산(楚山)에서 박옥(璞玉)을 얻어 려왕(厲王)에게 바치자 려왕은 감정을 맡은 옥인(玉人)의 말을 들어 돌이라고 판정하여 화씨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려왕이 죽고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그 박옥을 무왕에게 바쳤는데, 무왕은 또 감정을 맡은 옥인(玉人)이 돌이라고 하자 화씨의 오른쪽 다리를 베었다. 무왕이 죽고 문왕(文王)이 즉

형(刖刑)을 당한 것은 자신의 옥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으로 이 같은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이봉환은 자신이 재주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이것을 밖에 드러내서 수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26] 이렇게 보면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은거(隱居)는 재주를 숨기고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것 같은 의미를 띠게 됨을 알 수 있다. 재주를 드러내면 곤욕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5~18구는 은거 중 한가로운 생활에 대해 읊고 있다. 성인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經典)을 읽고, 도사들이 먹어서 장수를 누린다는 황정을 먹고, 숲 속에 누은 채 태고(太古)의 경지를 살피는 것[27]은 통념상 은자(隱者)의 전형적 삶의 방식과 몹시 유사하다. 비록 젊은 때이고, 허구적 인물인 유인(幽人)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시는 세상 속 이익을 챙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재주를 드러내면 혹시나 해를 입을까 경계하면서 세상 밖으로 도피하여 역설적으로 한가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봉환의 지향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은거를 지향한다고 하여 꼭 은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봉환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녹봉 따르니 / 평소의 마음 아님을 누가 알리오. / 공연히 영지가(靈芝歌)를 /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번씩 읊지."[28]라고 읊은 바 있다. 얼마 안 되는 녹봉을 받아 가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소의 원하는 바는 아니며, 가을이 되면 은거를 생각한다고 읊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녹봉을 저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늘상 이 같은 세상에 만족하기도 힘들었기에 은거에 대한 생각을 가을마다 한다고 고

위하자 화씨는 그 박옥을 들고 초산(楚山)에서 피눈문을 흘리며 통곡하였는데, 문왕이 사람을 시켜 까닭을 물으니, "월형(刖刑)을 당한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보옥(寶玉)을 돌이라고 판정한 것이 슬프고, 곧은 선비를 두고 임금을 속인다고 하니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문왕은 옥인(玉人)을 시켜 박옥을 가공하게 하여 보석을 얻었으니 이를 '화씨의 옥'이라고 한다.("楚人和氏得玉璞楚山中, 奉而獻之厲王. 厲王使玉人相之. 玉人曰: '石也.' 王以和爲誑, 而刖其左足. 及厲王薨, 武王卽位, 和又奉其璞而獻之武王, 武王使玉人相之, 又曰; '石也.' 王又以和爲誑, 而刖其右足. 武王薨, 文王卽位. 和乃抱其璞而哭於楚山地下, 三日三夜, 泣盡而繼之以血. 王聞之, 使人問其故, 曰: '天下之刖者多矣, 子奚哭之悲也.' 和曰: '吾非悲刖也, 悲夫寶玉而題之以石, 貞士而名之以誑, 此吾所以悲也.' 王乃使玉人理其璞而得寶焉, 遂命曰: '和氏之璧.'"『韓非子』, 「和氏」)

26) 이봉환은 자신의 시 속에서 재주와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비록 고사 속의 화씨(和氏)에 기탁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만하다. 『우념재시문초』 권1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젊었을 적 작품으로 보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자부심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7) 당(唐)나라 진자앙(陳子昂)이 쓴 「사물을 보고 느끼다」(感遇) 제7수에 "茫茫吾何思, 林臥觀無始"라는 구절이 보인다.

28) "尙此徇微祿, 誰諒非素心. 徒然靈芝什, 每年秋一吟."(李鳳煥, 「秋懷信筆」 제3수, 『雨念齋詩文鈔』 권1)

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를 하나 더 살펴보자.

가을 국화 지고 온갖 벌레들 숨자
싸라기눈은 숲을 온통 하얗게 덮겠지.
밝은 달은 둥실 높이 떠서 절로 움직이고
천 척 높이 소나무는 멀리서도 무성해 보이네.
기로에서 서성이니 무슨 슬픔 이리 많은지
지기를 만났으니 마침 시 한 번 읊조리네.
서울의 풍류 그리워라 다시 보고 싶으니
거문고, 노래, 책, 그림으로 한껏 봄을 즐겼었지.
了當寒菊百蟲沈, 霰雪行看皓滿林.
明月十分高自轉, 長松千尺遠如深.
徘徊岐路何多感, 邂逅神情時一吟.
都下風流思復見, 琴歌書畵賞春心.

「사곡의 달밤(社谷月夜)」제4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3)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에 사직동에서 달빛을 받으며 쓴 시로 보인다. 언제 썼는지는 미상이나 대략 50세 전후에 쓴 시로 보인다.[29] 수련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변화를 읊었고, 함련에서는 달빛을 받은 소나무가 키가 커서 멀리서도 무성해 보인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키는지 미상이나, 삶의 기로에서 서성이며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한 후, 벗을 만나서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시작(詩作) 행위는 자신이 직면한 슬픔을 풀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다. 미련에서는 서울의 풍류를 다시 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이전에 벗들과 거문고, 노래, 책, 그림 등을 함께 즐겼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가을 달빛을 받으며, 마음이 맞는 벗들과 봄놀이를 즐기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 번 그 느낌을 살려보고 싶다는 이봉환의 소박한 면모가 잘 드러난 시이다.

2.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29) “江湖舊事依依夢, 五十流年昻昻暉”(李鳳煥,「社谷月夜」제2수,『雨念齋詩文鈔』권3)

이상으로 이봉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폈다. 여기에서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꽃피우지 못한 존재에 대한 연민

이봉환과 교유한 인물들 중에는 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곤궁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살피고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고, 그 중 재주가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끝내 그것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다음 작품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호옹(壺翁)의 손자이니
시에 연원(淵源)이 있어,
약관의 나이에 뾰족하게 칼 끝이 드러나
선비들이 재주 있다고 칭찬 많았네.
성취가 빼어난 데다
지향도 비루치 않아
개원(開元)과 대력(大曆)의 시 사이에서 고개를 쳐든 채
동방의 낡디 낡은 자취를 따르려 안 했네.
스스로 하는 말, 당풍(唐風)에 푹 빠졌다 하니
과체(科體)를 없앤 것 역시 이 때문이리.
언젠가 「향악」(香嶽)시를 얻어 보니
지금 사람의 말 아님을 알겠노라.
가을과 겨울 사이 한 필 말로 유람나서니
명산에 눈 내려 맑은 기운 폐부에 스미네.
고결함과 담박함은 쉽게 얻기 어렵거늘
산이 치솟고 개울이 급한 곳도 있었다네.
또 조카를 통해 외워 전하니
영주(永州)에서 쓴 여러 작품들 더욱 기이한 것 많네.
창옥병(蒼玉屛)에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거늘
태화(太華)와 소화(少華)가 창수하였지.
땅에 던지면 금석(金石) 악기 소리가 나는 듯하니
흥공(興公)의 「수초부」(遂初賦)와 짝이 될 만하네.

지난날 강호(江湖)에서 유람하신 곳 많았으며
갈대숲 은거하여 아름다운 문장 남기셨지.
현포자(玄圃子)와는 형제처럼 지내셨거늘
창고는 못 미쳐도 청경은 더 나았네.
문장도 가치가 높았으니 아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절로 유유(悠悠)하다고 정평이 났었지.
그렇지만 가슴에는 격초기(激楚氣)가 담겨 있어
그를 두고 세상에선 오올(傲兀)하다 꾸짖었네.
시주머니는 채워져도 양식은 전혀 없어
궁핍한 사람의 시가 공교롭다는 말 이제야 알겠네.
대은정(戴恩亭) 서쪽의 강물은 푸르고
책상이 놓인 집의 사립문은 좁다네.
평생 시읊으며 사는 걸 즐거움이라 여겼으니
직접 영롱하게 작자의 경지에 육박한 거지.
정신에 생기가 있으니 사람은 곧 시와 같거늘
골상(骨相)엔 어찌 요사(夭死)의 조짐이 있던고?
천공(天公)께서 기박한 운명을 주셨으니
난초가 시들고 옥이 깨어지는 것 지금 이와 같다네.
일찍이 장사(葬事) 치르다 몸이 너무 상할까 걱정되었거늘
끝내 상복 차림으로 몸을 거두어 돌아가셨네.
고생스러운 반평생을 고심하며 지내었거늘
무덤에 꽃이 핀들 누가 다시 알아주리.
가도(賈島)가 곤궁하고 이하(李賀)가 요절한 일 예부터 있었거늘
시편만은 유전되어 썩지 않으리.
호옹(壺翁)을 스승으로 모시고 시를 배웠으니
태화(太華)가 앞에 있고 아함(阿含)이 뒤라네.
有斐壺翁孫, 詩源有自來. 弱冠稜稜露鋒鍔, 公車衆士多謂才.
步驟旣云美, 志向寔不鄙. 矯首開元大曆間, 東轍陳陳不願似.
自言濃癖癖於唐, 抹摋科場盖坐此. 曩余獲觀香嶽詩, 展讀覺非今人辭.
匹馬去遊秋冬際, 霰雪名山淸入脾. 玉潔花澹信難得, 山峭澗急時有之.
又從阿咸得諷傳, 永州諸作尤多奇. 蒼玉屛開飛瀑流, 太華少華相唱酬.
擲地如聞金石響, 興公詞賦眞相侔. 往日江湖步屧多, 菰蘆錯落留藻葩.
直可鴈行玄圃子, 蒼古不及淸勁過. 文章有價吾非諛, 要自悠悠定評在.
也是胷藏激楚氣, 從他世譏傲兀態. 詩囊日富擔石空, 始信窮者詩能工.

戴恩亭西江水綠, 圖書几案柴門窄. 百年吟嘯庶爲樂, 直透玲瓏作者域.
精神敎敎人如詩, 骨相何曾有夭法. 苦被天公賦命奇, 蘭萎玉折今如斯.
向從喪次憫柴毁, 終以衰衣斂身歸. 辛勤半世苦心業, 墳上花開復誰知.
島窮賀夭自古有, 只是詩篇流不朽. 歸拜壺翁講聲律, 太華在前阿咸後.

「진사 남한종에 대한 만시(南進士漢宗挽)」(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총48구의 장편고시(長篇古詩)인 이 시는 백인(百忍) 남한종(南漢宗, 1691~1734)의 죽음을 애도한 만시(挽詩)이다. 남한종은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 손자이다. 시의 시작과 끝부분에 두 차례 등장하는 호옹(壺翁)이 호곡 남용익을 가리킨다. 남용익은 맏아들 기봉(碁峯) 남정중(南正重, 1653~1704)과 서자(庶子) 남명중(南命重), 남성중(南聖重)을 두었는데, 이 시에서 읊고 있는 남한종은 남성중의 아들이니 역시 서얼이다. 남성중은 1711년 신묘통신사행(辛卯通信使行)에 종사관 서기로 수행한 바 있으니, 검증된 문학적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만하다.

남정중의 아들은 기옹(寄翁) 남한기(南漢紀, 1675~1748)이고, 남한기는 아들로 남유상(南有常, 1696~1728), 남유용(南有容, 1698~1773) 형제를 두었다.[30] 이들 형제는 호가 각각 태화(太華), 소화(少華)인데, 모두 이 시에서 읊고 있는 남한종의 조카이다. 남유상, 남유용과 서종숙(庶從叔) 남한종은 함께 교유한 적이 많았다.[31] 남한종이 세상을 떠나 이봉환이 이 시를 쓴 1734년 당시에는 남유상 역시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고, 남유용만 생존해 있었다. 남한종은 1734년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남유용이 묘지명을 썼다.[32]

---

30) 이들 두 형제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는 강석중, 「太華子 南有常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16, 한국한시학회, 2012; 안순태, 「雷淵 南有容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7, 2013 참조.

31) 남유상의 「감회」(感懷)시에 화답시를 쓰며 남긴 서문에서 남유용은 자신과 형 남유상, 고종사촌형 이세신(李世臣), 서종숙(庶從叔) 남한종(南漢宗)이 모여 호사청등회(壺社淸燈會)를 만들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 남유용이 10세 때이니, 1707년 무렵인데, 이때 남유상은 12세, 남한종은 17세였다. 이 셋은 이 때 시회를 만들어 활동했을 만큼 결속력이 강하였고, 문학 공부에 적극적이었던 듯하다. 이때 이후 10여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세신을 뺀 나머지 3명은 잘 만났다고 하였으니 셋의 교유는 남유용이 20대가 되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昔吾兄弟, 與李汝喬庶從叔漢宗, 作壺社淸燈會, 分韻賦詩. 余詩有曰: '叔兮騎驢來, 伯也倚前楹. 回顧語小弟, 且去邀大兄.' 大兄指汝喬, 時余十歲, 汝喬亟賞之, 以爲唐人以上語, 至今十餘年, 而三人盍簪, 獨不見汝喬矣, 伯氏有感懷之作, 余與叔和之.) 靜處逢人事却繁, 詩聲酒氣晝連昏. 依然玉壺淸燈席, 安得喬公共笑言." (南有容, 「和伯氏感懷」, 『雷淵集』 권1)

윗 시의 7~10구를 살펴보면, 개원과 대력은 각각 당나라 현종(玄宗)과 대종(代宗)이 사용한 연호인데,[33] 남한종은 성당(盛唐)과 중당(中唐)의 시와 비슷한 작풍을 보인 듯하고, 동방의 자취를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벽(癖)이 있어서 과체시(科體詩)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를 쓰려고 하였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남유용이 쓴 묘지명의 서(序)에도 밝혀져 있는데, "오직 시 짓는 것을 좋아하여 깊이 생각하여 글을 지었으며, 힘써 옛사람의 성조(聲調)를 따르려 하였다. 삼연 김창흡 선생은 그의 시가 당시(唐詩)에 가깝다고 칭찬하였다."[34]라고 하여 남한종은 고풍(古風)의 시를 쓰려고 애썼으며, 삼연 김창흡에게는 당시에 가깝다는 칭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1구에서 말하고 있는 「향악」시는 묘향산(妙香山)을 오르면서 쓴 시인 듯하고, 18구에서 '조카들의 입을 빌려 소문이 났다는 말'은 남한종의 시가 남유상, 남유용 두 조카들의 수창으로 더욱 이름이 났음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이 말은 20구에서 태화와 소화가 창수하였다는 말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다. 22구의 흥공(興公)은 진(晉)나라 손작(孫綽)인데, 「수초부」를 지어 은거의 뜻을 밝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남한종이 영주에서 지은 여러 작품들이 「수초부」에 필적할 정도로 훌륭하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겼음을 드러내고 있다. 23~24구에서는 산수 유람을 자주 하였고, 좋은 문장을 많이 남겼음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남유용도 지적하고 있는바, "군께서는 시쓰는 걸 스스로 좋아하셨고, 산수(山水)를 깊이 사랑하셨다. 내가 태화(太華: 형 남유상의 호)와 함께 노닐 적에 공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맑은 강물과 빼어난 돌을 만나면 문득 지팡이를 진 채 시를 읊었고, 복장을 갖춰 입고 수염을 날리니 모습이 꼭 신선 같았는데, 우리 둘이 돌아보며 웃었으니 그가 좋은 시를 지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35]라고 하여 남한종의 시문과 산수에 대한 애호를 동시에 부각한 바 있다.

25~26구에는 남한종이 현포자(玄圃子) 윤치(尹治)와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으며, 윤치에 비하여 예스러움은 못 미치나 더 강직하였음을 성격적 특징으로 들고 있다. 또 29~30구에는 남한종이 격초기(激楚氣)를 품고 있다고 하였다. 격초기는 분하고 비통한 기운을 이른다. 그리고 이런 기운을 가진 그를 세간에서는 오만하다고 비난하였다.

---

32) 南有容, 「進士南君墓誌銘 幷序」, 『雷淵集』 권21.

33) 開元은 713~741년, 大曆은 766~779년에 해당한다.

34) "獨好爲詩, 湛思以出之, 力追古作者聲調, 三淵金公嘗稱爲逼唐."(南有容, 「進士南君墓誌銘 幷序」, 『雷淵集』 권21)

35) "君旣以詩自喜, 又甚愛山水. 余之與太華遊也, 君未嘗不偕. 遇淸流秀石, 輒負杖行吟, 鬚眉巾袂, 擧飄然若羽化, 吾二人相顧以笑, 知其有好詩也."(南有容, 「進士南君墓誌銘 幷序」, 『雷淵集』 권21)

남유용이 남한종에 대해 “군의 성품은 고고하고 지조가 있어서 남의 불의함을 참지 못하였다. 이익과 권세를 추구하는 이를 보고는 면전에서 꾸짖으며 용서하지 않았다. 기질이 고결하고 말이 반듯하여 자기를 굽힌 채 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바,[36] 이봉환은 남유용이 들고 있는 고고함과 지조, 불의에 대한 염오(厭惡)뿐 아니라 그 자신에게 서려 있는 슬픔과 울분을 지적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31~34구에서는 대은정(戴恩亭) 서쪽에서 가난하게 산 남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역시 남유용이 “빙호(氷湖)가에 살았는데, 처자식은 늘 주린 빛이 있었어도 괘념치 않았다.”라고 밝힌 바와 내용이 같다.[37]

35구부터는 40구까지는 남한종의 평생 시를 쓰는 작가로서의 삶과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한 죽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41~42구는 부친 남성중의 상사(喪事)를 치르다 몸이 상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38]

그리고 45구 이하에서는 궁핍하여 요절하였으나 불후의 작품을 남긴 가도(賈島)와 이하(李賀)를 인용하여 남한종을 이들에 비기고 있고, 47~48 마지막 두 구에서는 남한종이 조부인 호곡 남용익의 제자라는 점을 서두에 이어 다시 한 번 밝히고, 태화(太華)가 앞에 있고 아함(阿含)이 뒤라고 하여 남한종의 조카인 남유상, 남유용의 이름을 거듭 호명하고 있다. 이는 남한종을 남용익과 손자 남유상, 남유용을 잇는 존재로서 파악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봉환은 조선의 시단에서 빼어난 성취와 명성이 있는 남용익과 그 손자 남유상, 남유용의 사이에 재능이 있지만 요절한 남한종을 넣음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계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훌륭한 문인으로서 남한종을 정위(定位)하고 있는 것이다.

빼어난 실력이 있지만 성취를 거두지 못한 존재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는 다른 시로는 15세에 죽은 조구진(趙九鎭)을 애도한 시가 있다.[39] 조구진은 손재 조재호의 아들

---

36) “君性狷介, 不忍人之不義, 見嗜利媚勢者, 必面詈之不饒, 氣潔而言方, 不屈己以徇人.”(南有容, 「進士南君墓誌銘 幷序」, 『雷淵集』 권21)

37) 대은정은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세운 정자로 조선시대 빙호(氷湖)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었다. 현재의 위치로는 동작대교 북안 인근으로 추정된다. 안대회·박진욱·김세호, 「18세기 한강의 누정 조사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5-3,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80~81면 참조.

38) 남유용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及僉使公(첨사공은 부친 남성중을 이름-인용자)疾, 君年已向艾矣. 日夜處寢傍小廳, 卧起扶持, 必躬而不人. 食或忘匙, 卧不貼席. 其居憂深墨之容, 吊者不忍見, 夜中常悲泣嗚咽, 傍人覺之, 則曰; ‘吾夢見先君’, 每夜輒然, 竟以甲寅五月十八日不克喪. 壽僅四十有四.”(南有容, 「進士南君墓誌銘 幷序」, 『雷淵集』 권21)

39) 李鳳煥, 「挽趙童子九鎭」 『雨念齋詩文鈔』 권1.

인데, 이 시에 대한 분석은 2절 3항의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2) 중서층 문인들과의 우정

이봉환은 자신과 처지가 같은 중서층 문인들과 활발히 교유하였다. 절친한 벗들과 교유하며 흉금을 털어놓은 시들이 많은데, 먼저 이명계가 죽었을 때 쓴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난초와 가시풀 사이를 배회하며 눈물 쏟고
다시 평생의 벗 이해고(李海皐)를 곡하노라.
기운이 굳세어 동해의 꽉 막힘을 참지 못했고,
안목이 환해 두보의 호방함만 인정하였지.
참 많았지, 젊었을 적 기쁘고 슬펐던 자취
슬프도다, 제 한 몸과 집안 위한 힘겨운 노고.
죽은 곳을 친속들도 죄다 보지 못했다니
석성에서 바람 타고 높은 옥루로 떠났는가.
徘徊蘭棘淚滔滔, 又哭平生李海皐.
氣勁不堪東海隘, 眼明偏數杜陵毫.
森羅少壯悲歡迹, 惻愴身家拮据勞.
亡處六親都不見, 石城飈馭玉樓高.

「자문에 대한 만시(輓子文)」(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4)

이명계가 세상을 떠난 해는 1764년이다.[40]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봉환은 이때 "난초와 가시풀 사이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 말은 원래 소옹(邵雍)이 「느낀 바를 읊다」(感事吟)에서 "지란은 심어도 안 자라고 / 가시풀은 베어도 없어지지 않네 / 어쩔 수 없는 이 둘 때문에 / 망설이다 한 해가 다 저물었네."(芝蘭種不榮, 荊棘剪不去. 二者無奈何, 徘徊歲將暮)라고 읊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좋은 일은 없고 안 좋은 일은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친한 벗 이명계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

40) 윤창후의 『야연만록』에 「輓李保寧-命啓」란 시가 실려 있는데, 그 뒤에 '甲申'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명계의 몰년을 갑신년(甲申年, 1764)이라고 비정하기로 한다. 이봉환의 이 시도 이때 썼으리라 추정된다.

을 수련(首聯)에서 읊었다면, 함련(頷聯)에서는 이명계가 조선이라는 좁은 땅에 가둘 수 없는 기운과 두보의 호방함만을 시라고 인정하는 높은 안목을 지녔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땅에 가둘 수 없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가 조선 밖으로 떠나본 유일한 경험인 통신사행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때 이 시를 쓰고 있는 이봉환이 동료 서기로 동반하였다. 경련(頸聯)에서는 함련의 빼어난 기운과 안목을 가진 이가 왜 슬퍼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 때문에 벼슬을 해야 했고, 말직을 전전하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련(尾聯)에서는 죽은 곳을 친속도 모른다고 하였고, 돌성을 쌓다가 수레를 타고 옥루로 떠났다는 말로 시를 끝맺고 있다. 신광수(申光洙, 1712~1775)가 쓴 「남을 대신하여 이보령명계의 만사를 짓다」(「代人輓李保寧命啓」)의 제1수 뒤에도 “이명계는 보령현감으로서 석성에 시험을 보이러 갔다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李以保寧倅, 參試石城, 未竣事, 暴亡)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여의 석성에 시험을 보이러 갔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듯하다. 그런데 친속들 역시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사고경위가 분명치 않았던 듯하다. 이봉환은 이를 두고 이명계가 돌 성에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느냐며 이명계의 불행한 죽음을 신비하게 포장하였다.

불안정한 삶을 보내고 있었던 때 맞이하게 된 벗의 죽음과, 그 벗의 빼어난 기운과 안목, 그리고 그의 가난함과 사고로 말미암은 불행한 죽음이 이 한 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인상과의 교유를 그리고 있는 시이다.

원령씨(元靈氏)를 알고 나서,
용산으로 찾아간 게 몇 번인가.
마음으로 깊이 사귀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들를 일 없었겠지.
지극한 이치는 경전을 따랐고,
원만한 근기는 짙은 묵으로 그려내었지.
강가의 노을은 먹을 수 없으니,
어느 곳에서 농사를 밝히시려나.
自得元靈氏, 龍山幾試節.
如非深契合, 未必數過從.
至理經箱準, 圓機繪墨濃.
江霞不可食, 何處欲明農.

「이원령인상에게 부치다(寄李元靈麟祥)」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이 둘은 용산에서 수차례 교유하였는데,[41] 경련에 따르면 함께 경전을 논하고 그림을 감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련의 '원만한 근기'의 원문은 '圓機'인데 시비에 초탈하여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미련의 노을을 먹는다는 말은 신선이 되는 수련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인상은 신선이 아니기 때문에 노을을 먹으며 살 수 없다. 농사를 밝힌다는 말은 원래 『서경』(書經) 「낙고」(洛誥)의 말로, 주공(周公)이 은거(隱居)할 뜻을 밝히며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가서 선정을 베풀 것을 고한 것인데,[42] 여기서도 표면상으로는 이인상을 은거하는 선비에 비유하여 어디서 은거할지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많지 않음을 재치있게 표현한 말로 보인다. 같은 제목 아래 실려 있는 다른 한 수는 다음과 같다.

물가의 작은 초가에는
갈매기만 오락가락
그림 배우기로 청벽(淸癖)을 이루고
꽃을 기르기에 솜씨를 보였지.
화분의 연꽃은 막 못에서 핀 듯
바위의 전서(篆書)는 이끼가 낀 듯.
한바탕 비로 방문 기약 어겼기에
시를 지어 조대(釣臺)로 보내노라..
瀕洲茅屋細, 唯有白鷗來.
學畵淸成癖, 栽花巧用才.
盆荷新出水, 巖篆已生苔.
一雨違藜杖, 題詩送釣臺.

「이원령인상에게 부치다(寄李元靈麟祥)」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

41) 이인상은 회곡에서 살다 1738년부터 1739년 여름까지 용산(龍山), 남정(藍井), 정방(鼎方), 동곽(東廓) 등지로 이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연보』, 돌베개, 2021, 123~124면 참조. 한편, 이봉환은 자신이 용산으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시구에 남기고 있다. "용산으로 지난 달에 거처 옮겼으니 / 다음 번엔 그물 들고 배도 같이 타야지."(龍洲前月纔移舍, 漁網他時可幷船, 李鳳煥, 「元靈與李子文命啓李景祖思興金仲豪光俊過」, 『雨念齋詩文鈔』 권1) 이 해가 1738년이다. 이때 이봉환과 이인상 둘 다 용산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42) "汝往敬哉, 玆予其明農哉!"(『書經』, 「洛誥」)

이인상의 거처가 인적이 없는 물가의 초가라는 사실을 수련에서 제시한 후, 함련에서는 이인상이 그림과 꽃기르기에 소양이 있음을 밝혔고, 경련에서는 함련을 이어받아 초가 주변에 보이는 꽃과 전서(篆書)의 모습을 통하여 주인의 고상한 취미와 연관되는 아취(雅趣)를 보여주었다. 미련의 "한바탕 비로 방문 기약 어긋났으니"의 원문에는 '지팡이'(藜杖)가 등장하는데, 이 지팡이는 바로 위에 소개한 시의 수련에 보이는 "용산으로 찾아간 게 몇 번인가"의 원문에 나오는 '지팡이'(筇)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러곤 비가 온 탓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시를 지어 부친다고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인상의 초가를 조대(釣臺), 즉 낚시터라고 하였는데, 낚시터는 수련에서 밝힌 바대로 이인상의 초가가 물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옛벗인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벼슬살이를 고사하며 부춘산(富春山)의 조대(釣臺)에 은거한 후한의 고사(高士) 엄광(嚴光)의 사적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이봉환은 이인상을 은거하고 있는 선비에 비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시의 첫 수의 미련의 발상과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시는 대략 20대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렵 이들은 경전 공부와 서화 감상, 화초 재배 등의 운치 있는 취향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인상은 1743년 이봉환의 부친 이정언이 별세하였을 때, 그의 만시를 지었고, 1747년 사근역찰방(沙斤驛察訪)에 부임하여 통신사를 부산까지 따라가서 전별하며 무진통신사 서기로 수행하는 이봉환과 시를 수창하기도 하였다.[43] 그런데 이때 이후로는 두 인물의 교유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이인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봉환은 그를 추억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가랑비가 막 걷혀가자 먼 봉우리가 환한데
그림 같은 창 아래 바둑돌 소리 들리네.
연잎 위의 구슬은 둥글게 맺혀 분신처럼 똑같고
해오라기 날개 먼 여정에 석양이 선명하네.
두기(杜機) 시집 간행되자 고율(古律)에 평을 하고,
원령(元靈)의 필적 장정하니 해서 행서 뒤섞였네.
안타깝도다 병세인(竝世人)들 홀연 잃고 보니

43)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 2서예, 돌베개, 2018, 212~215면 참조.

가신 뒤 정화(精華)들을 가벼이 못 하겠네.
纖雨時零他嶂晴, 窓櫺如畵有碁聲.
荷珠圓性分身肖, 鷺羽遙程返照明.
印杜機詩評古律, 裝元靈筆雜眞行.
可憐併世旋相失, 去後精華未敢輕.

「비온 뒤(雨後)」(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4)

이 시는 비가 갠 어느 날의 정취를 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련의 내용으로 보아 내리던 비가 멎었으며, 눈에 들어온 창틀 모습이 바둑판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한가한 느낌을 자아낸다. 함련에서는 연잎 위에 둥글게 구르는 여러 개의 물방울을 묘사하였고,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흰 해오라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였다. 경련에 등장하는 두기(杜機)의 시와 원령(元靈)의 글씨라는 시어가 주목할 만한데, 두기는 최성대(崔成大, 1691~1762)의 호이고, 원령은 이인상의 자이다. 이들은 각각 1762년과 1760년에 세상을 떴는데, 이 시의 미련에서 동시대를 함께 산 인물들이 갑자기 별세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들이 남긴 정화(精華)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44]

이 시는 최성대의 몰년인 1762년 이후에 쓴 시인데, 세상을 떠난 최성대의 시를 인쇄하여 그 시에 평을 달고 있고,[45] 이인상의 남은 글씨를 수습하여 진서와 행서를 한데 장정한 서첩(書帖)을 갖고 있는 이봉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인상과의 교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인상이 1747년 사근도 찰방이 되어 부산까지 통신사를 전송하는 데서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남긴 서예 작품을 수습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일은 이인상이 세상을 떠난 1760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상이 죽은 뒤 10년 뒤인 1770년이 이봉환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같은 행위는

44) 이봉환의 이 같은 행동은 일종의 병세의식(幷世意識)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민, 「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 『한국문화』5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참조.

45) 김형술은 18세기에 槎川 李秉淵, 杜機 崔成大의 시가 당대인에 의해 많이 열독되었다는 사실을 한산이씨 가문 소장 필사본 시선집을 소개하면서 논한 바 있다. 이 시집에는 42명의 시 563제 742수가 실려 있는데, 李奎報, 朴誾, 李恒福을 제외하면 대부분 작가들은 모두 18세기의 인물들로, 최성대의 시가 202제 286수로 가장 많고, 이병연의 시가 176제 234수로 두 번째로 많다. 이 시집의 편자는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이병연, 최성대를 꼽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형술, 「서명 미상 필사본 시선집의 자료적 가치」, 『국문학연구』21, 국문학회, 2010 참조.

이봉환이 최만년까지 자신의 인척이자 젊은 시절의 벗인 이인상을 그리워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시는 남옥 및 박경행과의 교유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 둘을 만나 지은 4수의 연작시를 한 수씩 살펴보기로 한다.

새벽별이 떨어지니 무리들은 다 흩어졌는데,
여생은 길지 않으니 이제 팔구분(八九分)쯤 지났나.
술은 산도(山濤)와 왕융(王戎)처럼 일찍이 대작하였고,
시는 정불식(程不識), 이광(李廣)처럼 각자 군대를 통솔하는 격이었네.
한평생에 남은 건 머리에 내린 눈이요,
세상만사 어느 게 어제 뜬 구름 같지 않을까.
몸은 매화나무 둥치 같아 노추(老醜)함을 잊고서
향을 뿜어 그대에게 맡게 하고 싶네.
晨星已矣渙其羣, 餘景無多八九分.
酒是山王曾對飮, 詩應程李各治軍.
一生贏得平頭雪, 萬事誰非昨日雲.
身似梅槎忘老醜, 吐芬猶欲向君聞.

「시온, 인칙과 함께 짓다(與時韞仁則同作)」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에서는 새벽녘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봉환이 노년의 정회를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에 대해서는 남옥, 박경행과 더불어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산도(山濤), 왕융(王戎)과 같이 대작하였고, 시는 한대(漢代)의 명장(名將)인 정불식(程不識)과 이광(李廣)이 군대를 통솔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둘은 흉노에 맞서 싸운 한나라 장수인데, 정불식은 군대의 편성과 진영을 정연하게 하고 엄격하게 군사를 관리한 데 비하여, 이광은 대오를 엄격하게 갖추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병사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군대의 대오를 정비하고 병사들을 대하는 데 차이가 있었으나 훌륭한 장수라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적이다. 시가 이 둘이 군대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은 이봉환, 남옥, 박경행 간의 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훌륭한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시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새벽에 이 두 벗과 만나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술을 마시고 함께 시를 지은 다음, 눈처럼 하얗게 센 머리를 읊고는 세상 일이 어제 뜬 구

름과 같다고 하였다. 모든 일들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눈처럼 하얗게 센 머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쇠함을 드러내는 소재로 매화나무 둥치를 등장시켰다. 얼마 남지 않은 노경을 보내고 있는 이봉환의 몸은 매화나무 둥치처럼 늙고 추하지만, 이를 잊은 채 남옥, 박경행 같은 벗들을 위해 좋은 매화향을 뿜어내어 그들에게 맡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미련(尾聯)의 내용으로 보인다. 늙었다는 것을 잊은 채 그동안 축적한 향을 맡게 하고 싶다는 말은 좋은 시를 써서 벗들에게 보인다는 뜻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남옥과 박경행이 이봉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知音)이어서일 것이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 모두 따르기 어려우니
선배의 풍류를 보는 일 드물었지.
매화를 찾아가는 데 여비를 대지는 못했으나
나귀는 어렵게 구하여 겨우 탈 수 있었지.
쇠와 돌에 새긴다 한들 문(文)은 어찌 쓰겠나
다했도다, 늘그막에 날은 더디 가지 않네.
마른 나무 한 켠에 홀로 꽃이 피었으니
그대들은 응당 후세의 양웅(揚雄)이 알아주겠지.
長安生貴儘難隨, 前輩風流見少時.
梅是行尋非自貯, 驢因苦覓始能騎.
刻之金石文何用, 已矣桑榆日不遲.
枯木半邊花獨在, 數君應有子雲知.

「시온, 인칙과 함께 짓다(與時韞仁則同作)」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제2수의 “서울은 물가가 비싸”의 원문은“長安生貴”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고황(顧況)이라는 인물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는데, 고황이 백거이의 이름을 들여다 보고 “장안에는 쌀값이 비싸서, 살기가 크게 쉽지 않을걸세”(長安米貴, 居大不易.)라고 말한 데서 온 “長安米貴”라는 말을 차용하여 시어로 썼다. 서울에서 사는 일이 어려워서 선배들이 예전에 즐기던 풍류를 따라하지 못하였는데, 함련(頷聯)의 내용을 통해 이것이 나귀를 타고 매화를 감상하러 떠난 맹호연(孟浩然)의 기려심매(騎驢尋梅)의 풍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화나무를 감상하러 떠난 것이 자신의 비용을 들인 것이 아니지만, 나귀는 겨우 빌릴 수 있었다는 함련의 뜻은 이어 소개할 제

4수의 수련(首聯)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이봉환은 관직에 있어서 행역을 떠나는 중이었고, 그때 벗들을 불러서 매화나무 아래에서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하다. 경련(頸聯)에서는 자신들이 모여서 시를 쓰지만 이것이 무용(無用)한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고, 이들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문(文)이 쓸모가 없다는 것은 글공부를 하여 발신(發身)할 수 없는 서얼과 중인들의 신분적 한계를 안타까워 한 말로 보인다. 미련(尾聯)에서는 고목(枯木) 옆에 피어 있는 홀로 핀 꽃에 눈길을 주게 되는데, 고목은 바로 앞 경련에서 읊은 노경의 자신의 모습과 상응하고 그 옆에 있는 홀로 핀 꽃은 이 시의 수신대상인 벗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홀로'라는 부사는 꼭 한 송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들에 의해 발견이 되지 않은 꽃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목 옆에 피어 있는 이 꽃들은 누구에 의해 발견되는가? 이봉환은 여기서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었을 때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자 스스로 "후세의 양웅이 있으면 이 가치를 알 것이다"[46]라고 했다는 고사를 차용하여, 이 벗들의 훌륭함을 알아줄 이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는 아쉬움과 후세에는 반드시 이들을 알아줄 이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시고에 내가 늙었음을 슬퍼하는 시가 많거늘
그대들 마주하여 시를 읊다 고개 숙이지 않으랴.
살아 생전 술이 있어 늘상 벗을 따랐거늘
죽은 후엔 아이에게 물려줄 밭이 없네.
세상사 모래씻어가듯 맡기리니 어찌 물줄기를 가리겠나?
무덤은 풀숲에 덮이리니 묘비 굳이 세우랴.
치언(巵言)이 무언(無言)의 현묘함에 미치랴
말세에는 원래 말에 가지가 많은 법.
詩藁白多悲我衰, 對君吟望肯低垂.
生前有酒長隨友, 身後無田可與兒.
世任淘沙何限浪, 墓應埋草不須碑.
巵言寧及無言妙, 叔季由來語有枝.

「시온, 인칙과 함께 짓다(與時韞仁則同作)」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

46) "昔揚子雲著『太玄』, 人皆笑之. 子雲之言曰: '世不我知, 無害也. 後世複有揚子雲, 必好之矣." (韓愈, 「與馮宿論文書」, 『五百家注昌黎文集』 卷17)

제3수는 벗들과 모여 쓰고 있는 시에 탄로(嘆老)의 정서가 담은 시가 많음을 밝히면서 시작한다. 이 시 역시 이 같은 작품 중 하나이다. “그대들 마주하여 시를 읊고 쳐다보다 고개 숙이네”라는 말은 두보의 「추흥8수」(秋興八首) 중 제8수의 미련 “훌륭한 시솜씨로 옛날엔 기상을 구하였거늘 / 이제 백발이 되어 바라보다 괴로이 고개를 떨군다”(綵筆昔曾干氣象, 白頭吟望苦低垂)라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두보의 시에서는 굳센 기상을 시로 읊었던 젊었을 적 자신과 가을이 슬퍼서 제대로 시를 쓸 수 없는 노경의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는 데 비해, 이봉환의 시에서는 탄로의 시조차 벗들을 맞이하여 더 이상 써나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벗들의 모습 역시 자신과 같이 늙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늙어서 슬프다는 말을 굳이 읊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함련에서는 평생을 벗들과 교유하며 술을 마셨다는 과거의 즐거운 경험과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다는 현재의 빈궁한 처지가 대비되어 있다. 살림을 돌보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이 반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벗들과 자식들을 향하던 시선은 이제 자신의 사후(死後)로 옮겨진다. 내가 죽으면 묘를 풀숲에 묻어두고 묘비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앞에 물결이 모래를 휩쓸어 아래로 내려갈 때 모래는 물결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우석(劉禹錫)의 「낭도사」(浪淘沙)의 “흐르는 물은 잔모래를 씻어내어 잠시도 쉬지 않거늘 / 앞 물결 다하기 전에 뒷물결 생겨나네”(流水淘沙不暫停, 前波未滅後波生)라는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강물이 끊임없이 모래를 일어 흘러간다는 것은 무상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로 보이고, 이런 말 뒤에 묘는 풀숲에 쓰고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를 바라는 말처럼 보인다. 묘비를 쓰지 말라는 말 뒤에는 치언(巵言)이 무언(無言)의 현묘함만 못하다는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하였다.[47] 치언은 앞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 같은 말을 의미한다. 즉 묘비를 쓰게 되면 망자의 일생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실상과 맞지 않은 정보를 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묘비가 없는 것이 낫다는 말을 이렇게 하였고, 이 뒤에 말세에는 말들이 많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사후의 일까지 남옥, 박경행에게 말해두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간의 절친한 관계를 잘 살필 수 있다.

---

47) “巵言日出, 和以天倪, 因以曼衍, 所以窮年. 不言則齊, 齊與言不齊, 言與齊不齊也, 故曰無言. 言無言, 終身言, 未嘗言. 終身不言, 未嘗不言.”(『莊子』, 「寓言」)

행역 중에도 여전히 관직에 몸이 매여
편지를 보내 만날 수 있는 건 옛벗들이지
지나간 세월은 애석치 않으나
허다한 허물과 후회 어찌 이리 잦은고.
술잔 수 늘어가고 등불은 꺼지지 않거늘
시 제목 쓰려는데 눈조차 가난해지네.
오십년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아취(雅趣)
그대들 없었다면 그저 그림자와 서로 위로했겠지.
旅游猶得作官身, 折簡能來是故人.
過去光陰抛不惜, 許多尤悔復何頻.
剩添酒數燈無盡, 欲寫詩題雪亦貧.
五十年來梅下趣, 微君秪遣影相隣.

「시온, 인칙과 함께 짓다(與時韞仁則同作)」 제4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제4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만나게 된 벗들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속절없이 지나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물과 후회가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1연에서 이미 새벽별이 떴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벗들과의 술잔치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말하였는데, 여전히 마신 술은 늘어가고 등불도 꺼지지 않아 시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의 제목을 쓰려고 하던 차에 내리던 눈이 줄어든 것을 두고 눈조차 가난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가난한 삶을 함께 영위하던 벗들과 만나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시를 눈까지 이렇게 보인 것이다. 이 가난한 벗들인 남옥, 박경행이 소중한 것은 만약 이들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이백(李白)처럼 달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를 달래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48] 이들과 교유하면서 좋은 풍광을 찾아다닌 것은 비단 늘그막의 일은 아니다. 이것을 "오십년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아취"라고 표현하였다.

박경행과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를 몇 수 더 살펴보기로 한다.

봄밤에 밝힌 등불 고향은 아닌데
울던 댓숲은 누굴 위해 호젓한가.
구름 속 기러기가 집에 편지 전하리니

48)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李白, 「「月下獨酌」」)

일본 가는 배는 나랏일로 가는 것.
이제 만리 길 나그네 될 판이라
상원(上元)날 노닒을 먼저 하게 되겠지
달밤에 삼나무 서쪽 봉우리를
올라보니 그저 시름만 쌓이네.
春燈非故里, 鳴竹爲誰幽.
家信雲中鴈, 王程日本舟.
將爲萬里客, 先作上元遊.
夜月杉西崦, 登臨只積憂.

「박인칙경행의 숙소에 들러(過朴仁則敬行寓次)」(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우념재시문초』에 실린 작품 중, 이봉환과 박경행이 만난 가장 이른 시기에 쓴 작품이다. 부산에서 바람이 잔잔해질 것을 기다리면서 도해(渡海)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때 쓴 시로 보인다. 경련에서 배를 상원에 시험에 보았다는 것은, 통신사가 부산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임시 주행을 마쳤다는 말이다.[49] 이봉환과 박경행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왕명을 받은 사행단을 수행하는 이로서 갖게 되는 각오, 도해에 대한 근심 등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옥, 박경행을 상대로 쓴 시에서 보았지만 이들과는 사행 후에도 만년까지 교유를 지속하였다. 이봉환은 박경행과 만나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몽당붓 잡고 마음대로 허접한 글 쓴답시고
흘려보낸 시간이 희화(羲和)의 신속한 수레 같네.
문득 여기서 머물며 저녁밥을 함께 하나
어찌 그리 뒤늦게야 겨울꽃을 읊조리나.
문장은 두보를 배우다 되려 송시가 돼 버렸고
생계는 책을 팔아 연신 집에 대었구나.
그래도 좋구나! 작은 뜰에 초승달 지나가니
담장을 낀 교목 그림자 깍지처럼 얽히는 게.
禿毫隨意墨塗鴉, 消遣羲和迅速車.
忽此留連同夕飯, 何其晩晩賦冬花.

49) 李鳳煥, 「上元泛前泮」, 『雨念齋詩文鈔』 권2.

文章學杜還成宋, 生理賣書仍及家.
差喜小庭纖月過, 夾墻喬木影相叉.

「인칙에게 들러 밤에 마시다(過仁則夜飮)」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4)

이 시는 총9수로 된 7언율시인데, 제8수에 "고우(皐友)가 무덤가 측백나무 열매가 되니 / 매번 둘만 모여 눈물만 줄줄 흘리네"[50]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또 다른 벗 해고(海皐) 이명계(李命啓)가 사망한 1764년 이후에 쓴 시임을 알 수 있다. 박경행의 거처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쓴 시로 보이는데, 수련과 함련에서는 글씨를 쓰며 노닐다 문득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깨닫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속 시를 읊는 모습을 그렸고, 경련에서는 이봉환이 자신의 문학과 생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두보를 배우려다 송시를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는 두시를 흡족할 만큼 공부하여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인데, 이를 통해 이봉환이 시를 공부한 내력을 알 수 있다. 책을 팔았다는 말은 변변치 못한 살림 탓에 갖고 있던 장서를 팔아야만 했던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년에 느끼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후회와 곤궁한 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지난 시절의 공과와 빈궁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벗에 대한 우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미련에서 달을 등장시켜서 서로를 비추고 있는 교목과 그 그림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만년을 의지하고 있는 이봉환과 박경행 두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그대 수만 그루 대숲 속 관리로 보내니
흥해 백성은 좋겠지만 서울엔 좋은 시(詩) 텅 비리라.
육순(六旬)의 인사에 가호가 있으시길
팔백 리나 먼 곳이니 편지는 통하려나?
문 닫은 채 벼루 앞에서 시야 쓸 수 있겠지만
나귀 보낸다고 누가 또 다리 동쪽에서 오겠나.
잔도(棧道)에 눈 날린다 싫어하지 마소
벼슬 하느라 새벽 홍진(紅塵)을 밟는 것보단 나을 테니.
送子爲官萬竹中, 海民雖喜洛詩空.
六旬人事須加護, 八百里書未易通.

50) "皐友已成秋柏實, 每當雙會淚相關"(李鳳煥, 「過仁則夜飮」 제8수, 『雨念齋詩文鈔』 권4)

閉戶秖堪居硯北, 送騾誰復自橋東.
莫嫌雪棧飄垂白, 猶勝霜靴踏軟紅.

「흥해에 부임하는 인칙을 보내며(送仁則之任興海)」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박경행이 1770년에 흥해군수가 되었을 때 이봉환이 쓴 시이다. 흥해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로 대나무가 유명했던 곳이다. 수련에서 이봉환은 군수가 된 벗을 축하하면서도 서울의 시가 빌 것이라는 말을 통하여 훌륭한 시우(詩友)를 잃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함련에서는 60세의 많은 나이에 팔백 리나 되는 먼 거리에 부임하게 된 벗의 출사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들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먼 거리라 소식은 쉽게 얻을 수 없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았다. 경련에서는 벗이 부재하게 된 나의 상황을 보임으로써, 평소 이 둘의 교제가 빈번하였음을 알게 하고 있다. "閉戶"는 후한 때의 학자 손경(孫敬)이 집에 틀어박혀 글만 열심히 읽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문을 닫아 거고 혼자 공부한다는 뜻이고, "다리 위의 나귀"는 당소종(唐昭宗) 때의 재상 정계(鄭綮)의 고사인데, 정계는 눈보라 치는 파교(灞橋)의 나귀 등에 시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에 기려색구(騎驢索句)는 시인이 좋은 풍경을 찾아다니며 시를 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 시에서는 벗을 초빙하여 시를 같이 쓰는 일을 의미한다. 박경행이 떠나게 되면 혼자 공부는 하겠지만, 같이 시를 쓰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미련에서는 흥해가 비록 먼 외직이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새벽부터 서리 내린 신을 신고 분주히 세속에 부대껴야 하는 고관의 삶보다 낫다고 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리 내린 신을 신고 홍진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새벽길을 마다않고 부지런히 출근한 고위 관리가 자신이 맡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이르는 말이다.[51] 서울에서 관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겠으나, 박경행이 부임하는 흥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세속적 공간이라고 할 만하다. "홍진을 밟는다"라는 시어 안에 이 같은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습량(鄭習良, 1709~1751)과의 교유를 주목할 만하다. 정습량은 소론 벌열 연일정씨 정수기(鄭壽期)의 서자(庶子)이고, 정우량, 정휘량의 서제(庶弟)이다. 이봉환은 그가 죽었을 때 제문(祭文)을 썼으며, 유고문집을 편찬하여 발문(跋文)을 써준 바 있다.

---

51) "五更待漏靴滿霜, 不如三伏日高睡足北窓凉."(蘇軾, 「薄薄酒」, 『蘇東坡詩集』 卷14)

옛적에 그대가 내 시문을 좋아해 일찍이 시가 낫고 문이 못하다고 하였지. 지금 그대가 영원히 떠나가니 진실로 시를 써서 보내야 하겠으나 돌아보니 시간이 갑자기 흘러 겨를이 없구려. 다른 날 혹 산이나 물을 홀로 노닐다가 비바람이 마침 불어오거나 한가할 때 쓸쓸해지면서 달이 오르고 나뭇잎이 질 때 시가 지어져서 나의 애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니, 그래도 이것 또한 늦지 않은 것일세. 아, 누구를 위해 일하고 누구에게 듣게 하겠는가? 이 말은 벗이 생긴 이래 가장 안타까운 감정에 대한 것이다. 아, 중도에 결별하느니 차라리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루라도 마음이 맞으면 그 즐거움이 천고에 비기거늘 십오년 동안 마음이 맞은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된 것이니, 조물주가 엎은 것 또한 마땅하구나. 옛적에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온 마음이 또렷또렷한데도 진실로 한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을 알지 못하겠구나. 영궤(靈几)에 대해서는 전일의 편지에 다하였으니 알든 모르든 거기에 맡길 뿐이다. 나는 나의 벗을 알 뿐이다. 지극히 슬퍼서 형식을 갖추지 못하겠노라. 아,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52]

정습량이 죽었을 때 이봉환이 쓴 제문(祭文)이다. 정습량은 이봉환의 시문을 가까이서 접했던 인물로 시가 산문보다 낫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마땅히 시를 지어 벗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겠으나 벗의 죽음이 갑작스러워 슬픔을 시로 표현하기에는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산문으로 대신한다는 입장을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누구를 위하여 듣게 하겠는가”라는 말은 춘추시대 거문고 명인인 백아(伯牙)가 지음(知音) 종자기(鍾子期)가 죽었을 때 했다는 말로,[53] 사랑하는 벗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지게 된 사람의 황망함과 슬픔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봉환은 이 말을 두고서 벗이 겪는 가장 괴로운 심정이라고 평가한 후에 헤어짐 때문에 겪게 되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지 않은 편이 낫지 않은지를 자문하였다. 그리고 하루라도 마음이 맞으면 즐거움이 천고에 값한다는 말을 한 후, 자신과 정습량과의 인연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것이니, 조물주가 정습량을 데려간 것도 마땅하다고

52) “昔君喜余詩文. 嘗以爲詩優而文劣. 今君之永逝, 固當有詩而送之, 顧忽忽未暇爲也. 異日者或山水孤遊, 風雨時至, 或燕坐悄然, 月升木落, 詩於是作矣, 志吾悼耳, 未晩也. 嗚呼, 孰爲爲之, 孰令聽之? 此語卽有朋友以來第一苦情也. 嗚呼, 與其中道而訣絶, 無寧初不相値也. 然一日會心樂抵千古, 十五年會心亦已久矣, 造物之掀倒也亦宜. 昔之認爲固有期以永保者癡耶. 一心炯炯, 誠不知其一死而一生, 靈几前日之書盡之矣. 有知無知任之而已. 吾知吾友而已. 至哀無文. 嗚呼, 復何言哉, 復何言哉.” (李鳳煥, 「祭士說文」, 『雨念齋詩文鈔』 권9)

53) “諺曰: ‘誰爲爲之, 孰令聽之?’ 蓋鍾子期死, 伯牙終身不復鼓琴.”(『漢書』, 「司馬遷傳」)

하여 벗의 죽음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벗이 떠나간 것에 대해 예전에 맺었던 오랫동안 같이 살자고 약속했던 일이 어리석다고 말한 후,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끝맺고 있다. 15년 동안 절친하게 교유하면서 이봉환의 문학에 대하여 문보다 시가 낫다는 평가를 내린 정습량의 죽음 앞에서 이봉환은 종자기가 떠났을 때 백아의 슬픔을 추체험하면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유했던 벗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환은 정습량이 죽은 후 유고시집을 편찬하고 발문을 써주기도 하였다.

> 사열은 지은 것을 하나도 정리해두지 않았으니, 아마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이다. 죽은 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또한 원고를 정리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글이 없어져서 나는 그 사위 이군에게 빌려서 상자 속의 남은 글 약간 편을 찾아내어 125편을 초(鈔)하고 나서 돌려주었다. 아!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을 전하기에 충분하겠는가? 일찍이 사열이 가진 뜻을 보았으니, 자연에 한가로이 거처하며 서적을 두루 읽고 그 식견을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에 이르러서는 꼭 이전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으로써 스스로 기뻐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슬프도다. 사열과 우리 무리는 봄가을 한가할 때마다 술 마시며 시를 읊는 즐거움을 갖곤 하였다. 우리 무리가 종이를 펼치고 붓을 잡으면 사열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시축이 이루어지면 가져다가 한 번 읽고는 떠나면서 말하길, "새로운 말이 없군!"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내가 시랑공(侍郎公)을 뵈었을 때, 공이 이르길, "아우가 벼슬길에 거진 나섰을 때 온집이 즐거워하였거늘, 그 시에는 처연하고 몹시 슬픈 음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요절할 법이었나 보다."라고 하였다.[54]

이 글은 정습량 유고에 붙인 발문으로, 자신이 쓴 시에 만족을 못하여 원고 정리를 해놓지 않은 정습량의 글이 그가 죽은 뒤 인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봉환이 정습량의 사위에게 유고를 얻어 그 중 시 125편을 추려 책을 만들고 나서 쓴 글이다.

---

54) "士說於其所著, 一不繕寫. 蓋不自滿也. 坳後一子穉弱, 亦未能收拾, 日就遺逸, 某債其壻李君, 搜篋中所餘僅若干篇, 鈔一百二十五篇, 以歸之. 嗟乎, 此何足以傳其人哉? 嘗見士說所存, 欲閒居林下, 博覽書籍, 以發其識見. 至於詩, 必欲道前人所不道語以自喜, 而竟未之成. 悲夫, 士說與吾輩, 每春秋暇日, 有觴詠之樂, 吾輩伸紙操觚, 士說輒微笑而已. 軸成取而一讀而去之曰; '無新語', 其不苟如此. 某謁侍郎公, 公曰吾弟略作仕宦, 一家湛樂, 而其詩多激楚哀婉之音. 今思之, 此或近於夭法云." (李鳳煥, 「鄭士說詩稿跋」, 『雨念齋詩文鈔』 권8)

앞에 인용한 제문에서는 이봉환과 정습량과의 교유가 15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이 글에서는 정습량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책을 두루 읽고 식견을 펼치는 일이었고, 문학에 대해서는 남들이 아직 쓰지 않은 새로운 시를 쓰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이 모든 바람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봄, 가을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이봉환 등과 시를 짓는 모임을 하게 되면, 정습량은 시를 쓰고 있는 벗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시축(詩軸)이 완성되면 일별(一瞥)하고는 "새로운 말이 없다."라는 평가를 남겼다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봉환 등 벗과의 교유를 즐김과 동시에, 새로운 시어를 갈망하는 문학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자신 역시 남들이 하지 않은 말을 시로 쓰고 싶어했다는 내용과 상응한다. 특히 정습량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 온 집안사람들이 좋아한 것과 달리, 그의 시를 보니 슬프고 처연한 음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그가 요사(夭死)하게 될 조짐이었으리라고 한 형 시랑공(侍郎公)의 말을 통해, 정습량이 그가 속한 연일정씨 일가의 중망(衆望)과는 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의 시에는 처연하고 몹시 슬픈 구절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처연하고 몹시 슬프다'의 원문은 "激楚哀婉"인데 여기서 激楚는 '격분하여 슬프다'라는 뜻이고, 哀婉은 '슬프고 완곡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모두 정습량의 시적 특질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만하다.

이봉환의 이 글 제목이 「정사열시고발」(鄭士說詩稿跋)인데, 최근 이 글이 실려 있는 정습량 원고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이 책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55] 그 사이트에는 "英祖年間에 金井察訪, 興陽監牧官을 지내던 迎日人 鄭習良 先生의 文集 原稿本 [鄭習良 遺稿] 1冊(本文 3枚 右側 上段에 찢겨져 나간 곳 있음 / 狀態 確認 要望)"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진으로 우측 상단에 '遺稿'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그 좌측에 '鄭習良詩'라는 글씨가 쓰인 겉표지 1매와 본문 8매를 확인할 수 있다. 본문 가운데 위에 인용한 이봉환의 발문(跋文)이 '詩稿跋'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책이 정습량의 유고를 간추려 이봉환이 펴낸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56] 이 책에 실린

55) 온라인 경매사이트 코베이에는 2018년 10월 24일 경매가 이루어진 필사본 『鄭習良遺稿』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다. (https://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810UVWRE9U)(2022년 5월 16일 확인)

56) 원문을 보지 못하여 이봉환의 발문의 내용처럼 시가 125수 실려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이트에서 공개한 원고의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습량의 작품은 「山居」, 「待士安」, 「偶吟」, 「送奴」, 「拈杜」, 「紫霞洞」, 「得五律」, 「朴淵」, 「萬景臺」, 「下山」의 10제 11수이다.

「詩稿跋」을 『우념재시문초』와 교감해 보면, 몇 군데의 차이가 있으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할 만큼 큰 차이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57] 그런데 코베이본에는 『우념재시문초』와는 달리 본문이 끝난 후 "辛未冬月友人完山李鳳煥聖章謹跋"이라는 기록이 붙어 있어서 정습량의 몰년이 신미년, 즉 1751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에서 인용한 제문에서 둘의 교유가 15년을 이어왔다는 말을 통해, 이 둘은 대략 1737년 무렵부터 교제를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코베이본에는 『우념재시문초』에 실려 있지 않은 이봉환의 글이 한 편 더 실려 있어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묘지초」(墓誌草)라는 글인데, 몇 단락으로 나누어 아래에 소개한다.

> 정군(鄭君) 습량(習良) 사열(士悅)은 연일(延日) 사람이다. 관직은 금정역승(金井驛丞)을 지냈는데, 나이 마흔셋인 신미년에 죽었다.[58] 사람됨이 효우(孝友)하고 맑은 절개가 있어서, 현달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무관(武官), 역관(譯官) 등을 통하여 부친과 형제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외모는 수척하여 기이한 기운이 있었고, 진한문(秦漢文) 읽기를 좋아하였고 시를 지은 것은 괴롭고 슬픈 것이 많아서 몹시 빼어나 남을 감동시켰다.[59]

망자의 이름과 관향이 소개되어 있고, 금정찰방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60] 신미년에 죽었음은 앞서 소개한 코베이본 「詩稿跋」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향년(享年)이 43세이어서 1709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연일 정씨 벌열 출신이나 벼슬을 한 부친 정수기, 두 형 정우량, 정휘량과는 거리를 두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문학에 관심을 보였는데, 진한고문(秦漢古文)을 좋아하였고, 그의 시에는 괴롭고 슬픈 것이 많았으며, 빼어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점을 알 수

---

57) 이 두 본의 교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목이 『우념재시문초』에는 "鄭士說詩稿跋"로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詩稿跋"로 되어 있다. 정습량의 자가 『우념재시문초』에는"士說"이라고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士悅"이라고 되어 있다.(총4회). 『우념재시문초』에는 "遺逸"이라고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遺佚"이라고 되어 있다. 『우념재시문초』에는 "某"라고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鳳煥"으로 되어 있다.(총2회) 『우념재시문초』에는 "輒微笑而已"로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輒微笑已而"로 되어 있다. 『우념재시문초』에는 "軸成取而一讀"으로 되어 있으나, 코베이본에는 "軸成取以一讀"으로 되어 있다.

58) 1751년이다. 향년이 43이니 출생년은 1709년이 된다.

59) "鄭君習良 士悅延日人, 官金井驛丞, 年四十三辛未歿, 爲人孝友淸介, 生於榮顯之家, 未嘗接韎韋象胥以干父兄之政. 貌瘦削有奇氣, 喜讀秦漢文, 爲詩多□音苦調, 警絶動人."(李鳳煥, 「墓誌草」)

60) 금정찰방이 된 것은 1742년의 일이다. 『승정원일기』, 1742년 3월 3일 자 참조.

있다. 특히 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위에서 확인한 「정사열시고발」(鄭士說詩稿跋)에서 그의 시의 특징을 “激楚哀婉”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평소에 봉환과 잘 지내어, 수차례 한강에서 교유하였는데, (나의) 궁함[61]이 자신의 궁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일찍이 밤에 술을 사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놀기를) 청하였는데[62] 홀연 탄식하며 말하길, “내 부친께서는 예조판서였고, 적자(嫡子)이신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은 우의정, 부제학[63]을 지내셨지. 그런데 (나는)[64] 서출(庶出)이고, 국속(國俗)은 서출을 천시하지, 돌아보건대 나는 재주가 없으니 또한 어찌 □□할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어렸을 적 수련가(修煉家)의 책을 읽고 문득 ‘이 기술은 배워둘 만하다고 한 바 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구할 수 없는 것이었네. □□□ 바닷가의 밭을 애써 경작하였다면 굶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지. 내가 벼슬길에 나갔을 때 봉급을 들여 고서(古書)를 사서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어찌 동지(同志)들과 더불어 나무와 돌 사이에로 돌아가 소요(逍遙)할 겨를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니 (봉환은)[65]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였다.[66]

이봉환은 정습량이 자신과 친하여 수차례 한강에서 교유했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소개한 「사열 제문」(祭士說文)에서 둘이 15년간 마음에 꼭 들어맞는 교유를 하였다고 밝힌 것과 상통한다. 그런데 정습량은 여기서 이봉환과 자신이 “곤궁함”이라는 공통점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동질감이 교유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곤 자신의 부친 정수기(鄭壽期, 1664~1752)는 예조판서였고, 적형(嫡兄) 정우량(鄭羽良, 1692~1754)과 정휘량(鄭翬良, 1706~1762)이 모두 현달한 인물임을 밝힌 후, 이에 비해 자신은 서출(庶出)인데, 국속은 서출을 천시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

61) 원문은 □窮이다. 문맥을 고려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62) 원문은 爲□이다. 문맥을 고려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63) 원문은 亞卿이다. 원래 亞卿은 참판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제학에 버금가는 벼슬을 부제학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정휘량은 참판벼슬을 지낸 것 같지는 않다.
64) 원문은 □良이다. 良 앞에 놓일 글자는 習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번역하였다.
65)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鳳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66) “雅善鳳煥, 數與遊江漢之上, 憫□窮無以異於己之窮也. 嘗夜酤酒, 要諸人賦詩爲□, 忽歎曰: ‘家老爺官大宗伯, 嫡伯仲兄官相國亞卿. □良庶出也. 國俗賤庶出, 習良顧無才, 然亦何所猷□□, 少閱修煉家言, 輒謂其術可學, 今思之不可求, □□□海濱田, 力耕可不飢. 吾從宦時, 捐俸買古書, □□□娛, 何由與同志者, 倂歸逍遙於木石之間乎?’ □□心賢之.”(李鳳煥, 앞의 글)

처지에 대한 슬픔이 짙게 배어 있는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을 묘지명에 인용하고 있는 이봉환 역시 서얼이고, 앞서 정습량이 이봉환과 자신의 공통점으로 든 곤궁함이 사실은 이 같은 신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었을 적 정습량은 도가(道家)의 연단술(鍊丹術)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후회하면서 착실하게 밭이라고 일구었으면 궁핍을 면하였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고, 관직에 나아갔을 때에는[67] 봉급을 들여 서책을 구하여 읽느라 벗들과 강산을 소요하며 즐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글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 봉환이 찰방이 되어 근무를 나갔을 때 그대는 병이 들었지. 헤어질 때가 되어 손을 잡고 이별하니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는 끝내 생을 마쳤네. 당시 판서공께서 방에 계셨는데, 그대가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하셨지. 봉환이 곡을 하니 몹시 슬퍼 눈물이 끝없이 흐른다. 봉환은 말하길, "옛날 자네가 한 말은 분수를 지켜서 마음을 다 드러내지도 않은 것이거늘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였으니. 안타깝도다. 끝내 일찍이 교유한 청송 심수증(沈壽增), 광산 김광준(金光俊)과 함께 소주(邵州: 邵城-인천)의 산에 매장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 125편을 가려서 군의 아들인 석록(錫祿)에게 주었다."라고 하였다.[68]

이봉환은 1750년에 금정찰방이 되어 근무한 바 있다. 8년 전 정습량이 찰방으로 근무하던 곳이다. 이때 정습량은 이미 병이 들었고, 그 뒤 1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부친 정수기가 서자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죽을 때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하였다. 생전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봉환은 정습량의 벗들과 함께 그가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관직에 있을 때 벗들과 좋은 곳을 다니면서 교유하지 못했다는 망자의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정사열시고발」(鄭士說詩稿跋)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시(遺詩) 125수를 엮어 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을 말미에 덧붙이고 있다. 이 글의 제목은 「묘지초」(墓誌草)이나 마지막에 운문인 명(銘)이 붙어 있다.

---

67) 윗단락에 제시한 금정찰방을 역임하던 때로 보이나, 정습량은 금정찰방이 되기 전에는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를 지냈고, 금정찰방 이후에는 흥양감목관(興陽監牧官)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1740년 7월 14일 자, 1746년 12월 5일 자 기사 참조.

68) "鳳煥出爲驛丞, 君有病. 臨別握手悽然, □幾君竟卒. 時大宗伯公在堂, 君視不瞑云. 鳳煥哭□甚悲, 涕不能已, 曰:'昔者之言可謂安分弗耀, 而此□未之遂耶, 惜哉! 遂與所嘗游者靑松沈壽增光山金光俊, 觀其葬于邵州之山, 鈔其詩一百二十五篇, 以授君之一子錫祿.'" (李鳳煥, 앞의 글)

명(銘)은 다음과 같다.
가난은 피할 수 없었는가
천함도 숨길 수 없었는가.
사람됨은 옥과 같았거늘
세상이 버리기는 버렸지.
문득 올라가 홀로 떠나니
빼어난 건 저 인물의 기(氣)이지.
어찌 묻어서
길이 땅에 서리게 하겠는가?
상국(相國)께서 명을 내리셔
벗이 묘지(墓誌)를 쓰도다.
완산 이봉환 삼가 쓰다.[69]

가난과 천함은 정습량이 평생 감내해야 했던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이었고, 사람됨은 옥처럼 고결하였는데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빼어난 기운이 홀로 떠나가거늘 그를 매장하여 이 땅에 길이 그 기운을 서리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부친 정수기의 명을 받아 절친한 벗 자신이 묘지를 쓰고 있음을 밝혔다. 세상을 떠난 벗에게 주는 말이지만, 사실은 자신과 거의 같은 처지의 벗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처럼 읽히는 것도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3) 신분에 얽매이지 않은 사귐 추구

이봉환과 교유한 대표적 벌열로 풍양조씨(豐壤趙氏)를 들 수 있다. 특히 조재호(趙載浩)와의 교유가 각별하였다. 이봉환은 조재호와 두 차례의 매사(梅社)를 통하여 활발하게 교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Ⅲ장 2절, Ⅳ장 3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매사와 관련된 시들을 제외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재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봉환이 쓴 연작시 세 수를를 차례대로 소개한다.

서하(西河)의 아픔을 누가 위로하리오

69) “銘曰: ‘窮其可避, 賤其可諱. 其人如玉, 世棄則棄. 欻升孤征, 英英者氣, 豈其埋之, 永蟠于地? 相國攸命, 其友爲誌.’ 完山李鳳煥謹述.”(李鳳煥, 위의 글)

동야(東野)는 공연히도 눈물 쏟았지.
서재엔 거미줄 많아졌고
봄 낚시터 해오라기도 저버렸다네.
천시(天時)에 따라 꽃과 나무 바뀌었거늘
영혼은 절로 안개와 구름이 되었네.
끊어진 단서는 아득히 멀어졌거늘
건천(乾川)의 문장과 맥(脈)이 같았지.
西河痛誰慰, 東野淚空紛.
書舍多蛛網, 春磯負鷺羣.
天時易花木, 魂氣自煙雲.
墜緖茫茫遠, 乾川一脉文.

「농곡 조재호의 시에 차운하다. 이때 농곡께서 아이를 잃고 거처를 옮기셨다(次趙農谷載浩韻, 時農谷喪兒移居)」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농곡(農谷) 조재호가 아들 조구진(趙九鎭)을 잃고 쓴 시에 차운한 시인데, 원운시는 전해지지 않는다. 시의 제목에 '喪兒', '移居'라는 조재호의 상황이 적혀 있어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제1수의 수련에서 서하(西河)는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제자를 가르친 곳인데, 자하가 이곳에서 아들의 상을 당하여 슬피 울다가 실명한 일이 있었다. 서하의 아픔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리킨다. 동야(東野)는 맹교(孟郊)의 자(字)이다. 아들을 잃은 그에게 한유(韓愈)는 「맹동야가 자식을 잃다」(孟東野失子)라는 시를 써서 위로해 주었는데, 자신이 맹교를 대신하여 하늘에 가서 자식을 데려간 이유를 묻는다는 내용 뒤에 "하늘에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거늘 / 땅에 떨어진 눈물이 구천에 이르렀네 / 땅의 신께서 슬피 여겨서 / 몸을 움츠려 불안해한 지 오래 / 마침내 크게 신령한 거북을 불러서 / 구름 타고 하늘문에 가서 그 까닭을 묻노라"(上呼無時聞, 滴地淚到泉. 地祇爲之悲, 瑟縮久不安. 乃呼大靈龜, 騎雲款天門)라는 시구절이 이어지는바, 동야가 공연히 눈물 쏟았다는 말은 맹교가 이유도 모른 채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조구진을 잃은 조재호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자식을 잃은 조재호의 아픔과 그것을 위로하는 이봉환의 슬픔을 '아픔', '눈물'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드러낸 후, 독서, 낚시 등 평소 조재호가 평상시에 했을 법한 일상생활이 제대로 영위되지 않고 있음을 서재의 거미줄과 낚시터의 해오라기 등을 동원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경련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나무가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에 대비하여, 조재호 아들의 혼이 구름이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표현상으로는 둘 다 생명 현상의 변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전자가 삶을 확인하는 존재들의 변화인 데 비해, 후자는 죽음을 드러내는 변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련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조재호의 죽은 아들, 조구진이 풍양 조씨 가문의 빼어난 문장가인 건천(乾川) 조귀명(趙龜命)의 뒤를 이을 빼어난 문장가로서의 면모이다. 문학적 측면에서 조구진을 조귀명과 연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조현명(趙顯命)은 종질(從姪) 조재도(趙載道, 1725~1749)의 묘지(墓誌)를 쓰면서, 조재도가 조구진과 함께 조귀명에게 글을 같이 배웠다고 하였다.[70] 조구진은 조귀명에게 글을 배웠고, 문학적 능력이 탁월하여 곧 조귀명의 문학가로서의 재주와 명성을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문 안에 있었다.[71] 그런데 그만 15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 것이다.

조재호는 아들이 평소에 남겨놓은 글과 그림을 수습하여 책으로 만들어 『청량헌유주』(聽凉軒遺珠)라고 이름짓고 숙부 조현명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청량헌(聽凉軒)은 조구진의 자호(自號)이다. 그 서문에 조구진을 잃은 조재호가 "저는 15년 동안 신기루가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 사정이 적혀 있다. 조현명은 이 말이 달관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서, 천지만물은 크기와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신기루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슬픔이 개재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였다.[72] 재주 있는 자식의 요절을 경험한 조카를 달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봉환이 조구진을 위해 쓴 만시(輓詩) 속의 "네 아비에게 무한한 슬픔 남겨 놓았으니 / 십년 동안 헛되이 신기루를 보게 하였네"(贏得乃翁無限慟, 十年虛閱蜃樓奇)[73]라는 구절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수를 살피기로 한다.

---

70) "八歲, 與九鎭, 同學於東谿."(趙顯命, 「堂侄文之墓誌」, 『歸鹿集』 권15) 8세는 조재도의 나이이고, 이 때 조구진은 10세였다. 1732년에 있던 일이다.

71) 이봉환도 조구진의 죽음에 부친 만시에서 "한유, 소식의 격력과 왕유의 솜씨 / 헛되이 책합 속에서 밤마다 빛나네"(韓蘇格力輞川藝, 空作塵箱夜夜光)라고 읊었다. (이봉환, 「挽趙童子九鎭」 제2수, 『우념재시문초』 권1) 조재호의 아들 조구진의 요절을 마주하여 써준 시이기 때문에 과장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뛰어난 문학적 재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한 말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72) "抑載浩之言曰: '吾爲十五年蜃樓所幻弄耳.' 此眞達觀之言也. 凡天地萬物, 聚散成虧, 雖大小遲速不同, 要其歸則皆蜃樓也, 何足置欣戚於其間也? 然則是帖也, 又蜃樓餘痕, 點綴於烟雲渺冥之間者也. 載浩既知蜃樓之爲幻妄, 而顧不能忘情於點綴之餘痕." (趙顯命, 「遺珠序」, 『歸鹿集』권18)

73) 이봉환, 「挽趙童子九鎭」 제1수, 『우념재시문초』 권1.

옛집에 어찌 계속 살 수 있을까
남은 꽃이 눈에 어지럽네.
쇠한 주(周) 온화한 기운이 적었고
이하(李賀)는 혹시 신선이었던가?
억지로 매화음을 해보지만
공연히 몽우정의 구름은 처량하네.
평생 읽은 농암의 문집에서도
애를 끊으며 숭겸(崇謙)을 곡하셨지.
故宅那堪住, 遺芳觸眼紛.
衰周少和氣, 長吉或仙羣.
强作觀梅飮, 空凄夢羽雲.
平生農老集, 腸斷哭崇文.

「농곡 조재호의 시에 차운하다. 이때 농곡께서 아이를 잃고 거처를 옮기셨다(次趙農谷載浩韻, 時農谷喪兒移居)」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2수는 요절한 자식과 같이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조재호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쇠한 주에 온화한 기운이 적었다는 말은 안연(顔淵)이 일찍 죽은 데 대해 주나라가 쇠하여서 화기(和氣)가 적어져서 공자(孔子)를 살릴 수는 있었으나 제자 안연까지는 화기가 미치지 못하여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정자(程子)의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을 재주는 뛰어났으나 요절한 만당(晩唐) 시인 이하(李賀, 790~816)로 받는 것은 몹시 자연스럽다. 요절한 이하는 빼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구진과 공통적이다. 아들을 앞세운 슬픔을 달래기 위해 조재호는 억지로라도 매화를 보며 술을 마시기도 했으나, 몽우정(夢羽亭)에 걸린 구름이 처량하다는 말로 진정되지 않은 슬픔을 드러내었다. 몽우정은 조재호의 거처에 있던 정자이다. 미련에서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을 소환하였다. 김창협의 아들 김숭겸(金崇謙, 1682~1700)은 부친 김창협을 따라 농암(農巖)과 삼주(三州)를 다니면서 수학하였고 시를 잘하여 두보(杜甫)의 격조와 법식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19세에 요절하였다.[74] 조재호의 부친 조문명(趙文命)이 김창협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조재호 역시 부친의 스승인 김창협의 문집을 평생 읽었을 터인데, 그 문집에서

74) 金昌協, 「亡兒墓表」, 『農巖集』 권28. 김창흡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썼다. 金昌翕, 「哭崇謙」, 『三淵集』 권7 참조.

김숭겸을 곡하면서 토해놓은 단장(斷腸)의 고통이 이제는 조재호 자신의 것이 되고 말았음을 이봉환은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제3수는 다음과 같다.

기이한 선비는 분울이 많은 법
봄술로는 얽힌 것을 풀지 못하리.
시서는 조물주와 관계되거늘
금수와는 더불어 살 수 없네.
하늘 멀리 붉은 석양은 시름겹고
물가는 텅 비어 조각구름을 바라보네.
동오(童烏)가 지금 세상을 떠났으니
뉘와 함께 『태현경』(太玄經)을 완성하리오.
奇士多孤憤, 春醪未解紛.
詩書關造物, 鳥獸忍同羣.
天遠愁紅暈, 洲空見斷雲.
童烏今不在, 誰與卒玄文.

「농곡 조재호의 시에 차운하다. 이때 농곡께서 아이를 잃고 거처를 옮기셨다(次趙農谷載浩韻, 時農谷喪兒移居)」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3수는 기이한 선비에게는 분울함이 많다고 하면서, 이는 술을 마시는 정도로는 달랠 수 없다고 하였고, 선비는 금수와 더불어 살 수 없다는 『논어』의 말을 시에 인용하였다.[75] 당시 이웃에 살면서 조재호를 핍박하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조재호가 집을 옮기게 된 데에는 아들 조구진의 요절 이외에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련에 등장하는 동오(童烏)는 한대(漢代)의 유학자 양웅(揚雄)의 둘째 아들 양신(揚信)의 어릴 적 이름인데, 양웅이 『태현경』을 쓰는 것을 도울 만큼 우수하였으나 일찍 죽었다고 한다. 자식이 일찍 죽어 『태현경』을 같이 쓸 사람이 없어졌다는 양웅의 상황 역시 조구진을 잃은 조재호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이봉환은 조재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세상에서 요절한 비범한 인물들을 시에 인용하였다. 김숭겸과 양신이 빼어난 재주를 꽃피우지 못한 채 요절한 조구진과 같은 존재들이라면 이들의 부친인 김창협, 양웅은 아들을 자신보다 먼저 앞세워야 했던 조재호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관계들을 시 속에 끌어들인 것은 참척(慘慽)을

75) “鳥獸不可與同群.”(『論語』, 「微子」)

당한 것이 비단 조재호 개인의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조재호의 개인적 슬픔을 상대화할 수 있는 내면의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해 주기 위한 장치인 듯하다. 이봉환과 조재호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 한 수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마포의 시사에서는 평교를 허락해주시더니,
지난날의 슬픔과 기쁨은 강물 너머에 있네.
먼 곳으로 부르실 땐 보내주신 말이 건장하였고
누대에 머물러서는 빗속의 매미소리를 들었지.
절동(浙東)의 의기(義氣)로 궁핍한 벗을 아껴주셨고
유령(庾令)의 풍류는 속된 무리를 끊어버렸지.
은혜를 받기만 하였으니 무얼로 갚을까
국화꽃 송이마다 당신을 몰래 그리워하네.
滄洲詩社許平分, 往事悲歡隔水雲.
邀致天涯官馬健, 淹留樓上雨蟬聞.
浙東意氣憐窮識, 庾令風流絶俗羣.
只有啣恩無所報, 寒花采采隱思君.

「따로 운자를 골라 충청도 관찰사 조손재에게 수창하다(酬贈別韻呈錦伯趙損齋)」 제2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1)

이 시는 조재호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보낸 시에 수창(酬唱)한 시이다. 조재호가 충청도 관찰사가 된 것은 1745년의 일이다.[76] 수련의 마포의 시사는 원문은 '滄洲詩社'인데, 이는 조재호와 이봉환이 가진 2차례 매사(梅社) 모임 중 1738년에 가진 제1차 매사를 이르는 듯하다. 제1차 매사인 무오년(戊午年: 1738년) 모임은 마포(麻浦)에서 있었고, 이때 조재호는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77] 구성원은 소론 사대부 조재호, 조의진, 조유진, 서얼 이봉환, 이명계, 그리고 중인 홍우필(洪禹弼) 여섯 명이었는데,[78] 이들은 지체에 구애받지 않고 수평적으로 교유한 바 있다. 이봉환이 조재호가 자신에게 평분(平分)을 허락했다고 한 것은 양반과 중서층이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교

76)『英祖實錄』1745년 5월 15일 자 기사 참조.
77) "戊午在麻湖, 公方布衣."(李鳳煥,「梅社五詠跋」,『梅社五詠』)
78) "記昔戊午元春, 余自西湖往, 會于麻湖, 與持卿及其兄宜鎭 義卿, 李聖章, 李命啓 子文, 洪禹弼 舜擧, 賦梅以爲樂."(趙載浩,「梅社五詠記」,『梅社五詠』)

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아직 출사하기 전에도 자신에게 교유를 허여해 준 조재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봉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먼 곳으로 초치(招致)하기 위해 말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만나서는 누대에 앉아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경련에서는 특히 조재호의 의기(義氣)와 풍류(風流)를 강조하고 있다. 주희(朱熹)가 절동제거(浙東提擧)가 되었을 때 송효종(宋孝宗)에게 구휼(救恤)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아뢴 일이 있는데, 본문의 절동의 의기는 이 주희의 고사를 끌어다 쓴 것이다. 또 유령(庾令)은 동진(東晉)의 유량(庾亮)인데, 그가 무창(武昌)을 다스릴 때, 어느 달밤에 부하들이 남루(南樓)에서 베푼 주연(酒宴)에 함께 참석하여 이들과 노닐었다는 '유랑등루'(庾亮登樓)의 고사가 있다. 이봉환은 빈궁한 자신을 돌보아준 조재호에 대한 고마움을 의기 있는 행동을 한 주희의 고사를 인용하여 미화하였고, 부하들과 격의 없이 교유한 유량의 고사를 통하여 조재호의 저속치 않은 사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조재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진 이봉환은 미련에서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른다고 토로하면서 가을에 만발한 국화꽃을 볼 때마다 조재호가 그립다고 하였다. 포의의 신분 때부터 자신을 격의 없이 대해준 조재호가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주희, 유량 등의 훌륭한 정치를 펼친 인물들을 소환하여 조재호 역시 이 같은 선정을 베풀고 동료, 부하들을 잘 대해주는 목민관(牧民官)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환은 풍산홍씨(豐山洪氏) 가문과도 친밀하게 교유하였다.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홍봉한(洪鳳漢)에게 준 총 7수의 연작시가 전하는바 그 중 1~3수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붉게 꾸민 화려한 수레가 먼 길을 떠나가니
오십 고을을 맑게 다스릴 생각이시지.
금강(錦江)이 아름다운 땅을 관장하여
조정에서 성상(聖上)의 근심을 나누어주셨네.
꽃 앞에선 성도의 술을 조금만 마시니
달빛 아득한 중에 유량(庾亮)의 누대로다.
행차가 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별하니
물가의 안개에 덮인 풀이 시름겹게 하네.
朱紋露網去悠悠, 意在澄淸五十州.[79]

79) 충청도를 오십주(五十州)로 표현한 예가 송상기(宋相琦)의 시에 보인다. "幾年官立右螭頭, 玉

錦水管來佳麗地, 玉宸分得聖明憂.
花前細細成都酒,[80] 月裏迢迢庾亮樓,
目極行塵違執袂, 江南烟草使人愁.

「홍참의께서 호서로 부임하시는 길에 드리다(贐洪參議出按湖西)」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1746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홍봉한을 전송하면서 쓴 시이다. 당시 이봉환은 37세, 홍봉한은 34세였다. 홍봉한은 1743년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1744년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다. 이후 승정원(承政院) 가주서(假注書)로 관직에 진출하였고, 1745년에는 광주부윤(廣州府尹)을 제수받았다. 5개월 뒤에는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에 올라 영조를 측근에서 보좌하다 충청도 관찰사에 올랐다. 이 시가 이봉환과 홍봉한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인데, 홍봉한은 당시 권력을 잡아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고 있는 젊은 정치가였고, 이봉환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와 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봉한은 이후에도 성균관 대사성, 경기 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1749년 1월 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면서 외척으로서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졌다.

위의 인용시에서는 충청도 관찰사로 떠나는 홍봉한에게 좋은 땅에서 선정(善政)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앞서 소개한 조재호를 전송할 때 사용한 동진의 유량(庾亮)의 고사를 사용하여, 임소로 떠나는 홍봉한을 위해 베푼 이별연(離別宴)의 자리가 화기애애하였음을 드러내고, 홍봉한을 전별하고 남은 이들의 아쉬움을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시의 미련 구절을 변용하여 시 속에 남겨놓았다.[81]

남국(南國)의 산천이 눈에 선하니
소년 방백은 신선처럼 앉아 계시지.
승정원에 거듭 근무하며 임금님 자주 뵈었거늘,

節今臨五十州."(宋相琦, 「拱北樓, 次板上韻」, 『玉吾齋集』 권3)

80) 두보(杜甫)의 「贈左僕射鄭國公嚴公武」 시에서 "성도에 어찌 술이 없겠는가 / 나라 걱정에 그저 조금 기울일 뿐"(成都豈無酒, 憂國只細傾)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81) "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崔顥, 「黃鶴樓」) 이봉환은 서울에서 충청도의 임소로 떠나는 홍봉한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였다. 이에 비해 최호는 황학루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먼 곳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최호와 이봉환은 그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옥절(玉節)을 새로 제수받을 땐 특별한 은혜 입었지.
높은 하늘의 오랜 신망 때문이지
우로(雨露)가 한 몸에만 내린 게 아니라네.
촛불이 다 타도록 밤에 책을 보시니
미인의 비단 금(琴) 연주는 필요치 않네.
南國山川滿眼前, 少年方伯坐如仙.
銀臺舊步思雙日, 玉節新榮許二天.[82]
自是雲霄儲望久, 非關雨露向身偏.
燭火銷盡觀書夜, 不用嬌娥錦瑟絃.

「홍참의께서 호서로 부임하시는 길에 드리다(贐洪參議出按湖西)」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2수는 충청도 감영에서 정사를 보고 있을 홍봉한의 모습을 신선과 같은 소년 방백(方伯)이라고 미화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승정원에 거듭 근무했다는 말은 과거 급제 이후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로 관직활동을 시작한 홍봉한이 다른 관직을 거쳐 다시 승정원의 승지로서 임금을 지척에서 자주 뵈면서 보좌하게 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원문의 "雙日"은 짝수일을 말하는데, 하루 걸러서 임금을 그리워하였다는 것은 자주 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는 홍봉한에 대한 두터운 신망(信望)의 결과이지 결코 편애(偏愛)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충청도 관찰사라는 자리에 오른 것이 세자의 장인이라는 지위가 인사에 치우치게 반영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미련의 말은 홍봉한은 관소에서 늦게까지 책을 볼 것이니, 기생의 음악이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독서(讀書)에 전념하고 여악(女樂)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로 보인다.

공문을 처리한 여가에 허리띠를 풀고 풍류 즐기나
가요는 어찌 꼭 남방에서만 채집하겠는가.
창생들 기미 살펴봄에 걷는 세금 줄이고

82) 二天: 특별한 은혜를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소장(蘇章)이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어 청하(淸河)에 이르렀는데, 당시 청하 태수는 옛 친구로 부정이 매우 많았고, 소장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나, 태수를 청하여 술을 마시며 환담하였다. 태수가 이에 대해 "남들은 모두 하늘이 하나이지만 나는 하늘이 둘이다."라고 말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蘇章列傳」)

조정 향한 마음 어전의 향처럼 피어오르네.
산성의 깃발은 세류영에 나부끼고,
관아 다리 밤비 내려 감당나무를 적시네.
겨울 숲 부채그림에 화양(華陽)께서 서문 쓰셨으니,
문장을 잘 붙잡아 어른의 옛자취를 잘 따르시길.
緩帶風流朱墨場, 歌謠何限采南方.
蒼生眉察蠲春稅, 靑瑣心懸惹御香.[83]
山堞牙旗依細柳, 官橋夜雨濕甘棠.[84]
寒林紈扇華陽序, 好把文章挹舊光.

「홍참의께서 호서로 부임하시는 길에 드리다(贐洪參議出按湖西)」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제3수는 공무(公務) 이외의 여가에 풍류를 즐기는 홍봉한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를 시작하였다. 허리띠를 푼다는 말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뜻인데, 진(晉)나라 장군 양호(羊祜)가 진중(陣中)에서 갑옷 대신 가볍고 따듯한 옷차림으로 헐렁하게 허리띠를 매고 소요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고, "朱墨"은 관원이 장부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주필(朱筆)과 묵필(墨筆)로 문서를 처리함을 드러낸 말이다. 함련에서는 백성을 위한 선정과 임금을 향한 충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창생들의 기미를 살핀다는 말은 두보의 시 중 "일에 임하여서는 와신상담해야 하고 / 창생들은 눈썹을 살펴야지"(卽事須嘗膽, 蒼生可察眉)라는 표현에서 왔다.[85] 경련에서는 아기(牙旗)가 세류영(細柳營)에 잘 서 있다는 표현으로 군영(軍營)에 기율(紀律)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었고, 관찰사의 관소에 비가 내려 감당(甘棠)나무가 젖은 모습을 통하여 관찰사의 선정(善政)이 백성들에게 미침을 표현하였다. 미련은 무하당(無何堂)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이 쓴 시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보고 칭찬한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홍주원은 선조(宣祖)의 부마이며, 홍봉한의 고조(高祖)이다.[86] 송시열이 홍주원의 문집에

83) 잠삼(岑參)의 시에 "曉隨天仗入, 暮惹御香歸"라는 구절이 보인다. (岑參, 「寄左省杜拾遺」)
84) 「감당」(甘棠)은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기도 한데, 소공(召公)이 선정(善政)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그를 기려 그가 쉬어가곤 한 감당나무를 기념하여 잘 가꾸며 보존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85) 杜甫, 「夔府書懷四十韻」, 『杜詩詳註』 권16.
86) 선조와 인목대비(仁穆大妃) 사이에서 태어난 정명공주(貞明公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어머니는 연안이씨(延安李氏)로,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딸이다. 외조부 이정귀의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써준 서문에서 홍주원의 글을 가리켜, “비단 부채에 겨울 숲과 눈 내린 대나무”라고 극찬한 바 있다.[87] 송시열에게 홍주원이 칭찬을 받은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홍봉한에게는 훌륭한 문학적 연원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고조 홍주원만큼 빼어난 문장을 쓸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환은 홍봉한과 교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도 교유하였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만년은 구름 동산에서 보내고팠는데,
> 여전히 도성 속 티끌들만 잔뜩 보네.
> 차가운 딱딱이 소리 등불은 꺼져 가는데,
> 은하수 먼 그림자 흰 눈과 함께 흐르네.
> 시간이 흘러 계절 바뀌는 것 놀라운데,
> 세로에 어둠 속 구슬 버려진 것 부끄럽네.
> 동궁(東宮) 서쪽에 솔바람 가까운 곳에서
> 복건 차림으로 한 사발 술 마셨지.
> 殘年遐想繞雲丘, 厭見城塵日夜浮.
> 鐘柝寒聲燈欲盡, 星河遠影雪同流.
> 天時新莢驚將換, 世路明珠恥暗投.
> 王子宮西松籟近, 幅巾聊爲一樽留.
>
> 「국동에서 밤에 모여 홍대유낙인과 함께 짓다(國衙夜會與洪大囿樂仁共賦)」(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어느 겨울 밤 홍봉한의 장남 홍낙인(洪樂仁)과 안국동에서 만나 지은 시이다. 수련에서는 은거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먼지 쌓인 서울을 전전하고 있는 이봉환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2구에서는 두보(杜甫)가 악양루(岳陽樓)에 올라 바라본 동정호(洞庭湖)의 무변광대함을 묘사하기 위해 쓴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 있네”(乾坤日夜浮)라는 구절을 점화하여 티끌이 도성에 가득하다는 것을 과장스럽게 표현하였다.[88] 함련에서는 이 시가 지어진 계절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소란스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밤에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홍낙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쓰고 있는

87) “句語贍蔚, 而時有郊寒島瘦底意思. 豈所謂紈扇上寒林雪竹者非耶?”(宋時烈, 「無何堂文集序」, 『宋子大全』 권139)
88)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杜甫, 「登岳陽樓」, 『杜詩詳註』 권22)

것인데, 별 그림자가 눈과 함께 흐른다는 표현을 통하여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다시 언급한 뒤, 세로에 어둠 속 구슬처럼 버려져 부끄럽다고 하였다. 원래 이 말은 「추양열전」(鄒陽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제(齊)나라 사람 추양은 양(梁)나라에서 유세하다가 다른 유세객들에게 비난을 당하자 양효왕(梁孝王)에게 편지를 보내어,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이 캄캄한 데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앞에 떨어지면, 칼을 붙잡고 노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앞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89] 자신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느닷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유세객들의 시기를 입어서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다. 이봉환은 이 고사를 차용하여 자신이 마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중에 버려진 구슬 같아서 부끄럽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이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장소와 함께 드러내었다. 동궁은 세자가 거처하는 곳이고, 이 세자의 외삼촌이 홍낙인이다. 추양의 편지는 끝내 양효왕에게 전달되었고, 추양은 석방된 후 상객(上客)의 지위에까지 오른다.[90] 그러나 추양과 비슷하게 자신의 처지를 시로 읊은 이봉환에게는 그와 같은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외삼촌인 홍낙인이 이봉환의 괴로운 사정을 토로하는 대상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친 홍봉한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도 밀접하게 교유하는 이봉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봉환은 남양홍씨(南陽洪氏)와도 밀접하게 교유하였다. Ⅱ장 2절에서 언급한 대로 홍계희(洪啓禧)와는 각별하게 친밀하였고, 아들 홍경해(洪景海, 1725~1759)와도 교분이 깊었다. 홍경해가 죽은 지 10년이 지나 천장(遷葬)을 하게 되었을 때 이봉환은 7수의 연작 만시(挽詩)를 써서 그를 기린 바 있는데, 이 중 세 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누가 다시 구름 헤치고 하늘에 호소할까
옷깃 여며도 천제는 답이 없구나.
붕새가 바람 타고 구만 리 오르려다 막히고
고래를 타고 처량하게 달그림자 잡으려 했네.
함께 공부한 여러 공들은 차례로 등제했건만
황천에 가버린 혼은 원한을 풀지 못하리라.

---

89) "臣聞明月之珠, 夜光之璧, 以闇投人於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 何則? 無因而至前也."(「魯仲連鄒陽列傳」, 『史記』권23)
90) "書奏梁孝王, 孝王使人出之, 卒爲上客."(같은 글, 같은 책)

시간 가면 소홀해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아무리 세월 흘러도 잊지 못함이 한스럽네.
誰復排雲訴九閽, 縱令敷衽帝無言.
鵬程夭閼培風力, 鯨馭悲凉捉月痕.
同隊諸公登次第, 重泉幽魄閉煩寃.
常情日遠多相恝, 我恨天荒可忍諼.

「응교 홍경해 천장 만시(洪應敎景海遷葬輓)」 제1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홍경해는 1747~48년 무진통신사행 때 정사였던 부친 홍계희를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고, 정사 서기였던 이봉환과도 각별하게 교유한 바 있다. 1758년에 금성(金成)의 현령이 되었는데, 1759년에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91]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 것이다. 위에는 인용하지 않은 이 시의 다른 곳에 "돌아간 지 십 년이니 강산이 바뀌었거늘, 후사자(後死者)는 몹시 곤궁한 채 백발만 자랐네"[92]라는 시구가 있음을 보면, 대략 1769년 무렵에 쓴 시이다.

위의 인용시는 홍경해의 죽음에 대해 하늘에 호소해도 하늘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붕새가 바람 타고 구만 리를 오른다는 것은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의 유명한 붕새의 비행 장면을 끌어다 유망한 젊은 관료가 처음 뜻을 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것이 막혔다는 것은 그 뜻이 좌절되었음을 뜻한다. 고래를 타고 달그림자를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채석강(采石江)에 비친 달을 따려다 사망했다는 이백(李白)의 전설을 차용하여 홍경해의 익사(溺死)를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요절 탓으로 함께 공부한 다른 이들과는 달리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원통함은 저승에서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고, 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의 죽

91) 심재(沈鋅)의 『송천필담』(松泉筆譚)에는 홍경해의 익사와 관련하여 "홍경해(洪景海)가 금성(金城)의 고을 원으로 있을 때 향시관(鄕試官)으로 춘천(春川) 시소(試所)에 가게 되었다. 소양강 상류를 건너는데 때마침 장마물이 크게 불어나 뱃사공과 일행들이 모두 위태로워 하였다. 홍경해는 일찍이 그 부친 홍계희(洪啓禧)의 사행을 따라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끝내 강물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져 일행이 모두 몰살당했는데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洪景海宰金城, 以鄕試官, 赴春川試所. 渡昭陽江上流, 時潦水大漲, 舟子與同行, 皆危之. 洪曾隨其父啓禧使行, 往涉日本, 故不畏也. 果中流船覆, 一行盡沒, 不得其尸)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신익철 외 역, 『송천필담』1, 보고사, 2009, 394면; 원문은 『송천필담』3, 보고사, 2009, 138면 참조.

92) "前和一紀靑山改, 後死千窮白髮長" (李鳳煥, 「洪應敎景海遷葬輓」 제7수, 『雨念齋詩文鈔』 권5)

음은 잊히지 않는다고 애통해하고 있다.

조선의 정승이 어찌 공명(功名) 아니랴마는
이 또한 때를 따라 영욕이 판이하게 갈리네.
은혜와 원망 한 마디 말에 함께 경악하게 되거늘
귀신은 무엇을 빌미로 잔인하게 구덩이에 빠뜨리는가.
물에 빠진 게 장돈(章惇) 탓은 아니거늘
사부(詞賦)는 끝내 굴원을 끝내 조상(弔喪)하게 되었네.
구름과 비가 예전부터 반복되거늘
세한(歲寒)의 정(情)을 몇이나 보존할꼬.
靑邱卿相豈功名, 斯亦隨時判悴榮.
恩怨一辭同作愕, 鬼神何崇忍擠坑.
風濤未必非章子, 詞賦終歸吊屈平.
雲雨古今翻覆際, 幾人能保歲寒情.

「응교 홍경해 천장 만시(洪應敎景海遷葬輓)」 제4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이 시는 연작시의 제4수이다. 조선에서 정승은 명망이 높지만 때에 따라 영욕이 갈린다는 것은 남양홍씨(南陽洪氏)의 정치적 부침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다. 홍경해의 부친 홍계희는 두 차례의 사행에서 모두 정사(正使)를 역임하였고, 충청도 관찰사, 이조, 형조, 병조, 호조 판서를 두루 거쳤으며, 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1762년에 경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사도세자의 비위를 고변하여 세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단초를 열어놓았고, 이때부터 가문은 빠르게 몰락하였다.[93] 은혜이든 원망이든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가문은 그에 따라 부침하였고, 이봉환은 그것을 귀신의 괴롭힘이라고 표현하였다. 물에 빠진 게 장돈(章惇) 탓은 아니라는 말은 송나라 범순인(范純仁)의 고사이다. 범순인이 당대의 권신인 장돈에게 미움을 사서, 뱃길로 먼 지역에 좌천을 당하였다. 길을 가는 내내 자제들은 장돈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모두 무사히 물을 빠져나왔을 때 범순인이 자제들에게 "이것도 장돈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며,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을 모두 장돈의 탓으로 돌리는 자제들을 나무랐다고 한다. 장돈이 범순인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를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닌 것처럼, 홍경해가 익사하게 된 것도 누군가

93)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99~101면.

의 해코지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봉환은 자신이 쓰게 된 글은 결국 굴원(屈原)을 조문한 가의(賈誼)의 「조굴원부」(弔屈原賦)처럼 되었다고 하였다. 물에 빠져 죽은 젊은 인재라는 점에서 홍경해와 가의는 닮았기 때문이다. 미련에서는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에 실린 유명한 구절 "손 젖히면 구름 끼고 손 덮으면 눈 내리네 / 경박한 세상인심 무얼 따지랴"(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와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경박한 인정세태도 불구하고 지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과 홍경해 사이의 신뢰 있는 관계를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남양 홍씨가 부침을 거듭함에도 자신은 이들 집안과의 교유를 지속하고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말처럼 보인다.

내게 말했지. "자네 지금 처지가 낮으니
이 세상을 희롱하며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
귀봉은 천리마 따르려 했으나 난 붙을 곳이 없었고,
손곡은 글솜씨 뽐내었으나 난 그 일이 달갑지 않네.
술을 마시며 껄껄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손을 잡고 토하는 것은 모두 좋은 말들이었네.
남해의 달빛과 동계(東溪)의 돌을 보며 교유했거늘
살아서 만나고 죽어서 이별함이 변화무상하였네.
謂我君今地處卑, 胡爲玩世任情癡.
龜峯附驥應無所, 蓀谷雕虫不屑爲.
酬酢呵呵仍大笑, 提携嘖嘖盡良規.
南溟月色東溪石, 回薄生逢死別時.

「응교 홍경해 천장 만시(洪應敎景海遷葬輓)」 제6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5)

연작시의 제6수인데, 홍경해가 이봉환에게 직접 한 말을 시어로 삼고 있다. 서얼인 이봉환에게 왜 완세불공(玩世不恭)의 태도를 품고 바보인 듯 마음대로 살지 않는지를 물었는데, 원문의 "玩世任情癡"는 세상을 희롱하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바보라는 뜻인데, 사대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예법과 규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물음에 이봉환은 귀봉(龜峯)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손곡(蓀谷) 이달(李達, 1539~1612)을 거론하면서 답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출중한 능

력을 가진 서얼로서 학문과 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었다. 특히 송익필은 빼어난 재주를 바탕으로 우계(牛溪) 성혼(成渾),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과 긴밀히 교유하여 서인(西人)의 모주(謀主)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인데, 자신은 송익필처럼 부기(附驥)할 만한 인물이 없음을 읊고 있고, 이달은 당시(唐詩)에 빼어나 이름을 날린 인물인데 비해 자신은 시 짓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뛰어난 두 명의 선배 서얼과 자신의 입장을 대비하면서 홍경해의 권유에 대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비록 이봉환이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고 한 홍경해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서 서얼 신분의 출사, 몸가짐, 활동에 대한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유의 깊이가 얕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련에 등장하는 남해의 달빛과 동계의 돌은 이 둘이 이전에 만난 구체적 장소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이 무진 통신사행을 함께 떠났음을 생각해 보면, 남해의 달은 통신사행에서 함께 건넌 남해를 가리키는 듯한데, 동계의 돌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미상이다. 경련에서는 홍경해와의 직접적 만남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둘 사이의 교분과 추억을 환기하였고, 미련에서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무상하다는 말로써 시상을 마무리지었다. 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생긴 추억, 미련, 아쉬움, 슬픔 같은 구체적 감정을 이 말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은 남양홍씨와 긴밀하게 교유하였다. 홍계희가 1762년 이후 몰락하게 되어 남양 홍씨에 대한 세간의 대우 역시 달라졌을 것이지만, 이봉환은 이들에 대한 자신의 세한정(歲寒情)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제7수에서 “몽당붓으로 긴 뇌사를 쓰지 못할 것은 아니나 / 참소의 원인이 될까 짧게만 쓰네”라는 구절을 남겨 놓기도 하였는데,[94] 이는 몰락한 이들 가문과의 교유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3. 천기(天機)의 관찰

이상에서 이봉환이 자신의 삶을 응시하는 시들과 타인과의 교유를 드러내는 시를 살폈다. 이제 이봉환이 사물(事物)을 관찰하는 태도가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Ⅲ장 2절에서 언급한 매화시를 쓸 때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서 무엇을 중시하였는지 밝히고, 이것이 다른 자연 경물에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

94) “非無禿筆堪長誄, 恐作讒囮只短章”(李鳳煥, 「洪應敎景海遷葬輓」 제7수, 앞의 책)

1) 매화에 투영한 고고한 정신세계

이봉환이 매화에서 주목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피기 위해 우선 아래의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 매화라는 꽃은 세상에서 연꽃, 국화와 등급을 다툰다. 연꽃과 국화 또한 어찌 명숙고원(明淑高遠)한 게 아니리오마는, 끝내 풀 종류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매화는 나무의 기운이 청엄(淸嚴)하고 참된 향기가 절실히 배어나오며, 궁함이 쌓였다가 사방에 퍼지고 꽃은 펼쳐졌다가 시든다. 올해에 보면 몹시 늦었다가도, 내년으로 논하면 극히 이르니, 정(貞)과 원(元)이 드러나고 숨는 묘미를 군자는 감상한다.[95]

이봉환은 매화를 연꽃, 국화와 같은 풀 종류와 비교하여 나무의 기운과 참된 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궁함이 쌓여서 사방에 퍼지고, 꽃이 펼쳐졌다가 시드는 모습에 주목한다. 이는 개화(開花)의 전후를 염두에 둔 언급인데, 오랜 시간 인고(忍苦)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꽃을 피우는 모습을 '궁함이 쌓여서 사방에 퍼지고'라고 표현하였고, 그 같은 지난한 과정 끝에 피게 된 꽃도 결국은 시든다고 한 것이다. 즉 생성과 소멸, 성장과 쇠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에서 읊고 있는 납매(臘梅)가 연말에 피는 꽃임에 주목하고, 해당 연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게 핀 꽃이지만, 다음 해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빨리 핀 꽃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정(貞)과 원(元)이 드러나고 숨는 묘미를 군자가 즐긴다고 하였는바, 여기서 정과 원은『주역』건괘(乾卦)에서 말하는 사덕(四德)의 두 가지로, 정은 만물의 완성을, 원은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데,[96] 이들은 각각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에 해당한다.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의 기운과 만물이 시작되는 봄의 기운이 교체하는 때에 키우게 된 분매는 이봉환에게 역(易)의 원리를 확인하게 하는 소재였던 것이다.[97]

---

95) "梅之爲花, 世以蓮菊爭其品. 蓮與菊亦豈不明淑高遠而終不離於草屬. 至於梅, 木氣淸嚴, 眞香透切, 窮積而達, 芳攄而苦. 自當年視之爲極晩, 以明年論之爲極早. 貞元顯晦之妙, 君子賞之." (李鳳煥, 「梅社五詠跋」, 『梅社五詠』)

96) "乾, 元亨利貞."(『周易』, 「乾」) "元亨利貞, 謂之四德. 元者, 萬物之始; 亨者, 萬物之長; 利者, 萬物之遂; 貞者, 萬物之成."(程頤, 『程氏易傳』)

97) 이봉환의 매화시에 드러나는 易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희정, 「이봉환 한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0, 93~103면, Ⅲ장 3절 觀梅의 雅趣와 자연 인식 中 제2항 '자연 원

이봉환은 또 매화의 모든 모습을 시에 담고자 하였다. 시 속에 매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꽃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 후, 시로 표현할 때 온갖 감정을 담으려고 애썼다. 아래 인용문에서 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 꽃의 처음과 끝이 모두 시에 드러난다. 꽃망울이 맺힌 것과 꽃잎이 벌어지는 것, 너풀거리는 것과 초췌하게 시드는 것과 져서 떨어지는 것, 찡그린 것과 웃는 것,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기댄 것, 바로 선 것, 밖으로 삐져나온 것, 가지런한 것과 눈과 어울리는 것, 달과 어울리는 것, 촛불에 어울리는 것, 그리기에 어울리는 것, 차에 어울리는 것, 술에 어울리는 것 등을 시로 그렸다.
>
> 처음에 꽃봉오리를 토할 때에는 그 조짐을 살피고, 반쯤 터졌을 때는 그 모습을 살피고, 만개했을 때에는 그 때를 살피고, 시들어 갈 때는 그 기세를 살피고, 다 떨어졌을 때는 그 변화를 살핀다. 꽃의 일은 모두 다섯 가지이나, 온갖 정감과 형태는 그 수가 수백, 수천이다. 시를 짓는 것이 많을수록 감정을 기탁한 것은 더욱 무궁하다. 꽃은 그 맑음을 숭상하며, 시는 그 참됨을 취한다.[98]

인용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매사오영』에서 시로 그려낸 매화의 모든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과 같은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若其○○者"의 구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 차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의 다섯 개는 '蓓蕾', '離披', '婆娑', '憔悴', '霣落' 등 2음절 한자로 꽃봉오리가 생기는 때부터 낙화에 이르기까지 꽃의 생애를 단계적으로 묘사하였고, 이후에는 "○者"라는 형식의 구문에 '嚬', '笑', '前', '後', '欹', '整', '乖', '齊'의 여덟 개의 1음절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여 '찡그리고 웃고',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며', '기대어 있거나 바로 서 있으며', '밖으로 삐져나오거나 가지런하게 있는' 꽃의 네 가지 상반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宜○者" 형식의 구문에 '雪', '月', '燭', '畵', '茶', '酒'의 여섯 개의 일음절 단어를 차례대로 쓰고 있는데, 이 여섯 개의 사물들은 전통적으로 매화와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다. 그런데 이봉환은 이 여섯 가지 사물들에 각각 잘 어울리는 매화가 따로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매화에

리에 대한 시적 체험' 참조.

98) "花之始終, 皆見於詩. 若其蓓蕾者、離披者、婆娑者、憔悴者、霣落者、嚬者、笑者、前者、後者、欹者、整者、乖者、齊者、宜雪者、宜月者、宜燭者、宜畵者、宜茶者、宜酒者, 詩以肖之. 始吐觀其兆, 半坼觀其象, 全開觀其時, 向衰觀其勢, 盡落觀其化. 花之事凡五, 而窮情盡態, 千百其狀. 雕鐫愈多, 而託寄愈不盡. 花尙其淸, 詩取其眞." (李鳳煥, 앞의 글, 앞의 책)

대한 섬세한 관찰 없이는 내릴 수 없는 판단이다. 이상과 같이 “若其○○者”의 구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꽃의 형태를 이처럼 세분하여 열거한 것은 앞서도 말했듯 면밀한 관찰에 바탕한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인용문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역시 ‘관찰’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관찰’은 앞선 단락에서 꽃의 형태를 섬세하게 관찰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봉환에 따르면 꽃의 일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꽃봉오리를 토할 때”, “반쯤 터졌을 때”, “만개했을 때”, “시들어 갈 때”, “다 떨어졌을 때”가 그것인데, 이때마다 관찰자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차례대로 “조짐”, “모습”, “때”, “기세”, “변화”이다. 개화부터 낙화까지 꽃의 생장주기에 따라 관찰해야 할 바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관찰자에게 관찰대상을 향한 보다 높은 정도의 집중과 몰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하여 대상을 관찰하게 되면 단순히 형체를 관찰하는 차원에서는 생길 수 없는 관찰자와 대상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꽃의 일은 다섯 가지이나, “온갖 정감과 형태는 그 수가 수백, 수천”이라고 한 이봉환은 이미 면밀하고 섬세한 관찰자의 시선을 확보한 상태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를 많이 지어도 정서가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시를 짓게 되면 시를 짓는 것이 많을수록 감정을 기탁한 것은 더욱 무궁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꽃은 그 맑음을 숭상하며, 시는 그 참됨을 취한다.”라고 하여 ‘꽃의 맑음’과 ‘시의 참됨’을 병치한 것은 자신이 쓴 시의 경지가 ‘맑은 꽃’의 경지에 핍진하게 다가섰음을 자부하는 말처럼 보인다. 앞서 남옥은 시어가 매화의 실상에 육박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자신들이 쓴 매화시가 매화의 진실함과 전일함만 못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99] 그러나 이봉환의 견해에 따르면 남옥이 불가능하다고 본 매화의 진실함과 전일함 역시도 추구할 수 있다고 할 만하다. 매화, 즉 대상의 ‘맑음’[淸]은 시, 즉 언어의 ‘참됨’[眞]으로 포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상의 맑음과 언어의 참됨을 이어주는 것은 역시 면밀하고 섬세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봉환은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하고자 하였고, 관찰대상의 격조를 중시하였다. 다음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휘장을 걷으니 절로 온전한데

---

99) “求其言之逼於梅, 得乎?”, “玉嘗指一瓣花曰 吾輩累數十篇, 不如一花之眞而專.” (南玉, 「梅社五詠跋」, 『梅社五詠』)

터진 꽃망울 담박하여 함께 가지런하네.
온축되어 향은 더욱 멀리까지 퍼지고,
청엄(淸嚴)하니 격조가 저속치 않네.
소매 차서 긴 대나무에 기댄 듯,
햇살이 번지니 설산(雪山)에 깃든 듯.
온갖 꽃들 아직 자는 듯한데,
그대 덕분에 미혹에서 깨는구나.
披帷宛自在, 坼蕾淡相齊.
蘊藉香逾遠, 淸嚴格不低.
袖寒脩竹倚, 光暈雪山棲.
千卉方如夢, 憑渠早喚迷.

「손재 조상공을 모시고 조지경, 채경홍희범, 남시온옥과 매화시를 각각 40수씩 쓰다(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는 두 번째 매사 모임이 열린 날, 처음 참석하여 쓴 시 가운데 하나로, 조재호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매화가 갓 피어서 아직 화려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를 읊었는데, 함련의 진술을 통해 이봉환이 '온축되어 있는 향'과 '청엄한 격조'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미련에서는 뭇 꽃들보다 먼저 피는 매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 선구자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련에서 읊은 '찬 소매로 대에 기댄다'라는 표현은 전고가 있는 말이다. 두보(杜甫)는 「가인」(佳人) 시에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추운 날 얇은 옷차림으로 / 저문 날에 대나무에 기대어 있네"(天寒翠袖薄, 日暮倚修竹)라고 읊은 바 있다. 이 시에서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 여인은 간신에게 배척받은 신하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의미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봉환의 이 시 속에서 읊고 있는 '가인'(佳人)은 이날 자신을 시사에 초대한 조재호라고 생각되고, 덕분에 뭇꽃들이 꿈에서 깬다는 말 역시 조재호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조재호는 "태도가 화평하니 아직 솜씨를 노출하지 않았네"(態度雍容, 不露手勢)라는 평어를 남겼다. 시가 온화하다는 것을 칭찬한 말로 보인다.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시어는 '淡', '蘊藉', '淸嚴' 등

을 들 수 있는바, 매화시의 전통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시어임을 알 수 있다. 또 두보의 「가인」(佳人)시라는 익숙한 시를 빌려오되, 이를 통하여 관습적으로 연민의 대상으로 삼아온 버림받은 여인이나 쫓겨난 충신을 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대해 준 조재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이 이 시의 새로운 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 시 이외에도 청엄함을 읊고 있는 시들은 적지 않다.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둥그스름 가득하니 겪은 것 깊음을 알겠으니
> 맑은 꽃잎이 티끌 하나라도 허락할까.
> 싸늘한 바람도 서려 있는 기세를 흔들 수 없고
> 맑은 달은 향긋한 마음을 교대로 비추지.
> 완전히 피지 않으면 전체를 보기 어려우니
> 누가 능히 그려내어 시를 이룰 수 있을까.
> 선천(先天)의 소액(素液)을 두루 흘려보내니
> 이제 뭇 꽃들 피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리.
> 圓滿方知閱歷深, 淸芬肯許一塵侵.
> 凄風不撼蟠挐勢, 澄月交明馥郁心.
> 不有全開難見體, 誰能寫照浪成吟.
> 先天素液流通遍, 從此羣芳意不禁.
>
> 「손재 조상공을 모시고 조지경, 채경홍희범, 남시온옥과 매화시를 각각 40수씩 쓰다(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제1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는 이봉환이 참석하지 않은 12월 1일 첫 번째 매사모임에서 쓴 시에 대해 추화(追和)한 시이다. 채희범은 이날 "처음에는 개화가 힘이 없다고 의심했거늘 / 홀연 활짝 피어나니 저도 마음이 있었나"[100]라고 하여 개화의 기쁨을 표현한 바 있다.

이봉환은 이 시에서 꽃이 원만하게 잘 피었으며, 티끌과 바람도 용납하지 않은 채 달빛을 받으며 암향(暗香)을 피워올리는 고결한 매화의 모습을 읊었다. 바로 윗시에서 살핀 청엄(淸嚴)한 모습과 몹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개화를 선천소액(先天素液)의 유통(流通)에 따른 결과라고 읊고 있는

---

100) "始疑舒蘂難爲力, 忽漫盈枝若有心"(채희범, 「夜會賦花盛, 用杜律冷蘂踈枝半不禁韻」, 『梅社五詠』)

바, 이 점이 특이하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을 수액(樹液)의 유통이라고 파악한 것은 현대 과학의 관찰과 흡사한 발견이라고 할 만한데, 이를 소액(素液)이라고 파악한 것이 참신하다고 생각된다. 선천소액은 이 세상의 존재와 작용을 주관하는 천기(天機)의 액화상태(液化狀態)라고 할 수 있다. 이봉환이 개화를 관찰하여 이를 수액의 유통으로 파악하고, 또 이를 선천소액(先天素液)으로 명명한 것은 일종의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같은 안목은 전통적 매화의 형상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101]

한편, 조재호는 이 시의 함련에 "관각체의 고수이네"(館閣高手)라는 평어를 남겼다. 관각체는 대각체(臺閣體)라고도 하는데, 명나라 초기 권신(權臣)들의 시문체를 일컫는다.[102] 태평성대의 덕을 칭송하는 시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풍요롭고 온화한 시적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는 이 부분의 대구가 빼어나서 마치 잘 쓰인 관각체 시문을 보는 듯하다고 상찬한 듯하다.

또 조재호는 경련의 전구(前句)에 "식견이 있네"(有解)라는 평어를 달았다. 해당 구절이 잘 쓰인 경구(警句)라고 칭찬하는 말인데, 꽃이 활짝 피지 않으면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꼭 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관찰할 때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칭찬한 듯하다. 시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한다.

선가와 불가와도 소원치 않으니
진양(眞陽)이 유동할 때 선정(禪定)에 들었네.
꽃이 흐드러져도 각기 눈얼음의 기운 보존하고
그림자 지니 엇갈려 전서체 모양이 되었네.
천기를 다 누설하니 네게 감출 것 없는데
봄빛을 끌어와서 문득 초심으로 돌아갔네.
향기가 나는 곳에서 아득히 말을 잊었으니
새벽이 될 때까지 읊조리며 그저 허(虛)를 희롱하였네.

---

101) 삼연 김창흡의 매화시에도 "素液"이라는 시어가 보인다. "虛堂若鏡澹晨光, 靜覺梅牕氣味長. 素液升枝流至萼, 淸雲透閣結爲香."(金昌翕, 「又賦」, 『三淵集』 권6) 김창흡의 이 시에 대한 분석은 여희정, 「金昌翕 매화시의 특징: 「松栢堂詠梅」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48, 한국한문학회, 2011.12, 272~274면 참조.

102) 대각체의 특징으로는 1. 사상과 감정의 표현에 도학기(道學氣)가 농후하다는 점, 2. 상층 관료의 생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응제시(應製詩) 및 창화시(唱和詩)가 많다는 점, 3. 당시의 안정된 정치적 상황에 상응하여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용준, 『中國詩史』, 명문당, 2017, 557~559면 참조.

仙佛之間契不疎, 眞陽流動定中居.
葩繁各保氷霜氣, 影落交成篆籀書.
洩盡天機無隱爾, 句回春色却還初.
生香杳在忘言處, 吟到參橫只弄虛.

「손재 조상공을 모시고 조지경, 채경홍희범, 남시온옥과 매화시를 각각 40수씩 쓰다(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제20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는 네 번째 모임에서 쓴 시이다. 구성원들 모두가 참석한 날인데, 매화의 낙화(落花)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쓴 시라고 생각된다. 이봉환은 자신이 읊고 있는 매화가 선불(仙佛)의 사이에서 잘 지낸다고 한 후, 봄이 되어 낙화하게 되는 모습을 진양이 유동할 때 선정에 들었다고 하였다. 봄이 왔다는 것을 진양이 유동한다고 한 말은 도교(道敎), 낙화를 선정에 들었다고 보는 것은 불가의 표현이다.

함련의 빙상기(氷霜氣)는 매화는 맑은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단어로 유교적 느낌이 풍기는 말이다. 이들이 차례로 떨어져 전서의 모양을 이룬 것은 땅에 떨어진 꽃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봉환은 꽃이 졌다고 하지 않고 그림자가 졌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낙화를 천기(天機)가 모두 빠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네게 감출 것 없다"라는 말은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제자에게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103] 봄빛을 끌어다가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존재의 소멸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존재의 소멸, 즉 죽음이나 종말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낙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봉환은 나무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향을 음미하며 새벽까지 시를 읊조리고 있는데 이것을 '허를 희롱한다'라고 하였다. 이 시는 낙화시에 속한다. 꽃이 지는 모습에서 존재의 소멸을 강하게 느끼면 슬픔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시에서는 쓸쓸한 정취가 느껴지기는 하나 슬픔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는 도교, 불교 관련 어휘들을 시어로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를 한 수 더 읽어보기로 한다.

올해는 이상하게도 눈이 드물었는데
밤에 일어나니 달은 없어도 창밖이 훤하네.

103) "子曰: 二三子,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 是丘也."(『論語』, 「述而」)

무수히 꽃이 피어 부처세계 이루었는데
누가 얼음물 마시며 신선의 책을 읽고 있나.
시들어 떨어지면 다 환(幻)으로 돌아감을 잘 알고 있으니
청고(淸高)함을 온전히 얻어 초심을 바꾸지 않네.
향기와 색깔 어찌 꼭 이것저것 나누리
음은 뭉치고 양은 터져서 절로 현허(玄虛)하다네.
今年多恠雪何踈, 夜起總光月不居.
無數花開成佛界, 有誰氷飮讀仙書.
劇知消落同歸幻, 全得淸高不改初.
香色何須分彼此, 陰凝陽坼自玄虛.

「손재 조상공을 모시고 조지경, 채경홍희범, 남시온옥과 매화시를 각각 40수씩 쓰다(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제2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권3)

이 시 역시 네 번째 모임에서 쓴 시인데, 조유진이 설중매(雪中梅)를 읊은 시를 차운한 것이다. 수련에서는 달이 없는 창밖에서 눈을 맞아 빛을 내고 있는 매화의 모습을 읊었고, 함련에서는 눈과 매화로 온통 은세계로 변한 천지의 모습을 '부처세계'라고 하였고, 후구(後句)에서는 이를 누군가 신선의 책을 읽고 있는지 물었다. 달이 없어도 훤한 이유는 설중매가 있어서인데, 설중매가 풍기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교, 도교 관련 어휘들을 시어로 동원한 듯하다. 경련에서는 이런 매화들도 결국 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각자는 청고함을 얻어 초심을 얻는다고 하였고, 미련에서는 향기, 색깔 등으로 이런저런 사물들을 나눌 필요는 없으며, 결국 존재하는 것은 음은 뭉치고 양은 터진다는 현허(玄虛)한 원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는 꽃이 결국 다 진다는 뜻일 텐데, 현상과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구별하고 있다. 이 역시 도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봉환의 시에 유불도 삼교의 시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하여 그를 불교, 도교에 종교적으로 침잠을 했다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적 사상가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다만 대상을 섬세하게 관찰한 이후, 시적 대상의 특징을 뚜렷이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식견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화에서 느낄 수 있는 고상함, 청고함, 고요함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봉환의 추구하는 고고한 정신세계가 관찰대상인 매화에 투영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2) 인위적 질서를 넘어선 자연세계

이봉환의 시에는 자연 경물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한 시가 많다. 특히 인간적 질서 내지 인위적 질서를 벗어난 경지를 잘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 작품을 살펴보자. 3수로 구성된 연작시인데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고요히 가을꽃 피고,
냇물은 열두 때 우네.
천기(天機)는 각자 자기 몫 다할 뿐,
남의 알아줌 필요치 않지.
寂寞秋花發, 溪鳴十二時.
天機各盡分, 非是要人知.

「자유로이 쓰다(雜絶)」제1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1)

이 시는 기구와 승구에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냇물이 종일 흐르는 장면을 배치한 후, 전구에서 이것이 천기(天機)가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모습의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천기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 결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남의 인정(認定)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특징적이다.[104] 인간의 세계에서, 특히 이봉환이 속해 있는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인정받는 일은 몹시 긴요한 일이었을 것이다.[105] 그런데 남의 인정, 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 같은 자연질서 속의 세계라고 이봉

104) 천기가 구현되는 모습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을 저녁에 들리는 벌레 소리를 두고 읊은 "벌레 소리 유장하니 배 한가득 기이하네 / 천기가 모이는 곳 사람이 알 리 없지"(蟲自悠揚滿腹奇, 天機合處謝人知)라는 구절에도 보인다. (李鳳煥,「旣夕」제5수,『雨念齋詩文鈔』권4)

105) 공자가『논어』「학이」(學而)에서 말한,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남의 인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또「자한」(子罕)편에서 말한, "나이가 마흔, 쉰이 되어도 이름이 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라거나「위령공」(衛靈公)편에서 말한 "군자는 세상을 떠난 후에 이름이 칭해지지 않는 것을 근심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라는 말 모두 인간 세상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들이라고 생각된다.

환은 주목하고 있다. 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이는 장난치며 밤을 까고
할미 얼굴엔 기쁨이 어렸지.
윤리의 즐거움 절로 갖췄으니,
사대부 부러워할 거 뭐 있나?
兒嬉剝園栗, 翁媼顔敷腴.
自具倫常樂, 何曾羨士夫.

「자유로이 쓰다(雜絶)」제2수(李鳳煥,『雨念齋詩文鈔』권1)

둘째 수에서도 기구와 승구에서는 밤을 까며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며 흡족해 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제시한 후, 전구와 결구에서 이들의 모습이 윤리의 즐거움을 갖추었으니 사대부를 부러워할 것 없다고 하여 시상을 마무리지었다. 보통 윤리는 사대부의 윤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윤리는 보통 인간 사회 전반을 통어(統御)하는 윤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윤리는 철저하게 사대부들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106] 그런데 윤리를 충족시킨다고 이 시에서 들고 있는 예는 어린 아이의 천진한 장난과 그 모습 때문에 발생한 할머니의 웃음이다. 이들의 관계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나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이봉환은 이를 두고 '윤리의 즐거움'을 갖추었다고 하였고, 사대부를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사대부들의 윤리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른 윤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는 첫째 수의 가을이 되어 피는 꽃과 온종일 흐르는 냇물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천기의 작용을 주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장난과 할머니의 웃음 속에서 천기의 활발발(活潑潑)한 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윤리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구에서 사대부를 부러워 할 일이 없다고 한 언급은 아이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으나 이봉환의 입장에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사대부들이 출장입상(出將入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는 행동을 하는 데 비하여 그 같은 질서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이봉환은 이 시를 통해 사

106)『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나오는 "예법은 서인에게까지 내려오지 않고,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라는 말은 예법(禮法)과 형벌(刑罰)의 적용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강오륜 역시 사(士) 계층에 치우친 윤리이다.

대부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대안 윤리의 단초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제3수를 이어서 보자.

향기는 나도 꽃은 보이질 않고,
들길엔 풀들이 무성하도다.
산바람 힘에 기댈 수밖에 없으나
바람이 없어도 향은 은은하다네.
聞香花不見, 野徑草芊芊.
只藉山風力, 無風香寂然.

「자유로이 쓰다(雜絶)」 제3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1)

셋째 수에서는 기구, 승구에서 꽃의 향기와 우거진 풀에 주목한다. 그런데 꽃은 보이지 않으며, 풀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꽃의 향기는 바람 때문에 사방으로 전파된다. 이봉환은 전구(轉句)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결구에서 이 말을 받아서 바람이 없어도 향은 은은하다는 말로써 시상을 정리하고 있다. 바람의 도움 없어도 은은한 향이 난다는 말은 꽃 자체에 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첫째 수에서 제시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기의 작용으로 가을에 꽃을 피우고 온종일 흐르는 시내, 그리고 둘째 수에서 드러난 사대부의 윤리로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윤리의 즐거움을 갖추었다고 파악한 아이의 놀이 및 할머니의 웃음과 동질적이다. 자기 안에 이미 훌륭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자체가 자족적(自足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인정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세 수에서 읊고 있는 대상들은 공통적이다.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한다.

할 일 없는 신세라 한가함 금치 못하니
도성에서 짚신 신고 여기저기 다녔네.
비방이 쌓여 야윈 뼈 삭일 듯하거늘
기문(奇文)을 어찌 명산에 보관하리.
세상에 마음을 열어도 상대해 주는 사람 없고
눈에 가득한 천기(天機)는 절로 통하네.
버들솜은 연못 누대에 지고 낮은 맑고 길거늘
마음대로 붓 놀렸으니 그대 한 번 산삭해 보시게.

婆娑身計不禁閒, 城市芒鞋偶往還.
積謗似能銷瘦骨, 奇文那復貯名山.
開心世路無相與, 滿目天機只自關.
花絮池臺淸晝永, 淋漓戲墨許君刪.

「여름날 홍대유를 찾아가다(夏日過洪大囿)」제2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제목에 보이는 대유(大囿)는 홍낙인(洪樂仁)의 자(字)이다. 이 시는 전체 2수 중 두 번째 수인데, 제1수에서는 여항시인 완암(浣巖) 정래교(鄭來僑, 1681~1757)의 죽음이 거론되었고,[107] 『우념재시문초』에 이 시가 이봉환이 동지사행을 떠나서 짓게 된 일련의 시들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정래교의 몰년인 1757년부터 동지사행을 떠난 1760년 사이에 쓴 시라고 파악된다.

할 일 없고 한가하여 도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수련의 내용이고, 함련에서는 비방이 쌓여서 뼈가 삭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과 기이한 문장을 명산에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뼈가 삭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참소(讒訴)를 입었다는 말이다.[108] 기이한 문장은 이봉환 자신이 쓴 문장으로 보인다. 명산에 보관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자신의 글을 보아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인데,[109]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글은 독자가 읽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그가 이처럼 자신의 글을 비하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의 비방 때문일 것이며, 이 비방의 원인은 또 함련의 후구(後句)에 나온 기이한 문장 때문일 수 있을 듯하다. 즉, 수련과 함련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봉환 자신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한가한 상황에서 도성에서 지은 문장 때문에 자신에게 비방이 이르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봉환은 세로(世路)에 마음을 열었으나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듯하다. 실제로 이봉환은 1754년 5월에 양지현감(陽智縣監)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눈 속에 들어온 것이 천기(天機)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경련의 내용이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맑은 여름날 누대에서 관찰한 버들솜 날리는 모습을 경련에서 읊은 '천기'를 받아서 제시한 후, 이 같은 자리

107) "九原浣老今難作, 前歲遺文已告刪" (이봉환, 「夏日過洪大囿」제2수, 『우념재시문초』권3.)
108) 전국시대 장의(張儀)가 위왕(魏王)에게 "뭇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일 수 있고, 참소가 쌓이면 뼈도 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衆口鑠金, 積毁銷骨也."(『史記』, 「張儀列傳」)
109)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후, 정본은 명산에 보관하고, 부본은 경사(京師)에 두어 후세의 성인군자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史記』, 「太史公自序」)

에서 시를 썼으니 홍낙인에게 산삭할 것을 청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시의 경련(頸聯)에서는 세상 길에 나서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상황과 천기의 작용이 그에게 관찰된 것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도성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다닐 때, 자신의 기문(奇文) 때문에 이르게 된 비방이 그로 하여금 시문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읽힐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을 즈음, 세상을 향한 더 이상의 관심을 끊고, 버들솜이 날리는 어느 여름날 한낮의 누대에서 천기의 작용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위적인 질서를 넘어선 자연세계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Ⅴ.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

이상으로 본고는 이봉환의 문예 활동과 작품 세계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이제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할 차례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시문이 조선후기의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을 뚜렷이 드러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18세기 창신풍(創新風) 한시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후기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의 모색

이봉환 가문과 대대로 교유한 가문 중 달성 서씨 서문영(徐文永, 1662~1739) 집안이 있다.[1] 서문영의 부친 서유리(徐裕履, 1635~1716)는 우의정 서경우(徐景雨)가 측실과의 사이에서 낳은 서얼이기 때문에,[2] 서유리의 후손 역시 모두 서얼이다. 서문영의 두 아들이 서종화(徐宗華, 1700~1748)와 서종해(徐宗海, 1704~1762)이고, 서종화의 아들이 서명인(徐命寅, 1725~1802)이다.[3] 서명인은 부친 서종화의 말과 행적을 적어 「약헌경해」(藥軒謦咳)를 남겼는데, 이봉환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 이봉환이 일찍이 통청소(通淸疏)를 작성하여, 나에게 동참할 것을 원했다. 내가 돌아가서 고하니, 공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고관이 되고자 하느냐? 관직이 높은 것은 성현(聖賢)이 높은 것만 못하다. 나라가 비록 너희들의 관직을 금하기는 하여도 성현의 학문을 금하지는 않는다. 금하지 않는 학문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미 금지한 관직만을 억지로 통하고자 하느냐? 어진 이는 분수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이는 구차히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분수를 범하고 구차히 구하는 곳에서 난신적자가 생긴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봉환이 이를 듣고는 소를 쓴 원고를 찢어버렸다.[4]

---

1) “王考酬公鑷白篇, 小孫猶記捧花牋” (李鳳煥, 「徐察訪文永輓」, 『雨念齋詩文鈔』 권1) 여기서 왕고(王考)는 이봉환의 조부 이익빈(李益彬, 1662~1726)이다. 이봉환은 조부가 서문영과 시를 주고받을 때 자신이 종이를 가져다 드린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가문이 세교(世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生諱景雨右議政. 公之考副司果諱裕履. 其側室子也.” (李縡, 「察訪徐公墓碣」, 『陶菴集』 권34)

3) 서명인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안대회, 「18세기 기궤첨신(奇詭尖新) 한시(漢詩)의 한 양상 -서명인(徐命寅)의 『취사당연화록(取斯堂煙華錄)』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45, 한국한문학회, 2010) 참조.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봉환이 서얼의 통청을 위해 소를 올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서얼 선배 서종화의 말을 전해 듣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이봉환은 자신의 처지를 개인적으로 비관만 한 것이 아니라, 소를 작성하여 주변의 동지를 규합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약헌경해」의 다음 조목에는 이희관(李喜觀)이 찾아와서 "사람에겐 오륜이 있는데, '우리들'에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오륜 중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하면서, 이봉환의 소는 그 빠진 하나인 군신의 의리를 회복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실려 있다.[5] 이희관은 서종화가 이봉환의 상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설득하러 온 듯한데, 끝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서종화와의 대화에서 이희관은 "그처럼 재능을 가진 이를 청현직(淸顯職)에 놓는다면, 어찌 꼭 저들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찌 이리 좁은지요?"라고 말했다.[6] 이희관의 이 발언은 이봉환의 생각과 가까울 것이라 추정된다. 이봉환, 이희관 등이 통청(通請)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서종화는 같은 서얼이면서도 이봉환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선사회가 용인하고 있지 않은 관직을 탐내지 말고, 성현의 학문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청소를 올리려고 하는 이봉환을 행동을 "분수를 범하고 구차히 관직을 구하려는 데서 난신적자가 생긴다"라고까지 극언하였다. 서종화가 이봉환을 이처럼 심하게 꾸짖는 것은 조선에서 서얼들의 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청운동이 사대부 위주의 신분질서에 저촉되어 버리면, 이들의 앞날에도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성현의 학문을 하라는 말이 선비의 본분을 지키라는 원론에 대한 강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얼들에게 현재의 위치에 대해 만족하고 불만을 품지 말라며 하는 내부단속으로 들리기도 한다. 서종화가 이 같은 말을 꺼낸 데에는 그 역시 서얼들의 공동운명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얼 계층은 조선시대 내내 존재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김경숙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까지를 서얼문사의 본격적 출현 시기로 꼽고 있다. 서얼의 위상이 전시대와 달려졌고, 자각이 커졌기 때문이다.[7] 그리고 이 위상과

---

4) "李鳳煥嘗搆通淸疏, 要余參名, 歸告之. 公曰: '汝欲做高官耶? 官之高, 何如聖賢之高? 國家雖禁汝輩之官, 不禁爲聖賢之學. 不禁之學, 不思爲之, 旣禁之官, 強欲通之耶? 仁者不犯分, 義者不苟求. 犯分苟求之地, 亂臣賊子生焉.' 其時不勝慚悚. 鳳煥聞之, 裂其疏草." (徐宗華, 「藥軒聲咳」, 『藥軒遺集』 권8)

5) "李喜觀來見而曰: '人有五倫, 吾儕闕一. 聖章之疏, 復君臣之義也.'"(徐宗華, 같은 글, 같은 책)

6) "以渠才能, 置之淸顯, 何遽不若彼哉? 而俗之隘也."(徐宗華, 같은 글, 같은 책)

7)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14~15면.

자각의 변화를 견인한 활동으로 서얼 통청운동(通淸運動)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태종에서 명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어, 서얼의 청요직(淸要職) 진출과 과거 응시 기회를 제한하였다. 이 제도는 1583년 임진왜란을 10년 정도 앞두고 납속부거(納粟赴擧)를 허락해 달라는 이이(李珥)의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다소 완화되었다. 1625년 부제학(副提學) 최명길(崔鳴吉) 등의 상소로 서얼이 등과한 후에 요직은 허락하고 청직은 허락하지 않기를 청하여 채택되었다.[8)]

이 서얼통청은 서얼들이 직접 자신들의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1695년 영남 생원 남극정(南極井) 등 988명이 상소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후 1696년에는 이조판서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箚子)를 올려 납속부거를 없앰으로써 과거 응시의 자격이 일반 사대부와 같게 되었다.[9)]

최석정이 조부 최명길을 이어 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서얼허통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정진교(鄭震僑) 등 260여 명이 상서를 올리는 것 역시 서얼의 허통이 더뎌지고 있다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1745년 이조판서 이주진(李周鎭)은 최명길의 상소를 인용하여 서얼허통을 주장하였고, 1772년에는 서얼인 여귀주(呂龜周)를 사헌부 지평에, 윤밀(尹謐)과 오준근(吳濬根)을 사간원 정언에 기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10)] 서얼의 통청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영조와 정조는 벌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얼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측면이 있다.[11)] 벌열들의 관직 독점을 지양하고, 재주만을 기준으로 등용한다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원칙에 따른 인사는 곧 벌열 견제를 목표로 한 왕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12)]

그런데, 서얼들의 위상이 통청운동의 전개와 맞물려 제고되었던 사정 이면에 한 가문 안에서 서얼의 종법적 지위는 꼭 높아졌던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13)] 종법질서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집안 질서를 가리키는데, 적서의 구분이 이 질서의 핵심 원리이다.[14)] 조선 후기에는 자식이 서얼만 있을 경우, 이 서얼을 후사(後嗣)로 인정하지

---

8) 김경숙, 위의 책, 32~34면.
9) 최명길과 그 손자 최석정의 서얼허통 관련 상소에 대해서는 박경남, 「최명길·최석정의 서얼허통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학연구』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참조.
10) 박경남, 위의 논문, 94면.
11) 차장섭,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262면.
12) 차장섭, 위의 책, 263면.
13) 김진우, 「조선 후기 서얼의 종법적 지위 약화와 그 원인」, 『조선시대사학보』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않고 양자(養子)를 들여 후사를 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서얼로 하여금 부모만 제사하기를 허락하고, 조부 이상에게는 차적(次適), 즉 다음의 적자에게 제사를 맡기는 일도 있었는데, 이 두 사례 모두 집안에서의 서얼의 지위가 약화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15] 허통 정책으로 인한 서얼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꼭 집안에서의 서얼의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족은 서얼의 허통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 당시의 실제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얼의 통청운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사족만이 이 운동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위에 인용된 이봉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봉환은 동료 서얼에 의하여 통청소를 작성하려는 계획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서얼도 내부적으로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청에 대한 입장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는 조선에서의 서얼의 처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대저 우리나라의 서류(庶類)는 국가에서 출세를 크게 금하고 종족(宗族)에서도 크게 욕되게 여긴 바이며, 중사(中士)들은 함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류(下流)들은 마구 나무라니 거의 사람축에 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세. 그래서 서류 중에 어진 자는 욕이나 먹고 악한 자는 죄에 걸리기 십상이니, 행동하기가 또한 어렵구료.[16]

조카 심계(心溪) 이광석(李光錫)에게 준 편지에서 한 말이다. 이덕무는 정조 즉위 후,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었으며, 1778년에는 박제가와 함께 상사(上使) 채제공(蔡濟恭), 서장관(書狀官) 심염조(沈念祖)를 따라 연행(燕行)을 다녀오기도 할 만큼 당시 정권에 의해 중용되었던 서얼지식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사가 파악하고 있는 조선에서의 서얼의 처지란 몹시 곤궁하고 옹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덕무보다 31세가 많은 이봉환의 처지 역시 이덕무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서얼들은 간혹 벌열 가문가의 숙사(塾師)로 들어가 해당 가문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

14) 김진우, 위의 논문, 225면.
15) 김진우, 위의 논문, 234~238면.
16) “夫東國之庶類者, 朝家之大禁, 宗族之大僇也. 中士恥與談討, 下流爲之嗤罵, 幾不齒於人類. 賢者蒙辱, 黠者陷辟, 其爲蹤跡, 盖亦難矣.”(李德懋, 「族姪復初」, 『靑莊館全書』 권16) 번역은 고전국역총서 『청장관전서』3, 148면 참조.

일을 하기도 하였고,[17] 과거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여 매문(賣文)을 하기도 하였다.[18] 간혹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의 사문사(四文士)로 선발되어 이국체험을 하고 귀국하기도 하였고,[19]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20]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역(行役)에 대동(帶同)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1] 어떤 경우든지, 양반사대부(兩班士大夫)의 지음(知音)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양반사대부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봉환 역시 자신의 문재(文才)를 통하여 자기실현을 위해 분투하였다. 이봉환은 서얼 가문 출신 선비이지만, 어려서부터 경전 공부와 과거 공부를 하였다. 1733년 진사(進士)에 급제한 것이 시험과 관련된 유일한 성취였고, 1754년 양지현감(陽智縣監)으로 석달 동안 근무한 것이 확인 가능한 그의 마지막 관력(官歷)이다. Ⅱ, Ⅲ, Ⅳ장에서 이미 살핀 바대로, 이봉환은 자신의 글재주를 바탕으로 명문 벌열들과 상당히 가까이

---

17) 남옥은 홍봉한가에서 그 손자 홍취영(洪就榮)에게 『사기』(史記)를 가르쳤고,(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 盧命欽·盧兢 父子와 豐山 洪鳳漢家와의 관계를 中心으로」, 『어문논집』37, 민족어문학회, 1998, 31면, 각주47 참조) 신유한은 노론 명문가 원주 원씨인 원명귀(元命龜)의 아들 원경하(元景夏)의 숙사(塾師) 역할을 담당했다.(하지영, 『천하제일의 문장』, 글항아리, 2021, 58면)

18) 남옥은 과장(科場)에서 매문(賣文)을 한 혐의로 동지사(同知事) 원경하(元景夏)에게 탄핵을 받아 유배형을 당하였다. 원경하가 과거 시험장에서 매문(賣文)을 업으로 삼는 이가 있다고 아뢰자, 영조가 요즘도 있는지 물었고, 그에 대해 원경하가 "남옥, 박사호, 신억 등이 매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如南玉·朴師灝·申嶷之類, 皆以賣文得談)라고 거론하였다. 영조가 신하들에게 "그렇다면 저 무리들은 글은 잘 하겠구나."(然則厥輩, 文則善爲者矣)라고 하자, 검토관(檢討官) 엄우(嚴瑀)가 "글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善文故能爲此等事也)라고 대답하였고, 원경하는 "봉가(捧價)도 높다고 합니다."라고 하자 영조는 "그들이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구나."라고 대답하였다. 과장에서의 매문은 엄연한 불법이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나 글쓰기 능력이 있는 일부 선비에게는 고위험-고수입의 일자리였을 것이다. (『承政院日記』, 1746년 3월 27일 자 기사 참조)

19) 서얼은 으레 제술관이나 서기의 자격을 획득하여 통신사의 수행원이 되었다. 이들을 사문사(四文士)라고 한다. 이들은 1711년, 1719년, 1748년, 1763년 네 차례 사행 때 통신사를 수행하여 현지 문사들과 시문을 수창하고 필담을 주고 받는 등 문화 교류 일선의 담당자로서 활약하였다.

20) 차장섭은 규장각 검서관 제도를 정조가 서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측근세력화하는 방법이라고 파악하였다. 차장섭, 앞의 책, 265면 참조. 정조대에 검서관을 역임한 인물은 총14명인데,(차장섭, 앞의 책, 266면 표 4-13 참조) 이 중 성해응(成海應)과 원유진(元有鎭)은 부친이 성대중(成大中), 원중거(元重擧)인데, 성대중, 원중거는 모두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서기로 수행한 인물들이다. 서얼들이 대를 이어서 통신사 서기와 규장각 검서관을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여기서 행역은 관무 때문에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를 이른다. 경직(京職)이 아니라 외직(外職)을 맡았거나 말단 행정직을 전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에서 교유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사행 체험이 가능하게 된 것은 홍계희의 호의 덕분일 텐데, 그 중 동지사행은 더욱 더 이 같은 후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을 문사(文士)가 아니라 군관(軍官)으로 대동했기 때문이다. 이봉환에게 군관이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직책을 주면서까지 연행 길에 데리고 갔다는 점에서 홍계희가 이봉환에게 품고 있는 호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선 연행길이지만 이봉환이 현지에 도착해서는 문사들과 자신의 문학사적 지식을 내보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탐문하려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서 논하였다.[22] 동지사행의 공식적 업무가 다 끝나고 회정(回程) 날짜가 정해졌을 때 이봉환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삼사를 모시느라 마음이 심란터니
돌아간다니 그 기쁨은 안개가 걷히는 듯
예부에서 보낸 회자(回咨)에 관인이 찍히고
단문(端門)에선 상 내린다고 통역이 재촉하네.
떠나기 앞서 말에게 풀을 든든히 먹였고
책을 사느라 탕진했으니 다시 오진 못하겠네.
돌아가면 누가 여기에 미련 둘까
사십일 동안 옥하관(玉河館)에서 고생 몹시 많았지.
三行騎率意徘徊, 喜似春天積霧開.
禮部回咨硃印到, 端門頒賞舌官催.
馬嘶靑草行將秣, 金盡奇書不復來.
歸去誰存桑下戀, 四旬辛苦玉河隈

「귀국날짜가 정해지니 기쁜 마음을 쓰다(定日回程志喜)」(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귀국날짜가 정해지자, 행차를 위한 서류가 마련되고 포상을 한다고 재촉한다. 모두 귀국 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다들 기뻐하고 있다. 중국에 와서 책을 많이 샀다는 사실을 특별히 밝혔으나, 객관에서 40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곳에 미련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이봉환은 정양문(正陽門)을 나서면서 "쾌활하게 귀가하는 새는 만 리 구름 같거늘 / 새장에 갇혀 있던 때를 어찌 그리워할꼬"[23]라고 읊었다. 윗시의 미련

22) Ⅲ장 1절 참조.
23) "快活歸禽雲萬里, 何曾回憶在籠時"(李鳳煥, 「出正陽門」, 위의 책.)

(尾聯)과 같은 의미이다. 40일 동안 머문 옥하관을 새장에 비유하였고, 회정하게 된 사행단이 쾌활하게 귀가하는 새인 셈이다.

한편 1761년 2월 9일, 북경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제군관 이상봉(李商鳳)은 삼사신(三使臣)이 귀로에 오르게 되었을 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저녁을 먹은 후 삼사(三使)가 말을 타고 나섰다. 나(이상봉-인용자)는 복건(幅巾)과 도복(道服)차림으로 따랐는데, 홀가분한 것이 마치 새장을 나온 새 같았고, 마음이 충만한 것이 마치 주인의 손을 떠난 매 같아서 그 생동감을 움켜쥘 수 있을 듯했다.[24]

이상봉은 이 부분에서 이역에서의 공무를 완수하고 귀국할 때 갖게 된 구성원들의 해방감과 내적인 충만함을 몹시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는 이들이 가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서의 결을 드러내고 있는 이봉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옥하교(玉河橋)를 지나는데, 성장(聖章: 이봉환의 자-인용자)이 나를 돌아보며 말하길, "어르신들은 아마도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번 나서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동쪽으로 압록강을 건너면 또 서얼이라는 틀 속에 묶이게 될 테니까요."라고 하면서, 쓸쓸해하며 기뻐하지 않는 낯빛을 보였다.[25]

> 욱하교를 디날ᄉᆡ □□[26]이 날을 도라보아 닐너갈오ᄃᆡ 존비는 혹 가히 이 짜흘 다시 붋으려니와 나는 ᄒᆞᆫ번 나가매 다시 드러오지 못ᄒᆞ고 만일 동으로 압눅강을 건너면 ᄯᅩ 쟝ᄎᆞᆺ 셔얼지묵듕의 ᄆᆡ여이시리라ᄒᆞ고 츄연이 됴하아니호ᄂᆞᆫ 빗치 잇더라[27]

연행의 업무를 끝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상봉이 새장을 벗어난 새와 팔찌를 떠난

---

24) "晩食後, 三使騎馬而出. 余以幅巾道服從, 翛然如出樊之鳥, 盎然若脫韝之鷹. 活潑可掬."(李商鳳,『北轅錄』2월 9일 자)

25) "聖章顧余語曰: '尊輩或可復涉此地. 吾一出不復入. 若東涉鴨綠水, 又將縛在庶孼臼中.' 有愀如不怡色."(이상봉, 같은 책, 같은 곳)

26) □□: 까맣게 복자(伏字) 처리가 되어 있으나 이봉환의 자(字)인 '성장'(聖章) 두 글자로 추정된다.

27) 이상봉,『셔원녹』, 2월 9일 자

매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공무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봉환은 자신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서얼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야 함을 환기하며 우울해 하고 있다. 이봉환이 스스로 서얼이라는 처지를 이처럼 강하게 비관한 모습은 어떤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봉환의 연행은, 이상봉의 연행과 같을 수가 없다. 앞서 그는 자신의 연행을 앞두고서, "성취는 남에게 달렸으니 원래 고달픈 것"(成事因人元碌碌)이라고 읊은 바 있다.[28] 여기서 '因人'은 『사기』(史記)의 「평원군열전」(平原君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전국시대 조(趙)나라 평원군(平原君)의 문객(門客)인 모수(毛遂)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초(楚)나라 왕과 동맹을 체결한 뒤에 다른 문객들을 얕보면서 "그대들은 그저 못난 사람들이니, 이른바 남에게 의지하여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다."[29]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봉환은 이 고사를 자신의 시에 차용하였는데, 이봉환의 서얼문사로서의 존재조건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성사(成事)가 남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어도 쉽게 좌절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다. 본고에서 문예 활동이라고 주목한 사행체험에서의 활동과 매사를 통한 시작 및 비평 활동 이외에도 그는 하급관직을 전전하면서 능력만큼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지위가 높은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부르면 그 요구를 따랐다. 그리고 때로는 불우한 지식인들이나 지처가 같은 문사들과 시를 통하여 동질감에 바탕한 슬픔과 울분을 나누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한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과정을 알 수 있으며, 그가 남긴 시문은 조선후기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얼문사로서 자기실현의 방식이 이봉환과 같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허균(許筠)의 시 스승이자, 당풍(唐風)의 시에 빼어난 실력을 보여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 등과 나란히 일컬어진 이달(李達) 같은 인물도 있었고,[30] 서얼이었으면서도 당대의 조선을 도(道)가 사라진 나라로 규정하고 세도(世道)를 자임하여 누구보다 투철한 사의식(士意識)을 견지하여 보수적 노론인사와 진배없는 대청인식(對淸意識)을 보인 이인상(李麟祥) 같은 인물도 있었고,[31] 일본 사행의 경험 토대로 문명을 떨쳤다

---

28) 李鳳煥, 「出門」 제1수, 『雨念齋詩文鈔』 권3. 이 시는 Ⅳ장 1절에서 다룬 바 있다.

29) "公等碌碌, 所謂因人成事者也." (『史記』, 「平原君虞卿列傳」)

30) 이달과 허균, 그리고 이달과 백광훈, 최경창 등 당풍시인들과의 교유 및 이달의 당시 학습과 관련해서는 김종서, 「「蓀谷山人傳」과 李達의 生涯」, 『한문학보』11, 우리한문학회, 2004, 63~84면 참조.

31)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2, 68~78면;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그 인간과 문학」, 『능호집』(하), 돌베개, 2016, 463~475면 참조. 박희병 교수는 이 글에서 이인상이 문제적 작가인 것은 서얼이어서가 아니라 "서얼이지만 사대

는 점에서는 이봉환과 공통적이지만, 산문가로서 육경(六經)과 진한고문(秦漢古文)을 익힐 것을 강조하였고, 많은 문도들을 배양한 교육자로서도 성과를 거둔 신유한(申維翰) 같은 인물도 있었다.[32] 신유한, 이봉환을 이어 통신사행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다녀온 후, 『화국지』(和國志)를 남겨 일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여 조선의 일본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원중거(元重擧) 같은 인물도 있었고, 신유한, 이봉환, 원중거와 달리 사행의 체험은 없으나, 고증학적이고 박물학적 태도로 일본에 대한 학지(學知)를 『청령국지』(蜻蛉國志)라는 저술로 집대성한 이덕무(李德懋) 같은 인물도 있었다.[33] 또 1778년부터 1801년까지 무려 네 차례 연행(燕行)하여, 그 과정에서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하고, 기윤(紀昀), 옹방강(翁方綱) 같은 청대의 최고의 학자들과 교유한 박제가(朴齊家) 같은 인물,[34] 서호수(徐浩修)를 수행하여 중국에 가서 이덕무, 유득공(柳得恭), 박제가, 이서구(李書九)의 시를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에 담아 중국에 소개하여 이들의 명성이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하고, 조선에서는 이들의 『사가시집』(四家詩集)의 시인으로서 유명하게 만든 유금(柳琴, 1741~1788) 같은 인물도 있었다.[35] 그리고 이덕무,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에 발탁되어 정조의 비호 아래 문예(文藝)를 드러낼 수 있었던 유득공, 서이수(徐理修), 성해응(成海應), 원유진(元有鎭) 같은 인물들도 있었다.[36] 이들은 모두 서얼이었다. 서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제각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 평생 분투하였다. 이봉환이라는 한 문사를 서얼이라는 신분적 특수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과 삶을 조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475면) 사대부와 교유를 가진 것은 이봉환 역시 마찬가지지만 누구보다 투철한 사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상은 이봉환과 구별된다.

32) 이에 대해서는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239~271면; 하지영, 『천하제일의 문장: 신유한 평전』, 글항아리, 2021, 237~259면, 331~339면 참조.

33) 박희병 교수는 『화국지』와 『청령국지』 두 저술에 대해 각각 '조선에서의 일본학 탄생', '고증학풍의 일본학 저술'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박희병, 「조선의 일본학 성립: 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6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200~217면 참조.

34) 안대회, 「열린 사회를 위한 개혁 개방론, 박제가의 『북학의』」, 박제가 저,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283~287면 참조.

35) 박희병, 「기하실(幾何室) 유금(柳琴)과 『말똥구슬』」, 박희병 편역, 『말똥구슬-유금 시집』, 돌베개, 2006, 136~137면 참조.

36) 정조 시대 때의 서얼 등용에 대해서는 차장섭,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263~268면 참조.

2. 18세기 창신풍(創新風) 한시의 계승과 발전

초림(椒林)은 서얼을 일컫는 말이고, 초림체는 이봉환이 창시한 시체(詩體)를 가리킨다. 초림체와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에서 얻을 수 있다. 이규상은 「문원록」(文苑錄)에서 몇몇 문사들의 시적 특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봉환 및 그와 비슷한 시적 특징을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병세제언록』의 수록 순서에 따라 이를 나열해 보기로 한다.

> ① 이명계와 같은 일단의 무리 가운데 글을 잘하는 사람들을 초림팔재사(椒林八才士)라고 부른다. 산초[椒]는 맛이 매운데, 이 매운 것을 나타내는 우리말 '얼얼하다'가 얼(蘖)과 음이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이명계가 얼족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구(詩句)에 "산사의 배꽃 분명하여 푸르스름한 이내에 녹아들지 않네"라 한 것은 또한 뛰어난 구절이다. (…) 이때 얼족 집안 출신으로서 문원(文苑)에 재주가 있으면서도 형법에 걸린 자들이 예로부터 또한 민멸되지 않고 전해 내려오니 범엽(范曄)이나 사령운(謝靈運) 같은 무리가 바로 그들이다. 나라의 법이 중하고 악을 징계하는 의리가 엄하긴 하지만 인재를 어여삐 여기는 뜻이 이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37]

> ② 이봉환은 자가 성장(聖章)이요 호는 우념(雨念)이다. (…) 그의 칠언율시는 정밀하고 엄하여 들어가는 글자 하나라도 구차하게 놓여진 것이 없었으니 근세의 절조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미(氣味)가 초쇄(焦殺)하고 풍운(風韻)이 번거롭고 급하여, 교묘한 생각의 예봉(銳鋒)이 수단은 비록 뛰어나지만 기교가 각박 첨예한 데에 흘러 한번 바뀌어 입에 급히 올리면 산초 열매가 혀를 얼얼하게 하는 것 같고, 눈을 가리게 되면 시큼한 바람이 눈동자를 쏘는 듯하니, 결코 중화(中和)에 맞는 성정의 표출이 아니다. 그가 창시한 이 시체(詩體)는 오직 그 자신만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만들어놓은 꼴이 되고 말 뿐이었다. 이른바 초림(椒林)의 유파가 다 봉환체(鳳煥體)를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재질이 넉넉

---

37) "命啓一隊人善文者, 稱椒林八才士. 椒之味烈, 烈字意諺言與孼音同, 蓋命啓門閥是孼也. 命啓詩句, 山寺梨花不入嵐字, 亦警語也. (…) 同時孼門閥, 有才文苑, 而罹刑法者, 古亦不泯傳, 若范曄 謝靈運之類是也. 邦國之憲重, 癉惡之義嚴, 而憐才之意, 竝行不悖云."(李奎象, 「文苑錄」, 『幷世才彦錄』) 번역은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문과 역, 『18세기 조선인물지』(창작과 비평사, 1997) 해당 부분 참조.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은 졸(拙)함을 알아서 감출 정도가 되고,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비쩍 마르고 비틀거려 말이 조리에 닿지 않고, 괴벽(怪僻) 기괴하여 마치 귀신이 울고 도깨비가 웃는 듯하다. 아마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여 쌓이고 막힌 사람들의 기운이 그 괴이한 빛을 솟구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38]

③ 남옥(南玉)은 자가 시온(時韞)이요 호는 추월(秋月)이다. (…) 그 섬세하고 각박함이 또한 봉환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9]

④ 이진(李璡)은 자가 진옥(進玉)으로 벼슬은 현감을 지냈다. 그의 시는 신고(辛苦) 각박(刻薄)하기를 힘써 말과 소리가 모두 초쇄(焦殺)하며 뒤틀리고 어긋났지만, 음미해 보면 매우 공교한 바가 있었다. (…) 그의 시는 또 일반적인 시체와 달리 허장성세를 주로 하여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끝내는 점차 빠져들어갔다. 대개 이 시체는 이봉환이 창시하고 이진의 아버지 이명계가 옆에서 거들었는데, 이진 등에 이르러서 모두 동조하여 큰 조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재주가 약한 사람들은 늘 입술을 우물거리며 슬피 읊조리지만 말이 어근버근하여 글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저 묵지(墨池)에 붓방아를 찧기만 할 뿐이었다. 이진은 재주가 자못 넉넉하여 능히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체를 가리켜 초림체(椒林體)라 한다.[40]

⑤ 이들[윤가기, 박제가, 이덕무]은 함께 시문과 글씨의 재주로 지금 조정에 내각(內閣: 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뽑힌 바 있으며 모두 현감을 지냈다. 모두 이진(李璡)의 시법(詩法)을 본받았다.[41]

이 가운데 초림체의 특징과 관련 있는 것은 ①~④이고, ⑤는 초림체의 계승과 관련

---

38) “有李鳳煥, 字聖章, 號雨念. (…) 詩之七律精刻, 入裏一語不苟措, 近世絶調, 然氣味焦殺, 風韻繁促, 巧思銳鋒, 手段則高强而巧流於刻銳, 轉爲急口, 則椒粒辣舌, 遮眼則酸風射眸, 決非中和之陶寫. 鳳煥創是體, 惟己能之, 他人則畵虎不成. 所謂椒林一隊, 莫不景從於鳳煥體, 材富者, 僅藏拙, 力弱者, 枯槁彳亍, 語不成理, 幽怪孤詭, 如鬼哭魅笑. 無乃積枳之氣, 騰其光怪邪?” (李奎象, 위의 글, 위의 책)

39) “南玉, 字時韞, 號秋月, (…) 其纖刻亦不出鳳煥範圍中.”(李奎象, 위의 글, 위의 책)

40) “李璡, 字進玉, 官縣監. 詩務辛苦刻削, 語響皆焦殺拗乖, 然味之, 甚有工緻. (…) 其詩又異於凡常, 專門於恫疑虛喝, 故人, 初則瞠, 末乃駸駸焉入, 蓋李鳳煥創是體, 璡父命啓羽翼之, 至璡輩, 無不推波助瀾. 然才弱之人, 恒蹙吻悲吟, 語戛戛不成篇, 竟止於搗筆墨池而已. 璡才稍富, 故能成就. 或者目曰: ‘椒林體’.”(李奎象, 위의 글, 위의 책)

41) “俱以詩文與筆, 選當宁朝內閣檢書官, 皆縣監, 俱來李璡法”(李奎象, 위의 글, 위의 책)

된 언급이다. ①은 초림팔재사에 대한 설명인데, 초림은 '사림'(士林), '산림'(山林), '유림'(儒林), '무림'(武林)이라는 말들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초'(椒)의 무리라는 뜻이다. 이규상에 따르면 이 '초'(椒)는 맛이 매운데[烈], 맵다는 뜻을 가진 '얼얼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얼'과 '서얼'(庶孼)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얼'은 그 음이 같다. 즉 초(椒)는 맛이 얼얼하고, '얼'은 서'얼'이 되기 때문에, '초림'은 서얼의 무리이다. 그리고 그 맛이 맵다. 이명계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림팔재사라는 말을 꺼낸 이규상은 이명계가 서얼이기 때문에 초림에 속한 인물이고, 이들의 시는 '매운 맛'을 내는데, 이 같은 인물이 8명이 있다는 말을 한 셈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들어서 서얼이면서 문재(文才)가 있는 인물로 범엽, 사령운을 들고 있다. 범엽은『후한서』를 저술하였고, 사령운은 동진(東晉) 시대 송(宋)의 시인으로 명성을 떨친 바 있으나, 모두 모반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규상은 이들의 사례를 들어, 악을 미워하고 국법을 엄중히 집행하는 것과 이들의 재주를 아끼는 것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재주가 있는 서얼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규상이 이명계를 설명하면서 중국 문사 중 서자로서 문학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나 국가에 반역을 일으켜 결국 처형 당한 인물들을 예로 든 것은 서얼 문사에 대한 일정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나, 나라에 반역을 꾀한 인물조차 그 재주는 평가할 만하다는 언급은 국내의 서얼 문사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읽을 수 있다.

②는 이봉환의 시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칠언율시의 작법이 치밀하여 글자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세의 절조라고 칭송한 후에, 구체적 특징을 덧붙이고 있다. 기미가 초쇄(焦殺)하다는 말과 풍운이 번거롭고 급하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분위기와 소리가 온화하지 않고 급박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앞서 '초림'이 서얼의 무리이고, 이들의 시의 특징이 '얼얼하다'라고 한 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산초 열매가 혀를 얼얼하게 하고, 시큼한 바람이 눈동자를 쏘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같은 점이 봉환체의 특징이고, 이는 이규상의 말대로 중화(中和)의 음과는 거리가 멀다. 즉 동아시아의 전통미학에서 칭송해온 온유돈후(溫柔敦厚)한 미감이 적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시체는 창시자인 이봉환만 잘 하였고, 다른 이들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만들어놓은 꼴"이었다. 봉환체를 따르려 한 서얼들은 몹시 많았으나 이를 제대로 된 시로 구현한 인물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필력(筆力)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봉환체를 모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심한데, 비쩍 마르고 비틀거려, 말이 조리에 닿지 않고, 괴벽(怪僻)하고 기괴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서얼들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쌓이고 막혀서 생긴 기운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규상의 이 말은 이봉환 같은 문사는 온유돈후한 미감에서 벗어난 시를 쓴다고 할지라도 교묘한 생각과 빼어난 기교 등이 중화(中和)의 미감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해도 미적 가치를 갖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비해, 재주가 이봉환만 못한 다른 이들의 경우는 봉환체를 모방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서얼이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갖게 되는 부정적 감정들을 토로하기만 하는 시를 쓰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③은 남옥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섬세하고 각박한 그의 시 역시 봉환체의 안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이명계의 아들 이진에 대한 평가인데, 그의 시는 신고(辛苦), 각삭(刻削)하고 초쇄(焦殺), 요괴(拗乖)한 특징이 있지만 음미할수록 공교로운 바가 있고, 허장성세를 주로 하여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볼 뿐이지만, 끝내는 점차 빠져들어 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진이 이 같은 시의 형식을 잘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체는 이봉환이 창시하고 이명계가 거들었고, 이진 등이 동조하여 큰 조류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다. 앞서 이명계를 초림팔재사라고 하고, 이봉환을 봉환체의 창시자라고 한 후, 이 같은 시는 그만이 쓸 수 있다고 하였으며, 남옥의 시는 섬세하고 각박한데 봉환체에 속한다고 한 것과, 이진이 이 시체를 잘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여느 서얼들과는 달리 이 같은 형식을 시로 잘 구현해낼 만큼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규상은 혹자는 이 같은 시체를 초림체라고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⑤의 윤가기, 박제가, 이덕무는 이진의 시법을 본받았다고 하고 있다. 이규상은 이들이 초림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효전(孝田)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겨 놓았다.

> 덕삼이가 종이가 해진 책자 한 권을 가져왔다. 제목이 “서경아집”(西京雅集)이었고, 원인손(元仁孫), 이봉환(李鳳煥), 홍신유(洪愼猷)가 쓴 것이다. 원인손이 개성 유수로 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따랐는데 지은 시가 칠언 근체시 수십 수였다. 홍신유가 늘그막에 동래에 잠시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이 동래와 기장 사이에 나돌게 된 것이다. 살펴보니 이 시집은 적적한 중에 소일거리가 될 만했지만, 시는 하나도 볼 만한 게 없었다. 이봉환은 다소 재기(才氣)가 있지만 측미(側媚)하고 초쇄(噍殺)하니 그 본색이 그러하다. 홍신유는 이봉환에 비하면 더욱 하등이고 원인손은 좌우 사이에서 그 모양을 본뜨고 모방하기만 하여 고관귀인이 성세를 고취하고 쇠한 것을 흥기시키는 뜻이 전혀 없다.[42]

이봉환, 원인손, 홍신유가 개성에서 주고받은 시가 이봉환, 홍신유의 문집에 각각 전한다.[43] 원인손이 1768년 2월에 개성유수로 천거를 받고, 1769년 8월에 한성부 판윤에 오르는데, 이봉환의 시 제목에 '仲冬'이라는 시간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모임은 1768년 11월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개성에서 쓴 시는 사본(寫本)의 형태로 전해졌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중의 한 부를 심노숭이 입수하고는 적적한 중에 소일거리는 될지언정, 볼 만한 시는 아니라고 하였고, 이봉환의 시는 다소 재기가 있지만 측미(側媚)하고 초쇄(噍殺)한데, 이는 그의 본색(本色)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측미하다는 것은 아첨한다는 뜻이고, 초쇄하다는 것은 소리가 마르고 줄어든다는 뜻으로, 메마르고 여유가 없어서 슬픔과 근심의 정서를 조장하는 음을 가리킨다.[44] 앞서 이규상이 초림체를 초쇄(焦殺)하다고 하였는바, 이 또한 심노숭이 말한 초쇄(噍殺) 역시 이와 의미가 같다고 하겠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심노숭은 이규상과는 달리 초쇄 이외에 측미(側媚)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심노숭은 이봉환의 시를 '재주는 있지만, 아첨하고 슬픈 느낌이 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노숭은 이어서 "그들의 시는 대개 이런 식으로 속되고 얕으며 아첨하고 꾸몄으니 시정소민의 이른바 필운대조(弼雲臺調)다."[45]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인왕산 필운대에 중인들이 모여 살면서 시회(詩會)를 통하여 교유하였는데, 이들의 시적 경향이 『서경아집』에서 발견되니, 볼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심노숭은 초림체에 대해 속되고 얕으며 아첨하고 꾸몄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 심노숭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

---

42) "德三得來一敗紙冊子, 題曰'西京雅集', 元仁孫 子靜·李鳳煥 聖章·洪愼猷 徽之著. 元爲松京留守, 二客從之, 爲詩各七言近體數十首. 洪老流寓萊府, 此卷散落萊·機間. 見之足爲窮寂中銷遣, 而一無可觀. 李稍有才氣, 而側媚噍殺, 自其本色. 洪視李而逾下, 元左右兩間, 依樣葫蘆, 絶無裘帶笳鼓興復不淺之意." (沈魯崇, 「山海筆戲」(壬戌錄), 『孝田散稿』 권9)

43) 李鳳煥, 「西京仲冬與留相元判書仁孫共賦」, 『雨念齋詩文鈔』 권5 및 李鳳煥, 「西京仲冬與留相同賦」, 『雨念齋詩藁』. 『우념재시문초』의 시는 12수이나 『우념재시고』의 시는 15수로 세 수가 더 많다. 두 문집에 실린 시의 제목이 공히 원인손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홍신유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홍신유의 문집에 「西京雜集-元參判仁孫爲留守與諸客共賦」이라는 총6수의 시가 실려 있고, 이 시들의 운자(韻字)가 제2, 제3, 제8, 제9, 제10, 제11수와 운자와 일치함을 보면, 이 셋은 한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洪愼猷, 「西京雜集-元參判仁孫爲留守與諸客共賦」, 『白華子集抄』(奎章閣本), 林熒澤 主編, 『閭巷文學叢書』6, 다른생각.

44) 『예기』(禮記)의 「악기」(樂記)편에 "마르고 줄어드는 음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슬프고 근심한다"(噍殺之音作, 而民思憂)라고 하였으니 초쇄(噍殺)한 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과 근심을 느끼게 하는 곡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5) "其詩大率此類, 鄙薄憸嬛, 市井小民所謂弼雲臺調." (沈魯崇, 앞의 글, 앞의 책)

다.

> 무릇 요즈음 일종의 시도(詩道)가 이와 같으니 그 또한 기운과 관련한 것인가? 삼연 김창흡(金昌翕)과 홍세태(洪世泰)가 피일휴(皮日休), 육구몽(陸龜蒙), 하경명(何景明), 이몽양(李夢陽)을 잡다하게 써서 처음으로 허수아비 꼴을 하더니 진암(晉庵) 이천보(李天輔)와 회헌(悔軒) 조관빈(趙觀彬)이 그것을 따라 썼으며 이봉환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의 시파를 이루게 되어 일시의 수재들을 거의 다 바꾸어 놓았다. 근래에는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등의 무리가 그 법을 이어받았으니 사대부 자제 가운데 재주와 식견이 없는 자들이 점점 그것에 물들었다. 우리 선왕께서 이것을 걱정하시어 유기(劉幾)의 험괴한 시를 몰아내고 가우(嘉祐)의 정련된 교화에 이르게 하여 경박한 것을 만회하여 순정한 데로 되돌리셨다. 먼저 문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천 년에 한 번 만날 좋은 기회로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호(鼎湖)의 용은 머무르지 않고 운문(雲門)의 춤추던 짐승은 자취가 없어졌으니 아, 이를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46]

조선의 시풍 변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심노숭에 따르면 시풍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의 계보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창랑(滄浪) 홍세태(洪世泰, 1653~1725)-회헌(悔軒) 조관빈(趙觀彬, 1691~1757), 진암(晉庵)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우념재(雨念齋) 이봉환(李鳳煥, 1710~1770)-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로 이어진다. 선왕께서 이 같은 변화를 차마 볼 수 없어서 변화까지 이끌어야 했었는데, 이 계보 가운데 이봉환을 가리켜, 이 인물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의 시파를 이루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일시의 수재들이 다 바뀌었다고 하였다. 심노숭은 앞서 이봉환의 시의 본색(本色)에 대해 재기가 있지만 측미(側媚)하고 초쇄(噍殺)하다고 하였다. 이 측미하고 초쇄한 특징의 시는 선배 시인인 김창흡, 홍세태, 이천보, 조관빈을 거쳐 이봉환에 이르러서 당대의 젊은이들의 시풍에 일대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후대의 이덕무, 박제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심노숭의 진단이다. 한편, 심노숭은 부친 심낙수(沈樂洙, 1739~1799)의 견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글은 남기기도 하였다.

---

46) “大抵嚮來一種詩道之如此, 其亦有關氣運耶? 金三淵、洪世泰雜用皮、陸、何、李始爲俑, 李晉菴、趙晦軒述之, 降及李鳳煥, 遂成一派, 幾變一時之秀才. 近年李德懋、朴齊家輩傳其法, 士大夫子弟薄有才無識見者沈沈染之. 我先王爲是之憂, 黜劉幾險怪之詞, 致嘉祐淬礪之化, 回漓反淳之体, 先自變文體始, 處値千一運休期, 幾得八九分成就, 鼎湖之升龍不留, 雲門之舞獸無跡. 嗚呼! 尙忍言哉.”(沈魯崇, 위의 글, 위의 책)

서류(庶類) 이덕무와 박제가가 당시에 이름이 있었다. 선군(先君)께서 그들의 작품을 보시고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영조말에 이와 같은 사음(邪淫)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용휴와 이봉환 같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을 본받아 끝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그 풍기(風氣)를 볼 수 있다. 이 무리들은 족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대부들이 이들을 사랑하니 이는 세도에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47]

심낙수는 당시 유명한 이덕무와 박제가의 글을 읽고는 한 세대 전의 문인인 혜환(惠寰) 이용휴(李用休, 1708~1782)와 이봉환을 떠올리면서, 이들의 글이 유행하여 사대부들까지 사랑하게 된 풍조를 개탄하였다. 남인 문인 이용휴를 한 데 묶어서 심낙수는 이봉환을 사음하다고까지 비판하였고, 이봉환에서 이덕무, 박제가로 이어지는 문풍의 계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서 심노숭이 조선의 시풍 변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서 보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이봉환은 어릴 적 글을 배울 때 김창협(金昌協), 김창흡 형제를 사숙했다고 밝힌 바 있고,[48] 김창흡의 시를 잇는다는 생각을 시에 밝힌 적이 있다.

거칠도다 동방의 시여!
연옹(淵翁)께서 비로소 매화시를 쓰셨네.
그 외로운 소리의 뒤를 따라서
애써 진(眞)을 추구하고 싶네.
담박한 문장으로 매화를 담아내니
순수히 맑은 우주가 열렸도다.
이 같은 도(道)를 말하는 이 없어도
세 번을 맡으니 그윽한 향이 도네.
膚率東方什, 淵翁始賦梅.
試從孤響後, 强欲逼眞來.
絶澹文章蘊, 純淸宇宙開.
無人語此道, 三嗅暗香回.

---

47) "庶類李德懋、朴齊家有時名. 先君見其所爲, 歎曰: '英廟末有爲此一種邪淫, 如李用休、李鳳煥之徒. 此輩祖之, 遂至於此, 可以見風氣. 此輩無足言, 士大夫子弟款之, 非世道小憂也.'"(沈魯崇, 「先府君言行記」, 『積善世家』)

48) "余少學文, 私淑於文簡公兄弟之道."(「金士豪履興哀辭」, 『雨念齋詩文鈔』 권9)

「손재 조상공을 모시고 조지경, 채경홍희범, 남시온옥과 매화시를 각각 40수씩 쓰다(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제4수(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3)

이봉환은 조선의 시를 거칠다고 평가하고는, 바로 뒤에 삼연 김창흡이 비로소 매화시를 썼다고 하였다. 이 말은 실제로 김창협이 조선에서 매화시를 처음 썼다는 것이 아니라, 김창협의 매화시에 이르러서야 조선의 시에 거칠지 않은 시가 생겨났다는 뜻이다. 이봉환에 따르면 김창흡의 시는 '외로운 소리'이다. 외로운 이유는 조선의 다른 시들이 거친 데 비해 그의 시는 거칠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 외롭다는 말은 홀로 탁월하다는 뜻을 내포하는데, 김창흡이 매화시를 쓴 것처럼 자신도 매화의 진면목(眞面目)을 포착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 함련의 내용이다. '진을 추구한다'의 원문은 '逼眞'인데 이는 대상의 가진 진면목(眞面目) 내지 정수(精髓)를 절묘하게 포착해 내고자 한 진시(眞詩) 이론의 핵심과 일맥상통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봉환 역시 김창흡의 이 같은 "逼眞"을 따라 자신의 시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자신 역시 매화라는 대상의 진면목을 포착하게 되면, 동방의 부솔한 시 풍속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핍진함을 추구하는 것이 꼭 외형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김창흡은 족질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 1658~1734)에게 쓴 편지에서 "진영(眞影)을 그리는 것은 신정(神情)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그저 골격만 그릴 뿐이라면 그 사람이 아니다. 시를 짓는 것 또한 그렇다. 형체를 모사하느라 정신을 놓치게 되는 것은 색깔을 대충 칠하고 정신을 얻는 것만 못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49] 같은 글에서 김창흡은 "동방의 시는 전체가 초솔(草率)하다"[50]라고 하여, 조선 당대의 시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봉환이 '膚率東方什'이라고 읊은 것은 김창흡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 부솔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의 '逼眞'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김창흡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부솔함이라는 조선 시가의 폐해를 김창흡의 매화시를 통해 일신했다고 본 것이 이봉환의 고유하고 독특한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전반부는 자신의 시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라면, 후반부는 매사 모임의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담박한 문장으로 매화의 진면목을 온축해 내고, 순수한 우주가 열린다는 말을 통하여, 자신들이

49) "寫眞貴得其神情. 只以形骨而已, 則便非其人. 作詩亦然. 與其摸形而遺神. 不若略其玄黃而得其神駿也."(金昌翕, 「答士敬別紙」, 『三淵集』 권19)
50) "然東方詩全體草率."(金昌翕, 위의 글, 위의 책)

시를 쓰고 있을 때 꽃이 피어났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매화의 개화를 순수한 우주가 열렸다고 하였고, 이 같은 모습을 담박한 시로써 온축하려고 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매화향이 돈다고 하여 감실 속에 매화가 처음 피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그윽한 향으로 알리기 시작했음을 밝혔다.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이 시의 후반부에 담아낸 모습이 바로 삼연 김창흡의 고독한 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삼연이 추구한 '핍진'을 추구해 가면 윗 시의 뒤의 네 구절 같은 경지를 시에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는지를 조심히 묻고 있는 시처럼 여겨진다. 삼연을 닮고자 했던 이봉환은 조재호의 시에 평을 하면서 써준 평어(評語)에도 윗시의 시어 "淵翁"을 그대로 사용하여 존경심을 담아 극찬하기도 하였다.[51] 비록 심노숭에게는 삼연의 계보를 이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으나, 그 자신은 자신이 추종하는 삼연의 뒤를 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니 후대의 이런 평가는 이봉환에게 비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봉환이 김창흡을 따라 "애써 진(眞)을 추구하고 싶네"라고 읊은 시구를 살펴보면, 진시(眞詩) 창작을 추구한 백악시단(白嶽詩壇)과의 연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52] 백악시단은 1682년부터 낙송루시사(洛誦樓詩社)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 중반까지 이어갔는데, 김창협, 김창흡, 김부현(金富賢), 홍세태, 조정만(趙正萬), 김창업(金昌業), 김시보, 이해조(李海朝), 조유수(趙裕壽), 이병연(李秉淵), 권섭(權燮), 김영행(金令行), 이병성(李秉成), 이하곤(李夏坤), 박태관(朴泰觀), 신정하(申靖夏), 김시민(金時敏), 안중관(安重觀), 정래교(鄭來僑) 등이 그 구성원이다. 복고 일색의 시단에 신시(新詩) 창작의 길을 개척한 것이 이들 시단의 시사적 의의이다.

이봉환은 김창협, 김창흡을 따르고자 하였고, 조재호, 정래교와 함께 삼연 김창흡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고,[53] 봉록(鳳麓) 김이곤(金履坤, 1712~1774),[54]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과 교유하였다.[55] 이덕무는 봉록 김이곤에 대해 "자(字)는 진경

---

51) 조재호의 시 두 수에 대해 "淵翁神韵", "絶似淵翁"이라고 평어를 달았다.

52) 진시와 백악시단에 대해서는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詩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참조.

53) 李鳳煥, 「農谷夜會次三淵韻」, 『雨念齋詩文鈔』 권1; 李鳳煥, 「口號屬潤卿」, 『雨念齋詩藁』; 鄭來僑, 「與李聖章鳳煥宿農村共賦」, 『浣巖集』 권3.

54) 「和金晉卿履坤」, 「與晉卿兄弟及諸人泛舟三湖」, 「與晉卿會竹里」가 『雨念齋詩文鈔』 권1에 실려 있다.

55) 李鳳煥, 「送鄭淸河敾之任序」, 『雨念齋詩文鈔』 권7.

(晉卿)이고, 벼슬은 신계현령이다. 시는 근세의 명가로서, 집은 백악산 아래에 살았으며, 김창흡, 이병연과 같은 유풍(流風)과 여운(餘韻)이 있다."[56]라고 한 바 있으니 백악시단과의 연관성이 뚜렷한 인물이고, 겸재 정선은 사천 이병연의 절친한 벗이었다. 백악시단 구성원들과 이봉환의 교유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형술은 진시의 계승과 관련하여 백악시단의 문인들이 정치보다 학문과 문학에 생애를 걸었음에 비해, 이후 정계가 노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은 경세(經世)에 관심을 두었고, 관직에 있지 않은 선비들은 도학(道學)에 몰두하여 상대적으로 시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 뒤, 양반사대부들 이외에 시문에 관심을 두었을 법한 문인들은 서얼과 여항인이라고 하면서 진시의 계승이 결과적으로 이들이 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57] 진시 계열의 시인들과 일부 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다 분명한 사승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정은 이들 간의 관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봉환은 김창협, 김창흡 형제를 사숙한 바 있고, 심노숭은 당대 조선의 시풍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계보의 원류에 김창흡, 홍세태, 중간에 이봉환, 마지막에 이덕무, 박제가를 배치한 바 있다. 시단의 경박한 풍조를 개탄하면서 한 말이지만, 심노숭의 이 같은 발언은 이봉환과 김창협의 관련성에 주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덕무, 박제가로 발전해 나간 시사(詩史)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이봉환은 김창흡에게서 시작한 18세기 창신파 한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후 이덕무, 박제가 등 후배들에게로 이 흐름을 이어준 존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56) "金鳳麓 履坤, 字晉卿, 官新溪縣令. 詩爲近世之名家, 家住白嶽山, 亦有三淵 槎川之流風餘韻."(李德懋, 「鳳麓」, 『淸脾錄』 권3)

57) 김형술, 앞의 논문, 288면.

Ⅵ. 결론

이봉환에게 관심을 가진 동시대 문인들과 초기 연구자들은 그를 '초림체'라는 특별한 시체와 결부지어 지속적으로 주목하였다. 이규상과 심노숭이 파악한 초림체는 초쇄(焦殺, 噍殺)하여 슬픈 느낌이 나고 중화(中和)의 미감에 맞지 않는다. 또 측미(側媚)한 특징이 있어서, 아부를 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속되고 얕다. 이 같은 문체의 특징은 이봉환이 속해 있는 서얼 집단의 존재조건과 부합하는 면이 몹시 많다. 과거급제를 통한 발신(發身)이 애초 불가능한 상태에서 글재주와 학식이 있는 서얼은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벌열가 문인들과 긴밀한 교유를 가졌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분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봉환이 쓴 시 가운데 구법(句法)이 쉽지 않은 구절이 많은 것은 이처럼 특이한 시적 특질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규상의 지적대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여 막히고 쌓인 사람들의 기운이 이 안에 서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Ⅱ장 2절과 3절에서 밝힌 대로 현전『우념재시문초』는 이봉환의 사후 신원 과정에서 정조의 산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을 들이라는 정조의 명을 후손들은 충실히 따랐다. 이 과정에서 초림체의 한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몹시 크다. 초림체는 이규상과 심노숭의 주장에 따르면, 재주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형식이지만, 초쇄(焦殺)하고 측미(側媚)하여 중화(中和)의 기운이 떨어지는 시체(詩體)이다. 시국 문제에 연루되어 물고된 이봉환을 신원하는 과정에서 문집을 들이라는 명을 받은 후손들이 온유돈후(溫柔敦厚)한 미감과는 거리가 먼 초림체 한시를 그대로 임금에게 바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현전『우념재시문초』에서 제대로 된 초림체 한시를 찾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봉환의 문학을 연구할 때 초림체를 위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자료가 갖는 이 같은 특수성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규상과 심노숭이라는 안목 있는 동시대인이 초림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이들의 주장 속에는 양반사대부로서 서얼을 바라보는 특별한 이해방식, 또는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서얼들에게 일종의 서얼다움을 강요하는 시선이 있지 않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초쇄'와 '측미'는 초림체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측미'는 심낙수, 심노숭 부자 입장에서의 '측미'일 가능성이 있다. 서얼의 존재조건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선택한 글쓰기를 아첨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얼에게도 불우의식으로

만 환원할 수 없는 보편적 지식인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신분을 넘어서고자 한 면모를 보인 이봉환 및 다른 서얼문사들의 모습을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분 제도 아래의 서얼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초림체의 특징을 초쇄와 측미로 파악한 이규상과 심노숭의 견해에는 서얼을 들여다보는 특정한 양반중심적 시선이 감지된다. 이것이 앞서 밝힌 자료의 특수성 이외에 본고가 초림체를 논의에 중심에 두지 않은 두 번째 이유이다.[58]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본고는 이봉환의 신분과 가계를 중시하여 그가 '서얼'이면서 문예에 장기가 있는 '시인'이라는 점을 논의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는 글공부하는 집안의 서얼이었다. 글재주가 있었던 서얼은 교유 관계가 다소 복잡하다. 이들은 동료 중서인과 교유하면서 동질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벌열들과

---

58) 『우념재시문초』의 편집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하여 '초림체' 한시를 찾기 어려우며 이규상과 심노숭의 초림체에 대한 견해에는 사대부중심적 문예관이 드러났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림체 한시의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봉환의 한시를 몇 수 제시하고자 한다. 『우념재시문초』에서 이규상과 심노숭이 지적한 초림체 한시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그와 유사한 시풍을 보이는 시는 다소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시들은 이미 한 차례씩 인용된 시들이나, 논지 전개의 편의상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아이는 장난치며 밤을 까고 / 할미 얼굴엔 기쁨이 어렸지 / 윤리의 즐거움 절로 갖췄으니 / 사대부 부러워할 거 뭐 있나."(兒嬉剝園栗, 翁媼顔敷腴. 自具倫常樂, 何曾羨士夫. 「雜絶」) 이 시는 '창신'(創新)의 미감을 담고 있는 시로 파악된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갈역잡영(葛驛雜詠) 연작시나 이용휴(李用休)의 짧고 감각적인 시와 시풍이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마포의 시사에서는 평교를 허락해주시더니 / 지난날의 슬픔과 기쁨은 강물 너머에 있네 / 먼 곳으로 부르실 땐 보내주신 말이 건장하였고 / 누대에 머물러서는 빗속의 매미소리를 들었지 / 절동(浙東)의 의기(義氣)로 궁핍한 벗을 아껴주셨고 / 유령(庾令)의 풍류는 속된 무리를 끊어버렸지 / 은혜를 받기만 하였으니 무얼로 갚을까 / 국화꽃 송이마다 당신을 몰래 그리워하네."(滄洲詩社許平分, 往事悲歡隔水雲. 邀致天涯官馬健, 淹留樓上雨蟬聞. 浙東意氣憐窮識, 庾令風流絶俗羣. 只有啣恩無所報, 寒花采采隱思君. 「酬贈別韻呈錦伯趙損齋」) 이 시는 '측미'(側媚)의 속성이 얼마간 보이는 시라고 생각한다. '측미'는 아첨을 뜻하는 말인데, 이 시에는 조재호를 향한 아첨까지는 아니어도 감사와 그리움의 마음이 시의 전면에 드러나 있다. "내게 말했지. '자네 지금 처지가 낮으니 / 이 세상을 희롱하며 마음대로 살지 않느냐.' / 귀봉은 천리마 따르려 했으나 난 붙을 곳이 없었고, / 손곡은 글솜씨 뽐내었으나 난 그 일이 달갑지 않네. / 술을 마시며 껄껄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 손을 잡고 토하는 것은 모두 좋은 말들이었네 / 남해의 달빛과 동계의 돌을 보며 교유했거늘 / 살아서 만나고 죽어서 이별함이 변화무상하였네."(謂我君今地處卑, 胡爲玩世任情癡. 龜峯附驥應無所, 蓀谷雕虫不屑爲. 酬酢呵呵仍大笑, 提携嘖嘖盡良規. 南溟月色東溪石, 回薄生逢死別時. 「洪應敎景海遷葬輓」) 이 시에서는 '초쇄'(焦殺)의 느낌이 감지된다. 초쇄는 시에 온유돈후한 느낌이 적고 각박한 시를 가리키는데, 앞의 네 구에서 홍경해와 이봉환이 서얼들의 처지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와 뒤의 네 구에서 느껴지는 무상감에는 얼마간 이 초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된다.

교유하였다.

이봉환의 대표적 문예 활동으로 두 차례 사행에서의 활동과 매사(梅社) 활동을 들었다. 두 차례 사행에서의 활동은 조선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공적 자아의 확충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봉환은 일본에서 정사의 서기(書記)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문사들과 필담을 주고받고 시문을 창수하였다. 특히 이봉환은 정통 성리학과 재도론을 고수하며 일본의 문사들과 교유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군관(軍官)으로 수행한 연행길은 통신사행 때보다 수행해야 할 문사로서의 업무는 그다지 없었으나 자신이 만난 현지인들에게 중국 명청대 작가들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문예와 학술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중국 현지의 문예와 학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사 홍계희가 중국에서 찾은 고헌성(顧憲成)의 문집을 조선에 갖고 들여와 조선에 이미 수입되어 있던 고반룡(高攀龍)의 문집과 합편하여 책을 낼 때, 그 책에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연행 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사 홍계희가 성과물을 낼 때 그 일을 바로 옆에서 도운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중국의 동림학파(東林學派)에 관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다.

국외에서 가진 문예 활동의 대표적 예로 두 차례의 사행체험을 들었다면, 문예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진 이봉환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매사(梅社)에서의 활동을 꼽았다. 이봉환은 벌열 조재호(趙載浩)의 초청으로 매사에 참여하여 조재호의 조카 조유진 및 서얼 동료인 채희범, 남옥과 함께 2백수의 매화시를 썼고, 동료 구성원들의 시에 평어(評語)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소론 벌열과 서얼지식인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만남은 지처(地處)의 차이가 있지만, 불우한 문사들 간의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였다. 이들은 매화의 생장주기에 따라 각각 40수씩 시를 써서, 모두 2백수의 매화시를 남겼다. 매화에 대해 40편이나 되는 시를 쓴다는 것은 대상의 모든 것을 시 속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어려운 작업을 마주하여 이들은 이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다작을 해내는 자신들의 시적 조예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시어가 대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기도 하였다. 이봉환 역시 이런 물음들 속에서 자신을 시인으로서 정립해 갔으리라 생각된다. 또 이봉환은 다른 구성원들이 남긴 시 160수 중 138수에 대하여 평어를 내렸다. 그리하여 평자(評者)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평어들을 '중국과 조선의 선배 시인이나 특정한 유파 및 작품을 거론한 경우', '시의 내용을 언급한 경우', '시의 기법, 분위기를 언급한 경우'의 셋으로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이봉환의 문예활동을 위와 같이 정리한 이후 본고는 이봉환의 작품 세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이봉환의 작품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 것,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 것, 사람 이외의 외물(外物)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 것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봉환은 서얼로서의 자기의식이 복잡하다.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비탄한 경우가 많았으면서 자신이 얻게 된 다른 이들의 인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곤궁한 형편 속에서 행역(行役)의 길에 오른 경우가 잦았으나 이 같은 삶을 긍정하였고, 때로는 속세를 벗어난 삶을 꿈꾸기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부로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면 이봉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봉환은 재주가 있으면서 끝내 성취하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고, 자신과 같은 중서층 문인들과 우정을 나누었으며,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벌열사대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분에 얽매이지 않은 교유를 하였음을 밝혀냈다.

또 이봉환이 사물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봉환은 그의 매화시 속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드러내었고, 때로는 인위적 질서를 넘어서는 자연세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봉환 시문의 문학사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봉환의 시문은 조선후기 서얼문사의 자기 실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봉환은 삼연 김창흡에서 비롯되는 18세기의 창신풍 한시를 계승하여 이후 이덕무, 박제가 등을 위시한 후배세대들에게 이 계통을 물려준 존재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8세기 조선이라는 시공간에서 활동한 이봉환이라는 한 문인의 문예 활동과 작품 세계의 검토를 통하여 서얼문인과 사대부문인의 교유양상이 좀 더 다양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봉환 이외의 수많은 서얼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사대부들과 짝이 되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을 터인데 이 양상을 좀 더 주목하고 싶다. 또 이봉환을 '초림체'의 틀로만 국한하여 연구해온 연구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초기 연구자들이 이봉환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이규상과 심노숭의 견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대부 중심의 문학사적 서술과 연구를 지양하고, 이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중서층 문인들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점들을 본고 이후의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趙載浩, 李鳳煥 外,『梅社五詠』, 국립중앙도서관.
李鳳煥,『雨念齋詩稿』,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雨念齋詩文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李秉岐,『近朝內簡選』

姜柏,『愚谷集』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金尙憲,『淸陰集』
金昌翕,『三淵集』
南玉,『日觀記』
盧兢,『漢源遺稿』, 개인소장본 사본.
徐宗華,『藥軒遺集』
成大中,『日本錄』: 성대중 저, 홍학희 역,『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_____,『靑城雜記』
成海應,『硏經齋全集』
申維翰,『海遊錄』,『海行摠載』1, 朝鮮古書刊行會 編: 국역『해행총재』1권, 2권, 민족문화추진회.
沈鋅,『松泉筆譚』: 신익철 외 역,『송천필담』보고사, 2009.
元重擧,『乘槎錄』,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소장본: 원중거 저, 김경숙 역,『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李奎象 저, 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18세기 조선 인물지(幷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李德懋,『靑莊館全書』: 국역『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李命啓,『海皐集選』,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본.
李商鳳,『北轅錄』,『燕行錄選集補遺』(上),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박동욱·김영죽 역, 국역『북원록』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_____,『서원녹』,『燕行錄選集補遺』(下),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
尹昌垕,『野淵漫錄』
李麟祥,『凌壺集』: 박희병 역,『능호집』, 돌베개, 2016.
李明五,『泊翁詩鈔』
李春英,『體素集』
任聖周,『鹿門集』
曺命采,『奉使日本時聞見錄』: 국역『해행총재』10권, 민족문화추진회.
趙曮,『海槎日記』: 국역『해행총재』7권, 민족문화추진회.
趙載浩,『損齋集』
趙顯命,『歸鹿集』
許筠,『惺所覆瓿稿』
洪景海,『隨槎日錄』, 임기중 편,『연행록전집』59권, 2001: 하우봉, 이선아 역,『수사일록』, 보고사, 2018.
洪樂仁,『安窩遺稿』
洪致中 저, 허경진 역,『해사일록』, 보고사, 2018.
黃景源,『江漢集』

이강욱 역,『은대조례』(銀臺條例),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崇禎後再壬子式年退行癸丑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通文館志』
劉義慶 撰,『世說新語』: 김장환 역주,『세상의 참신한 이야기: 세설신어』, 신서원, 2008.
『書經』
方回 選評, 李慶甲 集評校點,『瀛奎律髓彙評』, 上海古籍出版社, 1986.
우멍푸(吳孟復) 저, 심경호·김봉희 역,『桐城文派述論』, 태학사, 1998.
치엔쫑슈(錢鍾書) 저, 이홍진 역,『宋詩選註』, 형설출판사, 1989.

『來庭集』, 日本 國立公文書館 淺草文庫 소장본.
『槎餘』, 日本 東京都立圖書館 소장본.
『善隣風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善隣風雅後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鴻臚傾蓋集』, 日本 東京都立圖書館 소장본.
『和韓文會』, 日本 國立公文書館 淺草文庫 소장본.
『和韓唱和錄』,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소장본.

2. 논문

감준희, 「李義鳳의 『北轅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강혜규, 「18세기 통신사 필담 『來庭集』에 보이는 衣冠 논쟁」, 『진단학보』128, 진단학회, 2017.
구지현, 「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학 교류의 전개 양상 -『淺草文庫書目解題』 소재 필담창화집을 자료로 하여 -」, 『한국한문학연구』41, 한국한문학회, 2008.
_____,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 일본 학파에 따른 교류 양상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53,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경숙, 「조선후기 한일 서적 교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2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8.
_____, 「18세기 지식인의 일본과 중국 사행 인식 비교」,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5.
김남기, 「三淵 金昌翕의 詩文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_____, 「李春英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8, 한국한시학회, 2003.
김대중, 「위희와 조선후기 한문학」, 『민족문화연구』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김성진, 「남옥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필담창화」, 『한국한문학연구』19, 한국한문학회, 1996.
김수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승대, 「洪啓禧 經世論의 在地的 基盤」, 『한국실학연구』33, 한국실학학회, 2017.6.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 盧命欽·盧兢 父子와 豐山洪鳳漢家와의 관계를 中心으로」, 『어문논집』37, 민족어문학회, 1998.
_____, 「동번 이만용의 시문집의 이본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사, 『문헌과 해석』54,

2011.봄.
김종서, 「「蓀谷山人傳」과 李達의 生涯」, 『한문학보』11, 우리한문학회, 2004.
김진우, 「조선 후기 서얼의 종법적 지위 약화와 그 원인」, 『조선시대사학보』89, 조선시대사학
회, 2019.
김하라, 「유만주의 전겸익 수용」, 『한국문화』6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김형술, 「白嶽詩壇의 眞時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서명 미상 필사본 시선집의 자료적 가치」, 『국문학연구』21, 국문학회, 2010.
_____, 「悔軒 趙觀彬의 한시와 椒林體」, 『우리문학연구』55, 우리문학회, 2017.
김형태, 「의학 관련 필담창수집의 구성 및 내용 특성 연구 - 1748(戊辰)년 『兩東筆語』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9, 조선통신사학회, 2009.
_____, 「1748년 제10차 戊辰通信使 의원필담의 성격 변천 연구 -『對麗筆語』와 『朝鮮筆談』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46, 한국한문학회, 2010.
박경, 「서얼 관직 진출 관련 법과 논의에 반영된 조선의 친족 질서」, 『국학연구』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박경남, 「최명길·최석정의 서얼허통 상소와 지식인의 역할」, 『고전문학연구』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박상휘, 「조선후기 일본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사고의 전환 - 朝鮮使行의 記錄類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梅花詩)」, 『한국한문학연구』26, 한국한문학회, 2000.
박희병, 「기하실(幾何室) 유금(柳琴)과 『말똥구슬』」, 박희병 편역, 『말똥구슬-유금 시집』, 돌베개, 2006.
_____, 「조선의 일본학 성립: 원중거와 이덕무」, 『한국문화』6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백두현, 「한글편지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의 노정」, 『선비문화』5, 남명학연구원, 2005.
신로사, 「신미(1811) 통신사행과 문화 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23, 우리한문학회, 2010.
_____, 「이봉환·이명오 부자의 일본 사행에 관하여」, 『문헌과 해석』54, 문헌과 해석사, 2011.봄.
신익철, 「李鳳煥의 椒林體와 「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24, 한국한문학회, 1999.

_____,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 - 李鳳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_____,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한국문학연구』3, 한국문학연구소, 2002.
심경호, 「黨伐의 場에 핀 梅花」, 『한국한시연구』4, 한국한시학회, 1996.
_____,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31, 민족문화연구소, 1998.
_____, 「정치와 교유-조선후기의 黨伐과 문학」, 『동방한문학』69, 동방한문학회, 2016.
안대회, 「열린 사회를 위한 개혁 개방론, 박제가의 『북학의』」, 박제가 저, 안대회 역, 『북학의』, 돌베개, 2003.
_____, 「18세기 기궤첨신(奇詭尖新) 한시(漢詩)의 한 양상 -서명인(徐命寅)의 『취사당연화록(取斯堂煙華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45, 한국한문학회, 2010.
안대회, 김종민 외, 「위숙자의 『일록논문』 역주」, 『한문학보』31, 우리한문학회, 2014.
여희정, 「李鳳煥 漢詩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金昌翕 매화시의 특징: 「松栢堂詠梅」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48, 한국한문학회, 2011.
우재호, 권영해, 「唐代 梅花詩에 나타난 梅花의 상징성」, 『중국어문학』61,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이경근, 「계미통신사 필담집에 나타난 '완고한 조선'과 '유연한 일본'」, 고일홍 외, 『문명의 교류와 충돌』, 한길사, 2013.
_____, 「趙曮『詩帖』硏究 - 서지적 특징 및 간본 수습 양상을 중심으로 -」, 『규장각』4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12.
_____, 「무진통신사의 학술·문화 교류 연구-홍경해의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2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이남면, 「이명계(李命啓)의 『해고집선(海皐集選)』과 시세계」,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41, 2015.
이종묵, 「눈 속의 매화를 즐기는 법」, 『문헌과 해석』45, 태학사, 2008.
이현일, 「이봉환 삼대의 비원」, 『문헌과 해석』20, 문헌과 해석사, 2002.가을.
_____, 「「落花詩」의 계보」, 『대동문화연구』69,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54, 문헌과 해석사, 2011.봄.

_____,「泊翁 李明五 시 연구(1)」,『한국한시연구』19, 한국한시학회, 2011.
_____,「李鳳煥 三代의 七言律詩 연구」,『한국한문학연구』58, 한국한문학회, 2015.
이효원,「『海游錄』의 글쓰기 특징과 일본 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通信使와 徂徠學派의 교류 양상과 그 의미: 文明과 武威의 착종과 충돌,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한국문화』7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정민,「『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한국한문학연구』32, 한국한문학회, 2003.
___,「18,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幷世意識)」,『한국문화』5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정우봉,「신재(新齋) 홍낙명(洪樂命)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일고찰」,『문헌과 해석』53, 문헌과해석사, 2010.가을.
정은주, 「1760年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25, 명청사학회, 2006.
정장식,「英祖代 통신사와 이덕무의 일본 연구」,『일본문화학보』23,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_____,「1748年 通信使와 日本에 대한 認識 變化」,『인문과학논집』31,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한태문, 「18世紀 通信使의 日本見聞記<<奉使日本時聞見錄>>硏究」, 『동아인문학』3, 동아인문학회, 2003.
_____,「<우념재수서>소재 통신사행 관련 편지 연구」,『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James B. Lewis,「대영박물관 소장 1748년 朝鮮通信使行列 繪卷」,『한일관계사연구』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3. 저서

김경숙,『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소명출판, 2005.
박광용,『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박희병,『나는 골목길 부처다 - 이언진 평전』, 돌베개, 2010.
_____,『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1(회화편), 돌베개, 2018.

_____,『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2(서예편), 돌베개, 2018.
_____,『능호관 이인상 연보』, 돌베개, 2021.
송용준,『中國詩史』, 명문당, 2017.
신익철,『조선의 매화시를 읽다』, 글항아리, 2015.
안대회,『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_____,『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이경구,『조선, 철학의 왕국』, 푸른역사, 2018.
이승수,『三淵 金昌翕 연구』, 안동김씨삼연공파종중, 1998.
이영주 외,『두보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종묵,『우리 한시를 읽다』, 돌베개, 2009.
이혜순,『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차장섭,『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천혜봉,『한국서지학』(개정증보 2판), 민음사, 2006.
하지영,『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소명출판, 2019
_____,『천하제일의 문장: 신유한 평전』, 글항아리, 2021.
小尾郊一 著, 윤수영 역,『中國文學속의 自然觀』, 강원대학교출판부, 1998.
후마 스스무, 하정식 外 역,『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부록 1>『우념재시문초』(권1~권6),『우념재시고』수록시 대조

권1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59]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題友人扇面	1수	미수록			
2	題李士賓-喜觀-詩卷	1수	미수록			
3	玄圃尹子精氏-治-輓	1수	미수록			
4	春日尹子厚-昌垕-李士賓同作	1수	미수록			
5	楓溪次吳學士-瑗	1수	미수록			
6	北隣	1수	미수록			
7	游楓溪	1수	4	楓溪	1수	
8	游栗島	1수	미수록			
9	送南察訪-漢朝	1수	미수록			
10	南汝久-有恒-挽-四首	4수	미수록			
11	書感	4수	미수록			
12	果州	1수	미수록			
13	十九日曉有感	1수	미수록			
14	赤子	1수	미수록			
15	所望	1수	미수록			
16	題畵	1수	미수록			
17	南進士-漢宗-挽	1수	미수록			
18	蜘蛛	1수	미수록			
19	雜絶	3수	미수록			
20	漫書	1수	미수록			
21	南遊雜述	2수	미수록			
22	姜察訪-柏-自湖西來過	1수	미수록			

23	次趙農谷-載浩-韻-時農谷喪兒移居	3수	22	次趙農村韻時農村遭慽移居故以詩慰之	6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1,2,3수 수록
24	挽趙童子-九鎭-二首	2수	미수록			
25	呈尹學士-心衡-寶城任所	7수	1	寄尹學士-心衡-寶城任所	7수	
26	贐洪參議-鳳漢-出按湖西	7수	12	贐洪錦伯	7수	
27	訪趙義卿-宜鎭-夜宿	1수	미수록			
28	白雲臺	2수	8	白雲臺	1수	『우념재시문초』2수 중 제2수만 수록
29	簡鄭士說-習良	1수	미수록			
30	寄李元靈-麟祥	2수	미수록			
31	元靈與李子文-命啓-李景祖-思興-金仲豪-光俊-過	1수	미수록			
32	病起	1수	미수록			
33	尹聖任-尙志-宅會洪敬夫-啓謹-話	1수	미수록			
34	黔州道中	1수	미수록			
35	有懷	2수	미수록			
36	徐察訪-文永-輓-三首	3수	미수록			
37	送李亞使-河述-之關東	2수	미수록			
38	感懷	1수	미수록			
39	寄趙義卿兄弟	1수	7	寄趙氏兄弟	1수	
40	贈演師	1수	미수록			
41	大普洞	1수	미수록			

42	曹溪瀑	1수	미수록			
43	會趙持卿-維鎭-宅	1수	미수록			
44	醻申亞亮四章	4수	미수록			
45	題扇送士說	1수	미수록			
46	題壁	1수	미수록			
47	哀金烈婦	8수	미수록			
48	和金晉卿-履坤	1수	미수록			
49	與晉卿兄弟及諸人泛舟三湖	2수	29	與金子履坤兄弟及諸人泛舟	2수	
50	送高山守-二首	2수	미수록			
51	與晉卿會竹里	1수	30	與金子會竹里	4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1수 수록
52	淸節祠	1수	9	淸節祠	1수	
53	玉流瀑	1수	미수록			
54	鄭判書-益河-輓	3수	미수록			
55	金元帥-瀹-輓	2수	미수록			
56	城西	1수	미수록			
57	元靈直所	1수	미수록			
58	陽平君-檣-輓	1수	미수록			
59	江樓	1수	10	江樓	2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1수 수록
60	古井	1수	미수록			
61	次錦平都尉賜几杖宴韻	1수	11	錦平尉賜几杖宴韻	2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2수 수록
62	題畵	8수	미수록			
63	送人赴燕	1수	미수록			
64	秋懷信筆	4수	미수록			

65	崔士謙-益男-病所, 有歌妓琴師在傍 최익남	1수	미수록			
66	春日喜鄭尹兩生至	1수	미수록			
67	差祭獻陵	1수	14	差祭獻陵	1수	
68	春往道峯, 士賓未偕, 溪上潦草寄示-六首	6수	미수록			
69	直廬	2수	15	與直廬與客同賦	3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1,2수만 수록
70	五朝御墨 - 蒼蒼齋記見	1수	미수록			
71	孝廟御帖	1수	미수록			
72	金生書	1수	미수록			
73	耘谷詩史草	1수	미수록			
74	成-忠文三問-李-忠簡塏-金-忠翼宗瑞-贈安平大君詩	1수	미수록			
75	聽松書六臣傳草	1수	미수록			
76	松江詩草	1수	미수록			
77	韓石峯濩與許筠書	1수	미수록			
78	趙子昻桐下空階卷	1수	미수록			
79	虞伯生佛偈八分	1수	미수록			
80	城西夜飮	1수	미수록			
81	桐湖與元子承-繼孫-共賦	1수	미수록			
82	農谷夜會, 次三淵韻	1수	16	農谷	2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1수만 수록

83	酬贈別韻, 呈錦伯趙損齋-農谷一號	4수	18	酬贈別韻上趙錦伯	4수	
84	白門夜酬子文	1수	미수록			
85	湖上	2수	미수록			
86	客去	1수	미수록			
87	玉蒲洞	1수	미수록			
88	別李寢郎	1수	미수록			
89	奉酬東里	1수	미수록			
90	贈鄭生	1수	미수록			
91	士說過	1수	미수록			
권2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和李功甫	1수	미수록			
2	訪士說夜宿	1수	미수록			
3	與子文雨坐	1수	미수록			
4	古人或賦落花而皆未能曲盡情態. 元靈以爲曾見『沈石田集』, 有賦落花詩, 其力量殆不可及云, 而竟未知果何如也. 春序已晏, 滿庭皆花, 吾輩皆失意之人, 愁慨不自定. 偶然酬唱, 各成幾篇, 抑未知最失意境得最得意詩否也.	5수	미수록			
5	三月十九日, 與損齋及義卿子文舜擧諸人, 游三湖亭子, 仍送義卿移家之行	2수	27	三月十九日 與損齋及義卿子文舜擧諸人游三湖亭子	6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5,6수 수록

6	次錦平尉壽席韻	1수	미수록			
7	三洲與持卿觀落梅, 仍送洪舜擧之春州	2수	미수록			
8	發程	1수	미수록			
9	鳥嶺	2수	미수록			
10	聞慶	2수	미수록			
11	永川朝陽閣	1수	미수록			
12	西倉風雪	1수	미수록			
13	忠烈祠	1수	미수록			
14	釜山	1수	미수록			
15	賓日軒	1수	미수록			
16	海雲臺	1수	미수록			
17	次霄字	1수	미수록			
18	次花字	1수	미수록			
19	沒雲臺	1수	미수록			
20	太宗臺	1수	미수록			
21	賜讌	1 2수	미수록			
22	祭海	1수	미수록			
23	粧船	1수	미수록			
24	吹打	1수	미수록			
25	上船	1수	미수록			
26	三使臣	1수	미수록			
27	幕賓	1수	미수록			
28	三僚	1수	미수록			
29	譯士	1수	미수록			
30	技藝	1수	미수록			
31	舟子	1수	미수록			

32	倭人	1수	미수록			
33	開洋	1수	미수록			
34	還泊	1수	미수록			
35	自述	1수	미수록			
36	開洋分韻沒咸字	1수	미수록			
37	又分韻	1수	미수록			
38	千本松	1수	미수록			
39	富士山次英長老	1수	미수록			
40	箱根嶺次翠巖	1수	미수록			
41	次芝林	2수	미수록			
42	贈越緝	1수	미수록			
43	贈葦田惇敍	1수	미수록			
44	富士山	5수	미수록			
45	光淸寺	1수	미수록			
46	西山寺	6수	미수록			
47	高照山十景	1 0 수	미수록			
48	次元靈見寄韻	1수	미수록			
49	將壇	1수	미수록			
50	次使相韻	1수	미수록			
51	過朴仁則-敬行-寓次	2수	미수록			
52	過子文寓次	2수	미수록			
53	釜山別金克讓歸洛	2수	미수록			
54	上元泛前泮	2수	미수록			
55	次翠巖長老	1 0 수	미수록			
56	琶湖四時冬詞分景	1수	미수록			
57	雪	1수	미수록			
58	晴嵐	1수	미수록			

59	赤間關席上次韻	1수	미수록			
60	緱山	1수	미수록			
61	中山	1수	미수록			
62	子文寓次	1수	미수록			
63	和潁川	3수	미수록			
64	過子文寓次	2수	미수록			
65	弼雲陪趙損齋看花	2수	32	弼雲與損齋看花	4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2,3수 수록
66	除夕前一日與李生同賦	2수	미수록			
67	竹西夜集	1수	미수록			
68	廣津泛月宿松坡	1수	미수록			
69	廣津	2수	미수록			
70	蕉研齋酬沈伯修念祖	2수	31	蕉研齋春雨	2수	
71	內資署	1수	미수록			
권3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陪損齋相公與趙持卿蔡景洪-希範-南時韞-玉-賦梅各四十首	40수	26	損齋雪夜, 與持卿及南時韞蔡景洪共賦梅花各四十首	40수	
2	國衙夜會, 與洪大囿-樂仁-共賦	1수	미수록			
3	宿蕉研齋	1수	34	宿蕉研齋	2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제1수 수록
4	沈伯修元子承同過	1수	미수록			
5	桐江亭子與子承作	12	미수록			

		수				
6	崔士謙山齋	4수	미수록			
7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翬良-按節關西, 俯索贐, 語曰:“篇數宜多.” 且謂:“西土佳麗可觀. 一遊. 其有意乎?” 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1 5 수	35	窮居無聊, 風雅之道索然, 大宗伯鄭公按節關西, 俯索贐, 語曰篇數宜多.且謂 西土佳麗可觀一遊. 其有意乎?嗟乎, 浮生匏繫, 困頓泥土, 鬱鬱無適意事. 仗公之惠, 秋至西下, 縱覽江山亭館之勝, 以散牢愁, 固不辭耳. 謹賦近體十五篇, 錄呈節下, 迤及樂浪勝槩, 以倣蘇子瞻免作廬山生客也	15수	
8	陪翼齋洪判書拈韻	1수	36	與翼齋洪尚書拈韻	1수	
9	夏日過洪大囿	2수	37	夏日過洪洗馬拈韻	2수	
10	國衕小集	1수	미수록			
11	又拈-屬拙翁盧天若	1수	미수록			
12	過稷下士謙宅	2수	미수록			
13	出門	2수	38	出門	2수	
14	弘濟院	1수	39	弘濟院	1수	
15	臨津	1수	42	臨津	1수	

16	松都	1수	43	松都	1수	
17	青石洞	1수	44	青石洞	1수	
18	猪灘	1수	45	猪灘	1수	
19	葱秀	1수	46	葱秀	1수	
20	練光亭	1수	47	練光亭	1수	
21	驢島觀獵	2수	48	驢島觀獵	2수	
22	發龍灣宿九連	2수	49	發龍灣宿九連	2수	
23	入柵	1수	50	入柵	1수	
24	八渡河	1수	51	八渡河	1수	
25	發通遠堡宿連山	1수	52	發通遠堡宿連山	1수	
26	會寧嶺	1수	54	會寧嶺	1수	
27	青石嶺	1수	55	青石嶺	1수	
28	遼野	1수	56	遼野	1수	
29	遼野寄子承	2수	57	遼野寄子承	2수	
30	白塔	1수	58	白塔	1수	
31	曉發大霧中	1수	59	曉發大霧中	1수	
32	瀋陽	1수	60	瀋陽	1수	
33	周流河	1수	61	周流河	1수	
34	白旗堡大風	1수	62	白旗堡大風	1수	
35	小凌河	1수	63	小凌河	1수	
36	松山堡	1수	64	松山堡	1수	
37	杏山堡	1수	65	杏山堡	1수	
38	山海關	1수	66	山海關	1수	
39	山海關關帝廟見孫高陽筆蹟	1수	67	山海關關帝廟見孫高陽筆蹟	1수	
40	祖大壽牌樓	1수	68	祖大壽牌樓	1수	
41	榛子店	1수	69	榛子店	1수	
42	太和殿元日	1수	70	太和殿元日	1수	

43	定日回程志喜	1수	71	定日回程志喜	1수	
44	出正陽門	1수	미수록			
45	盤山	1수	73	盤山	1수	
46	高麗堡	1수	74	高麗堡館	1수	
47	右北平	1수	75	右北平	1수	
48	望海亭	1수	77	望海亭	1수	
49	西遊戲筆	1수	미수록			
50	發行	1수	미수록			
51	高陽	1수	미수록			
52	望松江墓	1수	78	望松江墓	1수	
53	松都	1수	미수록			
54	金川	1수	미수록			
55	平山	1수	미수록			
56	葱秀	1수	미수록			
57	瑞興	1수	미수록			
58	洞仙嶺	1수	미수록			
59	鎭邊軒夜觀女樂	4수	미수록			
60	次主尹李令公-潭-韻	1수	미수록			
61	統軍亭	3수	미수록			
62	聚勝堂	1수	미수록			
63	壽星村	1수	미수록			
64	見京書戲占	1수	79	見京書戲占	1수	
65	夜上統軍亭	4수	미수록			
66	上元夜與主尹浿丞乘雪馬遊鴨江	1수	미수록			
67	龍灣晩眺	1수	미수록			
68	簡洪學士大囿	3수	미수록			
69	夜與主尹同賦	1수	미수록			
70	獨上統軍亭有感口占	2수	미수록			

71	別灣府主尹送, 至城外南厓	6수	미수록			
72	灣妓鱗憑某學士所眄, 守紅. 靡他者, 聞已經歲云. 余到府中數朔, 輒來繾綣. 盖以元賓之所與也. 暮春余馬東首, 諸妓皆自南厓而返. 鱗也獨追送於三十里外, 臨去灑淚不能舍, 感其意, 書贈小絶	1수	미수록			
73	鐵山	1수	미수록			
74	納淸亭	1수	미수록			
75	嘉山望尹家村	1수	미수록			
76	曉星嶺	1수	미수록			
77	道中有便, 寫寄使君	2수	미수록			
78	博川江(嘉山界)	1수	미수록			
79	百祥樓	1수	미수록			
80	感懷	3수	미수록			
81	記見	1수	미수록			
82	錄奉灣上	2수	미수록			
83	平壤	1수	미수록			
84	渡大同江	1수	미수록			
85	戲占	1수	미수록			
86	黃州	1수	미수록			
87	葱秀	1수	미수록			
88	金川望鶴南鄭相公墓有感	1수	80	金川望鶴南鄭相墓有感	1수	
89	夕過滿月臺	1수	81	夕過滿月臺	1수	

90	臨齋尹副學墓有感	2수	82	臨齋尹副學墓有感	2수	
91	柳景昌-聖趾-宅會時韞, 塞後初見	2수	미수록			
92	送安岳李使君-瀰	2수	미수록			
93	夕過蕉齋	1수	미수록			
94	社谷月夜	4수	83	社谷月夜	4수	
95	趙樂天-榮健-自湖中至夜會社谷	1수	미수록			
96	時韞宅同柳景昌賦	2수	미수록			
97	更酬時韞	1수	미수록			
98	蘖溪友人過	1수	미수록			
권4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景昌宅賦紅梅一花始開	3수	미수록			
2	過子文看梅	4수	미수록			
3	蕉齋梅	3수	84	與沈伯修看梅	3수	
4	不到稷下有日, 今年只餘半旬, 意殊忽忽, 借騎夕尋主人, 明將襆被新署, 秉燭相看, 各有靈芝歲暮之感	2수	미수록			
5	簡謝安岳李使君	1수	미수록			
6	北洞夜用槎川稿中韻	1수	미수록			
7	上元	2수	미수록			
8	送人赴燕	5수	85	送人赴燕	5수	
9	送洪志哉-希泳-從往燕中	5수	86	送洪志哉從往燕中	5수	

10	齋谷夜遇申寢郎-光洙-不見已數十年	3수	87	齋谷夜遇申寢郎-光洙-不見已十數年	3수	
11	柳景昌宅	1수	미수록			
12	訪時韞	1수	미수록			
13	弼雲賞春	1수	미수록			
14	崔李南洪太常西園	2수	미수록			
15	夜過柳景昌	1수	미수록			
16	三月望日與柳崔李南洪諸人遊疊翠臺夕到掌苑署	4수	88	三月望日與柳李南洪諸人遊疊翠臺夕到掌苑署	5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제1,2,3,4수 수록
17	社園暮春	2수	미수록			
18	失題	1수	미수록			
19	新谷	3수	미수록			
20	南殿夜酬時韞-二首	2수	미수록			
21	送南時韞以製述官赴日本	3수	미수록			
22	送通信上使徐淡翁-命膺	1 9수	90	送通信上使徐淡翁-命膺	19수	
23	集南齋	1수	미수록			
24	陪翼齋聯句	1수	미수록			
25	用前韻	1수	91	與翼齋共賦 其一	1수	『우념재시문초』에는 「用前韻」, 「翼齋共賦」라는 다른 제목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우념재시고』에는

						「與翼齋共賦」라는 동일한 제목 아래 두 수가 수록
26	翼齋共賦	1수	91	與翼齋共賦 其二	1수	
27	疊前韻, 酬盧天若	1수	미수록			
28	上元	1수	미수록			
29	看花分韻	2수	미수록			
30	輓子文	4수	미수록			
31	臘月旣望	1수	미수록			
32	春日南洞	3수	미수록			
33	橋南	2수	미수록			
34	四月九日居今堂小集	1수	미수록			
35	雨後	2수	미수록			
36	秋日	1수	미수록			
37	旣夕	5수	미수록			
38	北里	3수	미수록			
39	秋日居今堂	2수	미수록			
40	秋後又集	1수	미수록			
41	梨園	1수	미수록			
42	冬日偶集	1수	미수록			
43	陪翼齋相公遊花開洞	1수	미수록			
44	李令人輓	1수	미수록			
45	過子承新居	2수	미수록			
46	子承宅雨夜	7수	미수록			

47	過仁則夜飮	9수	106	與仁則同賦	4수	『우념재시고』 수록 시 4수는 차례대로 『우념재시문초』 수록시의 제3,4,6,8수임.
권5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芙蓉堂與李巡相-潭-同賦	12수	92	芙蓉堂與巡相同賦	12수	
2	春日	1수	미수록			
3	閏春夜	1수	미수록			
4	子承宅與仁則拈韻	8수	미수록			
5	晩春子承宅	4수	미수록			
6	過仁則	3수	미수록			
7	四月五日	1수	미수록			
8	七月初吉雨中	2수	미수록			
9	換凡齋	2수	미수록			
10	子承宅拈韻	4수	미수록			
11	與洪仲循-樂信-叔道-樂任-盧如臨-兢-諸人會賦	7수	미수록			
12	過仁則	3수	미수록			
13	西京仲冬與留相元判書-仁孫-共賦	12수	93	西京仲冬與留相同賦	15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제1,2,4,6,7,8,9,

						10,11,12,13,14수 수록
14	華藏寺	2수	94	華藏寺	3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제 2,3수 수록
15	聖壽庵	1수	95	聖壽庵	2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제 2수 수록
16	與仁則同賦	5수	108	與仁則又賦	5수	
17	春日雜詠	6수	미수록			
18	重陽後夜過子承與仁則洪徽之-愼猷-作	6수	107	重陽後夜與子承朴仁則洪徽之同賦	8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제 1,2,3,5,6,7수 수록.
19	換凡齋復會	1 1수	96	與子承及仁則共賦	4수	『우념재시고』 수록시 중 1,2수는 『우념재시문초』에 실리지 않고, 3,4수가 『우념재시문초』 시의 제 8,9수에 해당함. 『우념재시문초』 수록시 중 8,9수

						를 제외한 나머지 9수는『우념재시초』에 실리지 않음.
20	與人拈韻	1수	미수록			
21	安窩與拙翁賦	2수	미수록			
22	洪仲循宅餞元子承之任瑞興	1수	미수록			
23	與仲循共賦	1수	미수록			
24	洪侍郎東園	2수	미수록			
25	暮春與洪叔道諸人賦落花	8수	97	暮春與洪穎草及諸人共賦落花	8수	
26	洪應敎-景海-遷葬輓	7수	미수록			
27	叔道宅如臨洪士敍 -疇漢-共賦	1수	미수록			
28	燒酒陶甁 聯句	1수	미수록			
29	與時韞仁則同作	4수	미수록			
30	臘前一日仁則過	3수	미수록			
31	送仁則之任興海-三首	3수	미수록			
권6	제목	편수	『우념재시고』 수록 여부	『우념재시고』 제목	『우념재시고』 수록 편수	비고
1	元月十日	1수	미수록			
2	太常言別	3수	미수록			
3	武溪洞	1수	미수록			
4	高陽店	1수	미수록			

5	惠陰嶺	1수	미수록			
6	花石亭	2수	미수록			
7	臨碧亭	1수	미수록			
8	杜谷	2수	미수록			
9	崧陽懷古	5수	미수록			
10	暎水屛	1수	미수록			
11	冒雨入寶山驛	1수	미수록			
12	葱秀	1수	미수록			
13	到郡齋	1수	미수록			
14	次杜工部秋興韻	8수	미수록			
15	三月初六	5수	미수록			
16	歸眞寺	4수	미수록			
17	月波樓	1수	미수록			
18	玉溜泉	1수	미수록			
19	寶山驛留別盧丞-允中	3수	미수록			
20	與時韞同閱『簡易集』次卷中韻	8수	98,99	“與時韞同閱『簡易集』次卷中韻”이라는 제목으로 1~4수 4수, “翌日時韞疊同前韻走次却寄”라는 제목으로 5~8수 4수 수록됨.	8수	
21	時韞復以前韻賦望月相寄遂次之	6	100	時韞復以前韻賦望月相寄遂次之	6수	
22	時韞以旣望不能效赤壁蠶頭古事爲恨, 疊前韻又次之	2	101	時韞以旣望不能效赤壁蠶頭古事爲恨, 疊前韻又次之	2수	

23	時韞又以强韻相困, 强滿五疊而止, 夸多鬬靡, 非老病者事也	4	102	時韞又以强韻相困, 强滿五疊而止, 夸多鬬靡, 非老病者事也	4수	
24	江樓與元判書同賦	10	103	江樓與元尙書同賦	10수	
25	東郊與時韞同賦	10	104	東郊與時韞同賦	10수	
26	雪中穎草齋與時韞仲循叔道作	4수	미수록			
27	穎墅聯句	1수	미수록			
28	池上聯句	2수	미수록			
29	洪侍講叔道因南時韞送韻要和, 追述曩游拚和却寄	1 6 수	105	穎草齋與如臨時韞共賦	16수	
30	句		미수록			

59) 『우념재시고』에 수록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록이라고 표기하였다. 수록되었을 경우에는 『우념재시고』의 몇 번째 시인지 숫자를 적었다.

<부록 2>『매사오영』에 실린 평어(評語)

아래 표는『매사오영』에 실린 이봉환과 조재호의 평어를 시의 제목과 작자 이름 옆에 밝힌 것이다. 기존 신익철 교수의 작업을 참고하였고,[60] 글자 해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제목	작자	평자	평어	비고
1	梅邊初集拈杜韻罷後各賦	趙維鎭	李鳳煥	極似杜落	杜甫
2		蔡希範	李鳳煥	1) 平常語說得老鍊 2) 花政	
3		南玉		없음	
4	其二	南玉	李鳳煥	貞思竗觧, 發淂韞藉	
5	至後一日寒劇疊前韻問梅	南玉	李鳳煥	花醫	
6	答	趙維鎭	李鳳煥	情緒繞筆, 如游絲近人	
7		蔡希範	李鳳煥	運用難及	
8	其二	蔡希範	李鳳煥	眞切	
9	疊前韻和宗制士鼎說吾家梅會舊事	趙維鎭	李鳳煥	磊落動人	
10	追次梅邊初集韻	趙載浩	李鳳煥	刊去粉澤, 地步恢遠	
11	追次答問梅韻	趙載浩	李鳳煥	高遠	
12	追次吾家梅會舊事韻	趙載浩	李鳳煥	全篇似杜	杜甫
13	第二集拈杜韻賦梅	趙維鎭	李鳳煥	竗思抽繭	
14		南玉	李鳳煥	尋常材料收拾淸靚	
15	其二	南玉	李鳳煥	工鍊似劉後村	劉克莊
16		趙維鎭	李鳳煥	心細筆妙	
17	其二	趙維鎭	李鳳煥	寫淂淸深, 不野不峭	

60) 「『梅社五詠』의 諸評」이라는 제목으로 신익철,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한국문학연구』3, 한국문학연구소, 2002)에 부록되어 있다.

18		蔡希範	李鳳煥	圓活而入細	
19		蔡希範		없음	
20	追次	趙載浩	李鳳煥	遒曠沉健	
21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淸峻生動 2) 筆力莊重	
22	第三集賦夜梅, 就暗香浮動月黃昏用昏字	南玉	李鳳煥	妙思	
23		趙維鎭	李鳳煥	1) 巧妙寫照 2) 絶唱妙思	
24		蔡希範	李鳳煥	禿筆細畵, 非老手不能	
25	追次	趙載浩	李鳳煥	淵翁神韵	金昌翕
26	靑橋臘月初吉夜拈韻賦梅	趙載浩	李鳳煥	1) 遒峻渾成 2) 氣活骨勁, 純用杜格	杜甫
27		蔡希範	李鳳煥	1) 運用襯帖 2) 圓轉不泥理勝於詞	
28		南玉	李鳳煥	澤縝淵沉, 略有彷彿	
29		趙維鎭	李鳳煥	1) 起淂勁邁, 簡齋多用此法 2) 善爲晩梅回護 3) 句句用力, 人工深到	陳與義
30	夜會賦花盛用杜律冷蘂踈枝半不禁韻	蔡希範	李鳳煥	質而不俚	
31		南玉		없음	
32		趙維鎭	李鳳煥	1) 沉鬱蒼整, 得杜形質 2) 狀物極工, 妙思逼神	杜甫
33	追次	趙載浩	李鳳煥	洗發神情, 警策響亮	
34	未見其題, 只次其韻. 稍似欠眞玆用續成	趙載浩	李鳳煥	一氣呵成, 沉健頓挫	
35	靑橋梅集後寄諸君	趙載浩	李鳳煥	1) 起得翛然 2) 結又徘徊不盡	

36	其二	趙載浩	李鳳煥	絶似淵翁	金昌翕
37	其三	趙載浩	李鳳煥	1) 根深格秀，不煩斧鑿 2) 運思深透，托致高遠	
38		蔡希範		없음	
39	其二	蔡希範	李鳳煥	安排得地，圓暢老成	
40	其三	蔡希範	李鳳煥	脫去彫飾，圓轉有致	
41		南玉	李鳳煥	眼前境 筆頭妙	
42		南玉	李鳳煥	烱而峭	
43		南玉	李鳳煥	淸警	
44		趙維鎭		없음	
45		趙維鎭	李鳳煥	苦思無凡矚	
46		趙維鎭	李鳳煥	1) 縋深據險，摘妙入細 2) 追琢刻厲，一何耿介	
47	靑橋臘八夜，拈韻賦梅	趙載浩	李鳳煥	1) 色相怳惚，聲韻動盪 2) 寫入微妙	
48		李鳳煥	趙載浩	幽靚怳惚，宛然神女圖	
49		南玉	李鳳煥	逼骨	
50		趙維鎭	李鳳煥	苦心鍊語	
51	再疊	趙載浩	李鳳煥	1) 爽朗豪上 2) 高視絶唱，無物挂念	
52		李鳳煥	趙載浩	態度雍容，不露手勢	
53		南玉	李鳳煥	1) 善觀花 2) 良工苦心	
54		趙維鎭	李鳳煥	1) 一幅閨怨圖 2) 非諦觀，難獲創語	
55	入直未赴第二飮，追次兩首	蔡希範	李鳳煥	1) 圓贍 2) 平泛中自難及	
56	其二	蔡希範	李鳳煥	老實平整	
57	附追次諸韻	李鳳煥	趙載浩	1) 頸聯落句一氣渾成，便有勿忘勿助意	

58	其二	李鳳煥	趙載浩	善收殺	
59	其三	李鳳煥	趙載浩	1) 一部梅贊，發揮無餘 2) 一幅梅眞，摹寫如生 3) 何等感慨	
60		李鳳煥	趙載浩	1) 造語逼杜 2) 花神自道，輪回良苦	杜甫
61	其二	李鳳煥	趙載浩	1) 工 2) 慧辯之極，故作癡語	
62		李鳳煥	趙載浩	精鍊入細	
63		李鳳煥	趙載浩	平易澹蕩，風韻自動	
64		李鳳煥	趙載浩	1) 館閣高手 2) 有觧	
65	其二	李鳳煥	趙載浩	餘響裊裊	
66		李鳳煥	趙載浩	初年本色故在	
67	其二	李鳳煥	趙載浩	1) 有地步 2) 人乎梅乎，相知者深	
68	其三	李鳳煥	趙載浩	足令窮儒增氣	
69	青橋臘之小望，拈韻賦梅	趙載浩	李鳳煥	神韻決起，如折枝生花	
70	其二	趙載浩	李鳳煥	氣格稜透，多少警策	
71		南玉		없음	
72	其二	南玉	李鳳煥	筆細	
73		趙維鎭	李鳳煥	置白老蒼，較陸遒潔	陸游
74	其二	趙維鎭	李鳳煥	造微闡妙	
75	又疊前韻	趙載浩	李鳳煥	1) 高情遠韵，惆悵歔欷 2) 秀語森然整暇 3) 灑灑欲動	
76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實際語寫得有光景 2) 幽鮮蒼肅，神思竦峙	
77		趙維鎭	李鳳煥	着眼於人所放過	

78		趙維鎭	李鳳煥	窮山絶峽, 幻出奇觀	
79		南玉	李鳳煥	神怡心醉, 優入天機	
80	其二	南玉		없음	
81	追次	蔡希範	李鳳煥	1) 稍冶而發得妙 2) 秀峻有遠勢	
82	其二	蔡希範	李鳳煥	妙而遠	
83	其三	蔡希範	李鳳煥	平說妙鮮, 不尖不薄	
84	其四	蔡希範	李鳳煥	質而不俚, 緩而不慢, 極覺老神	
85	追次	李鳳煥	趙載浩	雖似小品, 亦自佳	
86	其二	李鳳煥	趙載浩	有情儂消冤	
87	其三	李鳳煥	趙載浩	1) 隨境饒思, 多臻其妙 2) 悟	
88	其四	李鳳煥	趙載浩	頷聯放翁, 頸聯香山	陸游 白居易
89	臘之十七夜拈韻賦梅	趙載浩	李鳳煥	奧思秀筆, 不掩勁蒼	
90	其二	趙載浩		없음	
91		蔡希範		없음	
92		蔡希範		없음	
93		李鳳煥	趙載浩	平語亦自有味	
94	其二	李鳳煥	趙載浩	巧匠心苦	
95		南玉	李鳳煥	幽眇之思	
96	其二	南玉		없음	
97		趙維鎭		없음	
98	其二	趙維鎭	李鳳煥	1) 細心峭筆, 鉤來幻境 2) 刻鏤到骨	
99	疊前韻雪中賦梅	趙維鎭	李鳳煥	1) 亦可謂人力勝天 2) 極新極細, 妥坐竿頭	
100	其二	趙維鎭	李鳳煥	1) 妙絶透神	

				2) 隱隱梵響, 陣陣異香	
101	次持卿雪中賦梅韻	趙載浩	李鳳煥	1) 淸眞寫影脉脉透悟 2) 玲瓏滿眼, 流轉脫手	
102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白描移神, 玲瓏映發 2) 神動天隨 3) 掃空無蘊, 波折有神	
103		蔡希範	李鳳煥	有致	
104	其二	蔡希範	李鳳煥	1) 郛郭不窄 2) 老健善運用	
105		李鳳煥	趙載浩	響亮而有力	
106	其二	李鳳煥	趙載浩	左右逢原, 滾滾其勢	
107		南玉	李鳳煥	西崑刻鏤, 工麗盡意	西崑體
108	其二	南玉	李鳳煥	藻思溢發, 刱語山出	
109	曉枕又思別韻, 賦梅要和	趙載浩	李鳳煥	筆舌游戲, 蜿蜿欲動	
110	朝見大雪成堆, 開閤賞梅, 拈韻更賦, 寄諸君	趙載浩	李鳳煥	1) 一氣淸空, 筆下無塵 2) 晃朗景色, 幽峭精神 3) 風致脫灑	
111	又拈別韻	趙載浩	李鳳煥	1) 端蘊 2) 輝映心腑, 掃空根塵	
112	敬次曉枕得別韻	趙維鎭	李鳳煥	執謙宜俗, 造語不套	
113	敬次雪後詠梅兩韻	趙維鎭	李鳳煥	用盡氣力, 竟拿造化	
114		趙維鎭		없음	
115	謹次東閤雪梅韻	蔡希範	李鳳煥	三老祭酒, 忽作淸談	
116		蔡希範		없음	
117		蔡希範	李鳳煥	1) 意匠深奧, 景色輝映 2) 又作悟解, 無所不能	
118	謹次東閤雪梅韻	李鳳煥	趙載浩	1) 極力探索, 無所不到 2) 梅雪感通, 妙在傳神	
119		李鳳煥		없음	

120		李鳳煥		없음	
121	感疾伏枕已斷梅緣，東閤南鄰並送新韻，呻囈中亂思以次	南玉	李鳳煥	巧慧通神，承應如意	
122	憶是夜梅會	南玉	李鳳煥	僊凡之際，筆舌分開	
123		南玉	李鳳煥	格力蒼健，思致幽婉	
124	臘之二十一夜，拈韻賦梅	趙載浩	李鳳煥	筋老骨蒼，得杜之神	杜甫
125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深情遠韵，寫出警秀 2) 韻折流動	
126		蔡希範	李鳳煥	佳	
127	其二	蔡希範	李鳳煥	有品	
128		李鳳煥	趙載浩	鉤發本情，梅神點頭	
129	其二	李鳳煥	趙載浩	花高筆亦高	
130		趙維鎭	李鳳煥	1) 悚然驚人 2) 細 3) 微婉	
131	其二	趙維鎭	李鳳煥	純杜	杜甫
132	諸益歸後，又疊前韻	趙載浩	李鳳煥	1) 如臨鏡中 2) 鎔鍊神采 3) 氣力如捍門鬪水	
133	梅筵見畵美人障，歸後承下送梅詩，詠及畵障，仍以此爲題，成第三疊	趙維鎭	李鳳煥	1) 懸軍棧道，士無人色 2) 極悟處，作極拙語	
134		蔡希範	李鳳煥	所不可當者，筆勢平遠	
135		李鳳煥	趙載浩	巧而細，凡口道不得	
136	病中又次梅會韻三疊，又一疊以足前逋.	南玉	李鳳煥	郊島奪色	孟郊 賈島
137	其二	南玉	李鳳煥	劈鮮極專	
138	其三	南玉	李鳳煥	辭氣鄭重	
139	其四和新挂美人圖	南玉	李鳳煥	據險	

140	花老詩二首呈農谷	趙維鎭	李鳳煥	1) 妙思洞玄 2) 宜花之枯	
141	其二	趙維鎭	李鳳煥	頓挫	
142	次持卿花老詩韻	趙載浩	李鳳煥	1) 超越自運, 神情軒擧 2) 筆力愈放愈厚	
143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寫出難寫如笑如顰 2) 樂意相關, 生香不斷 3) 工緻不套	
144		李鳳煥	趙載浩	如怨如訴	
145		李鳳煥		없음	
146		蔡希範	李鳳煥	老匠	
147	其二	蔡希範	李鳳煥	磊落人作細碎語	
148		南玉	李鳳煥	精神透射, 悟解專一	
149	其二	南玉		없음	
150	朝見閤梅頓衰拈韻又賦寄諸君	趙載浩	李鳳煥	1) 俯仰瀏灑, 有一唱三嘆之旨 2) 焂顯焂晦, 言下灑落 3) 惆悵蕭颯, 無限情致	
151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如舞如瑟, 緩迥相感 2) 闢開蜃樓, 亂墜曇花 3) 風調不得不平運 4) 收拾是游龍手	
152	敬次農谷閤梅頓衰韻	趙維鎭	李鳳煥	單刀赴會, 沉勇在神	
153	其二	趙維鎭	李鳳煥	1) 天然邂逅無限幽怨 2) 刻露淸秀	
154		蔡希範	李鳳煥	宛轉篤厚	
155	其二	蔡希範	李鳳煥	老鍊無罅, 兼有風韻	
156	其三	蔡希範		없음	
157		李鳳煥	趙載浩	如蚕抽絲	
158	其二	李鳳煥	趙載浩	1) 繁麗流轉	

				2) 徘徊太息, 無限情思 3) 性理語渾爲一色	
159	翊日東閤又寄花衰韻二疊, 病中謹次	南玉	李鳳煥	1) 理致盎厚 2) 警思	
160	其二	南玉	李鳳煥	1) 精到 2) 絃中之舌	
161	臘之廿四夜, 與持卿拈韻, 賦落梅. 以諸君不至, 無聊而罷. 翊日始成三疊, 各示要和	趙載浩	李鳳煥	弄淂自然淸遠	
162	其二	趙載浩	李鳳煥	1) 杜之眞朴處 2) 語緩意苦	杜甫
163	其三	趙載浩	李鳳煥	1) 眼花撩亂, 耳根靈通 2) 古來詠梅者, 何曾道淂 3) 結淂空灑	
164		趙維鎭	李鳳煥	渾成苦調	
165	其二	趙維鎭	李鳳煥	水落石出	
166	其三	趙維鎭	李鳳煥	1) 神境 2) 窈而巧 3) 沉鬱	
167		蔡希範		없음	
168	其二	蔡希範	李鳳煥	1) 悟頭 2) 天成, 不見斧鑿	
169	其三	蔡希範		없음	
170		李鳳煥	趙載浩	猛手陶鑄	
171	其二	李鳳煥	趙載浩	工部典刑	杜甫
172	其三	李鳳煥		없음	
173	病中謹次落梅詩韻	南玉	李鳳煥	婉曲旖旎	
174	其二	南玉	李鳳煥	宛至	

175	其三	南玉	李鳳煥	苦楚幽獨	
176	又成落梅詩三首各拈別韻	趙維鎭	李鳳煥	一何深造	
177		趙維鎭	李鳳煥	思致工妙，危而不墮．藝至於此，可謂手探足躡	
178		趙維鎭	李鳳煥	情思滿肚，無可奈何	
179		趙載浩	李鳳煥	傳神活動，極奇極化	
180		趙載浩		없음	
181		趙載浩	李鳳煥	刱語	
182		南玉		없음	
183		南玉	李鳳煥	1) 窮搜力探，從何打入 2) 凄奇動魄	
184		南玉	李鳳煥	妙絶苕穎	
185		李鳳煥	趙載浩	愈出愈奇，境自不窮	
186		李鳳煥	趙載浩	1) 骯髒過峻 2) 一唱三嘆，志士堪涕	
187		李鳳煥		없음	
188		蔡希範	李鳳煥	老手完緻	
189		蔡希範		없음	
190		蔡希範		없음	
191	臘之廿七夕拈韻共賦落梅	趙載浩	李鳳煥	1) 起得古雅整厚 2) 金聲玉振，煞用一番精神	
192	又拈別韻	趙載浩	李鳳煥	淵永靈秀，質采咸備	
193		趙維鎭	李鳳煥	1) 人所不知，獨自尋覈 2) 眉宇吐奇，舌端含竗	
194	又拈別韻	趙維鎭	李鳳煥	沈着幽遠	
195		李鳳煥	趙載浩	1) 深於觀物，能識體用 2) 可以人而不如	
196	又拈別韻	李鳳煥	趙載浩	織錦手段	

197		南玉	李鳳煥	1) 巧 2) 化腐爲神	
198	又拈別韻	南玉	李鳳煥	一副肝腸滿貯靈通	
199	追次餞落梅韻	蔡希範	李鳳煥	1) 優歌鮮頤發源簡兮 2) 多少老神	『詩經』<邶風>「簡兮」
200	又拈別韻	蔡希範	李鳳煥	沉厚可諷	

Abstract

Life and Works of Yi Bong Hwan

Lee, Kyungk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and works of Yi Bong Hwan(李鳳煥, 1710~1770). The main part of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our chapters: His biography(Ch. II), literature(Ch. III), insights permeated through his works(Ch. IV), and the reappraisal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poetry and prose in Chosun literature(Ch. V).

In Chapter II on his biographic and social relationship, I focus on the fact that he was a *seoeol*(庶孽), concubinary son born to a literati family in Chosun. Due to his natal status, he could make and keep close relationships not only with other *seoeols* but also with *beolyeol sadebu*(閥閱士大夫), renowned literati families, as they needed and recognized his competencies on creative writing.

In Chapter III, I analyze his two kinds of works associated with two particular events. One is his written conversation with Japanese literati during the period of his public service of *Tongsinsa*(通信使), Chosun's envoy to Japan in 1747~48, This real-time correspondence included poetry and prose. The other is his poems and criticisms written especially when

he was invited to *Maesa*(梅社), the poetry writings in apricot blossom parties in 1754.

During his visit in Japan, Yi Bong Hwan served as a secretary of the chief of *Tongsinsa*. He created poems and prose and exchanged them with Japanese literati. In his correspondence with Japanese literati, he unfolded the orthodox idea of Neo-Confucianism(*Seonglihak*) and *Jaedoron*(載道論), a theory viewing the poetry as a container of Tao(道).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was a summary of basic views on the literature and science of *sadebu*. As he had not had such an opportunity to represent Chosun's *sadebu* in general before, it was his first moment to publicly identify and assimilate himself with Chosun's mainstream views in front of foreigners. The public identity forged in his service of *Tongsinsa* reemerged when he went to China as a military assistant of the chief *Dongjisa*(冬至使) in 1760~61. Although it was not his official task, he exchanged his views on works and writers of Ming and Qing dynasties with Chinese mandarins.

It is notewothy that the chief in charge of both *Tongsinsa* and *Dongjisa* envoys was Hong Kye Hee(洪啓禧). Born to the family of Hong from Namyang, he was a renowned literati. Hong Kye Hee recognized Yi Bong Hwan's literary competencies and personal loyalty, so that they could enter a close patron-client relationship.

But their patron-client relationship was not something total and exclusive. Out of the public sphere, Jo Jae Ho (趙載浩) took up the role of patron. But his patronage was more nuanced and implicit than that of Hong Kye Hee as it was unfolded in the area of lifeworld. Jo Jae ho invited Yi Bong Hwan to *Maesa*(梅社), the poetry writings held in the season of apricot blossoms in 1754. Including Jo Jae ho himself, five members participated in *Maesa*. The invitees mainly came from renowned family members of *soron*(少論) and *seoeol* literati. But all of them shared

the characteristic of frustrated intellectuals who were competent enough to take charge of public offices but underprivileged in reality. From the moment of opening buds to that of falling blossoms, they met seven times a month to create and criticize poems on apricot blossoms. Each participant had to create forty poems, so it was not so easy. Especially so, if we consider the conditionality of creation, of which the topic was exclusively confined to the apricot blossom. Through this hardworking poetry creation experience, Yi Bong Hwan could identify himself with a poet. His poems were extraordinary among those of peers, so he was designated as the critic of poems written by four other participants. Jo Jae ho, the elder of *Maesa* delivered his own peer review only for the poems of Yi Bong Hwan.

Behind the works by Yi Bong Hwan, we can see the fact that patron-client relationship play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heres. As Hong Kye Hee recruited Yi Bong Hwan for the envoys to Japan and China, Jo Jae Ho invited him to *Maesa*. And both Hong and Jo were *beolyeol sadebu*, so that we can see that Yi Bong Hwan's literature could not be produced as we know it without their patronage. It would be reasonable to surmise that this situa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his natal status of *seoeol*.

Chapter IV raises three questions on Yi Bong Hwan's oeuvre and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How did he view and represent his own life? How did he view and represent others? And how did he view and represent non-human others, especially apricot blossoms? First, Yi Bong Hwan's self-consciousness is complicated and ambivalent. He was frustrated by his own misery, but showed a transcendental attitude toward the recognition of his competencies by others. While he affirmed his own life by tolerating his low and ill-paid positions of public offices, he dreamed of otherworldly life. Second, he felt a sympathy for those

who failed to achieve success, so that he could make intellectual and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his own peers from different natal backgrounds, whether of *seoeol* or of *beolyeol sadebu*. And third, when he described apricot blossoms, he tried to project his noble spirit in each line of poems. Especially, he acclaimed the beauty of the natural order of things and landscapes which were not contaminated by anthropogenetic orders. By a symptomatical reading, we can understand it as an ideal confrontation of the natural order with the actual rule of *sadebu* of Chosun.

Finally, Chapter V attempts to spec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Yi Bong Hwan's poetry and prose. First of all, his literature has a value of historical data to show explicitly the way of self-realization of a *seoeol* literati of Chosun. He followed the style of *changsinpung*(創新風) poetry founded by Kim Chang Hup and was, subsequently, follwed by Yi Deok Moo and Park Je Ga in the later period.

This disserta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mainly focused on *Chorimche*(椒林體) and Yi Bong Hwan's natal status of *seoeol*. This interpretation had been established by Yi's contemporary figures, Yi Kyu Sang and Shim No Sung. They had named *Chorimche* as the style typical to *seoeol*.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zation, this style is supposed to carry the affect of *seoeol* as an inferior status group, so their literature mainly contains whining about trifles and flattering remarks. Unfortunately, this interpretation has not been challenged so far, and has consolidated its mainstream status in interpretation of Yi Bong Hwan's literature. This dissertation is an attempt to put this dominant view under a critical scrutiny. But behind this interpretation lay the prejudice of *sadebu* who were vigilant against the competencies of *seoeol*.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we can discover and assess the real value of Yi Bong Hwan's literature only if we put aside this uncritical

interpretation.

Keywords : Yi Bong Hwan, *seoeol*(庶孽, concubinary son), *beolyeol sadebu*(閥閱士大夫, renowned literati family), *Tongsinsa*(通信使, Chosun's envoy to Japan), apricot blossom poems

Student Number : 2009-30007